



2012

마을문화만들기 사례와 전략 연구

A Study on the Cases and Strategies of Forming Community Culture in Seoul

라 도 삼

마을문화만들기 사례와 전략 연구

A Study on the Cases and Strategies of
Forming Community Culture in Seoul

2012

연구진

연구책임 라 도 삼 • 미래사회연구실 연구위원
연구원 이 정 현 • 미래사회연구실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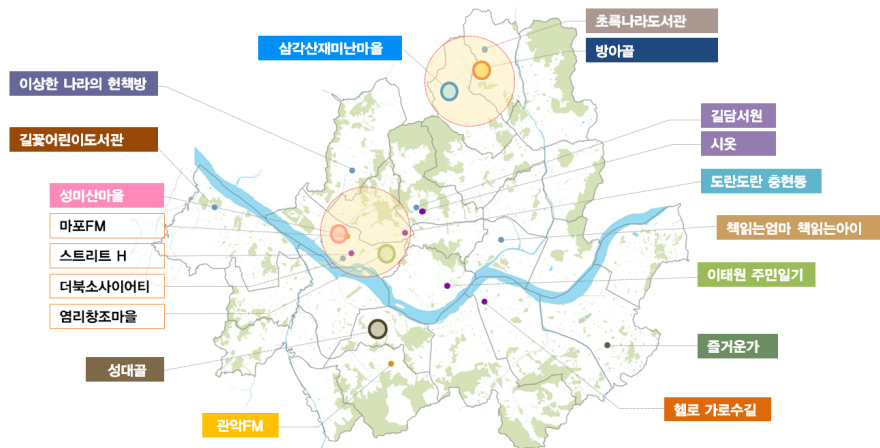
요약 및 정책건의

I. 연구개요

- 이 연구는 서울시 마을문화활동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마을문화활동을 육성·촉진하는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도된 연구임.
- 연구기간은 2012년 1월16일부터 2012년 7월15일까지이며, 주요한 연구 내용은 현장인터뷰를 통해 마을문화활동실태를 조사하고, 그 실태에 맞춰 서울시의 마을문화 정책 전반을 컨설팅하는 것임.
- 조사결과, 마을(문화)활동에 관한 한 서울의 현재적 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우선, 활동의 개체 수 자체가 적고 그 형태 또한 개인적 수준의 관심이나 욕망을 드러낸 것이 대부분임.
- 일부는 주민동아리 형태를 띠고 있으나, 이 경우는 ‘성미산마을’이나 ‘삼각산 마을’ 등 대부분 공동체적 주민활동을 통해 마을공동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마을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례임.
- 그 외 일부 지역에서 동아리 형태의 마을문화활동이 있으나 아직은 보편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남.

〈표 1〉 마을문화활동 자치구별 분포 현황

자치구	현황	자치구	현황
종로구	길담서원, 시옷	송파구	즐거운가
용산구	이태원 주민일기	마포구	염리동 참조마을, 성미산마을 마포FM, 스트리트 H 더북소사이어티
성동구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	은평구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
동작구	성대굴	서대문구	도란도란 충현동
강북구	삼각산재미난마을	강서구	길꽃어린이도서관
도봉구	방아굴, 초록나라도서관	관악구	관악FM
강남구	헬로 가로수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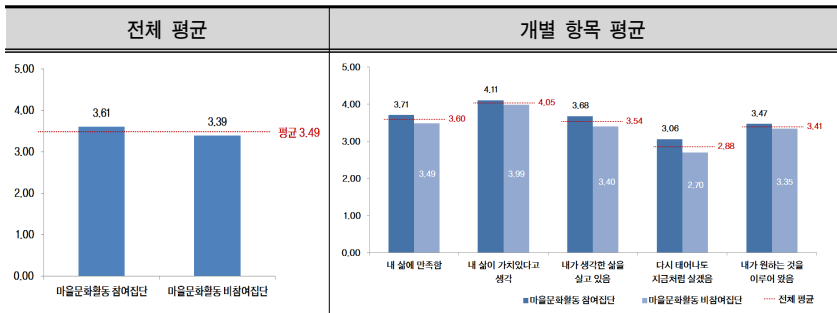


〈그림 1〉 마을문화활동 지역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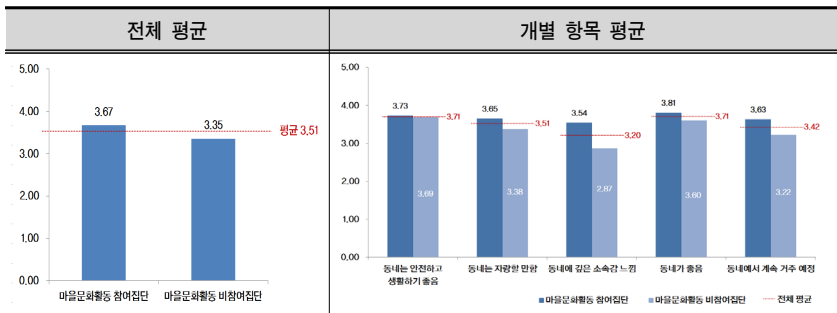
- 때문에 문화를 매개로 한 마을공동체 회복은 그리 쉽지 않은 과제임.
- 우선, 동아리 형태의 마을문화활동이 보편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공동체 형태의 마을문화활동은 마을공동체 회복이 이루어진 마을이거나 활동가적 기질을 담은 지역 내 기획자가 있어야 가능한 형태인데, 그와 같은 기획자를 찾고 양성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더불어, 잡지를 만들거나 도서관·서점을 운영하는 사람들 속에서 마을문화활동이 나타나고 있는 경우가 보이는데, 이들은 마을공동체 회복이라는 마을성 형성에 목표를 두기보다 지역에 대한 관심이거나 애착, 또는 시설 및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수단으로 선택한 형태임.
-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 회복의 전략을 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그럼에도 마을문화활동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5월22일부터 2012년 6월4일까지 마을문화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마을문화활동은 삶에 대한 만족도와 지역에 대한 만족도를 크게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조사됨.

—특히 조사의 객관성을 위해 비슷한 규모의 일반시민들을 무작위 표집하여 조사한 결과, 마을문화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들은 삶과 지역만족도에서 일반시민에 비해 유의적 차이가 있을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2〉 설문조사 결과 - 삶에 대한 태도



〈표 2〉 설문조사 결과 - 거주 지역에 대한 만족도



○이에 따라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착, 삶의 질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는 마을 문화활동 육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서울시는 이미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하에 ‘마을공동체 회복’을 세 부적 비전으로 내세우고, 경제와 복지, 문화, 교육, 주거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이 중 문화는 핵심사업 중 하나인데, 여기에는 마을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동네예술창작소 설치·지원>, <우리동네 북카페 조성 및 운영지원>, <우리동네 미디어문화교실 운영>, <마을단위 작은 미디어센터 구축> 등의 사업이 기획되어 있고, 명사들의 자료나 지역특화의 문화재 등을 통해 마을을 만드는 <지역 기반 동네박물관 조성> 사업 등이 추진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서울시 사업은 △지나치게 하드웨어 중심이고, △현재의 지역 단위 마을문화활동을 배려하지 않고 있으며, △전략적인 체계성이 없고, △문화부문이 갖는 특성보다 표준화된 행정적인 절차에 기초화되어 있어 다소 문제점을 안고 있음.

—이에 따라 마을의 현재성과 문화의 속성을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마을문화 육성정책과 마을공동체 회복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II. 정책제언

○마을문화활동 촉진 및 이를 바탕으로 한 마을공동체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마을문화의 특성과 공동체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마을문화 특성을 살펴보면, 마을문화는 자기개발을 목표로 하는 활동이라기보다는 주민과의 관계형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라 볼 수 있음.

—여기에는 예술적 장르가 중시되지 않으며, 주민과의 관계 형성을 위한 다양한 욕구와 이에 바탕을 둔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 전제되어 있음. 예컨대 카페를 연다거나 목공방 등을 열어 주민과 관계를 맺는 등 다양한 형태가 마을을 형성하는 하나의 문화형태로 등장하고 있음.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마을문화의 다양성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임. 따라서 서울 마을문화활동의 현재적 조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함.

1. 정책기조

- 향후 마을문화활동의 육성하기 위한 정책은 다음과 같은 정책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기존 문화활동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이를 의미화·기호화하는 작업이 필요함.
 - －둘째, 각 마을문화활동을 연결하고 서로 학습하도록 하여 서로가 서로의 장점을 취하고, 서로에 대한 학습을 통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자발적·자생적 형태의 발전모델을 지향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마을축제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이를 외부화하는 작업이 필요함.
 - －넷째, 직접적인 지원보다 마을단위 문화활동을 하고자 하는 주민이 나타날 경우, 이를 인정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항목을 적극적으로 후원해주는 시스템 및 관련 인프라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을문화활동 및 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공공시설에 대한 혁신이 필요함. <문화예술회관> 및 <문화체육센터>, <사회복지관>, <주민자치센터>에 다양한 동아리가 있는 만큼, 이들을 활용하여 지역사회로 나가도록 하는 한편, 시설 내 공간을 주민자치형 마을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것 또한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과제임.

2. 추진사업

- 마을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이들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함.

- 그러나 그 사업은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이 아닌, 문화활동을 하기 위한 분위기, 쉽게 말해 마을중심의 문화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 문화활동이 나타났을 때 이를 관리하고 후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함.
- 이에 따라 마을문화활동 마케팅 사업과 마을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 사업, 마을문화축제 및 박람회의 개최 등을 제안함.
- 또한 장기적으로 각 마을 간 서로의 활동을 교류하고 이를 통해 서로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마을문화은행’ 등과 같은 형태의 시스템 구축을 제안함.

추진사업 1 : 마을문화활동 지원사업		
추진 목적	마을 내 주민문화활동 지원	
추진 방향	경제적 지원이 아닌, 문화활동 촉진을 위한 분위기 형성 및 활동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발에 주력	
추진 사업	마을문화활동 마케팅	소식지 발간, 온-오프라인 홍보, 사례지 탐방프로그램 운영
	마을문화활동 지원인프라 구축	마을문화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 및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유하도록 하는 사업 - 거점별 활동지원센터 마련(기존 기관 활용) - 상호연계시스템 구축·운영
	마을문화축제 또는 박람회 개최	마을문화활동을 결산하고 네트워킹하며, 아카이빙하는 사업
비고	마을문화은행 운영	위 사업을 지원하는 형태의 마을문화은행 설치·운영 - 마을문화활동을 적립하고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은행 - 이후 가상화폐로까지 확대 가능 ¹⁾

- 다른 한편, 마을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에서 활동할 기획자 및 전문(예술)가 육성과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마을문화활동가 측면에서 이들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활동을 독려할 전문(예술)가는 마을문화활동 촉진 및 육성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임.

1) 성남시 사랑방문화클럽은 ‘넙실’이라는 가상화폐로 도시단위 문화클럽을 양성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을 ‘마을문화활동가’들로 인증하고, 이들에게는 다양한 활동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마을문화활동가 협동조합 구성 등을 통해 보다 책임감을 갖고 지역 내에서 활동하도록 체계화된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음.

추진사업 2 : 마을문화활동가 지원사업		
추진 목적	마을 내 활동할 수 있는 예술가 및 기획자, 전문가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추진 방향	활동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비 지원 및 활동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사업 추진	
추진 사업	마을문화활동가 지정 및 육성	각 마을 내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를 인증하는 프로그램 - 각 마을 내 활동하는 활동가를 인증하여, 마을학교 등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유도함
	마을문화활동가 협동조합 구성	마을에서 활동하는 문화활동가를 위한 협동조합 구성·운영 - 조합을 통해 보다 안정적·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체계적인 지원체계 내로 포섭함
	마을문화지원 기업 및 단체(기관) 후원사업	마을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집단들을 후원함으로써 지원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민간협찬을 통한 지원의 크기를 키우는 사업 추진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마을문화활동을 위한 제반의 시스템 및 인프라를 갖추는 것임.

- 제반의 지원시스템과 관련된 인프라를 형성하는 것은 마을문화 속성상 매우 중요한 과제임.
- 마을문화가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면, 직접적 사업을 통해 만들면 되지만, 마을문화는 그 속성상 주민들이 주도로 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직접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님.
- 이에 관련된 시스템을 갖춰놓고, 이를 기반으로 제반의 활동이 나타났을 때 이를 후원하는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마을문화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공공시설의 마을문화 공간화 사업 등을 적극 제안함.

추진사업 3 : 마을문화활동 지원시스템 및 인프라 조성 사업		
추진 목적	마을 내 문화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프라를 조성함.	
추진 방향	기존 공공시설 및 신규설치 시설 등을 혁신하여 마을문화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및 기반으로 활용	
추진 사업	마을문화지원센터 설치 · 운영	각 마을 내 활동 및 각 시설과 공간, 단체 등의 운영과 활동을 지원할 지원기구 구성 - 별도의 설치보다는 기존 공공시설을 혁신하여 구성 - 거점별 구성을 원칙으로 하되, 현실성을 판단하여 서울지역 내 종합지 원센터 우선 설치
	마을문화공간으로 공공시설 혁신사업	각 지역 내 분포되어 있는 공공시설을 마을문화활동 시설로 혁신 -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자율적 혁신유도 - 자율형 마을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목 차

제1장 연구개요	3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5
제2장 마을문화의 개념과 형성을 위한 노력	11
제1절 마을문화의 개념과 특성	11
1. 마을문화의 개념	11
2. 마을문화와 마을문화활동	14
제2절 마을문화의 의미와 중요성	18
제3절 마을문화 형성을 위한 전략과 노력	20
1. 공공예술에서 공동체예술까지	20
2. 우리나라에서 마을문화를 위한 진화	26
3. 한계와 문제점, 그리고 주어진 현실	30
제3장 마을문화활동 현황과 실태조사	33
제1절 조사설계	33
1. 조사대상의 선정	33
2. 조사 방법 및 일정	34
제2절 조사결과 : 마을문화의 현장과 실태	34
1. 지역잡지	34
2. 공동체라디오	56
3. 도서관 및 서점	62
4. 마을단위	97

제4장 마을문화활동 실태 분석 및 설문조사	155
제1절 마을문화활동 실태 분석	155
1. 마을문화활동 특성 분석	155
2. 결과종합 : 마을문화활동 성공요인	164
제2절 설문조사 결과분석	166
1. 마을문화활동을 하는 활동가 대상 설문	166
2. 일반시민 대상 설문	175
제5장 서울시 마을문화 육성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97
제1절 서울시 정책과 전략의 현실	197
1. 마을공동체 회복사업	197
2. 문화부문 사업	205
제2절 사업시행과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208
1. 주요 사업의 시행	208
2. 사업시행의 문제점	214
제6장 마을문화 육성을 위한 전략	223
제1절 사업추진의 기본방향	223
1. 마을문화활동의 현실진단	223
2. 기본방향 제안	224
제2절 사업추진전략과 추진구상	228
1. 추진전략	228
2. 주요추진 사업	229

제7장 결론 : 서울시 마을문화실태 및 사업전략	239
참고문헌	247
부 록	253
영문요약	263

표 목 차

〈표 2-1〉 마을문화활동과 지역단위 자기개발활동	16
〈표 2-2〉 공공미술의 시대구분과 특징	21
〈표 2-3〉 현재 공공미술의 흐름	22
〈표 2-4〉 공공예술사업과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비교	28
〈표 2-5〉 각 부처 지역대상 문화사업 정책 현황	29
〈표 3-1〉 조사대상 사례 선정결과	34
〈표 3-2〉 도란도란 충현동 - 2012 주민기자 양성을 위한 행복한 글쓰기 교실	49
〈표 3-3〉 전국 공동체라디오 운영 현황	57
〈표 3-4〉 길꽃어린이도서관 개요	63
〈표 3-5〉 길꽃어린이도서관 2012년 운영 프로그램	69
〈표 3-6〉 제3회 강서어린이동화축제 참여기관 및 인원	72
〈표 3-7〉 길꽃어린이도서관 - 제5기 독서문화이꿈이 과정	72
〈표 3-8〉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 개요	74
〈표 3-9〉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 - 2011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77
〈표 3-10〉 초록나라도서관 개요	80
〈표 3-11〉 길담서원 개요	84
〈표 3-12〉 더북소사이어터 2012년 진행 행사	95
〈표 3-13〉 2012 성미산마을 축제 프로그램	105
〈표 3-14〉 제3회 성미산동네연극축제 프로그램(2012)	106
〈표 3-15〉 제3회 성미산마을문화예술동아리 축제 ‘아리아리 동동’ 프로그램(2012)	106
〈표 3-16〉 2012 무늬만 학교 교육과정 및 내용 - 행복한 십대들의 인문(人文+文化)놀이터	113
〈표 3-17〉 재미난 카페에서 진행되는 강좌	115

〈표 3-18〉 2009 생활문화공동체사업 - 마포구 염리동	123
〈표 3-19〉 2011 똑똑한 소금마을 이야기 사업 내용	124
〈표 3-20〉 도깨비방 개소식 프로그램	132
〈표 3-21〉 〈도깨비공원재생위원회〉의 도깨비공원 재생을 위한 토크쇼 진행	134
〈표 3-22〉 성대골 어린이도서관 개요	137
〈표 3-23〉 성대골 별난공작소 강좌	141
〈표 3-24〉 우리동네마을상담센터 사업 내용	141
〈표 4-1〉 마을문화활동 자치구별 분포 현황	157
〈표 4-2〉 마을문화활동 장르별 현황	160
〈표 4-3〉 마을활동의 주체	163
〈표 4-4〉 마을문화활동 추진동기별 현황	164
〈표 4-5〉 설문 구성	167
〈표 4-6〉 인구통계학적 특성	168
〈표 4-7〉 자신이 하는 일이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이라는 것에 대한 동의	169
〈표 4-8〉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	169
〈표 4-9〉 앞으로 마을문화활동은 더욱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동의	170
〈표 4-10〉 마을문화 육성·발전을 위해서는 마을문화활동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동의	171
〈표 4-11〉 서울시 마을공동체 복원사업 인지도	171
〈표 4-12〉 서울시 마을공동체 복원사업 적절성	172
〈표 4-13〉 서울시 마을운동 성공여부	172
〈표 4-14〉 서울시 마을문화활동 관련 사업에 대한 적절성	173
〈표 4-15〉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데에 있어 문화의 중요성	174
〈표 4-16〉 서울시에서 마을문화활성화 사업 추진 시 목표로 해야 할 것	175

〈표 4-17〉 설문 구성	176
〈표 4-18〉 신뢰도 검정	177
〈표 4-19〉 인구통계학적 특성 - 성별	178
〈표 4-20〉 인구통계학적 특성 - 연령	178
〈표 4-21〉 인구통계학적 특성 - 결혼	179
〈표 4-22〉 인구통계학적 특성 - 자녀 유무	179
〈표 4-23〉 인구통계학적 특성 - 거주기간	180
〈표 4-24〉 인구통계학적 특성 - 거주형태	180
〈표 4-25〉 마을문화활동 참여기간	181
〈표 4-26〉 마을문화활동 참여형태	181
〈표 4-27〉 마을문화활동 참여단체	182
〈표 4-28〉 마을문화활동 참여정도	182
〈표 4-29〉 마을문화활동 참여만족도	183
〈표 4-30〉 마을문화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183
〈표 4-31〉 마을문화활동 참여의향	184
〈표 4-32〉 집단별 문화에 대한 태도에 관한 T-검정 결과	185
〈표 4-33〉 지역에 대한 태도	187
〈표 4-34〉 지역에 대한 태도에 관한 T-검정 결과	187
〈표 4-35〉 삶에 대한 태도	189
〈표 4-36〉 삶에 대한 태도에 관한 T-검정 결과	189
〈표 4-37〉 거주 지역에 대한 만족도	190
〈표 4-38〉 거주 지역 만족도에 관한 T-검정 결과	191
〈표 4-39〉 서울시에 대한 태도	192
〈표 4-40〉 서울시에 대한 태도에 관한 T-검정 결과	192

〈표 4-41〉 지역에 대한 태도 및 만족도, 삶에 대한 태도, 서울시에 대한 태도에 관한 T-검정 결과	193
〈표 5-1〉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내용	201
〈표 5-2〉 서울시 사업추진을 위한 대상마을 분류	201
〈표 5-3〉 기존 마을문화사업의 특징과 서울시 사업	203
〈표 5-4〉 마을공동체 미디어 네트워크 추진계획	207
〈표 5-5〉 동네예술창작소 조성 시범사업 예상후보지	209
〈표 5-6〉 시범자치구별 동네예술창작소 추진모델(진행 중인 안)	211
〈표 5-7〉 입장에 따른 〈마을미디어센터〉 추진방향 차이	212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진행 모형	7
〈그림 2-1〉 마을과 마을문화의 관계	11
〈그림 2-2〉 연구 내 마을문화의 개념 규정	13
〈그림 2-3〉 마을문화의 특성과 영역	17
〈그림 2-4〉 예술의 변화와 마을예술	26
〈그림 3-1〉 헬로 가로수길 참여 멤버 모습, 배정현씨 작업실 WASH	36
〈그림 3-2〉 하이네켄 아트워크 포스터	37
〈그림 3-3〉 헬로 도교, 헬로 슈에무라	37
〈그림 3-4〉 헬로 가로수길 9호(다이어리)	38
〈그림 3-5〉 헬로 가로수길 10호(포스터)	38
〈그림 3-6〉 아코디언 북 발간	41
〈그림 3-7〉 “안녕들 하십니까?”展	41
〈그림 3-8〉 스트리트 H 1호 및 스트리트 H 블로그	42
〈그림 3-9〉 〈스트리트 H〉 map	44
〈그림 3-10〉 시웃 창간호	45
〈그림 3-11〉 충현동 마을잔치 열싸안Go 모습	48
〈그림 3-12〉 도란도란 충현동 주민기자단 교육 및 인터뷰 모습	50
〈그림 3-13〉 이태원 주민일기 기획자 정신, 사이이다 인터뷰 모습	51
〈그림 3-14〉 이태원 주민일기 책	51
〈그림 3-15〉 이태원 주민일기 프로젝트	54
〈그림 3-16〉 제1회 이태원 주민시장	55
〈그림 3-17〉 마포FM 스튜디오 및 방송 모습	59
〈그림 3-18〉 관악FM 스튜디오 및 사무실 모습	61
〈그림 3-19〉 관악FM 오픈스튜디오	61

〈그림 3-20〉 길꽃어린이도서관 김동운 관장	65
〈그림 3-21〉 길꽃어린이도서관 전경	65
〈그림 3-22〉 제3회 강서어린이동화축제 준비과정	72
〈그림 3-23〉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 전경 및 내부 1층, 2층 모습	74
〈그림 3-24〉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 활동 모습	78
〈그림 3-25〉 길담서원 박성준 대표 인터뷰 모습	84
〈그림 3-26〉 길담서원 전경	84
〈그림 3-27〉 길담서원 출간 책 및 한뼘미술관	86
〈그림 3-28〉 길담서원 내부 풍경 및 피아노 모습	87
〈그림 3-29〉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 윤성근 대표 인터뷰 모습	88
〈그림 3-30〉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 내부 모습 1	88
〈그림 3-31〉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 청소년 문화제	90
〈그림 3-32〉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 〈심야책방〉 풍경	90
〈그림 3-33〉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 내부 모습 2	91
〈그림 3-34〉 더북소사이어티 전경 및 내부 모습	93
〈그림 3-35〉 더북소사이어티행사	96
〈그림 3-36〉 성미산마을지도	99
〈그림 3-37〉 성미산마을극장 모습	101
〈그림 3-38〉 성미산마을동아리 활동 모습 - 무말랭이, 동네사진관, 성미산풍물패 ..	101
〈그림 3-39〉 성미산 작은나무 카페 풍경	103
〈그림 3-40〉 2012 성미산마을축제 풍경	104
〈그림 3-41〉 삼각산재미난마을 인터뷰	108
〈그림 3-42〉 삼각산재미난마을 마을문화활동 거점 현황	109
〈그림 3-43〉 청소년문화공동체 〈품〉 활동 모습	110

〈그림 3-44〉 청소년문화공동체 품 - 십대와 마을만들기	114
〈그림 3-45〉 재미난 카페 풍경	116
〈그림 3-46〉 삼각산재미난마을 동아리 활동 모습 (극단 우이동, 마을밴드JB, 마을목공소)	117
〈그림 3-47〉 2012년 5월 강북마을장터 풍경	118
〈그림 3-48〉 삼각산재미난마을의 네트워크 형성 현황	119
〈그림 3-49〉 마포시는 황부자 연습 및 공연 모습	122
〈그림 3-50〉 염리동 소금카페 풍경	126
〈그림 3-51〉 방아골 도깨비방 및 안방 모습	130
〈그림 3-52〉 담쟁이(아동벽화동아리) 활동	131
〈그림 3-53〉 도깨비방 개소식 모습	132
〈그림 3-54〉 참새방아간 도서관 - 빛그림자 연습 및 공연 모습	133
〈그림 3-55〉 도깨비 토크쇼 포스터 및 진행 모습	134
〈그림 3-56〉 골목대장터 모습	135
〈그림 3-57〉 우리동네 골목문화제 모습	135
〈그림 3-58〉 성대골 어린이도서관 김소영 관장 인터뷰	137
〈그림 3-59〉 성대골 어린이도서관 현황	137
〈그림 3-60〉 제7회 성대골 어린이도서관 마을장터 모습	138
〈그림 3-61〉 성대골마을학교 모습	138
〈그림 3-62〉 마을카페 사이시옷 현황	139
〈그림 3-63〉 성대골 별난공작소 현황	140
〈그림 3-64〉 우리동네마을상담센터 현황 및 개소식 모습	141
〈그림 3-65〉 즐거운가 운영자 인터뷰 모습	148
〈그림 3-66〉 즐거운가 내 · 외부모습	148

〈그림 3-67〉 즐거운가 내부 모습	148
〈그림 4-1〉 마을문화활동 지역별 현황	157
〈그림 4-2〉 마을문화활동 형성연도별 현황	158
〈그림 4-3〉 서울의 마을공동체 형성에 관한 의견	170
〈그림 4-4〉 마을문화 조성을 위해 서울시가 해야 할 일	174
〈그림 4-5〉 문화에 대한 태도	185
〈그림 4-6〉 지역에 대한 태도 및 만족도, 삶에 대한 태도, 서울시에 대한 태도 ...	193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새로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전혀 낯설고 새로운 전경이다. 지역사람들이 지역-동네이건 마을이건-의 소식을 전하고자 잡지를 만들고, 마을사람들끼리 모여 공연을 하며, 밴드연습을 한다. 예전엔 공공예술사업 차원에서, 문화복지 사업차원에서 했던 일인데, 오늘날엔 주민 스스로 자기들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자발적인 일’로 하고 있다. 뭔가 바뀐 양상이다.

2011년 10월 30일 KBS 시사채널 <취재파일 4321>은 ‘동네의 재발견, 동네 잡지’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바 있다. 보도 내용은 도시 내에서 ‘동네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동네 소식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었다. 서촌의 <시옷>편집장 최용훈씨, <스트리트 H>의 장성환씨, <이태원 주민일기>의 ‘사이이다’, ‘나난’ 등이 이러한 사람들로 소개되었다. 이들은 하나같이 동네가 갖고 있는 전경을 잃어버릴 수 없어 이를 기록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주민들은 동네잡지가 공공기관에서는 하지 못하는, 사회의 모세혈관에 피를 돌게 하는 일을 해준다고 말합니다. (중략) 초고속으로 새로운 것이 생겨나고 그만큼 빨리 잊혀지는 ‘스마트’ 시대, 내가 살고 있는 곳의 주변을 한 번 더 돌아보게

하며, 조금은 느리고 긴 호흡을 안겨주는 것이 종이잡지가 전하는 가장 기쁜 소식일지 모릅니다.”¹⁾

주민이 스스로 모여 마을을 만들어 가는 현상! 이는 하나의 경향일지 모른다. 이미 오래 전부터 공공예술사업이나 공동체 예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온 결과, 우리 곁엔 그런 문화들이 움트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예컨대 <한국문화관 광연구원>이 펴낸 『2012 문화예술의 새로운 흐름 분석 및 전망』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문화예술의 트렌드 중 하나로 ‘예술가와 주민이 함께 만드는 동네문화’가 제시되고 있다. 예술가와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지역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술벼룩시장 확산’, ‘지역주민이 만드는 동네잡지의 인기’ 등이 그런 사례다.²⁾

마을주민이 만들어 가는 문화, 즉 ‘마을문화’는 그렇게 우리의 현실이 되었는지 모른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과연 서울에 그런 문화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조사하기로 하였다. 즉, 서서히 이야기되고 있는 마을 문화의 현상과 실태를 진단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이다.

다른 한편,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된 중요한 계기는 박원순 시장의 취임이다. 박시장의 취임은 마을문화 연구에 중요한 필요성을 부가하였다. 익히 알다시피, 박시장의 주요 시정목표는 ‘마을공동체 회복’이다.³⁾ 마을단위의 공동체(성)를 회복하여 삭막한 도시환경에서 벗어나, 서로 믿고 사는 서울로 만들겠다는 것이 박시장의 목표다.⁴⁾

1) 송영국, ‘동네의 재발견, 동네잡지’, KBS <취재파일 4321> 2010.10.30.

2) 제시된 동네잡지는 <헬로우 가로수길>, <스트리트 H>와 <홍대찾기>, <시웃>, <문래동네>와 이태원 <사이사이>, 부산의 <보일러>, <안녕 광안리>, <B-Art> 등이다.

3) 서울시가 내세운 콘셉트는 공동체 복원이 아닌 회복이다. 복원과 회복은 분명 다른 개념이다. 복원이 원래 있던 것으로 되돌아가는 개념이라면, 회복은 원래 상태의 기운을 찾는 것이다. 다시 말해 원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운을 되찾는 것으로, 마을공동체 회복이란 개념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공동체성으로 도시의 기운을 찾는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4) 마을공동체 회복은 ‘희망시장’ 주요과제로 선정되어 있다. 희망시장 주요과제 15는 “마을공동체를 육성하여 따뜻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로 △마을공동체 육성, △마을생태계 회복, △커뮤

마을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있어 문화는 매우 중요하다. 문화는 지역 내 고유한 정서감 형성을 통해 지역을 마을로 묶어내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지역 사람들을 결합시켜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의 계기를 만들어 주고 마을형성의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각 마을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마을문화활동이 있고, 마을을 만들어 가는 여러 가지 선행을 살펴보면, 그 과정에는 대부분 문화를 매개로 한 마을의 형성과정의 전제되어 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마을공동체 회복에 있어 문화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서울 내에서 마을공동체의 회복이나 그와 같은 역할을 기대하고 살펴볼 수 있는 지역단위의 문화활동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그 과정을 통해 마을문화의 현실 및 마을공동체 회복의 여건과 조건을 살펴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서울의 마을문화 현실과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이 연구는 우선, 각 지역 내 다양한 유형의 문화활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지역 내 문화활동은 본격적으로 마을을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다만, 이 연구는 이 과정에서 마을문화활동의 가능성과 여건, 마을문화활동으로 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즉, 현실의 여건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마을문화를 형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 이 연구의 의도다.

둘째,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지역단위의 문화활동 연구를 통해 마을문화 육성의 방향과 방법, 그리고 전략적인 정책과 시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니터 조성, △사람중심 마을만들기 등을 통해 ‘함께하는 마을, 따뜻한 서울’을 만들겠다는 정책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 ; 2012~2014>, 서울시, 2012, p.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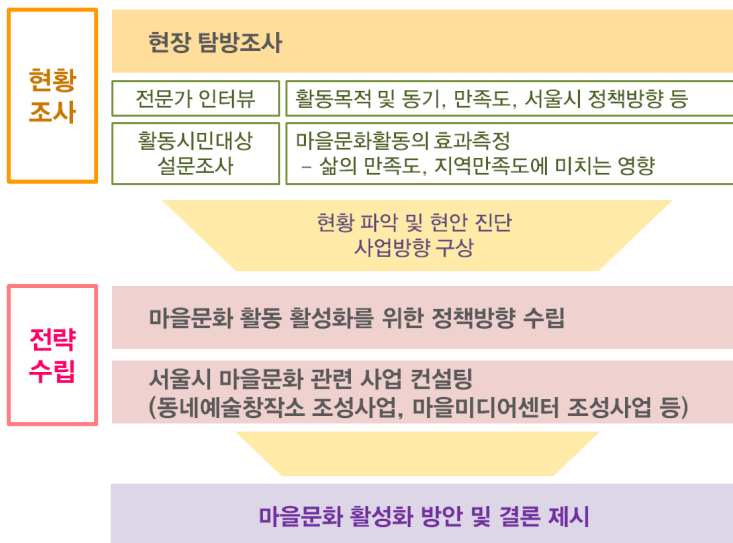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마을문화, 직접적으로 말하면, 지역단위 문화활동은 다양한 양태를 지니고 있다. 그런 문화활동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문화정책에서는 살펴볼 수 없었던 조심스러움이 필요하다. 즉, 지역민들의 자발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활동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회복하고, 목표 자체를 마을공동체 회복으로 조정하는 것 등이 필요한데, 과연 이러한 조정과 변화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연구는 서울의 현재적 조건하에서 마을문화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고, 그 과정에서 현재의 시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 회복 사업의 방향과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마을공동체 회복에서 문화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과연 마을공동체 회복 과정에서 문화를 어떻게 매개시키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를 통해 마을공동체 회복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 연구는 이를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지역 내에서 마을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하건 아니면 어떤 것이건, 공동체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문화활동(가)을 찾아 활동의 계기 및 방법, 현안 등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 서울의 마을문화활동의 실태를 진단하고 마을문화 활성화 및 육성을 위해 해야 할 사업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마을)문화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마을문화활동의 동기 및 목적, 만족도, 서울시 정책의 방향 등을 묻고자 하였다.

이어 이 연구는 마을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마을문화활동이 미치는 ‘삶에 대한 만족도’ 및 ‘지역에 대한 만족도’, ‘마을시정에 대한 이해’ 등에 관한 부분, 마을문화활동이 갖는 의미와 시정에서의 중요성에 대해 조사하고자 하였다. 특히,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동일한 조사를 시행해 마을문화활동을 하는 시민과 그렇지 않은 시민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삶의 만족도에 대한 차이, 그리고 지역만족도와 시정에 대한 이해 등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서울시 마을관련 사업과 시정의 방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서울시는 지금 ‘동네예술창작소’를 비롯하여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이 어떤 의미와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 현재의 마을문화 수준 선상에서 살펴보고 토론하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해 마을문화 육성 및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정의 방향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동네예술창작소’ 및 ‘마을미디어센터’ 조성사업 등에 참여해, 시정의 운영방향을 모니터링하고 주요 정책방향을 컨설팅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연구는 2012년 1월16일부터 2012년 7월15일까지 진행되었다.



〈그림 1-1〉 연구진행 모형

제2장 마을문화의 개념과 형성을 위한 노력

제1절 마을문화의 개념과 특성

제2절 마을문화의 의미와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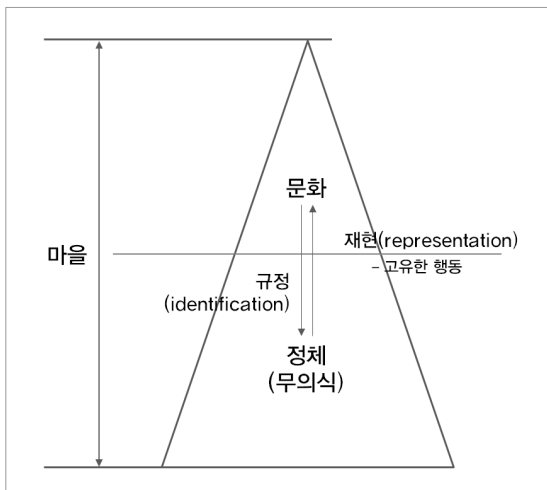
제3절 마을문화 형성을 위한 전략과 노력

제2장

마을문화의 개념과 형성을 위한 노력

제1절 마을문화의 개념과 특성

1. 마을문화의 개념



〈그림 2-1〉 마을과 마을문화의 관계

을 내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행동유형이다. 이 행동유형은 마을에 정체된 하나의 가치, 즉 잠재된 의식체계와 사유-무의식적 구조가 내재한다. 달리 말해 그 지역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마을문화의 정의에 대한 것이다. 마을문화란 크게 해석하면,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특정한 행동 유형을 말하는 것이다. 곧 하나의 지역에서 나타난 고유한 행위의 유형으로, 그것은 장르적인 활동이나 미학과 관계가 없다. 그것은 단지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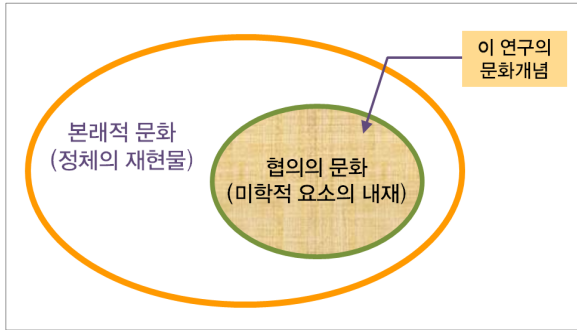
에 내재된 가치가 재현된 형태가 문화다. 우리는 이 문화를 통해 그 지역에 잠재된 가치를 볼 수 있으며, 이 문화로서 비로소 그 지역에 마을이 구성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마을이란 힐러리(Hillery H., 1955) 등이 얘기하듯, 단순한 지리적 공유체가 아니라 ‘동일한 물리적 공간을 점유하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에 기초하여 가치를 공유하는 집단’이기 때문이다.⁵⁾ 그럼으로써 마을문화는 지역을 단위로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집단-마을공동체-이 표현하는 어떤 특정한 행동의 유형을 말하게 되며, 이러한 한도 내에서 마을문화는 지역이 정체하고 있는 무의식적 체계의 재현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만 이해하게 되면, 마을문화는 마을 내 나타나는 모든 형태로 규정할 수 있다. 예컨대 지역의 어지러운 거리, 더러운 화장실, 질서를 지키지 않는 모습 등 그 모든 것들이 마을문화다. 이런 관점의 문화에 대한 해석은 때론 정체된 어떤 것이 재현된 형태로 문화를 바라본다는 점에서 타당하나, 매우 자학적이고 자조적인 용어로 문화를 사용할 수 있음도 보여주게 된다. 원래 ‘화장실문화가 그래서 그래’라는 표현이나 ‘우리 문화가 원래 그렇잖아’라는 표현 등은 이런 자학성과 자조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때문에 마을문화는 정체된 어떤 것 중 그와 같은 자학성과 자조성을 배제하는, ‘미학적인 어떤 것’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미학적인 어떤 것은 ‘예술적인 것’일 수도 ‘시간적인 것’, 즉 ‘전통적인 어떤 것’일 수도 있다. 그 지역에 내재하는 지역적 정체감을 미학적으로 재현한 영역이 마을문화이며, 그러는 한에 있어 마을문화는 지역 내 내재하는 정체감의 표현된 형태이자 그 내부의 미학적 형태라고 개념 정의할 수 있다.

이 마을문화란 마을 내 오래된 정체감을 표현한다. 그것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그 정체감이란 마을 내 오래 된 관계들의 표현이다. 이 관계들이란 주민과

5) 공동체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이 얘기한 바 있다. 학자들의 견해를 요약하면, 공동체란 지리적 근접성에 정서적 유대감을 함께하는 지역적 집단을 말한다. 물론, 최근에는 온라인 공동체가 주력이 되면서 전자인 지리적 근접성은 다소 탈각되거나 괄호쳐지는 양상이 보이지만, 공동체의 핵심은 상호작용성과 이를 통한 집단적 유대감이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그림 2-2〉 연구 내 마을문화의 개념 규정

의 관계에서부터 마을(지역)의 구조 등과 같은 물리적 요소와 더불어 오래된 관습이나 법, 제도 등을 포함한다. 즉, 마을을 구성하는 요소가 모두 내재된 것이 마을의 정체감이다.

문제는 이런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정체감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정체감이란 이런 요소들이 각 개인의 의식구조하에 무의식적으로 정체되어, 각 개인의 행동을 규제하거나 규정할 때 형성된다. 즉, 일상 속으로 드러나 그 가치를 표현할 수 있을 때 그것은 정체감이 되며, 그로부터 마을문화는 형성된다.

그 관계의 형성, 정체감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우선 오랜 시간의 축적이 필요하다. 시간의 축적이란 마을 내 내재된 관계의 요소의 정체(停滯), 즉 머무름을 말한다. 오랜 시간을 거쳐 이 관계가 형성되어야만 개인의 의식구조하에 무의식적으로 잠재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잠재된 요소가 그 모습을 드러내야, 달리 말해 일상의 행동이나 행위를 규제할 수 있어야 비로소 문화가 된다. 문화란 오랜 시간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며, 개인 속에 잠재된 무의식적인 결과물이다.

더불어 문화란 다양한 주민들의 활동으로부터도 형성된다. 활동이란 매우 ‘의식적이고, 문화적인 양태의 활동’을 말한다. 즉, 미학적인 영역의 활동으로 지역 내에서 주민들과 관계를 맺고 지역 내에서 예술적인 활동을 할 경우, 마을 문화는 빠르게 형성될 수 있다. 마을문화란 주민 간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으로, 예술을 통한 관계맺기는 주민 간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며, 미학적인 요소로 주민 간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기에 마을 내부에 미학적인 정체감 형성을 가능케 한다. 그러므로써 마을문화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주민 중심의 마을문화활동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마을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은 어떤 사건이나 계기와 같은 것이다. 새로운 인물의 유입이나 정부의 사업 추진, 지역에서 있었던, 마을 정체를 변화시킬 만한 충격적인 사건 등은 모두 그 지역을 기호화하고 정체화하도록 돕는다. 그럼으로써 마을은 그 문화를 변화시키며 새롭게 발전한다. 마을문화란 다른 문화의 영역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계기를 통해 형성되는 융합과 혼합을 통해 발전하는 것이다.⁶⁾

이처럼 마을문화는 특정 지역을 바탕으로 형성된 공동체적 무의식의 외화된 재현물을 가리킨다. 그 재현물은 미학적인 영역에 관계해 있어야 하며, 그것을 통해 해석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을 ‘문화적’으로 정체하는 요소로 작동할 수 있다.

마을문화가 형성되는 것은 오래된 시간과 주민들의 활동, 마을 내 형성된 사건과 계기 같은 것들에 의해서다. 이를 통해 마을 내 관계가 지역사회 내 침전되어 개인들의 무의식 체계 내에 잠재되어 있을 때 마을문화는 형성되며, 그들의 행동과 행위의 양태를 통해 그 실체를 드러낸다. 마을문화는 마을이 형성된 결과이자 마을을 마을답게 만드는, 지역의 정체요소이자 지역을 읽고 기호화하는 핵심요소다. 그런 점에서 마을문화는 마을을 표현하고 재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마을문화와 마을문화활동

마을문화는 지적인 바와 같이, 마을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특정 지역 내에서 형성되는 고유하고 정체화된 행동과 행위의 체계라 말할 수 있다. 이 체계는 마

6) 다니엘 벨(D. Bell)은 사회를 경제와 정체, 문화의 영역으로 나누고 각각의 영역은 서로 다른 발전체계를 갖고 있다고 말한다. 경제의 영역은 단선적인 반면, 정체의 영역은 양자택일적이다. 같은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택할 수도, 독재를 택할 수도 있다. 이에 반해 문화는 혼합적이다. 어떤 것과 어떤 것이 섞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D. Bell, 1980, *The Winding Passage ; Essays and Sociological Journeys*, Massachusetts, 서규환 옮김, 1992, 『정보화 사회와 문화의 미래』, 디자인하우스).

을을 정제화하며, 기호화한다. 그럼으로써 마을을 비로소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마을문화다.

이 마을문화가 형성되는 중요한 조건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오랜 시간의 축적이다. 즉, 오랜 시간을 통해 마을 내에 정제화되고, 그 실체를 드러냈을 때 마을문화는 가장 뚜렷하고 안정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마을을 전제로 한 것이다. 즉, 마을이 구성된 다음에 형성될 수 있는 것이 마을문화의 개념이다.

그런데 마을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을문화는 어떻게 구성되는 것일까? 실제로 마을이 구성된 지역은 그리 많지 않다. 더구나 서울처럼 특정한 지역이나 생활권 내부의 단위가 아닌, 도시 전체에 각각의 기능을 배치하고 서로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도시구조를 만든 경우, 마을이 형성된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특별한 대안성이거나 현실의 도시구조 또는 지배질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개별적 욕구를 집단적 혹은 지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운동인 경우가 많거나 대부분이다. 특히 도시의 성장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마을 성을 삭제하거나 배제한 상태에서는 더욱 그렇다.

문제는 그런 현실에서 마을문화란 과연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만약 온전하게 마을이 발전하고 형성되어 왔다면, 마을별로 존재하는 문화적 양태를 살펴보고 그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핵심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서울과 같이 마을 자체가 없는 현실에서는 그와 같은 방향으로 연구할 수는 없다. 오히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마을의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활동, 즉 지역적 단위에서 주민 간 관계를 만들어 가고 서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미학적인 노력과 활동’이 좀 더 주요한 연구방향이다. 즉, 마을을 단위로 한 문화활동이 현실적인 의미의 가장 적합한 마을문화의 ‘현재적 사례 분석’이라 할 수 있다.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유형의 문화활동이 있을 수 있다. 이 중에는 지역을 매개로 한 자기개발 활동과 주민 간의 관계형성을 목표로 한 문화활동이 있을 수 있다. 이 둘은 문화활동이란 측면에선 그 특징을 공유하나 그 내용과 목적면에선 서로를 달리한다. 즉, 전자가 마을을 단위로 한 그야말로 자기개발을 목적

으로 하는 ‘아마추어 활동’을 말한다면, 후자는 마을주민과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지향적 활동, 즉 문화를 매개로 한 활동을 말한다. 마을문화활동은 후자가 되어야 하며 그런 점에서 마을문화활동은 문화를 목표로 한 활동과 그 궤를 달리한다.

우선 전자는 자기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때문에 수준의 향상이 목표로 그 결과를 특정한 계기나 이벤트를 통한 발표나 발표를 목적으로 한 축제나 사업 등의 참여에 맞춘다. 반면, 후자는 마을형성을 목표로 하기에 자기개발을 통한 뛰어난 실력 갖추보다 지역 사람들과 어울릴만한 정도의 수준향상을 목표로 한다. 때론 지나치게 뛰어난 수준이 주민 간 관계를 훼손할 수도 있고, 그와 같은 목표의 드러냄이 주민 간 관계를 방해할 수도 있다. 그들은 그 행동의 결과를 마을축제나 행사 등 주민 간 공유활동에 쓰고자 하며, 그럼으로써 마을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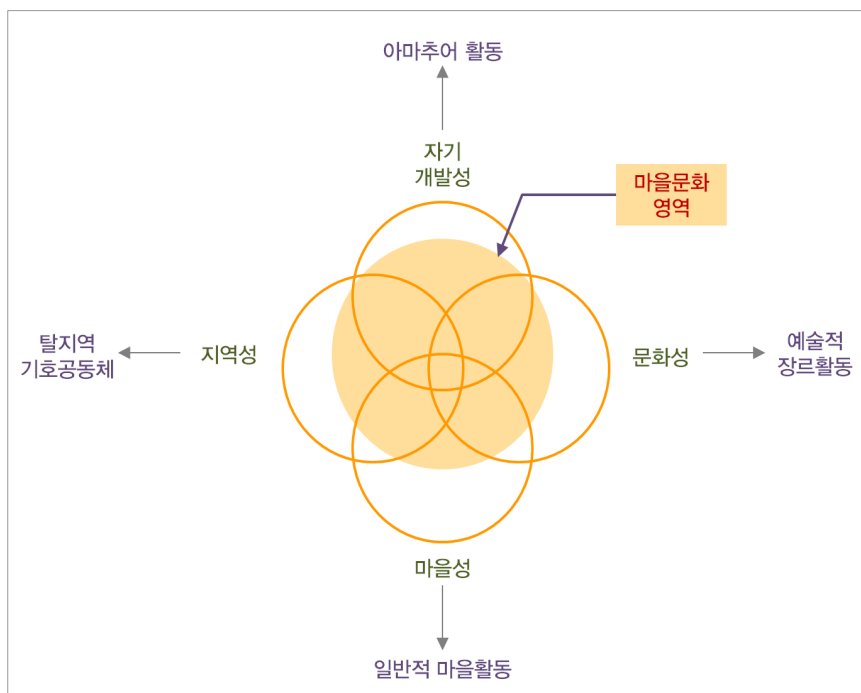
또 하나의 차이점은 그 활동이 포함되는 영역에 대한 것이다. 자기개발이 중시되는 경우, 대부분 활동은 예술적인 활동과 관련이 있다. 즉, 공연이나 전시, 문학(발표) 등 각 개인의 내적인 목표달성에 주목한다. 그러나 주민지향형 문화활동의 경우, 관계형성을 목표로 하기에 장르는 하등에 중요할 이유가 없다. 여기에는 단순한 지역민의 모임에서부터 마을공동문제에 대한 해결, 취미의 공유 등까지 모두 포함된다. 때문에 여기에는 주민들이 모이는 카페나 동아리의 모임, (마을)축제의 현장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것은 단지 자신이 갖고 있는 욕망을 짚짓기 하는 방식이자 그 결과라 할 수 있다. 그 욕망이 무엇이냐에 따라 활동의 영역은 매우 달라진다.

〈표 2-1〉 마을문화활동과 지역단위 자기개발활동

	자기개발활동	마을문화활동
공통점	지역기반	지역기반
활동목적	자기개발	마을형성 또는 주민 간 관계구성
활동목표	수준향상	주민 간 관계형성
결과양태	발표나 행사참여	마을축제나 주민 간 소통
장르영역	예술분야	생활-여가-지역 등 다양한 분야

그러나 그렇다 해도 모든 영역을 마을문화로 포괄하진 않는다. 여기에는 ‘문화성’, 즉 문화적인 특성을 매개로 한 활동성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그것은 ‘미학적인 요소’의 전제를 말한다. 즉, ‘미학을 매개로 한 주민 간의 활동’이 바로 마을의 문화활동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마을문화활동의 영역은 <그림 2-3>과 같이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 마을문화활동은 지역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문화활동을 말한다. 그것은 자기개발 성격을 갖고 있는 동시에 마을성을 띠고 있어야 한다. 즉, 문화를 매개로 한 주민 간 관계형성 및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더불어, 그 활동은 지역의 다양한 관계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양태로 나타날 수 있다. 단, 그 활동은 문화성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전제에서 마을문화활동은 마을을 목표로 한 문화적인 활동이라 정의할 수 있다.



〈그림 2-3〉 마을문화의 특성과 영역

제2절 마을문화의 의미와 중요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을문화는 마을 내 잠재된 정체성에 관한 문제다. 정체성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형성되나, 현재적 측면에서 강조되는 것은 주민 간 활동성에 관한 문제다. 즉, 문화를 매개로 한 주민 간 문화활동이 현재적 차원에서 마을문화 형성의 중요한 방안이라 할 수 있으며 그런 점에서 마을단위의 문화활동은 마을문화 형성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런 마을문화 형성 및 활동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선, 마을문화는 ‘마을’의 육성이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현대사회에서 마을(공동체 회복)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특히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더욱더 쉽지 않다. 생활상 의존도가 낮고, 주민 간 신뢰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서로 만나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다. 때문에, 서로의 공통적 관심일 수 있는 예술활동이나 생활여가 등 문화활동 제반의 일을 매개로 한 모임을 갖는 것은 도시에서 그나마 가능한 일일 수 있다.

지역에 대한 애정을 표출하거나 관심을 유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마을(공동체) 형성방안 중 하나다. 서론에서 보듯, 마을에서 잡지를 만든다거나 신문 등을 제작하여 마을의 현황과 변화를 기록하고 보전하는 작업은 지역민으로 하여금 지역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켜 마을공동체로 진화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그런 점에서 마을문화 육성은 주민 간 관계가 낮고, 생활상 의존도가 낮은 서울의 여건에서 매우 중요한 마을공동체 회복의 방안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또한, 마을문화는 주민의 복지, 특히 문화활동과 관련된 주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한다. 앞에서 개념화한 바와 같이 마을문화활동은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운동인 동시에 문화를 매개로 한 자기개발 활동이다. 때문에 주민입장에서는 먼 거리로 이동하지 않고, 지역 생활 내에서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 그 교육이나 활동 또한 주민들 스스로 하거나 주민과의 관계를 매개로 한다. 그런 만큼, 보다 편하게 배우고 활동할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손쉽게 자기개발에 대한 욕망을 달성할 수 있다.⁷⁾

마지막으로 마을문화는 문화의 다양성과 문화민주주의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문화의 다양성이란 문화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성, 즉 여러 집단들의 문화체계가 주류 문화의 체계로 인해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 표현되는 양식을 말한다.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협약’에 따르면,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은 어떤 집단이든, 예컨대 소수민족이나 원주민 등 사회약자의 문화도 그대로 드러나고 유통배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⁸⁾

문화민주주의란 이런 문화적 다양성을 실천하기 위한 논리다. ‘문화의 민주화’와 대별되는 이 논리는 문화 자체가 어느 특정한 집단이 아닌, 다양한 계층과 집단에 의해 구성되어야 함을 말한다. 즉, 문화의 민주화가 특정 집단·예술적 기호층 및 문화자본(가)-에 의해 종속된 문화를 다수의 집단이 소유·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⁹⁾ 문화민주주의는 모두에 의한 문화창조를 의미한다.¹⁰⁾ 즉, 사회적 집단이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여 문화를 만드는 ‘문화의 민주성’을 말하는 것이며, 그 결과로 문화의 다양성은 이뤄진다.

7) 이에 대해서는 이 연구에서 조사해 보기로 하였다. 즉, 마을문화활동을 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와 지역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마을문화활동이 갖는 주민복지성 및 삶의 질 제고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고자 하였다.

8) 유네스코, 2005,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제4조 정의

9) 그 결과 문화의 민주화에서 핵심되는 요체는 ‘공연이나 미술 등 장르적 문화(예술)활동을 모든 국민이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 예술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을 얘기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적 단위의 시설과 공간설치,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전달 등이 필요하며, 주요한 정책은 이에 대응한다.

10) 문화민주주의에서 강조되는 원리는 △대중들을 공동체의 문화적 삶에 적극적인 참여 권장, △대중들을 그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 정책결정에 참여 권장, △사회구성원들의 문화적 권리 및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증진, △문화재원과 지원에 공평하고 균등한 접근 권장 등 4가지다(전병태, 2007, 『커뮤니티 아트 진흥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마을문화는 그런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문화자체가 각 마을 단위에서 형성될 뿐만 아니라, 주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기에 매우 폭넓은 다양성과 주체의 민주성이 전제된다. 그런 점에서 마을문화의 형성과 육성은 문화의 다양성과 민주주의 확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제3절 마을문화 형성을 위한 전략과 노력

1. 공공예술에서 공동체예술까지

마을문화는 마을이라는 ‘지역’을 배경으로 한다. 그것은 한편에서 지역문화 운동이자 예술문화운동이라 할 수 있다.

지역을 매개로 한 예술운동은 매우 다양한 각도에서 발전되었다. 공공예술은 그런 예술의 지역화 운동의 선도적 혹은 포괄적 형태다.¹¹⁾ 본래 공공예술(public art)은 존 윌렛(John Willett)이 ‘도시 속의 예술’이라는 책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다. 윌렛은 여기서 전시장 예술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도시라는 공간 즉, 공공의 공간에 놓인 예술을 가리키는 용어로 공공예술을 사용한다.

공공예술의 첫출발은 마을만들기 혹은 마을문화의 형성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산업주의의 결과로 인해 나타나는 도시의 지저분함, 흉물화 되는 도시를 치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된다. 곧, 산업주의 시대에 나타난 도시의 지저분함을 치유하기 위한 장치로, 거리에서의 예술, 즉, 공공적 형태의 장식을 추진하게 되며 이로부터 공공예술은 ‘미술장식품’이라는 제도화된 양식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제도화된 양식으로 모습을 드러냄은 그 이전의 결과에 대한 처리로부터 앞으

11) 최초로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선도적이며, 분류자에 따라서는 여타의 많은 지역관계예술(운동)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포괄적이다.

로의 방향을 제어하는 결과를 낳는다. 즉 그 이전, 다시 말해 산업주의 이전 시대에 나타났던 거리의 예술 양식은 ‘모뉴먼트’(monument)로 분리되고, 산업주의 결과를 기리는 장치로 제안된 공공의 예술의 ‘장소 속의 예술’(art in Public Space)로 간주된다. 그리고 이어진 예술의 양식은 단지 거리에 배치된 형태의 예술이 아닌, 거리를 창출하는 형태의 예술, 즉 ‘장소로서의 예술’(art as Public Space)로 간주되어 추진된다. 박삼철은 이와 같은 양식을 통해 예술이 좀 더 지역적인 영역으로, 좀 더 공공영역 속으로 잠재되어 파고들었다고 본다.¹²⁾

〈표 2-2〉 공공미술의 시대구분과 특징

구분	장소 속의 미술	장소로서의 미술	공동체 미술
사상	오브제 중심 미학적 관심	공간만들기 중심 도시·공간 디자인	공익·사회 중심 사회적 이슈
개념	전통미술의 외출(장식)	새로운 장식	새 장르 공공미술(비평)
공공성의 출처	공공장소(물리적)	공공장소의 환경 (물리적+기능적)	공익, 공동관심사 (사회 정치적)
우선권	작가	작가(선)-관객(후)	작가+관객
사회관계	폐쇄	개방	참여, 연대
도시체계	동업	협업	저항, 비판
시간·공간관계	영구적, 독립적	영구적, 통합적	일시적, 연대적
공간성격	물리적 공공장소	접근과 사용의 공공성	비평적 공공영역
창작태도	전문, 미학 아티스트	디자인 디자이너(공간·관계)	동반(교류), 사회성찰 퍼블릭 아티스트(public artist)
수용태도	시혜·소비 대상·타자	사용 사용자, 관계자	동반, 공동작업 사용자·창조자
소통매개	볼거리(spectacle)	호의, 배려(amenity)	비평(critical)
타깃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시민	시민, 공동체
의미획득	완성, 결과	조정, 결과	과정, 소통
내용	Global Narrative	Glocal(Global+Local)	local narrative
슬로건	미술관 벽을 넘어	새로운 공간 디자인	사회적 과정의 디자인
반슬로건	고릴라 입술의 립스틱	개발사업의 공법	관객 코를 잡고 흔드는 미술

출처 : 박삼철, 2006, 「왜 공공미술인가」, 학고재

12) 박삼철, 2006, 「왜 공공미술인가」, 학고재

변민재 또한 이와 같은 형태로 구분한다. 그는 프랑스에서 나타난 건축물 1% 운동¹³⁾으로부터 공공장소 속의 예술, 도시계획 속의 예술, 새로운 장르로서 공예술로 발전하였다고 본다.

〈표 2-3〉 현재 공공미술의 흐름

구분	내용	비고
건축 속의 미술 (Art in Architecture)	-미술을 통한 건축물의 미적 가치 제고 -프랑스 1%법(1951년), 미 연방정부 공공시설청(CSA) '건축 속의 미술 프로그램'(1963년) -작품경향 : 미술의 전시적 기능 위주	초기단계
공공장소 속의 미술 (Art in Public Places)	-공원, 광장 같은 공공장소의 시각적 활성화 -NEA '공공장소 속의 미술프로그램'(1967년) 지방자치단체의 퍼센트법 -작품경향 : 순수미술 위주였다가 공공미술로 전환 ※초기 플립아트(Plop Art)라는 비판, 점차 공공장소의 컨텍스트 고려(미술과 삶의 결합을 지향하는 미술로서 미술관이나 화랑에서 전시되는 미술과 달라지게 되었음)	초기 건축, 부속에서 공원, 광장 영역으로 확장
도시계획 속의 미술 (Art in Urban Design)	-도시 공공장소의 인간화 및 네트워크화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공공미술 종합계획 수립, 기금제(public art master plan) 도입 -라데팡스, 바르셀로나, 필라델피아 등에서 시행하여 문화적인 도시 환경 조성에 성과를 거둠 -미술품 이외에 미술가가 디자인한 가로 시설물, 공원, 문화시설, 프로그램 등으로 공공미술 영역 확장	도시설계, 도시디자인 등 도시문화, 정책팀과 연계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 (New Genre Public Art)	-미술을 통한 시민 간의 커뮤니케이션 확대와 시민 문화공동체 형성 -결과보다는 과정 중시, 특히 주민참여가 필수적 요소 -시민에 대한 문화교육적 효과를 겨냥한 비디오 제작, 퍼포먼스, 미술공방 운영 등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화 ※수잔 레이시(Suzanne Lacy)가 전통적 또는 비전통적 매체를 사용하여 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관객과 함께 그들의 삶과 직접 관련된 이슈들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상호작용하는 시각예술로 정의를 내림	행동주의 성향 공동체 중시

출처 : 변민재, 2008, “소외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미술 사업현황 분석”,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전공 석사학위논문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공공예술은 점차 지역의 가치, 즉, 공공화된 거리영역으로부터 거리를 창출하고, 지역을 의미화·가치화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점이다. 즉, 예술이 점점 지역을 의미화하고 새로운 가치체계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

13) 건축물의 건축비용 1%를 공공적인 예술장식으로 사용하자는 주장이다.

는 데 기여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에서 예술이 공공적 환경을 치유하고 의미하는 데 기초를 두었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그 지역이 지니고 있는 내적 가치를 의미화하고 창출하는데 주목하는 예술운동이 벌어진다. 그것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1968년에 경험을 둔 공동체 예술(community art)의 확산이다.

‘공동체 예술’은 공공이란 공간 속에 예술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형태의 예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공예술’과 그 궤를 달리한다. 공공예술이 지역적 장식과 예술의 배치에 관심을 둔다면, 공동체 예술은 지역민 활동의 결과, 그것의 의미화에 초점을 둔다.

공동체 예술이 그 정체를 드러낸 것은 1974년 <영국예술위원회>(England Art Council)의 보고서 ‘Working Party Report’를 통해서다. <영국예술위원회>는 새롭게 벌어지고 있는 공동체 예술을 조사하기 위해 그 산하에 <공동체예술위원회>(Community Arts Committee)를 구성하고, 다음과 같이 제안하며, 공동체 예술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역설한다.

“현재 예술을 즐기고 경험하는 사람은 인구의 5%에 불과하다. 이는 기존 예술에 대한 대중들이 접근하기 어려움, 즉 기존 예술의 배타성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질을 높여 갈 권리에서 소외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예술의 배타성과 달리, 공동체 예술은 예술이 일상적인 삶과 관계가 없고 거리가 있다는 생각을 없애, 사회에서 문화의 근본적 역할을 환기해주며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술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 준다. 만일 <영국예술위원회>가 이를 무시하면, 왕립헌장(Royal Chart)에 명시된 a) 예술에 대한 이해와 지식, 그리고 예술적 행위를 발전시키며, b) 대중들의 예술에 대한 접근을 높여나간다는 <영국예술위원회>의 설립취지에 반하는 것이다.”¹⁴⁾

14) 이와 관련하여 <영국예술위원회>는 1975년과 1976년 사이의 시범기간에 공동체 예술과 관련하여 총25만 파운드를 지원하게 된다.

‘공동체 예술’은 사회 내 존재하는 각각의 집단(공동체)이 만들어 가는 예술적 형태다. 공동체 예술로 제시된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왕립셰익스피어극단(Royal Shakespeare Company, RSC)이 추진한 지역사회 참여프로그램인 불캠프(Bootcamp, 2003)¹⁵⁾, 이주민 사회통합프로그램인 ‘페리클래스’(Pericles, 2003)¹⁶⁾ 등이 대표적이다.¹⁷⁾ 그 외에도 마을 주민이 참여하여 공연을 만드는 안 줄리크(Ann Jellicoe)의 ‘The Reckoning’(1978)¹⁸⁾, ‘The Tide’(1980)¹⁹⁾ 등도 좋은 사례다.

이처럼 ‘공동체 예술’은 마을주민의 공통된 참여와 활동을 전제로 이루어진 예술을 말한다. 그것은 공동체 구성원의 참여와 이를 통한 새로운 예술성의 발굴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한편, 시민들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일상예술, 또는 자발적 예술 또한 중요한 흐름 중 하나다. 영국의 경우, 시민주체의 예술 활동을 ‘Voluntary Art’, 즉 자발적 예술이라 명명하고 전국 300여개 단체가 모인 Voluntary Art Network(VAN)가 1991년부터 활동하고 있다. 2008년 <영국예술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전체 예술활동의 1/5이 자발적 예술활동이며, 590만명의 회원과 49,140개의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5억4,300만 파운드이고, 사회적 연대의식을 통해 지역공동체

15) 영국 남부 셰익스피어 탄생지인 스트라트포드 어폰 에이븐에 본부를 두고 있는 왕립셰익스피어극단이 추진한 프로젝트로, 불캠프는 지역주민 30명을 모아 추진한 프로젝트다. 이들은 모두 연기자, 조명, 음향, 무대감독 등이 되어 연극에 참여하였으며, 이를 통해 2003년 11월2일부터 5일까지 지역축제 형식으로 공연을 전개하였다.

16) 영국왕립셰익스피어극단이 2003년 영국 유일의 홈리스를 위한 전문집단인 ‘카드보드 시티즌’(Cardboard Citizen)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극을 말한다. 이 연극에는 이라크, 코소보, 알바니아, 튀르키예 등 각지에서 몰려온 해외이주민들이 참여하였으며 그들의 이야기가 녹아 있다.

17) 전병태, 2007, 위의 책

18) Royal Court Theatre를 떠나 Lyme Regis에 이주한 Ann Jellicoe는 학부모와 지역 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연극을 만들어 발표한다. 당시 거의 시도되지 않았던 방식으로, 마을 주민 70여명이 참여하게 되며, 극 속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주민들도 하나의 배경형식으로 무대에 자리하여 앉는다. 주민들 전체가 참여하는 연극을 기획한 것이다.

19) Lyme Regis에서 성공한 Ann Jellicoe는 더 깊은 시골인 Axminster에 들어간다. 3,000명의 주민으로 이루어진 이 마을에서 120명의 주민이 출연하고, 300-400명의 주민이 스태프로 참여하는 공연을 기획하게 된다.

의 발전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적고 있다.²⁰⁾ 유사하게 미국에서는 ‘비공식 예술’, 즉 Informal Art로 부르는 흐름이 있다고 한다. 특히 2002년 <The Chicago Center for the Arts Policy at Columbia College>(CCAP)는 구조화되지 않은 공간에서 일어나는 자발적이고 비고정적인 활동을 비공식적 예술이라 규정하며 ‘비공식적 예술이 기존 예술이 갖는 향유와 참여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려, 사회 공동체로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²¹⁾ 애담스와 골드바드(Adams & Goldbard)에 따르면, 공동체에서 문화예술이 필수불가결한 것이므로 예술가들은 사회변화의 매개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문화의 다양성, 다원성, 사회적 유대 등 삶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핵심으로 하는 문화공동체 활동의 원칙’을 제시하였다.²²⁾

이처럼 예술의 활동은 점차 공공성을 넘어 공동체성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전의 예술이 자신의 합목적성에 따라 일상의 양태를 단절된 형태의 작품영역으로 이전시키는 작업이었다면, 오늘날의 예술은 사회와 지역, 공공 속으로 진화하면서 점차 공간과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굴하고 발현하며, 그 속에서 (재)의미화를 추구한다. 이러한 영역과 더불어 시민들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예술활동이 점증하며, 지역 속에서 이들은 하나의 활동으로 접합된다. 곧 지역 혹은 마을을 매개로 한 예술의 형태로 등장하는 것이다.

20) DCMS, 2008, *Our Creative Talent : the Voluntary and Amateur Arts in England*, 이철희, 2010, “문화예술공동체 형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p.63 재인용

21) Wali A., Rebecca Severson, & Mario Longon, 2002, *The Informal Arts ; Finding Cohesion, Capacity and Other Cultural Benefits in Unexpected Place*, Chicago Center for the Arts.

22) Adams D & A. Goldbard, 2001, *Creative Community ; the Art of Cultural Development*, Rockefeller Foundation



〈그림 2-4〉 예술의 변화와 마을예술

2. 우리나라에서 마을문화를 위한 진화

우리나라에서 마을을 매개로 한 문화활동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마을문화를 전형적인 주민중심의 문화(활동 또는 양태)로 규정한다면, 마을문화는 아직 현재화되지 않은 과제다. 다만, 지역을 매개로 한 예술운동과 마을을 매개로 한 새로운 문화적 양태를 만들어 보려는 흐름은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지역을 매개로 한 예술운동은 서구의 그것과 같은 형태로 공공예술에서부터 출발한다. 2000년대 초반, 예술지원의 공공성 차원에서 제기된 문제점은 예술에 대한 시각을 지역, 즉, 공공영역으로 향하게 만들고, 그 한 예로 <안양석수시장 프로젝트>와 같은 새로운 예술형태를 만들어 낸다. 즉, 비어있는 시장에 예술가가 진입하여 시장 자체를 예술공간화하는 새로운 현상이 발생한다. 초기의 이런 모델이 빈 공간의 점유, 즉 예술을 위한 공간창출이란 의미를 지녔다면, 2006년부터 시작된 공공예술프로젝트 <Art in City>는 본질적인 의미에서 다른 각도로 접근한다.

‘소외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미술사업’이란 명칭이 붙은 이 사업은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을 대상으로²³⁾,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예술화하는 작업을 시도한다. 이전의 공공예술이 비어있는 혹은 버려진 공간을 점유하여 공간환경을 개선하는 것이었다면, 이 사업은 현재 사람들이 살고 있는, 버려진 공간이 아닌 주민들의 공간을 재설계하는 사업이다. 그런 만큼, 주민들과의 관계성과 주민들과의 소통, 공동의 작업 등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예술은 경험의 부족과 천편일률적인 사업방식으로 인해 그다지 좋은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다. 무엇보다 주민과의 관계성이나 소통능력 부족으로 인해 그것이 공동체 예술, 즉 주민중심의 마을예술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예술가들의 프로젝트 영역으로 남게 된다. 달리 말해 일정기간 예술가들이 들어가 마을의 환경을 (예술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는 것이다.

마을문화는 마을 주민의 생태성을 전제한다. 마을 주민 내에서 문화가 생성되고 소비되며, 공유되어야만 마을문화는 지속성을 갖고 성장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아트 인 시티’를 비롯한 당시 공공예술프로젝트는 마을문화로 확장되지 못한 채, 예술가들의 (단발적) 활동으로 제한되는 결과를 남기고 만다.²⁴⁾

지속적인 지역재생과 창조도시(지역)로 대별되는 논의 속에서 문화를 활용한 지역활성화 사업은 보다 더 포괄적으로 추진된다. 2008년 처음 시도된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이런 지역재생과 지역을 매개로 한 문화형성 사업으로 추진된다.²⁵⁾ 주요한 사업은 시장(주민)과의 관계형성 및 지역 내 문화를

23) 이 사업이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 데에는 사업의 재원이 ‘로또기금’에서 나왔다는 데 기초한다. 사행성 산업으로 형성된 ‘로또기금’은 그 성격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업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결과 소외된 계층과 그런 주민들이 밀집해 사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24) 당시 추진되었던 서울시의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또한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서는 백선희·라도삼, 2008, 『예술을 통한 지역만들기 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참고

25)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사업목표는 △문화마케팅 강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화,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전통시장 육성을 통한 주민의 문화향수 증진, △전통시장의 역사성과 특수성을 기반으로 한 관광적 활용가치 증대 등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추진된 추진방향은 △시장 고유의 멋과 정취 살리기, △지역문화와 역사성을 장소마케팅, △

유입하는 활동에 대한 것으로, (지역)문화기획자를 중심으로 추진되며, 예술가는 프로그램 공급자(Program Provider)로 참여한다. 이처럼 공공예술프로젝트가 예술가 중심의 지역환경 개선사업이었다면,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기획자를 중심으로 지역 내 문화를 창출해 지역을 재생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표 2-4〉 공공예술사업과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비교

	공공예술프로젝트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주체	예술가 중심	기획자 중심
추진목적	소외지역 환경개선	지역(시장)활성화
추진방향	예술장식	지역(시장)문화 형성 및 마케팅

이어진 사업은 <생활문화공동체>(2009) 조성사업과 <마을미술프로젝트>(2010) 등이다. 이들 모두 <아트 인 시티> 프로젝트를 변형한 것으로 <생활문화공동체> 조성사업은 낙후된 지역을 문화공동체로 조성하는 사업의 형태, <마을미술프로젝트>는 중소도시의 지역재생을 위한 사업의 형태로 추진된다.

그런데 이 시기 주목해야 할 것은 단지 문화부문 관련 사업에서만 아니라, 다양한 부처의 사업 내에서 마을 혹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이 도출되었다는 점이다. 거의 대부분은 지역재생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지만, 그 사업의 문을 여는 형태로 ‘문화’ 관련 사업이 시도된다. 예컨대, 지역재생을 위한 도시환경 정비를 위해 먼저 문화관련 사업이 시작되고, 이어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정비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여러 부서의 문화관련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 <표 2-5>와 같다.

상인과 주민의 커뮤니티 활동을 통한 시장문화창출 등으로 지역에 내재한 가치를 발굴하고, 새로운 주민과의 관계성을 통해 지역문화를 창조한다는 것이었다.

〈표 2-5〉 각 부처 지역대상 문화사업 정책 현황

주관부처	사업명	정책목표 및 특징	지원/ 사업대상	사업의 특징
문화체육 관광부	문전성시 시범사업	시장문화 활성화 공동체문화 활성화 서민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대상지 공모 후 주관단체(PM) 중심 실행, 컨설팅단(자문) 및 사 무국의 지원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주민의 예술창작 주체화 공동체회복	지역주민	기관/단체 공모 후 공동체적 예 술품 창작 및 지역예술가 연 계 동아리 형성
	마을미술 프로젝트	공공미술 활용 문화예술공간화	마을 소규모 거점지역	대상(지) 공모 후 미술감독 중심 실행
	지역문화 아카데미	문화예술인력 재교육	공무원, 기획인력	연수과정별 전문가 튜터제도
중소기업 청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전통시장과 문화관광자원 연계	전통시장 상점가	중앙의 추진단에서 추진하며 사 업시행자(PC)가 사업시행, 컨설 팅단 운영
	상권활성화 지원사업	시장과 상권의 연계 활성화 지역 커뮤니티 공간 창출	시장, 상업지역	기반인프라 구축 및 경영개선 중심 지원
행정안전 자원부	희망마을 만들기	생활구심점인 복합공간 창출	영세민 밀집지역	지자체 중심 공모 및 추진 주민협의체 구성
	생활형 지역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공공디자인을 통한 공간조성	주거지역	지자체 대상 공모 후 지역주민협 의체 구성, 지역공공디자인 포 럼위원회의 점검 및 자문
한국지역 진흥재단	지역 인적자원 역량강화	지역리더 양성 브랜드마케팅 전문역량 강화	공무원, 관계자	세미나, 워크숍, 현장체험 등의 프로그램 진행
국토해양 부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적 활력 증진 지역 커뮤니티 복원	도시, 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에 대해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등 16개 사업 을 묶어 포괄적으로 지원, 지역 거버넌스 구축

지자체들 또한 다양한 유형의 지역문화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 특히 성남의 <사랑방문화클럽>과 같은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문화네트워크’를 직접 구축하는 사업이다. 더불어 광명, 부천 등 많은 기초지자체가 지역을 만들어 가는 문화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마을문화는 점차 이슈화되고 있는 상태다.

3. 한계와 문제점, 그리고 주어진 현실

정책적인 측면에서 마을문화를 위한 노력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하게 추진되었다. 그것은 마을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부터 마을(지역)을 활성화하고 마케팅하는 사업으로, 지역 내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노력 등으로 추진되었다. 현재 그러한 노력은 여러 정부부처와 다양한 지자체-기초를 포함하여-로 확산되어 있는 상태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우선, 외부성에 의존한 ‘특수한 목적’의 이벤트 혹은 프로젝트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을문화란 지역주민의 자발성에 기초한다. 그것은 지역이 갖고 있는 정체성을 표현한 동시에, 주민들이 만들어 가는 활동성의 결과다. 때문에 그것은 주민 내 생활 속, 일상 내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한,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사업의 종결과 더불어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고, 어떠한 성과도 도출하지 못한 점은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한다.

더불어 이러한 사업이 매우 제한적인 기간 내에 추진되었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그것이 마을문화, 즉 마을의 일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적어도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후에 살펴보겠지만, 통상적인 진행과정으로 본다면, 공동체가 존재하는 경우 5년 이상, 그렇지 않은 경우 10년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2년 정도의 주기를 갖고 추진되었다. 그 결과 마을(주민)의 일상이 되지 못한 채, 마을에 정체(停體)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결과를 낳았다. 조급한 행정주의가 만들어 낸 ‘목적 지향적인’ 사업체계가 갖는 한계라 하겠다.

그런 점에서 마을문화는 새롭게 기획될 필요가 있다. 실례로, 많은 마을문화(활동)는 정책적 프로젝트의 결과가 아닌 마을 주민 스스로의 자발적 활동에 기초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을주민의 자발적 활동성과 일상성을 어떻게 깨울 것인가는 마을문화활동의 확산과 창출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제3장 마을문화활동 현황과 실태조사

제1절 조사설계

제2절 조사결과 : 마을문화의 현장과 실태

제 3 장

마을문화활동 현황과 실태조사

제1절 조사설계

1. 조사대상의 선정

마을문화활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 연구는 우선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문화(공동체)활동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조사 대상은 지역의 문화성에 기초하여 △지역을 기록하거나 알리기 위한 활동, △지역 내 예술과 생활문화 관련 활동을 기반으로 주민 간 네트워크를 구성하려는 활동, △주민들끼리 예술과 문화관련 동아리를 구성해 움직이는 활동 등이다.

더불어 이 조사는 아직 ‘마을’이라는 공동체적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역을 단위로 활동하고 있는 문화적 활동들까지도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한 이유는 아직 마을형 공동체적 활동이 뚜렷히 부각되지 않은 것이 현실일 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 문화활동의 경험과 실태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크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 조사는 다음과 같은 대상들을 추출할 수 있었다. 다음의 대상은 이 연구가 직접 인터뷰하고 조사한 사례다. 그러나 물론 이 외에도 다양한 사례가 있을 것이다. 다만, 아래의 대상은 이 연구진이 그 활동을 파악하고 인터뷰

한 사례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힌다. 여기에 없다고 해서 그 활동이 부족하다거나 부각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연구진의 게으름과 정보부족이 있었을 따름이라는 점을 밝힌다.

〈표 3-1〉 조사대상 사례 선정결과

활동유형	조사대상
지역잡지	헬로우 가로수길(신사동, 강남), 스트리트 H(홍대, 마포), 시웃(서촌, 종로), 도란도란 충현동(충현동, 서대문), 이태원 주민일기(이태원, 용산)
공동체라디오	마포FM, 관악FM
도서관과 서점	길꽃어린이도서관(강서구),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성동구), 초록나라도서관(도봉구), 길담서원(종로구),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은평구), 더북소사이어티(마포구)
마을단위 동아리활동	삼각산 마을(재미난 마을 사무국, 무늬만 학교, 극단 진동 등), 염리동 창조마을(소금카페, 황부자극단, 민들레극단 등), 성대골마을(어린이 도서관, 마을에너지학교, 희망동작네트워크 등), 도봉마을(방아골사회복지관, 도봉사람들 등), 즐거운가

2. 조사 방법 및 일정

조사는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다. 우선 각 활동을 주관하는 단체의 관계자를 만나 각 활동의 역사 및 현황, 현안 및 문제점 등을 조사하였으며, 필요할 경우 지역 내 관계된 단체를 만나 그 내용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2012년 3월36일부터 6월15일까지였다.

제2절 조사결과 : 마을문화의 현장과 실태

1. 지역잡지

서울 내에는 아직 지역을 대변하거나 주민들의 활동결과로 나타나는 마을(형) 잡지는 아직 눈에 띄지 않는다. 다만, 지역사회의 이슈를 다루거나 지역

의 변화를 기록하며 관찰하는 유형의 지역(형)잡지만 존재할 뿐이다. 그런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마을잡지’라는 명칭 대신 ‘지역잡지’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지역잡지로 조사한 대상은 총 5개로, <헬로 가로수길>, <스트리트 H>, <시옷>, <도란도란 충현동>, <이태원 주민일가> 등이다. 이 중 <헬로 가로수길>과 <스트리트 H>, <시옷> 등은 정기성을 띠는 잡지형태인 반면, <도란도란 충현동>과 <이태원 주민일가>는 프로젝트성이 강하다. 정기적으로 나오는 잡지가 아닌, 하나의 이벤트로 기획되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이 조사연구에 포함시킨 것은 그 내용이 주민의 일상을 기록하거나 담고 있기 때문이다. 즉, 형태면에서는 잡지의 형태를 띠고 있진 않으나, 마을잡지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기에 그 가능성을 엿보고자 조사에 포함시켰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헬로 가로수길²⁶⁾

(1) 개요

“‘패션거리’로만 알고 있는 대중들에게 ‘예술이 살아 숨 쉬는 동네’로서 가로수길을 알리자”라는 생각으로 2008년부터 계간지 형태로 발행되고 있는 <헬로 가로수길>은 올해인 2012년 봄에 제10호를 발행했다. 지역잡지로선 꽤 오래된 역사를 지닌 잡지다.

26) 2012년 4월 24일에 진행된 배정현 편집장과의 인터뷰 내용, 헬로 가로수길 블로그 (<http://blog.naver.com/hellostreet>) 내용을 중심으로 그 외 기사 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그림 3-1〉 헬로 가로수길 참여 멤버 모습(2009 서울 디자인 올림픽),
배정현씨 작업실 WASH

이 잡지를 만든 계기는 2008년 가로수길 옆 골목에 작업실 겸 카페 <WASH>를 오픈한 배정현씨와 대학교 후배인 북디자이너 박수진씨가 의기투합하면서부터다. 배정현씨는 국내 쇼핑칼럼니스트 1호로 <Figaro>, <ecole>, <KiKi>, <Sure> 등에서 수석기자를 거쳐 <Nylon> 편집장을 지냈고 현재는 ‘Culture Mediator’라는 직함의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 북디자이너인 박수진씨는 출판사 <열린책들>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다가 프리랜서로 독립했으며, 현재는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 둘은 2008년 당시 강남이면서도 임대료가 저렴한 이 지역에 몰려드는 다양한 독립적인 예술가와 프리랜서를 만났고, 이들과 관계를 맺게 되면서 재미난 일을 해보자는 기획하에 <헬로 가로수길>을 만든다.

<헬로 가로수길>은 2008년 가을에 창간호를 발행한다. 제1호를 발행할 당시 배정현씨와 박수진씨는 각각 50만원을 내 인쇄비를 감당한다. 이후 이들은 기업들의 협찬을 이끌어 내는데, 2호엔 ‘애플루트 보드카’, 3호엔 ‘하이네켄’, 4호엔 ‘르꼬끄 스포르티브’의 기부를 받는다. 그리고 2009년에는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2009 서울디자인올림픽’의 하위프로젝트로 제5호를 발행했으며, 이어 2010년 봄에 발행된 7호엔 ‘슈에무라’와 ‘나일론 코리아’가 협업하여

작업했고, <헬로 가로수길> 아티스트 10명이 함께 참여하여 ‘아트 포스터’를 제작했다.



출처 : 헬로 가로수길 블로그
(<http://blog.naver.com/hellostreet>)

〈그림 3-2〉 하이네켄 아트워크 포스터



출처 : 헬로 가로수길 블로그
(<http://blog.naver.com/hellostreet>)

〈그림 3-3〉 헬로 도쿄, 헬로 슈에무라

(2) 운영현황

<헬로 가로수길>은 현재 기획, 취재, 사진 촬영, 홈페이지 제작 등을 담당하는 10여명이 제작하고 있다. 초창기엔 배정현씨와 박수진씨의 노력이 주요했지만, 현재는 주변의 많은 아티스트들이 관심을 보여 글과 그래픽, 사진 등의 재능기부를 받아 제작되고 있다. <헬로 가로수길> 제작에 참여하고 싶은 아티스트들은 홈페이지에 자기를 소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잡지의 콘셉트에 맞으면 작품은 실리게 된다.

발행 부수는 보통 1,000부 정도다. 브랜드와 협업할 경우, 이보다 2~3배 정도 더 많은 부수를 발행한다. 잡지매포는 잡지의 콘셉트에 맞는 가로수길 상점들에 무료배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제작비용은 앞서서도 말한 바와 같이, 기업들의 후원과 협찬을 받아 충당한다. <헬로 가로수길>은 기업의 협찬을 이끌어 내기 위해 브랜드와 협력하여 달

력이나 다이어리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고 있다. 예컨대, <슈에무라>와 협업을 했던 7호는 <헬로 도쿄 헬로 슈에무라>로, 클렌징 오일 탄생 44주년을 맞아 10명의 예술가가 참여하여 포스터를 제작했으며, 가로수길에서 도쿄의 ‘나카메구로’를 느낄 수 있는 콘셉트로 전시회를 개최했다. 또한 2009년 가을에 발행한 5호는 <서울디자인올림픽 2009>와 함께 ‘서울디자인 스팟 헬로 가로수길’ 행사를 기획하여 진행하였다.

잡지 또한 매우 다양한 발간형태를 취한다. 처음 발행했을 때는 타블로이드 판의 형태였으나 3주년에 기념으로 발행된 9호 같은 경우는 ‘다이어리’ 형태였다. 그리고 올 봄에 발행된 10호는 ‘날말사진’이란 주제하에 ‘포스터’형태로 제작했다. 프로젝트 콘셉트에 맞춰 늘 같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제작하는 것이 <헬로 가로수길>의 특징이다.



출처 : 헬로 가로수길 블로그
(<http://blog.naver.com/hellostreet>)



출처 : 헬로 가로수길 블로그
(<http://blog.naver.com/hellostreet>)

〈그림 3-4〉 헬로 가로수길 9호(다이어리)

〈그림 3-5〉 헬로 가로수길 10호(포스터)

(3) 주요특징과 시사점

<헬로 가로수길>은 가로수길을 배경으로 한 잡지이다. 가로수길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일상들을 그려내고 있다. 예컨대, 가로수길에서 만나는 개와 고양이의 일기, 가로수길에서 사라진 것과 새로운 문을 연 상점 소개, 가로수길 내 주

요 상점들의 이름 의미 등 가로수길에서 만나고 느낄 수 있는 여러 작은 요소들과 일상을 다루는 것이 <헬로 가로수길>의 특징이다.

<헬로 가로수길>이 탄생하게 된 것은 배정현과 박수진이라는 인물 때문이다. 전문적인 디자인 역량을 가진 이들이 지역에 관심을 가지면서 잡지는 탄생했다. 때문에 이와 같은 전문역량을 가진 사람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눈을 돌리도록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이 있었던 곳이 ‘가로수길’이라는 점이다. ‘가로수길’은 2008년 당시 예술가와 디자이너, 관련된 프리랜서들로 지역 자체가 이른바 ‘뜨는’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었다.²⁷⁾ 그 결과 이 지역의 일상을 기록해보자는 지역의 작가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잡지는 그렇게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전문가를 탄생시키는 것보다 그 전문가를 탄생하게 한 환경이다. 전문가는 우리-서울시정-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는 전문가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그것은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방식, △간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 △‘가로수길’ 사례와 같이 그들이 활동하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넣는 방식 등으로 수행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헬로 가로수길>은 마을공동체 회복과 관련하여 문화적인 지역형성과 환경의 창출이란 과제를 제기하게끔 만든다.

잡지의 탄생과 발행과정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잡지가 하는 역할에 대한 것이다. <헬로 가로수길>은 엄밀히 따져 커뮤니케이션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했다. 즉, ‘유명기업’과 예술가들을 연결하여 공동작업을 하고, 그 결과 잡지를 발행했던 것이다. 때문에 예술가에게 새로운 작업기회를 제공했고, 유명기업에겐 브랜드 형성효과를 주었으며, 잡지는 그 결과 또는 과정을 담은 형태로 진행됐다. 다른 잡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발간형태와 프로젝트 등은 이와 같은 특성을 반영한다.

27) 아마도 미학적인 요소로 하나의 거리가 부상되었던 것은 ‘가로수길’이 처음이었을 것이다(이에 대해서는 라도삼, 2010, 『문화특화지역 형성요인 및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을 참고).

이러한 노력은 물론 배정현과 박수진이라는 뛰어난 전문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따라서 우리가 과연 이런 전문가를 지역사회 내에서 어떻게 배태하고, 이들의 활동을 어떻게 후원할 것인가 하는 것은 향후 마을공동체 회복 및 마을잡지 창출과정과 관련하여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2) 스트리트 H²⁸⁾

(1) 개요

<스트리트 H>는 홍대 앞의 문화와 정보를 다루는 동네잡지이다. 2009년 6월부터 매월 15일에 발간되는 무가지로, 디자인 회사인 <디자인 스튜디오 203>이 기획·제작을 담당하고 있다. <스트리트 H>란 이름은 다복길, 와우산길, 잔다라길 등 작은 길로 연결되어 H자 형태를 띠고 있는 홍대지역의 특성과 ‘홍대(Hongik University)앞’의 영문 이니셜 ‘H’를 따 만들어졌다. H는 다른 한편으로 사람(human)과 기록(history)을 의미하기도 한다. <스트리트 H>는 홍대 앞의 기록과 함께 다양한 실용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관광 가이드북의 역할도 하고 있다.

<스트리트 H>를 만들고 있는 핵심 멤버는 홍대 앞에서 오랜 기간 거주해 온 장성환씨와 정지연씨다. 둘은 부부로 장성환씨는 발행인을, 정지연씨는 편집장을 맡고 있다. 홍대 미대를 졸업한 장성환 발행인은 <과학동아>, <주간동아>의 아트디렉터를 역임하고 <디자인 스튜디오 203>을 설립해 다양한 매거진과 각종 단행본을 만들고 있다. 정지연 편집장은 <여성동아>, <with> 등에서 기자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프리랜서 에디터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뉴욕의 <빌리지 보이즈>와 같은 로컬매거진을 보며, 이런 동네잡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스트리트 H>를 만들었다. 복합문화적이고 다문화적인 홍대 지역을 여러 가지로 엿보자는 것이 이들이 <스트리트 H>를 만들게 된 배경이다.

<스트리트 H>는 뉴욕의 <L Magazine>, 파리의 <Pariscope>와 같은 지역 밀

28) 2012년 4월 6일에 진행된 장성환 발행인과의 인터뷰 내용, <스트리트 H> 블로그 (<http://www.street-h.com/>) 내용을 중심으로 그 외 기사 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착형 잡지로 홍대 지역의 주요 공간과 다양한 행사 등의 실용정보를 소개하고 이를 관광객 및 지역의 사람들과 공유하는 데에 주요한 목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홍대 앞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기록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문화발전소로서 홍대지역이 갖는 역사적·공간적 의미를 지키고 기록하는 것이 <스트리트 H>의 발행 목적 중 하나다. 때문에 홍대 앞에서 오랜 기간 자리를 지켰은 사람들의 인터뷰를 하고, 홍대 앞에 위치한 갤러리, 카페, 레스토랑, 가게들을 빠짐없이 지도로 기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인문학적 자료로서의 홍대를 조망하는 잡지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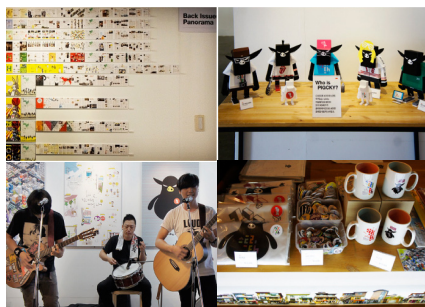
<스트리트 H>가 발행을 준비한 건 2009년 4월부터다. 그리고 2009년 6월 15일에 1호가 발행된 이래, 매월 15일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발행되었다. 2012년 5월 현재 제36호까지 나온 상태다.

2011년 6월에는 <스트리트 H> 창간 2주년을 기념하는 전시회인 “안녕들 하십니까?”展을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 전시장에서 개최(4일간)하였다. 또한 2012년 1월에는 <스트리트 H>가 만들어 낸 콘텐츠를 공유하는 <아코디언 북>을 발간했다. 이 책은 홍대 앞의 매력적인 카페 12곳을 선정하여 일러스트레이터와 협업하여 편집한 책으로, 유상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앞으로 시리즈 형태로 발간될 예정이라고 한다.



출처 : 스트리트 H 블로그(<http://www.street-h.com/>)

〈그림 3-6〉 아코디언 북 발간



출처 : 스트리트 H 블로그(<http://www.street-h.com/>)

〈그림 3-7〉 “안녕들 하십니까?”展

(3) 운영 현황

<스트리트 H>를 만드는 사람들은 기획팀 2명, 객원기자 2~3명, 외부에서 글을 기고해 주는 사람 2~3명, 디자이너 2~3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매달 발행하는데 드는 제작비는 장성환 발행인과 정지연 편집장의 자비로 충당하고 있으며, 객원 에디터의 기사와 칼럼은 재능기부 형식으로 기고되고 있다. <스트리트 H>가 처음 발행되었던 6개월은 마포구청이 후원의 형식으로 제작비를 지원해 주었으나 그 이후로는 따로 지원해 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

<스트리트 H>는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무가지이기 때문에 그동안 광고를 실지 않았었는데 2012년부터 1페이지씩 실기 시작했다. 광고는 <스트리트 H>의 지속가능성을 염려하는 사람들의 아이디어로 시작됐고, 현재 <스트리트 H>의 활동을 동감하는 사람들의 격려광고가 실리고 있는 상태다. <스트리트 H>의 자생구조를 위해서는 광고가 필요하지만, 아직은 여의치 않는 대안이라는 게 발행인의 생각이다.

<스트리트 H>는 매월 2천~3천부씩 발행되고 있다. 배포는 주로 홍대 앞에서 무료로 이루어지는데, 타 지역에서도 관심 있는 독자가 있을 경우 연회비 15,000원을 내고 정기구독할 수 있다. 현재 정기구독자는 20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출처 : 스트리트 H 블로그(<http://www.street-h.com/>)

〈그림 3-8〉 스트리트 H 1호 및 스트리트 H 블로그

(4) 주요특징과 시사점

<스트리트 H>는 한마디로 말해 지역을 지키는 잡지다. <홍대 앞 지구촌, 외국인 가게들(24호)>, <홍대 앞 축제(27호)>, <반지하 떠오르다(29호)> 등과 같이 주제를 정해놓고 홍대 앞 사람들, 장소, 맛집, 문화행사 등에 관한 다양한 기사를 실는 한편, 홍대 앞의 많은 문화정보를 다루고, <디자인 스튜디오 203> 직원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홍대 앞의 문화와 개성을 나타내는 카페, 서점, 공연장, 갤러리, 클럽 등을 지도화하고 있다. 과거 홍대에서 유명했던 <일레트로닉>이라는 카페가 현재는 사진 한 장 찾기 힘들다는 사실에 허탈함을 느끼게 된 것이 지도 작업을 시작한 계기란다. <스트리트 H>는 이와 같은 자료를 모아 홍대지역을 알리는 동시에 기록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장성환 발행인은 향후 <스트리트 H>를 기반으로 하여 홍대 앞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희망사항이라고 한다. 즉, <스트리트 H> 스팟을 조성하여 인디 공연의 티켓팅, 소규모 전시회, 홍대만의 특색이 있는 기념품 판매, 카페, 인포메이션 등의 복합적 기능을 하는 문화공간을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향후 이러한 공간이 조성된다면 홍대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센터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그는 현재 홍대 앞 동네 포털사이트인 ‘스트리트 H 닷컴’을 구축 중이다. 기사검색과 온라인 판 구독, 홍대 앞 업소 및 장소 정보, 홍대 앞에서만 살 수 있는 물건들만 파는 스토어 소개 등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스트리트 H>의 온라인화를 이룬다는 것이 장성환씨의 구상이다.



출처 : 스트리트 H 블로그(<http://www.street-h.com/>)

〈그림 3-9〉 〈스트리트 H〉 map

이러한 구상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은 역시 ‘돈’이다. 현재는 한 면을 할당해 ‘격려광고’를 받고 있으나, 이것으로 감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장성환씨 설명이다. 때문에 홍대지역 업소들이 광고나 기업들의 광고를 모색하고 있으나, 이 또한 잡지의 성격변화를 동반하는 문제이기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런 점에서 <헬로 가로수길>과 마찬가지로, 잡지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어떻게 후원할 것인가가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3) 시웃²⁹⁾

(1) 개요

<시웃>은 서촌을 사랑하는 마음과 개발이 시작되게 되면 사라질지도 모르는

29) 2012년 3월 27일에 진행된 최용훈 편집장과의 인터뷰 내용, 시웃 블로그(<http://siot.or.kr/>) 내용을 중심으로 그 외 기사 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현재의 서촌을 기록하고자 하는 마음에 발행되는 지역신문이자 소식지이다. <시웃>이라는 이름은 서촌, 소식지, 소통 등의 첫 음인 ‘ㅅ’에서 따온 것이며, 정기간행물의 형태로 주로 동네의 소식과 사람 사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시웃>은 이 지역에 계속 있었던 <서촌라이프>의 후신(後身)이다. 본래 이 지역에는 <서촌라이프>가 있었는데, <서촌라이프>는 2011년 3월에 창간호를 발행한 후 2011년 6월까지 매월 발행되었다.

<서촌라이프>는 원래 2명의 편집인이 발행하던 잡지다. 그러다 이들이 헤어지면서 현재의 <시웃> 편집장인 최용훈씨가 혼자 남게 되었고, 그 결과 현재는 1인이 편집을 하고 있다.

최용훈씨가 <시웃>이란 잡지를 만들며 서촌에 집착하는 것은 서촌이라는 지역에 대한 강한 애정 때문이다. 강남지역에서 거주하다가 2007년에 서촌으로 이사온 최용훈씨는 서촌의 정감 있는 골목, 아름다운 카페 등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이를 담은 블로그로 운영하면서 서촌에 대한 관심을 높여 나간다. 이후 같은 관심을 가졌던 설재우씨와 만나면서 <서촌라이프>라는 잡지를 창간하였고, 2011년 3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매월 2천부씩 발행하다가 4개월만인 7월에 폐간을 결정하게 된다.

이후 최용훈씨는 2011년 12월에 새로운 소식지인 <시웃>의 창간 준비호를 발행하였고, 이어 2012년 4월 19일에는 창간호를 발행하게 된다.



〈그림 3-10〉 시웃 창간호

(2) 운영현황

<시웃>은 편집장을 비롯하여 취재 및 원고 작성 2명, 편집 1명 등 총 4명의 핵심 멤버들이 함께하고 있으며, 매월 2천부씩 발간되고 있다.

<시웃>을 발행하는 비용은 동네주민의 후원 또는 지역광고로 일부 충당되며, 서촌지역 답사 진행 등의 지역 활동수익으로 마련한다. <시웃>을 다시 창간하면서 소셜펀딩 개미스폰서³⁰⁾를 시도해보았지만 모금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해 무산되었다고 한다. 여느 마을잡지에서 보듯, 발행비 마련이 <시웃>에서도 과제가 되고 있다.

(3) 주요특징과 시사점

<시웃>은 서촌이라는 지역을 배경으로 탄생한 잡지다. 발행인 최용훈씨의 말에서도 지적되었듯, 그저 동네가 좋아 발행하는 잡지가 <시웃>이다. 것처럼 일반주민이 발행인이 되어 잡지를 발행한다는 것이 <시웃>의 가장 주요한 특징이다. 발행인 최용훈씨는 디자이너도, 그와 관련된 회사를 다니는 것도 아니다.

<시웃>이 갖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은 서촌지역 내 여러 네트워크를 아우르고 있다는 점이다. 잡지라는 특성상 그렇기도 하겠지만, 서촌 지역에 존재하는 여러 모임, 예컨대 <주거공간연구회>, <마을벼룩시장>, 서촌지역 공방네트워크인 사회적기업 <품예> 등과 연계해 이들과 더불어 서촌 지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웃>에서도 중요한 문제는 발행과 관련된 ‘비용’ 문제다. 잡지 발간에 필요한 최소비용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적 비용으로 이를 전부 부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최용훈씨의 얘기다. 때문에 최용훈씨는 지역별로 활동할 수

30) <소셜펀딩 개미스폰서>는 공익 프로젝트를 위한 온라인 펀딩 플랫폼으로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시민 누구나 공익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기부하며, 진행과정과 결과를 공유할 수 있다. 기한 모금 목표액을 100% 달성하면 프로젝트 제안자에게 모인 기부금을 전달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프로젝트는 무산된다.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기부자는 프로젝트 제안자가 제공하는 기부금액별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

있는 근거기반 제공과 발행비의 지원 등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편집할 최소한의 장소의 제공이 필요하며, 매회 발행에 필요한 비용이 지원되면 보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동작업실’ 조성 및 ‘공동광고’ 등도 제안한다. 즉 개별적으로 지원해주지 못한다면, 공동편집실이나 작업실을 만들어 주고, 서울시가 직접 광고를 수주해 잡지에 나눠주는 방식은 잡지 발행을 위해서도 좋은 방식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이와 같은 방안 또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광고를 공동으로 확보하고 게재한다면, 광고시장에서의 구매력 확보뿐만 아니라 잡지의 안정적 운영에도 크게 이바지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공동작업실 조성 및 광고의 공동확보 등은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한 요소다.

4) 도란도란 충현동³¹⁾

(1) 개요

<도란도란 충현동>은 서대문구 충현동의 주민들이 직접 만든 동네잡지로 1년에 1권 발간하는 연간지이다. 이 잡지는 주민자치위원회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2011년 11월에 창간호가 발행되었다. 주민기자단을 구성하여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만들고 있으며, 마을을 소재로 주민들의 일상, 대표할 만한 장소, 동네 생활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충현동은 2008년 5월 북아현3동과 충정로동이 통합되어 생겨났다. 그리고 2011년 현재 재개발과 뉴타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다. 이러한 동(洞)기능 통폐합과 뉴타운 추진 등의 이유로 주민갈등이 발생하고 소통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기에, 변화하고 있는 동네를 돌아보고 이웃들을 알며, 충현동의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것이 동네잡지를 기획하게 된 배경이다. 2010년 사단법인 <내일

31) 2012년 4월 12일에 진행된 충현동 자치회관 최정순 팀장과 <도란도란 충현동> 창간호에 참여했던 임순자 주민기자와의 인터뷰 내용, <도란도란 충현동> 발간기념회 동영상을 중심으로 그 외 기사 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의 도시>가 참여하면서 동네잡지 만들기 사업은 본격 궤도에 진입하기 시작하였고, 2011년에는 생태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충현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이 사업을 진행하였다.

충현동에서 처음으로 만든 동네잡지는 2010년 충현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사단법인 <내일의 도시>가 함께 발행한 ‘북아현동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2011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연계되지 않았다. 이후 <한국자치학회>가 주관한 마을사업 컨설팅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체회의를 거쳐 마을 사업이 확정되었는데 그 중의 하나로 ‘행복한 충현동 이야기’ 우리 동네 잡지 만들기 사업이 선정되었다.

2011년 6월에 동네잡지를 만들기로 확정하고 기획에 들어갔으며,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마을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제로 주민들의 작품을 공모하였다. 또한 ‘주민기자단’을 구성하여 9월부터 11월까지 실무과정 교육을 진행하였고, 교육을 통해 주민들을 인터뷰하고 마을을 취재하는 등 동네잡지를 만들기 위한 활동들을 지속해 나갔다.

그리고 그 결과 2011년 11월 25일 충현동에서 2010년부터 진행해온 <얼싸안 Go~ 마을축제>에서 발간기념회를 갖고 창간호가 발간되기 이른다.

[충현동 마을잔치] 얼싸안Go~

▶ 개요

- 2010년부터 충현동에서 개최되고 있는 마을축제
- 동주민들 간의 화합을 위해 마련된 축제
- 주민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발표회, 공모전 우수작품 전시회 등의 내용으로 진행

▶ 2011 얼싸안Go~ 축제 내용

- 일시 : 2011.11.25.~26. 10시~17시
- 장소 : 충현동 자치회관
- 내용 : <도란도란 충현동> 잡지발간 기념회, 작품전시회 (주민작품 공모전 및 수강생 작품 전시), 생명체 체험교실, 프로그램 발표회(발레, 풍물, 노래교실, 난타 등), 충현동 다큐멘터리 상영, 나눔장터, 나눔카페, 체험 프로그램(아이클레이,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천연비누 만들기 등) 운영



출처 : 2011.12.26. “충현동 사람들 이야기”, 서대문인터넷뉴스

〈그림 3-11〉 충현동 마을잔치 얼싸안Go 모습

(2) 운영 현황

<도란도란 충현동>은 순수 주민들이 참여하여 만든 동네잡지로 주민기자단과 주민기자 양성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상진 강사, 어린이기자단이 참여해서 만들었다. 초등학교 3~4학년 연령의 어린이기자단은 충현동 자치회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글쓰기 수업을 받고 있었던 아이 4명으로 구성되었다. 주민기자단은 주로주부로 구성되었으며, 처음에는 15명으로 시작했지만 교육이 진행되면서 약간 줄어 잡지 발간 시에는 10여명 정도가 활동하였다.

<도란도란 충현동>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마을사업의 예산 일부를 지원받았다.³²⁾ 잡지에 지역 내 상점, 기업들의 광고를 실어 발간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기도 하였다. 2011년 11월에 발간된 창간호는 총 1,000부였으며, 자치회관, 관내 학교 등에 비치, 배부되었다.

2012년에도 <도란도란 충현동> 2호를 발간하기 위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주민기자 양성을 위한 글쓰기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11월 즈음에 2호가 발간될 예정이다.

〈표 3-2〉 도란도란 충현동 - 2012 주민기자 양성을 위한 행복한 글쓰기 교실

	날짜	강의 주제		날짜	강의 주제
1강	04.20.	추억하는 글쓰기	9강	06.22.	기사쓰기-사람, 만남, 인터뷰
2강	04.27.	행복한 글쓰기	10강	06.29.	기사쓰기-리포, 우리들 사는 이야기
3강	05.11.	글쓰기-아름다운 문장의 조건	11강	07.06.	기사쓰기-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4강	05.18.	글쓰기-대 있는 글 집안	12강	07.13.	기사쓰기-현장에서 해야 할 일
5강	05.25.	글쓰기-생각을 담는 방법	13강	07.20.	기사쓰기-책상에서 해야 할 일
6강	06.01.	글쓰기-표현하면 행복하다	14강	07.27.	기사쓰기-인문학, 시민, 마을 이야기
7강	06.08.	기사쓰기-오늘을 기록하자	15강	09.07.	기사수정/보충취재-우리집지 미리 보기
8강	06.15.	기사쓰기-기사쓰기의 ABC, 문제점	16강	09.14.	총평과 후기

2012.04.20.~2012.09.14.(금) 10~11시 총 16회(8월은 휴강)

출처 : 서대문구 자치회관 홈페이지(<http://acms.sdm.go.kr/JUMIN/>)

32) 2011년 충현동 마을사업 예산은 약 400만원이었다.



출처 : 도란도란 충현동 발간기념회 동영상

〈그림 3-12〉 도란도란 충현동 주민기자단 교육 및 인터뷰 모습

(3) 주요특징 및 시사점

<도란도란 충현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극히 일반적인 동네의 마을잡지라는 점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충현동은 매력적인 예술가나 도시의 경관을 갖고 있는 곳이 아니다. 말 그대로 뉴타운 개발을 앞둔 지역으로, 매력적인 것은 없지만 그 주민이 중심이 되어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 잡지를 만들었다는 점이 무엇보다 주목할 점이다.

주민들을 중심으로 잡지를 만든다는 것도 눈여겨볼 만한 점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을 대상으로 ‘기자양성 실무교육’을 무료로 진행했고, 그 결과로 잡지를 만들었다. 더불어, 마을이야기를 담은 ‘행복한 충현동 이야기’라는 주민 공모전을 열어, 시, 수필, 소설, 그림, 일러스트, 사진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작품을 확보했고, 이 중 우수작을 수상한 15개 작품을 포함해 42개 작품을 창간호에 담음으로써 우수한 콘텐츠 확보 및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여했다. 그런 점에서 이 잡지는 주민 스스로 잡지를 만들어 가는 방법을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라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짚어야 할 요소는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공공조직의 역할과 자치구의 역할이다. 무엇보다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공공조직이 중심이 되고, 자치구가 이를 지원할 경우 마을잡지 출간을 포함하여 마을공동체 회복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을 <도란도란 충현동>은 보여준다. 때문에 현

재까지 존재하는 마을(주민) 자치조직을 어떻게 혁신할 것이냐는 문제는 주목해야 할 요소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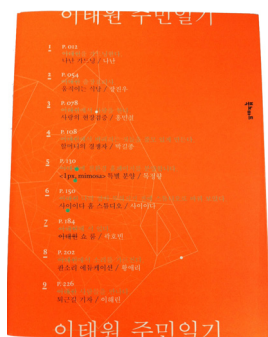
5) 이태원 주민일기³³⁾

(1) 개요

<이태원 주민일기>는 9명의 이태원 아티스트들이 자신들만의 작업 방식으로 이태원에서의 일상을 그려낸 책으로 2011년 3월에 발간되었다. 이 책은 특정한 주기로 발간되는 잡지가 아니며, 단행본의 형태로 발간된 것이다. 이 책 속에는 예술가들이 보는 이태원에 대한 매력과 사랑이 일기형식으로 담겨져 있다. 그런 점에서 마을문화의 한 유형으로 정리해 보았다.



〈그림 3-13〉 이태원 주민일기 기획자 정신, 사이이다 인터뷰 모습



〈그림 3-14〉 이태원 주민일기 책

<이태원 주민일기>가 만들어진 것은 대학교 선후배 사이인 정신과 사이이다가 이태원에서 만나면서부터이다. 이들은 우연한 계기에 이태원에 거주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태원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이 결합하면서 이태원을 기록하자는

33) 2012년 4월 5일에 진행된 기획자 정신과 사이이다와의 인터뷰 내용, 『이태원 주민일기』 도서 내용을 중심으로 그 외 기사 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작업에는 총 9명의 작가가 참여하였고³⁴⁾, 작업기간은 2010년 6월부터 12월까지였다.

이 프로젝트의 배경은 이태원의 진정한 매력을 알리고 싶다는 것이었다. 상업적 목적은 처음부터 배제했으며, 단지 이태원을 기록하자는 것이 목적이었다. 작업방식은 자신들의 재능을 이태원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체험하며, 그에 관한 내용을 책에 담는 것이었다. 작가들의 작업은 우연한 기회에 제공된 ‘올림푸스’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출판사 <문학동네>가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자회사인 <북노마드>를 통해 출간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이태원 주민일기>는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 이후 이 책은 또 다른 우연한 기회로 인해 용산구청의 도움을 받아 구청강당에서 출간기념회를 개최하게 되었고, 세상의 주목을 받으며 2011년 용산구민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현재 이들이 하고 있는 작업은 이태원 주민들과 좀 더 교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2년 4월 21일에 주민들과 함께하는 <이태원 주민시장>을 이태원 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개최했다. 여기에는 9명의 아티스트들과 20명의 예술가들, 2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했다. <이태원 주민시장>은 각자의 생활용품과 이색적인 작품, 자신의 소장품을 판매하는 자리로, 당시 480여명의 주민이 몰려들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후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개최될 예정이다.³⁵⁾

더불어 이들이 현재 기획하고 있는 것은 ‘주민학교’다.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주민들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 가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2) 작업현황

<이태원 주민일기>는 9명의 아티스트와 기획자 정신이 함께 만든 출판물이다. 정신과 함께 기획을 맡은 사이이다는 아티스트로도 책에 참여했다.

34) 참여한 작가는 나난, 장진우, 홍민철, 박길종, 목정량, 사이이다, 곽호빈, 황애리, 이해린 등이다.

35) 2012.04.23., “용산구, 이태원 주민시장 480명 이용”, 『문화일보』

정신과 사이이다와 함께 대학을 다닌 나난은 한국 최초의 윈도우 페인팅 아티스트로 이태원 곳곳의 장소들에 가드닝한 작업을 사진과 글로 담아냈다. 그는 길가의 작은 식물에 화분을 페인팅으로 만들어주고, 일상적인 골목 바닥에 다람쥐 등을 페인팅하는 등 이태원 곳곳에 재미난 요소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이태원과 소통하는 작업을 했다.

사진작가인 장진우는 좋아하는 사람과 먹는 밥이 세상에서 제일 좋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식당-이태원 출장 요리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는 이태원에서 사는 친구들이 신청을 하면 신청자의 집으로 가서 음식을 해줬다. 신청자의 이름을 따서 홍민철 식당, 예란지 식당 등의 이름을 붙였으며, 책에는 식당별로 장진우가 적은 이야기, 신청자 후기, 음식 레시피의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9호점까지 개설되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홍민철은 이태원 패밀리마트 앞에서 만나 사랑을 시작한 여자 친구와의 1년간의 데이트 현장을 검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 프로젝트는 2010년 6월 18일부터 시작된 데이트를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의 시간과 내용을 토대로 날짜와 시간을 추적하여 이태원에서 이루어진 그들의 사랑을 검증하는 것이다. 그는 재연한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고 서로의 기억과 의견을 각자 책에 남기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작가 박길중은 이태원에서 버려지는 것을 주워서 누군가에게 쓸모 있는 것으로 만드는 길종상가를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 그는 버려진 물건을 발견하는 것부터 새로운 물건을 만들기까지의 작업과정을 사진과 함께 설명을 기록하였다.

원픽셀 가드닝 플래너인 목정량은 친환경 홈페이지를 분양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 프로젝트는 웹에서 메일보다 더 많은 양을 차지하는 홈페이지를 친환경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으로 웹표준을 준수하고 이미지를 최적화하여 무분별한 플래시 사용을 HTML5로 대체하여 최소화하는 방법을 응용해, 매일 쓰는 홈페이지에서도 절약이 실천될 수 있도록 <원픽셀 미모사>를 이태원 주민들

에게 분양하는 것이다. 그는 분양을 받고 사용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분양한 내용을 책에 담아냈다.

사진작가인 사이이다는 재개발을 이유로 사라질 본인의 집을 스튜디오로 바꿔 친구들을 초대해 초상화를 찍는 프로젝트를 15일간 진행하였고, 30여명의 외부인이 다녀간 <사이이다 홈 스튜디오> 프로젝트를 통해 이태원의 특정한 공간이 사라지면 그곳은 어떠한 의미로 남을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재단사인 곽호빈은 자신의 이태원숍을 찾는 고객들을 이태원 거리에 세워 공간과 인물을 소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모텔이 된 고객들은 자신이 서있는 공간에 대한 느낌을 간단하게 글로 남겼다.

소리꾼인 황애리는 5일간 이태원주민들에게 판소리를 가르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판소리 에듀케이션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공간기획 및 도서기획자로 일하고 있는 이해린은 퇴근 후 이태원에서 주민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는 왜 이태원에서 사는지, 이태원의 매력이 무엇인지, 어디서 이사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2달 반에 걸쳐 인터뷰하면서 이태원의 매력을 재조명하였다.



출처 : 나난 외 8인, 2011, 「이태원 주민일기」, 북노마드

〈그림 3-15〉 이태원 주민일기 프로젝트
- 나난 가드닝, 사이이다 홈 스튜디오, 곽호빈 이태원 쇼룸

(3) 주요특징과 시사점

<이태원 주민일가>는 이태원에서 거주하는 주민이자 이태원을 사랑하는 9명의 예술가가 작업한 성과다. 다른 어떤 것과 다르게, 주민으로 거주하는 예술가가 주민들의 일상을 관찰하고 기록하며 공유하는 차원에서 작업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이다.

또한 <이태원 주민일가>에서 보이는 점은 이들이 작업을 연장해가는 방식이다. 이들은 책 출간이라는 일회성 작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태원 주민시장>, <이태원 주민학교>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과 관계맺기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과거 자신들이 옥상에서 진행했던 프리마켓을 지역주민과 함께 연계해 보자는 생각에 지난 4월에 <이태원 주민시장>이 이태원2동주민자치센터에서 개최되었으며, <이태원 주민학교>는 곧 문을 열 예정이다. <이태원 주민학교>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재능, 생활지혜, 지식 등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공간으로 활용할 생각이며, 이를 모델로 정립하여 다른 지역까지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그림 3-16〉 제1회 이태원 주민시장

이런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젊은 작가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어떻게 발굴하고 수용할 것이냐는 점이다. 사실 지금은 폭넓게 알려졌지만, <이태원 주민일가>는 작가들의 작업으로 제한될 뻔했다. <문학동네>에서 책의 상업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회사인 <북노마드>에서 출간해주면서 세상에 빛을 보게 됐고, 우연한 기회에 용산구청에서 소식을 알고 출간기념회를 구청

강당에서 열게 해줌으로써 전시회를 겸한 행사로 진행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로 2011년 <용산주민대상>도 수상하였고, 지역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애정을 갖고 접근할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젊은 작가들의 발굴과 그러한 작가들이 지역을 이해하고 공감해 나가는 방식에 대한 다양한 모델 개발이 선행되어야만 보다 더 마을과 주민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공동체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2. 공동체라디오

지역을 단위로 한 방송은 매우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핵심은 지역 케이블 사업자(system operator)들이다. 이들은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 공급업자(program provider)들과 연결되어 지역 내에서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해주는 한편, 자체 제작한 방송으로 지역사회 소식 등을 들려주는 역할을 한다. 만약, 지역케이블 사업자들이 마을성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면 이들은 매우 효율적인 공동체 회복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상업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다. 또한 하나의 지역에 한 사업자가 존재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의 사업자가 여러 지역을 지배하는 일종의 MSO(Multi System Operator) 형태를 띠고 있다. 때문에 이들에게 공동체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들은 단지 서비스 차원에서 지역에 소식을 전달하거나 이슈를 발굴하고, 지역을 외부에 알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는 지역 단위 방송을 위해 라디오를 통해 공동체 단위의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방송법>을 통해 공동체라디오 방송 사업자를 규정하고, 공중선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방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체라디오는 현재 전국적으로 총 7개소가 존재한다.

이 중 <마포FM>과 <관악FM> 등 두 곳이 서울에 있다. 이 연구는 이 두 곳을 대상으로 공동체 단위의 라디오 방송에 대해 조사하였다.

〈표 3-3〉 전국 공동체라디오 운영 현황

방송국명	방송지역	연원
관악FM	서울특별시 관악구 일원	2005년 ~ 현재
마포FM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원	2005년 ~ 현재
성남FM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원	2005년 ~ 현재
금강FM	충청남도 공주시 일원	2005년 ~ 현재
성서공동체FM	대구광역시 달서구 일원	2005년 ~ 현재
영주FM	경상북도 영주시 일원	2005년 ~ 현재
광주시민방송	광주광역시 북구 일원	2005년 ~ 현재

1) 마포FM³⁶⁾

(1) 개요

<마포FM>은 2005년 9월에 개국한 공동체라디오다. 100.7MHz의 주파수로 마포 및 서대문 일부에서 들을 수 있는 <마포FM>은 아침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루 20시간 방송을 하며, <송덕호의 마포 속으로>와 같은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주부들의 일상토크를 담은 <톡톡 마주보기>, 청소년이 만드는 <청소년 핫앤쿨>, 인디음악을 소개하는 <뮤직홍> 등 다양한 방송들이 제작되고 있다. 법인격은 사단법인이며, 사무실은 마포구 성산동 226-1에 위치하고 있다.

<마포FM>은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방송접근권 실현, △지역문화 활성화라는 4가지의 목표를 지향한다. 마포 주민에게 지역 밀착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누구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방송을 이끌어 가겠다는 것이 <마포FM>의 생각이다. 또한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를 위한 대안적 가치와 소통의 구심점으로 역할을 하겠다고도 한다.

<마포FM>의 출범은 2004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동체라디오를 도입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 소식을 접한 미디어 연대, 두레 생협, 마포연대, 홍대앞

36) 2012년 4월 18일에 진행된 송덕호 본부장 인터뷰 내용, 마포FM 홈페이지(<http://www.mapofm.net/>) 내용을 중심으로 그 외 기사 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문화협동조합 등의 5개의 단체가 먼저 준비모임을 갖게 되고, 이들의 제안을 통해 총 22개 단체 및 기관이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마포구청, 서강대학교와 컨소시엄을 체결하여 2004년 11월에 시범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이후 2005년 2월에 사단법인 <마포 공동체라디오>가 설립되고, 2005년 6월에 주파수를 할당받으면서 <마포FM>은 2005년 9월 26일 개국하였다. 이어 2009년 8월에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 정식허가를 받았으며, 2011년도에 재허가를 받았다.

2005년 방송국 개국 당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서비스도 제공했던 <마포FM>은 2011년부터 모바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내부소식지인 웹진도 운영하고 있다.

(2) 운영현황

<마포FM>의 조직은 총회, 이사회, 방송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방송본부는 전략사업팀, 기획사업팀, 편성제작팀, 운영지원팀, 미디어교육팀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정규직 직원 4명, 인턴 4명 등 총 8명이 일하고 있다.

<마포FM>은 광고, 교육 사업을 통한 수익, 이벤트 사업, 방송장비 대여 및 스튜디오 임대, 후원금, 회비 등의 수입으로 운영된다. 교육 사업은 라디오 PD 교육, 팟캐스팅 등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후원금을 내는 회원은 300명 정도가 된다.

<마포FM>은 현재 20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침 6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총 20시간 방송된다. 20시간 중에서 생방송이 차지하는 시간이 10시간으로 가장 많고, 녹음방송은 6시간, 재방송은 3시간, DJ 없는 음악방송은 약 1시간이다.

<마포FM>의 방송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활동가는 140여명으로 학생, 노인, 주부, 시민운동가 등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하고 있다. 라디오가 좋고, 라디오를 경험하고 싶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학생들은 주로 경험을 쌓을 목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보통 5회 정도의 방송 제작 교육을 받은 후 제작에 참여하

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은 마포FM 인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림 3-17〉 마포FM 스튜디오 및 방송 모습

(3) 주요특징과 시사점

<마포FM>은 공동체라디오의 특성에 맞게 지역과 밀착된 프로그램, 그리고 소수와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제작해서 방송하고 있다. <송덕호의 마포 속으로>는 지역시사 프로그램으로 마포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알려주고 있으며, 요일별로 지역의 각 기관(복지기관, 일자리 기관, 예술단체 기관, 도서관, 건강기관)의 소식을 전해주는 코너를 진행하고 있다. 마포 주민들이 주민들의 일상을 들려주는 <톡톡 마주보기>, 홍대 앞의 인디음악을 들려주는 <뮤직홍>, 레게음악만을 틀어주는 <와다다 레게 라디오>, 성소수자들에 관한 이야기로 꾸며지는 <L양장점> 등 공동체라디오에서만 들을 수 있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

<마포FM>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비용문제다. 방송성격상 큰 수익이 나지 않기에 <마포FM>은 교육사업을 펼쳐 이를 만회하고 있다. 교육사업은 그 자체가 방송의 안정화 및 저변 확대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방송비용을 마련하는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이들 방송을 어떻게 지원해야 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로 꼽힌다.

2) 관악FM³⁷⁾

(1) 개요

<관악FM>은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개국한 공동체라디오이다. 2004년 9월 관악 지역의 10개 단체(두리하나공부방, 관악주민연대, 하늘사랑복지회, 관악사회복지, 성장학교 ‘별’, 관악청년회, 나눔의집, 건강한 도림천을 만드는 주민 모임, 푸른영상, 관악미디어공동체동동)가 모여 컨소시엄을 구성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공동체라디오 시범사업에 공모하였고, 2004년 11월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관악FM>은 2005년 10월 개국했다. 방송권역은 관악구로 FM 100.3MHz 주파수를 통해 송출된다. 방송시간은 아침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24시간이다.

<관악FM>은 2006년 4월에 인터넷 신문 홈페이지를 오픈하였으며, 2009년에는 다음, 파란 등과 제휴를 맺었다. 라디오 홍보를 위해 2008년까지 격주로 무가지 신문을 발행했지만 현재는 특정 이벤트가 있을 때만 발행한다. 2011년부터는 모바일을 통한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관악FM>은 2008년 3월에는 <관악노인종합복지관>과 협약을 맺고 실버세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관악인터블루방송국(WIBC)>을 개국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관악청소년회관>과 함께 <청소년봄방송국(GBS)>의 문을 열었다.

(2) 운영현황

<관악FM>은 사단법인의 형태를 띤 사회적기업이다.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2006년부터 준비하여 2009년에는 노동부 예비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선정되었고, 2010년도 하반기에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았다. 2012년 현재 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사단법인인 <관악FM>은 총회, 이사회, 집행부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37) 2012년 4월 18일에 진행된 안병천 대표 인터뷰 내용, 관악FM 홈페이지(<http://www.radiogfm.net>) 내용을 중심으로 그 외 기사 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이사진은 5명이고, 집행부는 핵심 부서인 콘텐츠 제작 및 생산을 하는 팀, 미디어지원팀(사무국), 미디어교육팀, 기술팀 등 4개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13명의 정직원이 <관악FM>에서 일하고 있다.

<관악FM>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통해 받는 지원금과 함께 미디어 교육 및 광고를 통한 수익, 후원금 등의 수입으로 운영된다. 현재 후원을 해주는 회원은 약 100여명으로 전체 운영비의 5% 내외의 미미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공동체라디오 시범사업기간이었던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 동안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매년 6,000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지만 현재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관악FM>의 프로그램은 하루 24시간 내내 방송되고 있는데 본방송이 11시간, 재방송이 9시간, 음악방송이 4시간을 차지한다. 하루 평균 10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활동가는 150여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활동가는 크게 재능기부를 하는 계층과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실현하는 계층(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여성 주부)으로 나뉜다. 재능기부를 하는 계층은 최대 2개월(16시간)의 교육기간을 거쳐 방송제작에 투입되며,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계층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년간의 교육을 받는다. 이들 활동가들은 라디오에 대한 애착으로 방송제작에 참여한다고 하며, 노인들은 자아실현의 측면이 많다고 한다.



〈그림 3-18〉 관악FM 스튜디오 및 사무실 모습



〈그림 3-19〉 관악FM
오픈스튜디오

(3) 주요특징과 시사점

<관악FM>은 지역의 단체들과 연계하여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커뮤니티케이션 권리 실현계층인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여성 주부들과 방송제작을 함께하며, <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과는 노인들이 방송을 하는 <관악인터블루방송국(WIBC)>을, <관악청소년회관>과는 <청소년봄방송국(GBS)>을, <관악무지개네트워크>와는 이주여성 주부들을 대상으로, <관악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관악FM>의 또 다른 특징은 공동체라디오와 연계하여 신문 등의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인터넷 신문(관악eFM)을 운영하는 것을 비롯하여 다음, 파란, 네이트 등과의 제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관악FM에 관심을 갖고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09년부터는 관악FM의 홍보 및 다양한 형태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종이신문(무가지)을 격주 금요일에 발행하는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현재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에만 발행하고 있다.

3. 도서관 및 서점

책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책을 매개로 한 도서관과 서점은 마을문화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한다.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 매우 다양한 형태의 도서관과 서점이 마을을 위해 일하고, 마을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마을이나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컨대, <길담서원>이나 <더북소사이어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한 각 도서관은 마을을 위해 기여하기보다 도서관 운영을 위해 마을을 대상으로 기반을 쌓는 모습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것은 도서관과 서점이 책을 매개로 어떻게 지역과 만나는가 하는 것 때문이다. 이 연구는 현재의 도서관과 서점이 처해 있

는 위치 속에서 지역과 결합하는 전략,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했으며, 이를 통해 마을공동체 회복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1) 길꽃어린이도서관³⁸⁾

(1) 개요

강서구 방화동에 위치하고 있는 <길꽃어린이도서관>은 2007년 1월 26일에 개관한 강서구 구립도서관이다. 본래 방화3동주민자치센터였던 건물을 리모델링한 이 도서관은 지하1층과 지상3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열람석 수는 총 100석이다.

〈표 3-4〉 길꽃어린이도서관 개요

구분	내용
위치	서울시 강서구 방화3동 828
규모	부지면적 : 1010.9㎡, 연면적 : 539.02㎡(지하1층, 지상3층)
열람석 수	총 100석(2층 45석 +온돌 / 3층 55석 + 온돌)
운영시간	화~금요일 : 9시~18시(2층 유아열람실), 9시~22시(3층 아동열람실) 토/일요일 : 9시~17시
자료 현황	도서 24,845권, 비도서 402점, 연속간행물 25종, e-book 2,452권(2011.08.31기준)
개관일	2007.01.26

별 특별할 것 없는 이 도서관이 유명한 것은 ‘동화축제’를 비롯해 마을 주민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길꽃어린이도서관>은 현재 ‘동화축제’를 개최하는 한편, ‘실버순찰대’를 운영하고 있고, ‘동화마을 잔치국수’라는 국수집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어머니 중심의 자원봉사단을 모집해 도

38) 2012년 3월 29일에 진행된 김동운 관장 및 이민식 부관장과의 인터뷰 내용, 길꽃어린이도서관의 내용을 다룬 『도서관이 만드는 행복한 세상』을 중심으로 그 외 기사 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서관 운영에 지역주민이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이들 중 일부는 도서관 프로그램의 강사로 활동 중이다. 지역과 결합한, 지역사회 형성의 중심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길꽃어린이도서관>이 지역사회 중심으로 성장한 것은 개관 초기 공모를 통해 위탁사업자로 영신교회의 김동운 관장을 영입하고나서부터였다. 김동운 관장은 독거노인들을 위한 사랑의 건강식 사업, 노인대학 설립 등의 노인복지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해 오던 사람이었다. 그는 예전부터 아이들과 부모, 노인들이 결합된 ‘3세대의 문화’를 형성해 노인이 함께 어울리는 문화를 만드는 한편, 이를 통해 하나의 지역사회가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는 꿈을 꾸었다. 그런 연유로 그는 강서구가 도서관을 설립한다는 정보를 듣게 되자마자 이를 준비하고, 국내의 도서관을 찾아다니며 자료를 수집하였다.

도서관장을 맡은 김동운 관장은 도서관이란 단지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이 아니라 아이들과 부모들, 그리고 이와 연계된 지역사람들이 함께하는 도서관, 즉 동네사랑방이자 지역커뮤니티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즉 단지 책을 읽는 곳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얻고 정보를 나누며 만남과 쉼터의 복합문화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하에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인 도서관을 만들고 싶은 것이 김관장의 포부다.

김동운 관장의 도서관에 대한 생각

김동운 관장은 도서관 운영은 그 기본틀부터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도서관은 지역사회와 함께해야 하며 지역사회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면서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서관 상을 다음의 다섯가지로 제시한다.

- ① 주민전체가 움직이는 도서관
- 주민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조직하는 도서관이 되어야 한다.
- ② 해우소 같은 도서관
- 주민들과 어울려 주민의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하는 도서관이 되어야 한다.
- ③ 사랑방 같은 도서관
- 가족붕괴에 대처하는 도서관으로, 3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되어야 한다.

④ 우물가의 빨래터 같은 도서관

- 모든 지역 사람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도서관이 되어야 한다.

⑤ 사람을 키우는 도서관

- 사교육이 판치는 교육현실에 대응하여, 연어가 찾아오듯, 다시 돌아오고 싶은 고향 같은 도서관이 되어야 한다.

2012. 3. 29, 김동운 관장과 인터뷰 중-



〈그림 3-20〉 길꽃어린이도서관 김동운 관장



〈그림 3-21〉 길꽃어린이도서관 전경

(2) 주요사 및 운영특징

김동운 관장이 도서관을 맡은 후 처음 한 일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것이었다. 도서관 홍보와 함께 60여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였다. 그 대부분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었다. 김동운 관장은 이들을 ‘길꽃지킴이’라 칭했다.

김관장은 이들에게 기본적인 도서관 교육을 제공하였다. 서가정리, 대출반납, 십진분류법, 청구 기호 등이 주요한 교육이었고, 여기에 도서관 견학, 작가와의 만남 등을 통해 도서관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이어 이들을 중심으로 준비한 일이 ‘강서어린이동화축제’였다.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추억을 만들어주어야겠다는 생각에 2007년 5월, 그러니까 개관 후 불과 4달 만에 이 축제를 개최하게 되었다.

‘강서어린이동화축제’는 거리형 퍼레이드 축제로, 지역에 진입하는 유일한

간접 간선로인 금강화로를 막고 하는 축제였다. 하루 중 30분 정도를 막고 하는 행사인데, 문제는 이 간선도로 끝에 ‘김포교통’이 있다는 점이었다. 즉, 버스 종점으로 절대 막을 수 없는 장애물이었다.

김관장이 이 축제를 기획한 것은 ‘도서관의 주인은 어린이다’는 것을 지역사회에 보여주고 싶었고,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 내 여러 기관들을 이끌어 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끈질긴 설득으로 강서구 지역 내 8개 초등학교와 강서경찰서, 김포교통 등이 참여했고, 무엇보다 지역 내에서 결합된 어머니 자원봉사자 ‘길꽃지킴이’가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모든 장애물이 사라져 제1회 ‘강서어린이동화축제’는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³⁹⁾ 지역 사회 내 <길꽃어린이도서관>의 인지도는 확연히 높아졌다.

이후 김관장이 집중한 일은 지역사회와 도서관을 결합하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임대아파트가 많은 지역여건을 고려해 사회양극화 및 노인소외 등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런 이유로 2007년에는 어머니 및 지역 내 노인이나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자원봉사자로 영입하여, 그들 스스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인형매체 등을 통해 독서를 지도하는 과정인 ‘독서문화 이꿈이’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이 프로그램을 수료한 주민들은 2008년부터 ‘콩나물 시루’, ‘NIE’라는 프로그램의 강사로 도서관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김관장은 2009년 4월에는 <동화마을 잔치날>이라는 국수집을 열었다. 이 국수집은 바로 지역 내 노인과 결합된 가게이다. 지역 내 소외된 노인들을 고용하여, 국수집을 운영함으로써 노인이 중심이 되고, 노인이 스스로 지역

39) 강서어린이동화축제는 매년 1회 개최되는 행사다. 2007년 개최된 데 이어 2008년에는 10월3일 개최되었다. 2009년에는 신종플루, 2010년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 취소되었으나 2년 만인 2011년 4월23일 제3회 행사를 개최했다. 이 축제는 매년 이어지는 스토리를 갖고 운영된다. 1회는 동화 속 캐릭터들과 함께하는 <이 땅의 주인은 어린이다>가 진행되었고, 2회는 우리의 전통 생활상을 보여주는 <옛날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드래요 - 생노병사>, 3회는 동학 농민운동부터 평화통일까지의 역사와 함께 우리는 하나라는 메시지를 담은 <동화로 만나는 우리역사 이야기>라는 주제로 퍼레이드를 진행하였다. 올해 개최될 4회는 “동화로 보는 우리 과학 이야기” 라는 주제로 아이들에게 무한한 상상의 세계를 심어줄 예정이다. 즉, 과거에서부터 미래로 이어지는 흐름이다.

과 어울리는 문화를 창출하고자 했다. 지금도 <동화마을 잔치날>은 고용된 노인들로 운영되며, 그 수익금을 노인과 어린이 복지를 위해 사용한다.

또한 김관장은 지역화폐 형태의 ‘놀이화폐’를 만들어 노인들이 노인정에서 수업을 받으면 이 돈(지역화폐)으로 ‘동화마을 잔치날’에서 사용토록 했다. 노인들이 단지 노인정에서 소일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의도된 활동을 통해 자신을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토록 한다는 것이 김관장의 생각이다. 물론 이 교육프로그램의 강사는 ‘콩나물시루’의 강사가 맡는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지역 내에서 하나의 관계망, 주민 간 생태계를 만들어 냈다는 점이다. 도서관은 지역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 자원봉사자 ‘길꽃지킴이’를 키워낸다. 이들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리고 이들이 지역사회에 들어가 노인들을 교육하고, 이 노인들이 지역 내에 나와 활동한다.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 생태네트워크가 형성된 것이다.

2009년 10월 노인들로 구성된 ‘북치는 실버순찰대’는 바로 이런 성과를 보여준다. 브라스밴드 복장을 하고 지역을 돌며 보안대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인데, 이것은 단지 노인이 소외된 존재가 아닌, 지역사회의 주체로 참여하고 등장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노인들은 더욱 자신감을 가졌고, 노인들을 중심으로 지역의 주민이 새롭게 결합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김관장의 얘기다.

김관장은 2011년 1월에는 ‘영우장학회’를 설립했다. 2011년엔 3천만원을 모금해 총31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부여했고, 2012년엔 4천만원을 모금할 예정이라 한다. 그럼으로써 <길꽃어린이도서관>은 강서구 방화3동을 하나의 마을로 만드는 핵심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3) 운영현황

지적한 바와 같이 <길꽃어린이도서관>은 강서구 구립도서관이다. 이 도서관은 영신교회에 위탁되어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이다. 현재는 우장산동에 있는 <우장산작은도서관>도 위탁되어 있는 상태다.

<길꽃어린이도서관>의 운영인력은 관장, 부관장, 행정팀장, 사서팀장사서 2명, 관리1명, 야간연장사서 3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 자원봉사자와 운영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는데, 열람 및 대출 활동을 하는 길꽃지킴이들이 20여명이며,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길꽃지킴이’가 16명 정도 활동하고 있다.

<길꽃어린이도서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크게 상시, 테마, 특화 등 3개로 나누어진다. 상시 프로그램은 매주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독서 및 논술을 위한 활동, 영어동화책을 활용한 프로그램, 어른신들이 읽어주는 전래동화 이야기, 그리고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영화 상영 프로그램 등이 있다. 테마 프로그램은 주로 방학 때나 일정기간 진행되는 프로그램들로 독서교실, 책들이 캠프 등과 같이 독서와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병영체험, 역사탐방, 전통 체험마당 등과 같이 다양한 것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강연회, 과학축제, 한글날 기념축제와 같이 하나의 특정한 테마 관련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화 프로그램은 <길꽃어린이도서관>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매년 열리는 강서어린이동화축제를 비롯하여 전통 민속놀이를 배우는 전통문화체험마당, 어른신들이 만들어가는 북치는 실버순찰대, 실버 이야기 보따리, 엄마들을 도서관 강사로 양성시키는 독서문화지도사양성과정 등과 같은 프로그램들로 이루어져 있다.

〈표 3-5〉 길꽃어린이도서관 2012년 운영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운영 인원	내용
상시 프로 그램	콩나물 시루	유아/ 초등생	8명/12개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독후활동 -독서 후 감상회나 감상문을 제출
	영어랑 동화랑	7세 유아	14명/2개반	-노래/유희를 함께하는 영어학습 -영어동화 읽고 만들기/스티커 놀이
	초등영어파닉스	초등2~3	12명	-말하기/듣기/읽기 다각화된 영어접근 -기초생활영어/파닉스 학습
	초등논술	초등4~6	12명/2개반	-영어와 독서를 통한 논술 프로그램 -역사연표/문화재탐방/인물탐구 등
	그림으로 보는 우리아이	유아(5~7세) 엄마	12명/2개반	-엄마와 유아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미술활동을 통해 아이의 정서 알기
	길꽃 독서클럽	성인	30명/4개반	-독서체험 활동 장려를 위한 독서회 조직 -독서토론/책이어서기/문집발간 등
	영어동화 스토리텔링	어린이	2개반	-유아들을 위한 영어 스토리텔링 -동화에 대해 영어로 질문하고 답하기
	도서관 단체 견학	어린이 유치원 초등생	-	-시설견학/도서관 이용교육/멀티동화 감상
	선생님! 책 읽어주세요	4~7세	-	-구연동화, 독후활동
	이야기보따리 할머니의 옛이야기방	4~7세	-	-실버북시터의 전래동화 들려주기 -종이접기/풍선만들기 등 독후활동
	영화상영	어린이 가족	제한없음	-다양한 장르 영화 상영 -매주 토요일 14~16시/19~21시
테마 프로 그램	어린이 독서교실	초등3~4 유치원	초등-30명 유치-20명	-개인별 독서계획작성, 체계적 지도 -방학 중(여름, 겨울) 3일간
	책돌이캠프	초등생	40명	-주제발표/토론/책 만들기/퀴즈대회 등 -방학 중(여름/겨울) 1박2일
	예절이의 여름학교	초등생	30명	-예절교육 실시, 성균관 견학 등 -방학 중(여름) 4일간
	어린이 병영체험	초등생	50명	-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군생활 체험 -여름방학 중
	어린이 역사탐방	초등생	20명	-박물관/생태공원/체험장 탐방 -관찰장을 만들어 기록
	한도서관 한책읽기	도서관 이용자	-	-한권의 책을 릴레이 형식으로 독서 -저자와의 만남/독서토론/퀴즈대회 등
	도서관 주간/독서의 달	도서관 이용자	-	-독서 지원 및 독서문화프로그램 -작가와의 만남/북아트/전시회 등
	강연회(작가와의 만남 및 특강)	강서구민	-	-강연회/아동작가 초빙 등 -4회(분기별)
	길꽃가족 과학축제	강서구민	-	-과학발명품 경진대회/다양한 실험과 관 찰/가족과 함께하는 과학발명품

〈표 계속〉 길꽃어린이도서관 2012년 운영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운영 인원	내용
테마 프로 그램	가족 전통체험마당	강서구민	-	-모내기/벼베기/연날리기/썰매타기 등
	한글날 기념 가족문화축제	강서구민	-	-국립국어원과 연계한 한글날 기념행사 -글짓기/가훈쓰기/인형극/마술 등
	문학기행	초등생 중등생	40~50명	-문학마을 탐방/문화지역 기행 -작가의 문학적 감수성/문학관 체험
	북콘서트	강서구민	-	-책과 음악이 함께하는 콘서트 형식의 낭송회
	북스타트	영아 부모	-	-부모와 자녀를 책을 통해 친밀감 형성 -육아지원 및 독서활동 유도
특화 프로 그램	강서어린이동화축제	강서구민	-	-테마가 있는 퍼레이드 -공연마당/체험마당/전시마당 등
	전통문화체험마당 및 짚공예교실	강서구민	-	-전통민속놀이/전통짚공예 -가족/학교/학년별 민속놀이 경기
	매체를 통한 독서문화지도사 양성과정	학부모 교사	30명	-어린이들이 자발적 독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지도자 과정
	북치는 실버순찰대	60~70세 노인	10명	-어린이 안전 도모/아동 범죄 예방 -노인들에게 일자리 제공
	전통놀이, 짚공예체험교실	65세 이상	20명	-전통문화 보급 및 전수 -건강한 생활
	실버 이야기 보따리	65세 이상 노인	20명	-교육과정을 통한 실버복지터 양성 -어린이/장애인/독거노인 책 읽어주기
	실버복지터 양성과정	60세 이상 노인	20명	-노인 전문인력 양성교육 -노인 일자리 창출
	사랑의 책 친구 서비스	거동 불편한 사람	-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읽고 싶은 책 배달

출처 : 길꽃어린이도서관 내부 자료

(4) 주요특징과 시사점

<길꽃어린이도서관>이 갖는 시사점은 어떻게 도서관이 마을공동체 회복에 서 지역거점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도서관은 2007년 위탁된 이래, 매우 짧은 시간에 지역사회에 자리를 잡았고, 그럼으로써 지역사회 내 어머니와 노인들을 중심으로 ‘3세대가 결합하는 창구’로 자리매김하였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매우 적절한 위탁자의 선정이다. 위탁자인 김동운 관장은 노인문제

전문가로,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 오던 사람이다. 무엇보다 기획력과 추진력이 뛰어난 그는 스스로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고, 오랜 기간 거주해왔다. 도서관 운영에는 경험이 없으나, 커뮤니티 운동과 노인 문제에 밝다는 점에서 그는 매우 적절한 위탁자라 할 수 있다.

둘째는 매우 적절한 기획력이다. 김관장이 취한 방식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 ‘3대 결합’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3대란 노인과 부모, 어린이 및 청소년을 말한다. 도서관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끌어들이고, 이들 부모를 교육해 강사로 만든 다음, 이 강사를 이용해 도서관을 운영하고 다시 노인들을 교육시켜 노인들이 주체로 된 마을을 만든다는 것이다. 노인들이 중심이 될 경우,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지역사회로 나온다는 것이 김관장의 생각이다.

김관장의 적절한 전략은 지역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영신교회는 아주 손쉬운 지역네트워크가 있었지만,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그는 편협하지 않은 도서관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었다. 더불어 강서어린이동화축제 기획을 통해 지역 사회 내 여러 기관과 협력할 수 있었다. 이 동화축제에 방화2복지관, 노인연합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치현·정곡·삼정·개화초등학교, 염동중학교, 영신교회, 특공무술팀, 재향군인회, 한국 닥종이 인형협회, 꿈꾸는 어린이도서관, 푸른들청소년도서관, 강서도서관, 강서필오케스트라 등 지역사회의 거의 대부분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길쭉어린 이도서관>은 지역 네트워크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제3회 강서어린이동화축제

▶ 행사 개요

- 일시 : 2011년 4월 23일 - 장소 : 방화근린공원
- 주제 : 동화로 만나는 우리역사 이야기
- 주최 : 강서구청 - 주관 : 강서구립도서관 협의회 - 후원 : 강서교육지원청

▶ 행사 구성

- 퍼레이드 : 옛날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래요.(생로병사)
동화로 만나는 우리역사 : 동학농민운동, 3·1운동, 한국전쟁, 새마을운동, 2002월드컵, 평화통일, 세계로 미래로 우리는 하나 : 장애우, 노인, 어린이, 다문화, 지역주민

제3회 강서어린이동화축제

- 체험마당 : 동화로 만나는 우리 역사 체험, 자연/과학/환경 체험(풍선아트, 알뜰도서관화전, 닥종이 공예, 페이스 페인팅, 점자 체험, 다문화 전통놀이, 검재그림탁본꾸미기, 로봇체험 등)
- 공연마당 : 학교 동아리, 지역 동아리 : 국악 관현악, 벨리댄스, 비보이, 방송댄스, 풍물놀이 등
- 먹거리마당 : 떡메치기(인절미), 맷돌돌리기(녹두빈대떡), 해물파전, 떡볶이, 닭강정, 쿠키, 음료 등

〈표 3-6〉 제3회 강서어린이동화축제 참여기관 및 인원

구분	퍼레이드	공연마당	체험마당	먹거리	교통통제	안전요원	계
참여기관 수	48	19	23	15	4	3	112
참여인원	1,300	280	167	80	70	60	1,957

출처 : 길꽃어린이도서관 내부자료



〈그림 3-22〉 제3회 강서어린이동화축제 준비과정

- 3·1운동 기차제작, 동학농민 깃발제작, 한국전쟁 탱크,포토존 제작

셋째는 <길꽃어린이도서관>이 운영되는 자생적 구조다. 이 도서관은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의 엄마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성장한 엄마들이 도서관 강사로 활동한다. <독서문화이꿈이> 과정을 통해 엄마들이 강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 과정을 수료한 일부 엄마들이 도서관의 <콩나물시루>, <NIE> 등의 수업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표 3-7〉 길꽃어린이도서관 - 제5기 독서문화이꿈이 과정

	강의 내용		강의 내용
1	우리아이 책읽기 어떻게 도와줄까(공개특강) (가정 책모임만들기, 이웃중심 책문화만들기)	14	연극으로 하는 책놀이1 -연극놀이/상황극, 즉흥극
2	오리엔테이션(친해지기/모둠나누기/집합기)	15	연극으로 하는 책놀이2 - 인형만들기
3	책과 나 *내 삶 최초의 책 *내 생애 최고의 책	16	우리동화 작품의 현장을 찾아서
4	독서문화콘텐츠와 매체활용의 장 -공공도서관, 학교 도서관 이야기	17	좋은 책 이야기 5 -역사이야기, 인물이야기

〈표 계속〉 길꽃어린이도서관 - 제5기 독서문화이꿈이 과정

	강의 내용		강의 내용
5	좋은 책 이야기 1-우리나라 그림책	18	좋은 책 이야기 6 -지식책 이야기, 글모음집, 만화, 그 밖의 책
6	동그라미 그림책 만들기	19	살아있는 글쓰기로 하는 독후활동 2
7	좋은 책 이야기 2- 다른나라 그림책	20	비판적인 책읽기 - 토론의 실제
8	좋은 책 이야기 3 - 옛이야기	21	놀이와 재미 그리고 아이들 -책과 놀이, 다양한 책놀이의 실제
9	그림그리기로 하는 독후활동1	22	책, 체험, 기행신문 기획하기
10	좋은 책 이야기 4 -우리나라 창작동화, 다른나라 창작동화	23	독서교실 기획하기 (주제별, 독후활동별 독서교실)
11	그림그리기로 하는 독후활동 2 -주제 그림책 만들기	24	책축제 기획하기의 실제 1 (작은축제/도서관축제/마을축제)
12	책읽어주기	25	종강, 마무리 평가
13	우리 동화작가와와의 만남		

<길꽃어린이도서관>의 문제는 그럼에도 모든 역량이 아직은 김동운 관장을 매개로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아직은 지역사회 내에 깊게 뿌리를 내리는 상태가 아니며, 김관장의 기획과 추진력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아직 마을성이 형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때문에 <길꽃어린이도서관>이 자리를 잡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우선 무엇보다 이 활동들을 마을단위의 공동체성, 즉 마을성으로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더 많은 주체들의 참여와 참여자들의 주체로서의 성장이 요구된다. 즉, 관장의 기획과 추진력이 아닌, 마을 주민의 기획과 추진력으로 이루어질 때, <길꽃어린이도서관>은 마을문화활동의 거점으로서 거듭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꽃어린이도서관>이 보여주는 확실한 점은 도서관이 가져야 할 지역에서의 상과 미래의 모습이다. 단지 열람기능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지역사회의 중심이자 거점으로서 공동체 회복을 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은 눈에 띈다. 특히 지역 내 가장 소외된 그룹인 노인을 끌어들이며 공동체 회복의 단초로 삼고 있다는 점은 향후 마을공동체 회복 사업에 있어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2)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

(1) 개요⁴⁰⁾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는 성동구 행당동 주택가에 위치한 어린이 도서관으로 2001년 4월 7일에 개관했다. 이 도서관은 엄마와 아이가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고 싶은 김소희 관장의 바람을 담아 설립된 곳으로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엄마들의 이야기방 역할을 하고 있다. 1층에는 유아·어린이 도서, 2층에는 초등학교생 및 청소년 도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2만권 정도의 책이 구비되어 있다.

<표 3-8>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 개요

구분	내용
위치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34-6
규모	연면적 : 약 218㎡ (지상2층)
운영시간	월, 화, 목 : 오전 10시 ~ 오후 6시 수, 금 : 오전 10시 ~ 오후 7시 토 : 오전 10시 ~ 오후 2시
자료 현황	도서 약 2만권
개관일	2001.04.07



<그림 3-23>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 전경 및 내부 1층, 2층 모습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가 탄생하게 된 것은 10년 동안 기자로 활동했던

40) 2012년 4월 6일에 진행된 김소희 관장 인터뷰 내용,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 홈페이지 (<http://www.littlelibro.org>) 내용을 중심으로 그 외 기사 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김소희 관장이 출산 후 동화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이때부터 아이와 엄마가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도서관을 설립했다. 당시는 엄마와 아이가 편하게 앉아 이야기하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을 찾기 힘들었기 때문에 동네에서 가깝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에 이 도서관을 설립했다. 김소희 관장은 도서관 방문이 이벤트가 아닌 생활 속에서 자연스러운 패턴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어린이 도서관은 ‘작고, 낮고, 느리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2000년 9월부터 준비모임을 갖기 시작한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는 2001년 4월 7일 문을 열었다. 아이와 함께 도서관에 온 엄마들은 아이라는 공통된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임을 가졌고 2001년 6월에 1기 책 읽는 엄마모임인 <크레파스>가 결성되었다. 이후 매년 <마녀스프>, <딱정벌레>, <마더구스>, <색깔아이> 등의 엄마들 모임이 구성되어 현재까지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01년 10월 28일에는 이웃과 어울리는 책잔치인 <나랑 같이 놀자>라는 행사가 처음으로 개최됐다. 이 행사는 성동문화회관 앞마당에서 1,000여명의 주민들과 함께 인형극, 바자회, 초청 강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운영됐으며, 매년 개최되어 현재 11회까지 진행되었다.

2002년에는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의 열린 교육마당인 <반디학교⁴¹⁾>가 개강되었으며, 2003년 10월에는 서울시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었다. 2004년부터 품앗이 방과후 <똥판지>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2006년에는 <똥판지 체험학습>으로 확대 전환했다. 그 이후 서울시, 성동구, 여성발전기금 등과 함께 하는 <찾아가는 도서관>, <엄마가 만드는 우리아이 권장 도서 목록>, <공교육 안에서 행복하기>, <엄마들을 위한 행복한 이야기학교> 등과 같은 사업들을 시행했으며, 2011년에는 서울시 시정참여사업인 <교과서 속 서울, 학교 밖 서울, 또 하나의 학교 서울>에 참여하여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었다. 2012년에도 12개

41) <반디학교>는 도서관에 오는 어린이, 엄마 청소년을 위해 마련한 모든 프로그램을 총칭하는 말이다. 아이들이 반딧불이처럼 반짝반짝 빛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의 엄마들 모임이 진행되고 있으며, <행복한 책가방 속 책 이야기>, <엄마손, 요술 손 우리 도서관>, <아빠와 함께 하는 똑딱똑딱 목공방>, <책, 노래가 되어 날다>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

(2) 운영 현황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는 서울시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로 총회, 운영위원회, 사무국, 책 읽는 엄마 모임, 책 읽는 아이 모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무국은 김소희 관장, 사서 1명, 활동가 1명 등 총 3명의 상근자와 1명의 비상근자로 운영되고 있으며, 7개의 책 읽는 엄마 모임과 2개의 책읽는 아이 모임이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자원 봉사 활동 모임인 <다ahami>, 교육 프로그램인 <반디 학교>, 교과서 품앗이 모임 등이 활성화되어 있다. 또한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아이들이 사서도우미, 책에 대한 리뷰 작성 등의 활동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자원봉사자는 1년에 30명 정도 모집하고 있는데, 주로 도서관에서 활동하고 자란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다.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를 이용하는 회원수는 300가족(900여명) 정도가 된다. 이들은 매월 5,000원씩 CMS 방식으로 후원해 주고 있으며, 이 후원금이 주요 수입원이 된다. 그 외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프로젝트화하여 지원 사업의 형태로 꾸려간다. 서울시와는 해마다 다양한 사업을 함께 하고 있는데, 올해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서울의 상징적인 사람들과 서울 사람들의 생활사와 문화를 구체적으로 만나는 <서울의 사람, 생활, 그리고 문화>를 진행하고 있다. 그 외 성동구청, 서울문화재단, 아름다운 가게 등과도 꾸준히 다양한 사업들을 벌이고 있다.

현재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의 가장 어려운 부분도 재정적인 부분이지만 민간 도서관인 만큼 일정부분은 자생적으로 꾸려가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표 3-9〉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 - 2011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사업명	기간	장소	대상	주요 내용
엄마들을 위한 행복한 인문학 〈이야기 학교〉	2011.03. ~2011.12.	도서관	엄마들	엄마들이 인문학을 통해 자기와 세상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진행, 이야기 학교 자료집을 만들
책고르미 기획 도서전	2011.01. ~2011.12.	도서관	전체	똥, 오줌, 방귀 / 평화 / 겨울이야기 / 도서관 미술전 등 주제도서를 선정, 전시하면서 어린이 책에 대한 이해를 높임
엄마손, 오솔손 우리도서관 〈햇빛공방〉	2011.01. ~2011.12.	도서관	학부모	엄마들이 책속의 주인공을 아이들 손의 인형으로 재창조하고, 책속의 장난감들이 되살아나게 만들어가는 창작활동
교과서 속 서울, 학교 밖 서울, 또 하나의 학교 서울	2011.03. ~2011.12.	도서관, 서울 시내 곳곳	엄마와 초등 학생	서울시 시정참여사업, 서울을 또 하나의 살아있는 교육 공간으로 활용한 엄마들이 품앗이 체험활동 자료집을 배포함. 참여한 아이들은 서울 곳곳을 기록하며 〈서울 다이어리 2012〉를 만들. 서울시 우수사업으로 선정
교과서 속 손작업 프로그램	2011.09. ~2011.12.	성동교육청 내 10개 학교	지역 초등 학생	성동교육청 교육복지 사업 〈아이드레〉 참여, 성동교육청 내 10개 학교에서 진행
그림자극으로 마을 공연문화를 만드는 여성들	2011.03. ~2011.12.	왕십리 데이케어센터, 무학초등학교	지역 주민	노인데이케어센터에서 〈책읽어주는 할머니〉 진행 무학초등학교와 도서관 등에서 그림자극의 형식으로 책 문화 전파
제10회 〈나랑 같이 놀자〉	2011.10.	청소년 수련관, 성동구청 광장	성동 지역 주민	체험, 놀이, 전시마당을 진행함. 도서관의 아이들, 작가, 작곡가들이 함께 아이들의 시와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으로 노래를 만들고, 〈시와 노래가 있는 문학의 밤〉이라는 이름으로 공연, 창작된 노래들을 전파

출처 :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 내부 자료

(3) 주요 특징 및 시사점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는 유아 및 어린이들에게 좋은 책을 제공하고, 엄마와 아빠가 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권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며, 책을 매개로 같은 지역의 아이들과 부모들이 서로 작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해 주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때문에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의 가장 큰 특징은 도서관 내에서 엄마들의 모임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책 읽는 엄마 모임은 2001년에 결성된 <크레파스>를 시작으로 매년 <마녀스프>, <딱정벌레>, <마더구스>, <꿈나무>, <색깔아이>, <레인보우> 등이 차례로 만들어졌다. 2009년부터는 <공교육에서 행복하기>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햇살아이>, <어깨동무>, <무한조사>, <피노키오> 등의 교과서 품앗이 모임이 시작되었다.

책 읽는 엄마 모임은 엄마들이 자발적으로 만들고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놀이 속에서 학습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러한 모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오전에 엄마들끼리 모임을 갖고, 오후에는 아이들과 함께 품앗이 모임을 진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마더구스>는 도서관의 영어 동화책을 함께 읽고 이를 연극으로 만들어 발표회를 진행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 주중에는 이러한 품앗이 활동들을 하고 토요일에는 아이들과 함께 체험활동들을 하고 있다. 이러한 모임들은 매년 1~2개씩 만들어지고 있으며, 아이들이 매년 성장함에 따라 엄마들의 모임도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다. 이 외에도 아이들에게 양질의 책을 읽히기 위해 도서관에 있었으면 하는 책들을 선정하는 <우리아이 책고르미>라는 자발적 모임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하는 <책가방 속 책 이야기>라는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학년별 도서를 선정하고 권장 도서 목록을 만들어 지역에 배포하고 도서를 전시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림 3-24〉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 활동모습
- 책고르미 모임, 마더구스에서 만든 신문, 강연 듣는 모습

이렇게 도서관에서 경험한 다양한 활동을 바탕으로 한 발 더 나아가 지역사회와 연계된 다양한 활동들을 벌이고 있다. 즉 한양대 소아과 병동, 성동 장애인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엄마들이 만든 영상 그림책을 상영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자신들이 도서관에서 얻은 것

들을 지역사회에 다시 나누어주고 있다. 또한 매년 10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열리는 책잔치인 <나랑 같이 놀자>라는 행사를 통해 1년 동안 했던 활동들을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행사는 한 해 동안 도서관에서 했던 모임들 중 재미있고 유익했던 프로그램들을 모아서 주민들에게 보여 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공연 및 체험활동 부스를 만드는 것을 비롯하여 기획부터 재료 준비, 진행, 평가까지 모두 엄마들이 나서서 이끌어 가고 있다.

이러한 엄마들의 활발한 활동과 함께 책 읽는 아이들 모임인 <최고의 이야기꾼>과 <청소년 문학클럽>이 운영되고 있다. <최고의 이야기꾼>은 초등학교 5~6학년 아이들이 하는 활동으로 지도 선생님 아래 취재를 하고 기사도 쓰면서 신문을 만들고 있다. <청소년 문학클럽>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이들의 사고력을 높이기 위한 토론을 하는 활동이다. 이 외에도 청소년 아이들이 초등학교, 초등학교 아이들이 유아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끼리의 협동심을 가르치고 있고, 어릴 때부터 도서관에 다녔던 아이들이 청소년으로 자라서 자원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며, 대학생이 된 아이들은 <반디학교>의 교사로 활동하기도 한다. 이처럼 도서관에서 자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자신보다 어린 아이들에게 다시 경험을 되돌려주는 선순환적인 활동들이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에서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3) 초록나라도서관⁴²⁾

(1) 개요

도봉1동에 위치한 <초록나라도서관>은 엄마들의 교육 품앗이 모임에서 시작된 도서관이다. 처음에는 엄마들의 자연스런 결합으로 시작되었으나 콘테이너 박스 도서관으로 발전하였고, 현재는 건물의 2층에 자리잡고 있다. ‘아이들과

42) 2012년 4월 27일에 진행된 초록나라도서관의 초대관장인 이순임 관장과 현재 관장직을 맡고 있는 정향란 관장과의 인터뷰 내용, 초록나라도서관의 성장기의 내용이 담긴 『치유와 키움, 기적의 풀뿌리 주민운동 체험기』를 중심으로 그 외 기사 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여성들의 해방 공간’을 표방하는 <초록나라도서관>은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엄마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면서 ‘치유와 키움’이라는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표 3-10〉 초록나라도서관 개요

구분	내용
위치	서울시 도봉구 도봉1동 576-17호 2층
규모	약 96㎡
운영시간	월~금요일 오후 1시~6시,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휴무
자료 현황	도서 약 1만여권
개관일	2004.10.01

<초록나라도서관>이 개관하게 된 데에는 이순임 관장의 역할이 크다. 개인적으로 아이 다섯을 키우고 있던 이순임 관장은 자녀보육 차원에서 공동육아 형태로 지역사람들과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방식을 고민했다. 그 결과 1996년 ‘또래또’라는 작은 친구집단(독서모임)을 만들었다.⁴³⁾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 아이를 돌보며, 육아에 대한 도움도 받고 서로 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풀자는 것이 모임의 이유였다. 주민들끼리 만나기 위해 이순임 관장이 취했던 전략은 아파트 문을 열어 놓고 있는 것이었다. 문을 열어 놓고 나니 자연스럽게 인사하게 되고, 그러면서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하나 둘씩 늘어나 처음에는 5명에 불과했지만 3년 만에 3개팀 15명으로 늘어났다.

규모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고민을 쌓아가던 과정에서 이순임 관장은 2002년 <도봉시민회>를 만나면서 <도봉산 품앗이 모임>을 만들게 되었다.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주민들과 교류하고자 이순임 관장은 도봉구 전 지역에 걸쳐

43) ‘또래또’는 ‘이웃의 엄마들과 함께 동화를 읽는 어른들의 모임’이다. 아동문학서적과 아동교육서, 동화와 관련된 부모 지침서들을 같이 공부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는 끼리를 찾아다닌 독서모임과 교육 품앗이가 결합된 형태다. 1주일에 한 번씩 형식을 갖고 진행됨 모임으로 처음에 5명으로 시작되었으며 약 3년간 지속되었다.

11개의 품앗이와 13개의 독서모임을 만들게 되었다. 2004년에는 도봉 1동에 <매직키드마수리>, <개구쟁이>, <달빛천사> 등의 교육 품앗이와 엄마들 독서 모임인 <아주 특별한 만남>, <시골장터>, <참새방앗간>이 결성되었다. 품앗이 학습은 주 1회 운영되고 요일마다 다른 주제로 진행되었다. 미술, 요리, 종이접기, 독서, 바깥놀이 등 엄마들이 각자 맡은 부분을 돌아가면서 가르치는 형태가 이 모임의 중요한 특성이다.

또한 이순임 관장은 인지적 공부와 함께 생태적 체험 학습을 하기 위해 아이들과 함께 산으로 계곡으로 나가는 프로그램들도 진행했다. 아이들과 진행하는 품앗이 활동이 소문이 나면서 구의원으로부터 방법초소로 활용되고 있던 컨테이너 박스를 모임 공간으로 사용하면 어떻겠냐는 제의를 받게 되었다. <재향군인회>가 관리하고 있는 8평 규모의 컨테이너 박스는 1달에 1번 방법 관련 회의를 하는 경우에만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전기세만 지불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이 공간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선, 각자의 집에서 책과 책장을 갖고 나와 함께 읽을 책을 비치했다. 그러나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때마침 도봉초등학교가 이 소식을 듣고, 1,500권의 도서를 기부했다. 이를 바탕으로 개관한 것이 바로 <초록나라도서관>의 시초였다.

이 도서관은 2004년 10월 문을 열고 대출업무를 시작했다. 지역 근거리에 갈만한 도서관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과 엄마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으로 성장했다. 당시 도서관 운영에 대한 스터디와 워크숍을 통해 도서관 운영의 기본기를 다졌으며 도봉1동 아이들의 책놀이터의 역할도 했다.

컨테이너 박스 도서관에서 2년여를 보내는 동안 이관장은 좀 더 안정적인 도서관을 만들기 위한 기금마련을 시작했다. 15명의 엄마들이 10만원씩 추렴하고 일일카페를 열어 떡볶이를 파는 등의 노력 끝에 2006년 4월 26일에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5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현재의 건물에 입주했다. 그리고 도서관명을 <초록나라도서관>이라 붙였다. 마침내 <초록나라도서관>이 탄생한 것이다.

<초록나라도서관>은 2006년 6월에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를 시작했고,

2006년 8월에는 유네스코와 함께하는 외국인과 함께하는 여름캠프를 진행했다.⁴⁴⁾ 그리고 2008년 4월에는 국민은행이 후원하는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에 선정되어 리모델링도 했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 책배달사업(2004년 12월 시작), 매년 어린이날 행사(2005년 5월 시작), 책잔치 한마당, 도서관 책 읽는 소모임 등을 시행했다.

(2) 운영현황

<초록나라도서관>의 기본적인 운영시스템은 ‘품앗이’다. 주민들이 각자 알아서 활동하는 것이다. 현재는 2010년 부임한 정향란 관장을 비롯하여 운영지기, 모임지기, 홍보지기 등이 활동하고 있는데, 모두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된다.

<초록나라도서관>의 운영비용은 후원회원들이 CMS 계좌로 매월 5,000원 이상씩 후원해 주는 것이 전부다. 민간 도서관이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금액은 현재 전혀 없다.

그런데 <초록나라도서관> 바로 옆에 <도봉1동 어린이도서관>이 2011년 1월에 개관했다. 구에서 100% 지원받는 구립도서관이 생기면서 자연히 사람들의 발걸음이 그곳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그 결과 현재 <초록나라도서관>은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마을도서관이 정부의 사업으로 인해 오히려 그 밑바탕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다행인 것은 이순임 관장이 현재 도봉구 구립도서관인 <아이나라도서관> 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것이다. <아이나라도서관>은 <도봉어린이정보문화센터>로 도봉구 어린이도서관의 허브이며, 어린이 도서관인 <초록나라도서관>과 <반딧불이도서관>, <생글도서관>, <책읽는 사람들> 등을 관장하고 있다. 그 결과 도봉구 전체의 도서관 시스템이 마을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도봉구의 설명이다. 이처럼 도서관장 한 사람 때문에 도서관 시스템과 그 역할이 전면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44) 이 행사는 2010년까지 5년 동안 개최되었다.

(3) 주요특징과 시사점

<초록나라도서관>이 주는 시사점은 지역주민들의 작은 자발성이 하나의 도서관으로 발전했다는 점이다. 평범한 엄마들의 품앗이 교육과 독서모임이 현재의 도서관을 만들었다. 다른 도서관과 달리 여러 사람들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초록나라도서관>의 가장 큰 특징이다.

<초록나라도서관>이 있기까지 이순임관장과 <도봉시민화>의 노력이 가장 큰 힘이 되었다. 이순임 관장은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육아의 문제-를 학원 등 상업적 기능에 의존하거나 혼자 앓기보다 지역 주민과 같이 해결하려고 했다. 무엇보다 ‘내 아이가 잘 자라려면 남의 아이도 잘 자라야 한다’는 이순임 관장의 생각이 주효했다. 그 결과 주민들과 함께 문제를 풀게 되고, 그럼으로써 현재의 도서관까지 끌고 올 수 있게 되었다.

이순임 관장이 개인적 차원의 자발성을 드러낸 것이라면, <도봉시민화>는 이 자발성에 체계성과 지역적 기반을 심어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순임 관장은 <도봉시민화>를 만나면서 품앗이 교육을 배우게 됐고, 이후 이 계기를 활용해 다양한 품앗이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었다. 또한 <도봉시민화>는 <초록나라도서관> 개관 이후에도 워크숍이나 강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연결, 책과 물품의 기부 등 다양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 도서관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그런 점에서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주체의 아낌 없는 지원노력과 이를 뒤에서 후원하는 정부의 노력, 즉 메타지원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감되게 한 것이 <초록나라도서관>의 사례다.

4) 길담서원⁴⁵⁾

(1) 개요

종로구 통인동에 위치한 <길담서원>은 주로 고전과 인문학 책을 소개하는

45) 2012년 3월 27일에 진행된 길담서원의 박성준 대표와의 인터뷰 내용, 길담서원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gildam/>)를 중심으로 그 외 기사 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책방으로 2008년 2월 25일에 문을 열었다.

이 서점은 박성준 전 성공회대 NGO대학원 교수가 운영한다.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던 박대표는 서점이 단지 도서를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강연과 공부 모임, 음악회, 전시회 등이 어우러지는 교육공간이자 문화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믿고, 현재의 <길담서원>을 꾸몄다. <길담서원>은 길과 담이 공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길은 미래를 얘기하고, 담은 그 길을 둘러싼 안식처를 말한다. 더불어 길(吉)한 이야기(談)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서점을 떠남과 머무름, 열림과 닫힘, 비움과 채움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박대표의 생각이다.

〈표 3-11〉 길담서원 개요

구분	내용
위치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55
규모	약 67㎡
운영시간	월~토 : 낮 12시 ~ 오후 9시
도서 현황	약 3,500권
개관일	2008.02.25



〈그림 3-25〉
길담서원 박성준 대표 인터뷰 모습



〈그림 3-26〉
길담서원 전경

박대표가 커뮤니티 서점을 생각한 것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회고로부터 시작되었다. 70대를 바라보는 그는 문득 ‘인생의 길을 잃었다’는 생각과 함께 ‘공부

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더불어 공부할 사람을 찾고자 하였고, 그 방편으로 서점을 생각해 냈다고 한다.

그가 당시 서점을 생각한 것은 부산의 <인디고 서점>과 대학로의 <이음아트> 등 커뮤니티 형태의 새로운 서점이 부각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 서점들을 찾아가 서점운영 및 서가관리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 <길담서원>을 개관하게 되었다.

<길담서원>의 특징은 인문학 서적이 주를 이룬다는 점이다. 이 서점은 최대 5,000권의 책을 수용할 수 있는데, 이 책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핵심 관건이 된다. 이에 따라 박대표는 직접 도서를 골라 관리한다. “5000권 정도가 항상 고여 있을 것이고, 어떤 책을 내보내고 어떤 책을 들여올 것인가는 내가 아닌, 앞으로 서원을 찾는 이들이 결정할 것이다”는 믿음에서다.

서점 운영에서 또 하나의 특징은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일을 하면서 ‘항상 시민이 주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했다는 박대표는 서점 운영에서 자신의 생각을 주입하거나 조정하려는 것을 포기했다고 한다. 그보다는 스스로 자율성을 갖고 서점을 들르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다. 그 결과 여느 서점과 달리 <길담서원>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서점 내에는 다양한 커뮤니티가 존재하며, 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다양한 모임과 전시회 등이 열린다.

(2) 운영현황

<길담서원>은 서점 운영자인 박성준 대표의 철학으로 여러 동아리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즉 영어강독 모임인 ‘콩글리시반’(영어원서읽기 모임)을 시작으로 ‘책여세’(책읽기 모임), ‘청소년 인문학교실’, ‘어른인문학교실’, ‘철학공방’(시민들의 자발적인 철학공부 모임), ‘ㄱ세쥬’(프랑스어문 모임) 등의 모임들이 생겨났다. 특히 2009년 7월부터 시작된 ‘청소년 인문학교실’은 이미 몇 권의 책을 출간할 정도로 <길담서원>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⁴⁶⁾

이 모임과 더불어, <길담서원>은 2008년 상반기부터 꾸준히 문화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영화상영과 음악감상 모임을 비롯하여, 다양한 인문학 강좌를 개최했으며, 2010년 2월 25일에는 1평 남짓한 작은 공간에 전시공간을 만들고, ‘한뼘미술관’이란 이름을 붙였다.⁴⁷⁾



〈그림 3-27〉 길담서원 출간 책 및 한뼘미술관

<길담서원>이 점차 문화공간으로 발전하자, 2010년 초 우연히 들른 피아니스트가 서점에 놓인 피아노를 보고 연주를 해보겠다고 제안을 했다. 이후 동료 연주자들의 연주가 이어지면서 <길담서원>엔 ‘책마음샘’이란 음악회 모임이 현재도 열리며 소외된 지역을 찾아가는 음악회를 열기도 한다.

-
- 46) 청소년 인문학교실은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적 기능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졌고 <길담서원>의 대표적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았다. 지금까지 길, 일, 돈, 몸, 밥, 집, 품, 힘 등과 같이 한 글자를 주제로 진행해 왔으며, 이에 대한 결과물로 <나는 무슨 일하며 살아야 할까?>, <몸, 태곳적부터의 이모티콘>, <나에게 돈이란 무엇일까> 등의 책이 출간되었다.
- 47) 작은 미술관을 표방하는 한 평 남짓의 <한뼘미술관> 역시 시작의 발단은 작은 전시회였다. 길담서원 카페 회원 수 700명을 기념하는 모임인 ‘책 궁댕이 어루만지가’에서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물건과 책을 갖고 와서 전시회를 열었는데, 이를 통해 길담서원 안에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어른들을 위한 인문학 책방이다 보니 어린이들의 이용이 적어 어린이 서가를 비우고 그 자리를 <한뼘미술관>으로 만들게 된다. 이곳에서 열리는 전시회는 독립 큐레이터인 전승보씨와 길담서원의 운영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제를 정하고 기획을 하고 있으며, 때때로 전시된 작품이 팔려 도움이 되기도 한다.(강민경, 2011.05.08., “사람 사는 이야기를 간직한 인문학 책방 길담서원 이재성씨”, 『경향신문』)



〈그림 3-28〉 길담서원 내부 풍경 및 피아노 모습

<길담서원>은 박성준 대표를 비롯하여 상근자 1명, 자원봉사자 1명이 운영하고 있다. 서점은 ‘Book Cafe Store’로 규정될 수 있는데, 도서판매가 주목적이고, 그 외 공부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기능과 음악회·전시회 등 문화기능을 가진다. 그 결과 수입은 책 판매 수입, 카페운영 수입, 다양한 모임의 참가비 등으로 구성되며 2010년부터는 정기후원도 받고 있다.

서점을 운영하면서 만만찮은 도서구입 비용, 임대료의 상승 등의 이유로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문학을 공부하고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 박성준 대표의 생각이다.

(3) 주요특징과 시사점

<길담서원>은 지역 커뮤니티와 관련하여 서점이 이뤄낼 수 있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서점을 매개로 공부를 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서점을 문화예술공간으로 만들어 갔다는 점은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더불어, 서점운영에서 주목되는 점은 ‘자율성’이다. 앞서에서도 지적했듯, 모든 공동체나 동아리는 그 스스로 구성됨을 원칙으로 한다. 이 서점은 단지 책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이며 그들을 배려하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점에 놓은 카페 형태의 공간, 피아노, 작은 전시공간(‘한뼘미술관’) 등은 모두 그와 같은 배려를 바탕으로 한 공간배치다. 이와 같은 공간구성을 통

해 자연스럽게 동아리가 형성되었고, 그 결과 서점은 오늘날과 같은 커뮤니티 공간이 되었다.

<길담서원>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마을공동체 회복이나 지역마을 만들기의 공간이 아니다. 다만, 하나의 서점이 커뮤니티 공간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다른 서점이나 도서관의 운영에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 연구의 사례로 소개한다.

5)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⁴⁸⁾

(1) 개요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은 은평구 응암동 89-2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헌책방으로 2007년 6월에 개점했다. 입구에서 반대방향으로 돌아가는 ‘앨리스 시계’가 손님들 맞이하고, 서점은 각종 피규어들이 전시되어 있는 동화 속 만화같은 풍경을 그려내고 있다. 서점의 규모는 약 30여평으로 크지 않지만, 5천여권의 책이 촘촘히 꽂혀져 있다. 이 모든 책은 새 것이 아닌 중고다. 중고책만 취급하는 만화같은 공간! 책도 보고 차도 마시며, 공연도 보고, 동아리 활동도 하는 공간! 청소년들의 대안공간 역할도 하는 공간!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은 말 그대로 이상한 나라를 연상시킨다.



〈그림 3-29〉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
윤성근 대표 인터뷰 모습



〈그림 3-30〉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 내부 모습 1

48) 2012년 4월 4일에 진행된 윤성근 대표 인터뷰 내용,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 홈페이지 (<http://www.2sangbook.com/>) 내용을 중심으로 그 외 기사 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윤성근 대표다. 윤대표는 IT기업을 다니다 20대 후반 문득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한다. 그리고 자기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 출판사에 들어갔고, 이어 헌책방에서 일을 하면서 헌책의 가치를 깨닫고, 헌책방을 운영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한다. 헌책방에서는 일반 서점과 달리 배급사가 아닌 주인이 책을 선택할 수 있고, 진정한 베스트셀러일수록 대접 받는다는 사실이 그를 움직이게 했다는 것이다.

사실 그의 원칙은 자신이 읽지 않은 책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먼저 읽어보고 맘에 드는 책만 선택해 전시한다. 5천여권의 책을 다 봤다는 것인데, 그는 어렸을 때부터 독서에 미쳐 한 번도 책을 놓은 적이 없으며, 독서가 너무 좋아 결국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⁴⁹⁾

은평구 내 현재의 자리에 이 서점이 위치하게 된 이유는 비인가 도시형 대안 학교인 <은평씨앗학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윤대표는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학교 근처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헌책방과 학교가 가까우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드나들 수 있기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더불어 임대료가 저렴하고 지역사회에 많은 사회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점들도 한몫을 했다고 한다.

(2) 운영현황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은 2007년 6월에 문을 연 후 언제나 청소년과 지역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었다.⁵⁰⁾ 지역시민단체의 회의 공간, <동화 읽

49) 그는 대단히 뛰어난 아이디어맨이기도 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로 재직할 당시 희망제작소 대표실을 디자인한 사람이 그다. 그가 디자인한 콘셉트는 대표실 문 뒤에 커다란 거울을 놓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박이사에게 “여기에 바로 당신의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대표실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설명했다. 문을 열면 커다란 거울이 보이고, 그 거울에 비친 방문자의 모습이 바로 ‘희망’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아이디어로 그는 박원순 시장이 당선된 후 시장실 책장을 디자인했다.

50) 책방은 어린이 도서는 취급하지 않는다.

는 어른 모임>의 모임 공간 등으로 활용되면서 지역과의 관계맺음을 시작하고, <은평씨앗학교>의 종강파티, 졸업식 등의 행사, ‘꿈이 있는 푸른학교’ 학생들의 사진전시회 등을 개최하면서 이 서점은 지역 내 활동공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출처 :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 홈페이지(<http://www.2sangbook.com/>)

〈그림 3-31〉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 청소년 문화제

2008년 3월부터는 매달 둘째 토요일 오후에 ‘청소년 문화제’를 비롯해 영화 상영, 전시회, 공연, 책 읽는 모임 등 다양한 행사들을 운영했다. 2011년 5월부터는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에서 토요일 새벽까지 책방 문을 열어 놓는 ‘심야 책방’을 시작했다.⁵¹⁾



출처 :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 홈페이지(<http://www.2sangbook.com/>)

〈그림 3-32〉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 〈심야책방〉 풍경

- 51) 심야책방은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새벽까지 문을 열어놓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일본 만화인 <심야식당>에서 힌트를 얻어 시작한 것으로 밤새 편하게 책을 읽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심야책방을 연 취지다. 더불어 심야책방에서는 밤 12시에서 새벽 1시를 넘어가는 시간에 노래, 연주, 연극, 마임, 행위예술 등 그때 그때마다 기획된 공연을 볼 수 있다. 새벽에 하기 때문에 시끄럽지 않은 잔잔한 공연들을 위주로 진행하며, 무대가 작기 때문에 1~3명 정도의 소규모 공연을 주로 한다. 이외에도 서점에는 창작 판소리, 초창 강연회, 전시회 등의 다양한 행사가 비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은 윤성근 대표가 혼자 운영한다. 처음 3년은 계속 적자였으나 입소문이 나면서 지금은 적자는 면한 상태라 한다. 책방을 이용하는 이용료는 따로 받지 않고, 책을 판매해서 얻는 수익으로 서점을 운영한다.

이 서점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자신이 읽어본 책만 판매한다는 원칙에 따라 참고서나 잡지, 자기계발서 등과 같은 책이 없고 주로 철학 및 사회학과 관련된 책들만 취급한다. 책은 종로나 동묘 일대 헌책방과 개인을 통해 구매하며, ‘순환독서제’라는 것을 통해 확보한다. ‘순환독서제’란 손님이 판매하고 싶어 하는 책을 가져오면 순환독서 책장에 진열해 주고, 책이 팔리면 책 주인에게 책 금액만큼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다른 책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판매 수수료 없이 열어 놓은 공간을 통해 책을 순환시키자는 것이 ‘순환독서제’ 도입의 이유다.

특히 서점 내 있는 많은 책들은 <은평구립도서관>에서 구했다는 것이 윤대표의 얘기다. 윤대표의 서점 운영 취지에 동감한 <은평구립도서관>이 오래 된 책을 장기대출해줌으로써 많은 수의 책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한다. 장기대출이란 반납하지 않아도 됨을 의미한다.



〈그림 3-33〉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 내부 모습 2

(3) 주요특징과 시사점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은 동아리 공간과 문화공간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길담서원>과 유사하지만, 헌책을 주로 판매한다는 점, 도서의 확보와 판매 방식 등에서 다른 형태를 보여준다.

첫째,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은 헌책을 주로 판매한다. 프로그램 또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에 강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 달에 한 번씩 개최되는 <청소년문화제>는 하나의 주제를 정해놓고 퀴즈 풀기, 재활용종이를 활용한 액자 만들기, <은평씨앗학교>의 연극 발표회, 시 낭송회, 연주회 등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 하고 있다. 또한 2011년 겨울방학에는 청소년을 위한 워크숍으로 <철학 살아먹기>, <한국 대표 단편, 대표적이지 않게 읽기>를 진행했다.

둘째,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은 헌책을 판매하기에 책을 구입하는 형태도 <길담서원>과 다르다. <길담서원>은 책 판매상으로부터 도서를 구입하는 형태를 띠나,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은 주민들이 스스로 책을 판매하도록 하거나 지역사회로부터 구입하는 방식을 취했다. 무엇보다 <은평구립도서관>에서 장기대출한 것이 도서를 확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필요한 도서를 어떻게 확보하고 제공해 줄 것인가 하는 점은 매우 중요한 의제로 제기된다. 도서의 구입과 판매는 서점 운영에서 핵심이다.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한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과 같은 마을서점의 탄생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특히 윤대표는 북카페 중심의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한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경쟁적인 업체인 북카페가 늘어날 경우 서점의 위축은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새로운 정책보다는 현재 있는 시설이나 기관, 활동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들로 하여금 지역 커뮤니티 활동으로 나가도록 해야 서점의 안정화 및 마을공동체 회복이라는 박원순 시장의 사업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따라서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마을서점에게도 ‘어떻게 필요한 책을 공급하고, 보다 적극적인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할 것인가’의 과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던져 주는 것이라 하겠다.

6) 더북소사이어티⁵²⁾

(1) 개요

<더북소사이어티>는 지하철 상수역 부근인 마포구 합정동 371-4에 위치하고 있다. 2010년 3월에 문을 연 이 서점은 소규모 커뮤니티 서점으로 직접 출판하거나 소규모로 출판 서적을 파는 디자인 전문서점이다. 출판사인 동시에 서점의 역할을 하고 있고, 여기에 관련된 워크숍, 공연, 전시 등의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는 프로젝트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 등이 특징이다. 특히 이 서점은 예술가들이 활동하는 공간으로 국내외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다.



〈그림 3-34〉 더북소사이어티 전경 및 내부 모습

<더북소사이어티>를 운영하고 있는 임경용 대표는 이 일을 하기 전부터 출판에 관심이 많았고, 출판사에서 잠깐 일을 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소규모 출판물인 ‘진(Zine)’에 대해 알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출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임대표는 기획자 구정연씨와 함께 2007년 2월에 미디어버스라는 소규모 출판사를 설립했다.

미디어버스는 각각 영화와 디자인 쪽에서 기획자로 일했던 두 사람이 직장에서 해소되지 않은 욕망을 같이 발현한 것이었다.⁵³⁾ 미디어버스는 초기에는 신

52) 2012년 3월 29일에 진행된 더북소사이어티 임경용 대표와의 인터뷰 내용, 더북소사이어티 홈페이지(<http://www.thebooksociety.org/>)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53) 구정연, 2010, “스스로의 좌표를 확인하기 위해 던지는 질문 - 다들 잘 살고 계십니까”, 『예술경영』No.82

진작가를 위한 출판물로 진을 제작했으며, 점차 아티스트 북을 직접, 혹은 커미션을 받아 작업하는 형태로 발전해 왔다. 예술과 디자인, 건축, 예술비평, 이론, 시각문화 등에 중점을 두어 동시대 이슈들을 논의하는 동시에 기록하는 작업들이 주요 일이다.

또한 자체 출판물 제작을 비롯하여 영리 또는 비영리 작업으로 전시를 기획하거나 출판 및 컨설팅, 리서치 작업 등을 했다. 이렇게 해서 직접 만들어낸 책을 판매하는 것은 물론 책을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자 <더북소사이어티>를 기획했다. <더북소사이어티>는 미디어버스를 확대 발전시킨 것이다.

<더북소사이어티>는 2009년 10월에 <한국디자인문화재단>과 <아트선재센터> 1층에서 소규모 출판, 예술출판에 대한 행사로 시작되었다. 2010년 3월에는 아티스트 북, 디자인, 자주출판, 소규모 출판물을 기획하고 판매하는 프로젝트 공간이자 서점으로 발전되었으며 마포구 상수동에 자리 잡게 되었다. 이 서점은 책을 판매하는 공간 이상으로 강연, 워크숍, 스터디, 상영회, 공연 등의 다양한 교류 활동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그러다 2년 후인 2012년 3월 5일에 현재의 위치인 마포구 합정동으로 이전했다.

(2) 운영현황

<더북소사이어티>는 임경용, 구정연 등 2명의 대표가 운영하고 있다. 프로젝트별로 2명의 비정규직 직원이 함께 일을 하기도 한다. 운영비용은 출판을 통해 충당하려고 하나 소규모 자기출판이다 보니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때문에 홈페이지 제작·기획 등으로 돈을 벌고, 다시 그 돈을 <더북소사이어티>에 쏟아 붓는 형태다.

<더북소사이어티>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술가들이 교류하는 커뮤니티 공간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임대표는 과거 <북스>에서 다양한 행사들을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좀 더 이를 자유롭게 해보고 싶어 <더북소사이어티>라는 프로젝트 공간을 직접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곳은 토크, 공연, 전시, 실험예술 등

의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고 이를 통해 작가나 디자이너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교류를 하는 소규모 커뮤니티 공간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임대표는 <테이블 토크>라는 이름 아래 다양한 예술인들을 초청해서 서점에서 대화하는 모임을 여러 차례 이어왔고, 이러한 활동들이 입소문이 나서 자신의 작업을 설명하고 싶어 하는 여러 분야의 예술가들이 먼저 연락해 오기 시작했다. 문화계 사람들이 이러한 소식들을 영어로 블로그에 올리면서 외국 인디서점과 예술가들의 관심을 끌게 됐다. <더북소사이어티>에서 주최했던 주요 행사로는 다국적 디자인 그룹인 아바케를 비롯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위치한 예술 기관인 카스코(Casco) 디렉터인 최빛나씨, 아티스트 양혜규씨 등의 토크가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더북소사이어티>는 2011년 6월에 열린 이탈리아 베네치아 비엔날레의 비공식행사인 <더북 어페어>에 아시아 대표로 초대받기도 했으며,⁵⁴⁾ 뉴욕의 뉴뮤지엄(New Museum)에서 기획하고 발행한 <아트 스페이스 디렉토리(Art Space Directory)>에 한국을 대표하는 서점이자 프로젝트 스페이스로 소개되었다. <더북소사이어티>에서의 행사는 1달에 2번씩 꾸준히 개최되며, 일주일 전에 블로그를 통해 공지된다. 보통 1회 행사에 30명 정도가 참석하는데,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 디자이너, 학생, 종사자들이 대부분이다.

〈표 3-12〉 더북소사이어티 2012년 진행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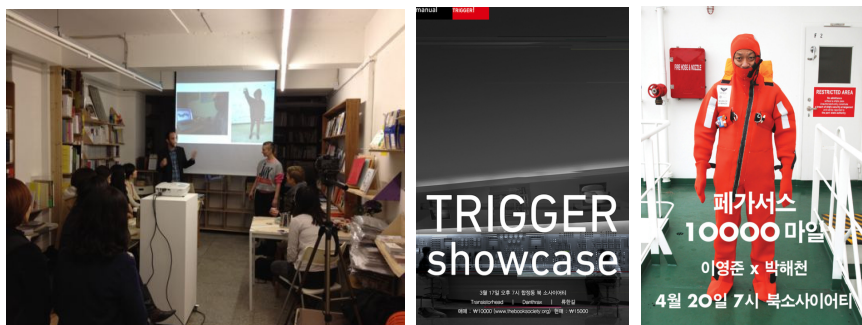
일시	주제	내용
2012.03.07(수) 오후 7시	〈Archive Monthly Design 1976-2011〉 발간 기념 토크	게스트 : 전은경(월간 디자인 편집장), 김광철 (계간 그래픽 편집장), 조현열(계간 그래픽 #21 디자이너) 월간 디자인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의 의미와 그 방식에 대한 토크
2012.03.10(토) 오후 3시	‘roundabout’ 프로젝트 토크	라운드어바웃(roundabout)은 평론가, 작가, 디자이너, 편집자가 함께 하는 독립출판사 라운드어바웃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소설 01 : 본문 없는 주석〉과 〈30분〉의 기획의도 및 이후 진행 방향에 대한 토크

54) 권은중 기자, 2011.04.26., “인디서점 1년만에…문화예술 사랑방 됐어요.”, 『한겨레』

〈표 계속〉 더북소사이어티 2012년 진행 행사

일시	주제	내용
2012.03.11(일) 오후 2시	프로젝트 후쿠시마 토크	기획 : 류한길(더 매뉴얼) 참가자 : 오토모 요시히데(Otomo Yoshihide), 박해강, 이미연, 류한길, 홍철기, 진상태, 이행준, 오를로, 더북소사이어티 등 비공개로 진행되며 내용을 정리하여 소책자 형태로 만들 예정
2012.03.15(목) 오후 7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 철학, 음식, 일상에 대한 아티스트 토크 및 퍼포먼스	이미지, 사운드, 댄스, 음식을 활용해 〈더 미미랩〉이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작업의 일부를 참여자와 나누는 시간 〈더 미미랩〉은 우리의 일상 행동에 내재된 가능성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모을 수 있는 통합적인 연구와 전략을 실천하고 있는 그룹
2012.03.17(토) 오후 7시	Trigger Showcase	입장 : 6시 30분부터 티켓 : 10,000원(예매), 15,000원(현매) ‘Trigger’는 ‘The manual’이 새롭게 런칭하는 댄스뮤직 전문 레이블로 쇼케이스 형식의 공연 진행
2012.04.20(금) 오후 7시	〈페가서스 10000마일〉 발간기념 토크	참가자 : 〈페가서스 10000마일〉의 저자인 이영준, 박해천

출처 : 더북소사이어티 블로그(<http://thebooksociety.tumblr.com/>)



〈그림 3-35〉 더북소사이어티행사 -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더 미미랩), Trigger Showcase, 페가서스 10000마일 발간기념 토크

(3) 주요특징과 시사점

<더북소사이어티>는 <길담서원>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마을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하는 서점이 아니다. 서점은 예술가들의 공동체 조성

을 목표로 움직이며, 예술가들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더북소사이어티>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출판물 매개로 한 프로젝트 추진과 이를 기반으로 서점이 어떻게 상징적 존재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더북소사이어티>의 발전과정을 보면, 서점을 판매자의 공간이 아니라 소비자의 공간, 즉 서점을 드나드는 예술가의 공간으로 바꾸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예술가들은 서점에서 발표를 하기도 하고, 출간을 하며, 모임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런 소비자 중심, 다시 말해 이용자 중심의 공간 연출 및 운영으로 인해 <더북소사이어티>는 예술계 내외에서, 해외에서도 유명한 서점으로 자리 잡았다.

더불어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임경연과 구정연씨의 존재다. 이들은 기존 직장에서는 할 수 없었던 한계를 극복하고자 <미디어버스>를 설립하고, 이어 <더북소사이어티>로 발전시켰다. 모든 공동체 운동이 그러하듯, 지배적인 질서로는 이루어낼 수 없는 한계적 상황을 상호 간 네트워크를 통해, 즉 서로 같은 욕망을 짝짓기함으로써 문제를 풀어 낼 수 있었다.

마을공동체 회복에서의 핵심은 이와 같은 ‘욕망의 짝짓기’이다. 즉, 서로 한계의 상황이나 어떤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문제를 풀 수 없을 때, 그 문제풀이를 위한 관계망이 형성됨으로써 공동체는 성장하게 된다. 문제는 그와 같은 욕망의 짝짓기가 제한되거나 구조화된 방식이 아닌, 다양한 욕망이 살아 숨 쉴 수 있는 네트워크, 개방된 형태의 공간으로 어떻게 만들어 지느냐 하는 점이다. <더북소사이어티>, 그리고 앞에서 살펴보았던 배정현과 박수진의 <헬로 가로수길> 등은 이와 같은 공동체 형성의 조건을 잘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더북소사이어티>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4. 마을단위

마을은 마을단위 공동체 활동 및 문화활동에서 충분한 거점을 제공하는 동시에 마을을 마을답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한다. 마을문화활동은 마을공동체의 결

과이자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전략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서울에는 그와 같은 공동체가 많은 것은 아니다. 다만, 미약하나마 마을의 형태를 띠고, 마을이라는 지역적 단위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화활동도 상당히 많다. 여기에서는 마을이라는 지역적 단위를 기반으로 문화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중요한 움직임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1) 성미산마을⁵⁵⁾

(1) 개요

성미산마을은 마포구 성산동, 서교동, 연남동 일대에 형성된 크고 작은 커뮤니티의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이 마을은 공동육아를 위해 부모들이 모인 것을 출발점으로 점차 생활문화 관계망을 형성해 왔으며, 현재 30~40대 가족 중심의 커뮤니티가 구축되어 있다. 대략 1,000여명의 주민들이 관계를 맺고 있으며 단체, 가게, 모임 등 60~70여개의 독립적인 커뮤니티가 유지되고 있다. 2007년 이후로 급증한 마을 동아리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심에 마을문화활동의 거점역할을 하는 <성미산마을극장>이 있다. 성미산마을은 현재 서울에 형성된 도시형 마을공동체의 사례로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다.

55) 성미산마을을 다룬 <우린 마을에서 논다>(유창복 저, 2010), <도시속 마을공동체운동의 형성과 전개에 대한 사례연구-성미산 사람들의 마을하기>(유창복, 2009,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석사학위논문)를 중심으로 그 외 기사 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그림 3-36〉 성미산마을지도

(2) 주요사

성미산마을이 형성된 것은 1994년 우리나라 최초의 공동육아협동조합인 <우리어린이집>이 마포구 연남동에 설립되고 이듬해 성산동으로 이전하면서부터였다.⁵⁶⁾ 국가와 시장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문제를 스스로 찾겠다는 자발성과 대안성에서 비롯된 성미산공동체는 1996년 방과후 교실인 <도토리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고, 주민과의 관계를 더욱 확장하여 2000년 <마포두레생활협동조합>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공동육아에서 출발한 공동체가 생협운동으로 진화한 것이다.

2001년부터 2003년의 시기는 성미산 공동체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가

56) 이때 어린이집 명은 <날으는 어린이집>으로 바뀐다. 이후 2000년에 <참나무 어린이집>이 개원하였고, 2005년도에는 <날으는 어린이집>으로 분화하여 각각 <성미산 어린이집>, <또바기 어린이집>이 개원하였다.

장 큰 변화는 서울시의 성미산 개발에 맞서 ‘성미산지킴이’라는 지역생태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지역을 배수장과 한양학원으로 개발하려던 계획에 맞서 줄기찬 싸움을 벌여나갔고,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늘어나는 동시에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다.

‘성미산지킴이’를 위해 모였던 사람들과 함께 불렀던 노래는 2001년 마을축제로 발전하게 되고, 2004년엔 마을카페가 문을 열었다.⁵⁷⁾ 그리고 마을축제가 점차 안정화되면서 성미산은 하나의 공동체라는 ‘기호’를 얻게 되었다. 즉, 성미산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육아와 생협을 축으로 공동의 문화를 가진 하나의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성미산공동체는 2007년 ‘차없는 거리 축제’를 통해서 더욱 강하게 성장했다. 특히 이때부터 마을동아리가 급증하기 시작하는데, 당시 ‘두 달 직전’이라 하여, 축제 두 달 전에 동아리를 만들어 신청하면 누구나 축제 무대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 결과 축제를 앞두고 다양한 동아리들이 결성되기 시작하는데, <우리어린이집> 아빠와 교사로 구성된 ‘아마밴드’, 해체되었다 재결성된 ‘마포스’, 혼성댄스팀 ‘내안의몸부림’, 아줌마 두드림팀인 ‘소녀들의 반란’ 등이 대표적 동아리들이다.

이어 2009년에는 그 열기를 모아 ‘성미산마을극장’이 문을 열게 되었다. 극장이 하나 필요하겠다는 지역주민의 열기와 때마침 지역으로 이전한 시민단체들이 새로운 건물을 건립하면서 지하공간에 극장이 생기게 되었고,⁵⁸⁾ 이 극장을 매개로 성미산공동체는 말 그대로 문화공동체로 급격히 진화하게 되었다.

57) 현재 운영되는 <작은나무 카페>의 전신으로 당시 이름은 <그늘나무 카페>였다.

58) 현재 이 건물에는 <여성민우회>, <환경정의>, <녹색교통>,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 4곳이 같이 자리를 잡고 있다.



출처 : 성미산마을극장 카페(<http://cafe.naver.com/sungmisantheater/1796>)

〈그림 3-37〉 성미산마을극장 모습

현재는 60~70개 정도의 동아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⁵⁹⁾ 그러나 그 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동아리가 생기고 사라진다. 성미산은 오래된 공동의 네트워크와 마을이라는 지역의 정체성, 곧 문화가 형성된 결과 누구라도 자신의 욕구가 있으면, 그것을 표출하고 서로 관계하며 욕망을 짚기하는 단계가 되었다. 여느 지역처럼, 성미산마을은 서로 관계를 터가면서 욕구를 맞춰가는 방식이 아닌, 서로 욕망만 맞으면 언제든지 관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화한 것이다.



〈그림 3-38〉 성미산마을동아리 활동 모습 - 무말랭이, 동네사진관, 성미산풍물패

때문에 성미산에서 이제 동아리는 하나의 ‘마을살이’과정이다. 마을에서 살아

59) 현재 성미산마을에 있는 동아리로는 사진동아리인 ‘동네사진관’을 비롯하여 연극동아리인 ‘무말랭이’, 영상동아리 ‘물뜨네’, 여성인문학동아리 ‘맘품앗이’, ‘성미산풍물패’, 마을밴드인 ‘아마밴드’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동아리들은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성미산동아리 축제, 마을 축제 등을 통해 자신들의 기량을 뽐내고 주민과 소통한다.

가는 자연스런 현상이고 흐름이라는 얘기다. 주민들은 서로 자기의 욕망을 드러내는 애칭(nick name)으로 얘기하며, 언젠가 서로 결합할 준비가 되어 있다. 공동육아에서 생활공동체로, 그리고 다시 문화공동체로 진화·발전한 것이다.

(3) 운영 현황

현재 성미산마을에는 다양한 운영주체가 있다. 우선 육아와 보육, 교육을 맡고 있는 4개의 공동육아협동조합⁶⁰⁾과 대안학교인 <성미산 학교>가 있다.⁶¹⁾ 그리고 여기에 20여개의 마을기업으로 이루어진 생협운동이 자리 잡고 있다. 2000년에 문을 연 <마포두레생활협동조합>을 비롯하여, 친환경 유기농 반찬가게인 <동네부엌>, 유기농 식당인 <성미산 밥상>, 공동주택전문기획회사인 <소행주(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만들기)>, 바느질공방 소모임에서 출발하여 일공동체사업장이 된 <한땀 두레>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성미산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 <작은나무>⁶²⁾ 카페다. 이 카페는 2004년 10월 유기농아이스크림 전문점 <그늘 나무>로 시작하여 성미산학교 교사들이 위탁 운영을 하다가 주민출자로 전환한 다음,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현재 약 150여명의 주민이 출자하고 있는 이 카페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민 간 교류와 마을의 관계망이 형성된다. 또한 그 스스로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두 번 수요일 밤에 ‘수요 음악회’를 개최하고, ‘동네사진전’ 등과 같은 비정기적인 전시, 커피·사진 등의 강의 등을 한다.

60) 4개의 공동육아협동조합은 우리 어린이집, 참나무 어린이집, 성미산 어린이집, 또바기 어린이집 등으로 구성된다.

61) 2004년 9월 문을 연 <성미산학교>는 초중고 통합 12년제 비인가 도시형대안학교로 현재 17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정교사 25명을 포함하여 강사, 자원봉사자 등 40여명의 교사가 있으며 자가 소유 건물을 갖고 있다. 학교운영은 학교설립위원회 이사회와 학교운영위원회, 교사회 등 3단위가 동등한 위상을 갖고 서로 협력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62) 위치 :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50-52



출처 : 성미산마을카페 작은나무 홈페이지(<http://cafe.naver.com/maulcafe/412>)

〈그림 3-39〉 성미산 작은나무 카페 풍경

2007년엔 사단법인 <사람과 마을>⁶³⁾이 출범하였다. 처음 건설교통부의 <살고싶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공모·선정되면서 사업을 수행할 기관이 필요해 설립한 이 법인은 사업이 끝나고 난 후에는 마을 내 각종 단체를 지원하며, 마을 사업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로 마을의 일을 추진하기 위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관련 회의를 소집하거나 외부에서 진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사)〈사람과 마을〉이다.

사람과 마을

▶ 추진 배경

- 2007년 건설교통부의 <살고싶은 마을만들기> 공모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 처음에는 중앙 정부의 기금을 받아 마을일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격론이 벌어짐. 마을 전체 회의를 통해 마을현황과 과제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기회로 삼자는 의견이 모아짐
- 사업 추진·선정에 따라 1억원의 지원금을 받고 사업을 수행할 기관으로 2007년 3월 사람과 마을을 설립
- 사업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마을의 각종 단체를 지원하고 마을 사업을 담당하는 마을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

▶ 활동 내용

- 마을 내 다양한 활동들의 현황과 과제를 살피고 개별활동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63) 사람과 마을은 2007년 11월에 여성가족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단체이다.

(4) 주요특징과 시사점

성미산마을은 가장 마을다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 지역 내에 흐르는 문화가 있으며, 그 문화가 지역을 정체하고 기호화한다. 그 문화란 주민들과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 관계의 활동 속에는 공동의 육아와 보육, 교육, 생활협동이 있으며, 문화동아리와 축제, 활동이 있다. 이 기호가 형성됨에 따라 성미산에서 공동체와 문화활동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다.

성미산에서는 ‘마을 축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행사가 1년 내내 열린다. 2월 정월 대보름에는 ‘지신밟기’ 행사를 하며, 4월 식목일에는 성미산에서 ‘나무심기’를 한다. 5월에는 마을에서 성장한 지역 청년들의 통과의례인 ‘성인식’과 ‘마을 축제’가 개최되며, 10월에는 ‘마을운동회’가 열린다.

성미산이 이와 같은 문화공동체로 발전하게 된 것은 마을축제와 극장의 힘이 컸다. 마을축제는 2001년부터 시작되어 현재에 이른다. 특히, 2007년에 개최된 마을축제는 “산에서 마을로”라는 콘셉트하에 성미산의 상징성을 일상 생활공간으로 전환하는데 성공했다. 2008년에는 <성산동주민자치위원회>가 해오던 ‘아카시아축제’와 ‘성미산마을 축제’를 합해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올해엔 <나비처럼 “?래”>란 슬로건으로 5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었다.



출처 : 2012 성미산마을축제 카페(<http://cafe.naver.com/smsfest/233>)

〈그림 3-40〉 2012 성미산마을축제 풍경

〈표 3-13〉 2012 성미산마을 축제 프로그램

구분	일시	프로그램
“?래”	시작 할래	05.21.(월) 성미산마을축제 개막제 (성미산마을극장)
	워크숍 할래_1	05.22.(화) 축제퍼레이드_워크숍1 (성미산마을극장) 강강수월래_워크숍 (살판 연습실)
	워크숍 할래_2	05.23.(수) 축제퍼레이드_워크숍2 (성미산마을극장) 차전 미리 만들기_워크숍 (성미산학교 목공실)
	이야기로 놀래	05.24.(목) 청소년 희망탐사 프로젝트 〈지인지기〉
	종일 영화 볼래	05.25.(금) 마당을 나온 암탉, 죽어도 좋아 말하는 건축가, 엔딩노트, 창문을 마주보며
	실내에서 놀래	05.26.(토) 축제 참가 신청으로 구성된 실내 공연, 체험 프로그램 (성미산마을극장)
	야외에서 놀래	05.27.(일) 성미산마을축제 대동 한마당(성서초등학교 운동장)
축제퍼레이드와 대동놀이		05.27.(일) “나비처럼 팔랑팔랑”
거리설치전		05.21.~27. 합판에 축제하는 사람의 모습을 (05.16.성미산학교 주차장) 현웃에 실크 스크린을(05.17. 성미산학교 미니숍)

마을축제가 마을 내 문화를 도입한 것이라면, <성미산마을극장>은 마을 내 문화가 크는 기반을 제공했다. 공동체극장(community theater)이라 할 수 있는 <성미산마을극장>은 약 100m² 규모의 100여명이 관람 가능한 자그마한 극장이다. 블랙박스 형태로 되어 있는 이 극장의 객석은 수납이 가능한 큐빅형 쿠션으로 제작되어 있다. 때문에 음악과 연극, 마임, 뮤지컬, 전시 등 모든 다양한 형태의 발표가 가능하며, 이 극장은 성미산 마을문화활동의 중심거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성미산마을극장>이 탄생한 결과, 2009년 ‘성미산 동아리축제’와 2010년 ‘동네 연극축제’가 만들어졌다. 성미산 동아리축제는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동아리들이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바탕으로 하고 싶은 예술작품을 무대와 전시회로 선보이는 자리이다. 동아리의 장르별 성격에 맞게 극장을 활용하여 전시 및 공연 등을 펼친다. ‘아리아리 동동’이라는 이름으로 3년째 진행되고 있으며, 2011년에는 동네사진관, 물뜨네, 세상을 노래로 채우기, 무말랭이, 아마밴드 등 12개의 동아리가 참여하였다. 동네연극축제는 배우, 관객, 스태프

모두 주민들로 이루어진 전국의 동아리가 함께 하는 축제이다.

동네연극축제는 2010년에 동네 연극동아리 8팀이 모여 개최한 ‘성미산 시민 연극축제’가 토대로, 2011년에 지금의 이름을 얻었다. 올해는 7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열흘간 개최되며, 서울, 안산, 대전의 일곱 개의 동네 시민극단이 8개의 연극을 공연한다고 한다.

〈표 3-14〉 제3회 성미산동네연극축제 프로그램(2012)

일시	극단	내용
2012.07.14, 16시	동네극단 우이동	사거리 빵집
2012.07.15, 16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청락원 부모연극동아리 초연	심청이는 예쁘다
2012.07.17, 20시	세상을 노래로 채우기+마을어린이합창단	지뢰대신에 꽃을 주세요.
2012.07.18, 20시	안산연극소 유혹	바리데기 금줄에 걸리다
2012.07.19, 20시	생활연극 공작단 연상연하	아름다운 사인
2012.07.21, 16시	시민극단 오당춤	오해는 당신을 춤추게 하지
2012.07.21, 19시	성미산마을극단 무말랭이	갈매기
2012.07.22, 16시	대전 생활문화공동체 시민극단 대살미	고향유정

〈표 3-15〉 제3회 성미산마을문화예술동아리 축제 ‘아리아리 동동’ 프로그램(2012)

일시	동아리	프로그램	장소
2012.10.17, 20시	세상을 노래로 채우기	창작극-피리부는 사람	성미산마을극장
2012.10.18, 19시30분	동네사진관	MEMORY2(상영)	성미산마을극장
	물수제비 뜨는 네모	물뜨네 정기 상영	성미산마을극장
2012.10.19, 19시30분	어르신 민요만담 프로젝트	민요파라 이야기 삼천리	성미산마을극장
2012.10.20, 20시	마을극단 무말랭이	무말랭이의 〈정가수업〉 오픈클래스	성미산마을극장
	마을어린이 합창단	제3회정기공연-노래로 자라는 아이들	성미산마을극장
2012.10.22, 19시30분	성미산노래패 진동	소박한 기쁨	성미산마을극장
	성미산배움터 뮤지컬 교실 -내가 바로 명배우	드림업, 우리는 파티시에	성미산마을극장
2012.10.23, 17시	성미산배움터 가야금 소리반	가야금과 민요의 만남	성미산마을극장
	아마밴드	Believe	성미산마을극장
2012.10.22, 14시	성미산풍물패	가을소풍	한강시민공원
2012.10.17~10.30	목화열매	그렇고 그런(드로잉 전시)	작은나무 카페

성미산공동체는 서울 내 마을이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더불어 그 기반이 오랜 지역의 네트워크에서 비롯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성미산마을이 오늘날과 같은 문화공동체로 발전하기까지는 무려 15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또한 그 과정에서 지역과 결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고, 무엇보다 마을을 이끌어가고자 했던 마을 주민들의 강한 노력이 있었다. 마을극장을 조성할 정도로 강한 의지와 기반이 있었다는 점은 우리가 공동체 형성과 관련하여 주목해 보아야 할 요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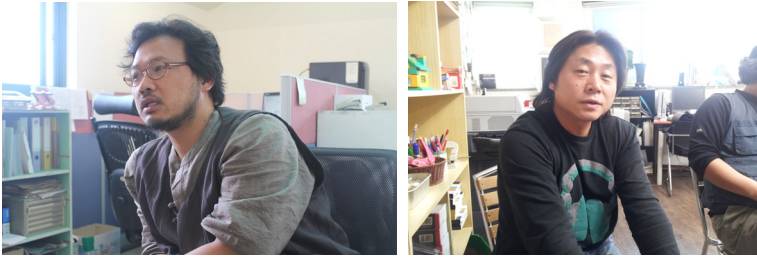
더불어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그럼에도 성미산 공동체의 살림살이가 그리 쉽진 않다는 것이다. 마을극장은 많은 부채를 떠안고 있고 어렵게 운영되고 있고, 마을카페 또한 경영이 쉬운 상태는 아니다. 그런 점에서 마을공동체의 안정화에 필요한 요소가 적지 않음을 보게 된다. 즉, 15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공동체가 자립과 자생의 기반 마련이 쉽지 않다면, 현재 생겨난 공동체나 역사가 짧은 공동체가 달리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공동체 기반의 문화시설이나 거점이 어떻게 자생의 기반을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은 새로운 과제라 하겠다.

2) 삼각산 ‘재미난 마을’⁶⁴⁾

(1) 개요

<삼각산재미난마을>은 강북구의 수유동 일대에 형성된 마을공동체로, <성미산마을>과 마찬가지로 공동육아에서부터 출발했다. 1998년 공동육아협동조합인 <꿈꾸는 어린이집>이 자리를 잡으면서 시작되었고, 현재는 <(사)삼각산재미난마을>을 비롯하여 작은도서관 <함께 놀자>, 청소년문화공동체 <품>, 극단 <진동>, <스튜디오 느낌보> 등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마을을 만들어 가고 있다.

64) 2012년 4월 12일에 진행된 삼각산재미난마을 투어프로그램 내용과 2012년 4월 27일에 진행된 (사)삼각산재미난마을의 이상훈 사무국장, 품 청소년문화공동체 심한기 대표와의 인터뷰 내용, (사)삼각산재미난마을 홈페이지(<http://cafe.naver.com/maeulro53>) 내용을 중심으로 그 외 기사 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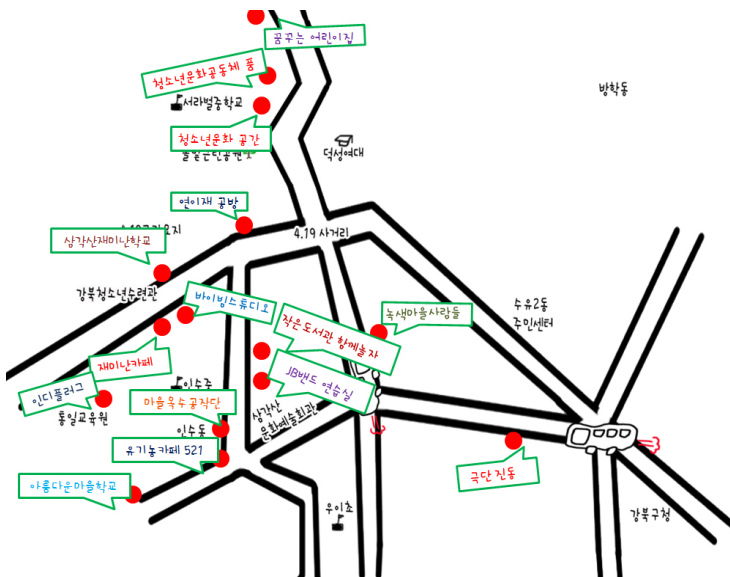
〈그림 3-41〉 삼각산재미난마을 인터뷰
- (사)삼각산재미난마을 이상훈 사무국장, 청소년문화공동체 품 심한기 대표

<삼각산재미난마을>이 본격화된 것은 <꿈꾸는어린이집> 아이들이 크면서 2003년 <삼각산재미난학교>를 설립하면서부터였다. <꿈꾸는어린이집> 조합원들과 대안교육 단체, 장애인 학부모 단체 부모들이 중심이 되어 대안학교인 <삼각산재미난학교>를 세우면서 아이들을 매개로 한 주민들 간 자연스런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 부모들이 참여하면서 2005년에는 소박한 마을 잔치인 ‘단오잔치’가 개최되었다. 이어 2008년에는 여기에 많은 기관들이 참여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마을화의 흐름을 갖게 되었다.⁶⁵⁾

마을화의 단계로 이어지면서 지역 내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마을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영화제작자로 ‘위낭소리’를 제작한 고영재씨, 연극배우이자 탤런트인 ‘권해효씨’ 등이 그 대표적 예다. 여기에 오래 전부터 강북지역에서 활동하던 청소년문화공동체인 <품>(대표 심한기)이 참여하게 되고,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극단 <진동>대표인 박종우씨가 극단 전체를 지역으로 이전시키면서 마을은 하나의 네트워크로 발전하게 되었다. 곳곳에 자리 잡은 작은 활동가들의 접합점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2011년 2월 29일, 사단법인 <삼각산재미난마을>이 출범하게 되면서 마을네트워크는 공식화되고, <삼각산재미난마을>은 강북의 새로운 마을로 세상에 떠오르기 시작했다.

65) 당시 참여한 기관들은 꿈꾸는어린이집, 서울여대 서비스러닝 시각디자인화, 돌산아동청소년 문화센터 부설기관 일출마을 공부방, 열린사회복지부시민회 품물굿패 박달, 덕성여대 등 지역사회에서 연계 맺고 있는 다양한 기관들이었다.

사단법인 형태의 마을네트워크 형성은 마을단위의 정체감을 형성하는 한편, 지역사회를 기호화한다. 그럼으로써 지역사회 사람들을 더 결합시키고, 삼각산이라는 코드로 결합하도록 만든다. 2011년 9월에는 기존에 있던 <재미난 밥상>⁶⁶⁾을 인수하여 <재미난 카페>를 만들고, 지역 내 거주하는 다양한 예술인 사람들이 참여하는 여러 가지 동아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마을밴드인 ‘백세밴드’와 ‘재미난밴드’, 마을극단인 ‘우이동극단’, 애니메이션 동아리인 ‘요술항아리’, 목공작업장이자 교실인 ‘마을목수공작단’ 등 현재 <삼각산재미난마을>에는 동아리가 빠른 속도로 무르익고 있는 중이다. <성미산마을>이 완속단계에 있는 ‘가을날’의 마을을 보여준다면, <삼각산재미난마을>은 ‘여름단계’의 성장력과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삼각산재미난마을>은 이제 막 청년기를 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림 3-42〉 삼각산재미난마을 마을문화활동 거점 현황

66) <재미난 밥상>은 <재미난학교>의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 만든 ‘친환경농산물 식당’이다.

(2) 운영현황

<삼각산재미난마을>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사단법인 <삼각산재미난마을>이다. (사)<삼각산재미난마을>은 6인의 이사를 두고,⁶⁷⁾ 별도의 사무국(사무국장 이상훈)을 운영하고 있다. 법인회원은 140여명이며, 현재 삼각산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가구 수는 약 400가구로 추정된다.

<삼각산재미난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또 다른 주체는 청소년 공동체 <품>이다. <품>은 오래 전부터 지역교육운동에 뜻을 품고 강북지역에서 활동해왔다.⁶⁸⁾ 1998년부터 개최된 강북청소년문화축제인 ‘추락’은 품이 만들어 온 대표적 활동이다.

<품>은 2008년부터 청소년들과 함께 지역사회를 기획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문화놀이터’라고 명명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청소년들이 지역을 만들어 가는 사업에 참여하게 되고, 그 결과로 2010년 5월 ‘십대들은 위한 대안문화공간’이 탄생하였다. 이 공간에서는 현재 청소년들의 대안학교인 ‘무늬만학교’와 문화기획아카데미, 십대기획단, 마을 속 인문특강 등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림 3-43〉 청소년문화공동체 〈품〉 활동 모습

67) 6인의 이사는 고영재(인디플로그 대표), 박종우(진동 대표), 권해효(배우), 심한기(청소년문화공동체 품 대표), 이상화(삼각산재미난학교 교장), 이상훈(삼각산재미난마을 사무국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68) 품이 강북지역에 자리 잡은 것은 1992년 품 청소년놀이문화연구소가 개소하면서부터였다.

청소년문화공동체 품

▶ 개요

- 청소년을 문제중심적이고 보호중심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에 대한 반향적인 시선에서 시작됨. 1992년 <품 청소년 놀이 문화연구소> 설립 이래 아이들의 문화적 성장과 주체적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현장의 다양성과 변화가능성을 전이하기 위한 실천적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음
- 청소년 복지, 문화(음악, 문화예술교육), 대안 교육, 국제 NGO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

▶ 연혁

- 1992년: 품 청소년놀이문화연구소 개소
- 1994년: 재단법인 일암청소년육성재단/ 품 청소년놀이문화연구소 설립. 한 지붕 두 가족 생활 시작
- 1996년: 품 최초의 연속사업 <서울시 청소년 연극축제(1996~2005)> 시작
서울시 청소년 단체상 수상
- 1997년: 청소년 교육, 청년 교육, 자원지도자 교육 활동 시작(교육사업의 모태가 됨)
- 1998년: <강북 청소년문화축제 추락(秋樂) (1998~현재)> 시작
- 1999년: <청소년 전통예술 한마당(1999~2002)> 시작
- 2000년: 재단으로부터 독립. 강북구로 이전. 대한민국 최초의 청소년기획단 <노을자> 탄생
- 2001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서울시 제 252호)
<장애헤럴연극축제(2001~2003)> 시작
- 2002년: 품 10주년, 품 10주년사 편찬, 주주총회 시작. 청소년연극축제 매뉴얼북 발간
사회복지·청소년 현장 실무자 및 대학생을 위한 <청소년문화복지아카데미(2002~2007)> 탄생
- 2004년: 문화예술을 통한 세상에 말걸기. 연극반 아이들의 문화권리 찾기 <대학로 상륙작전>
주주 자녀들을 위한 초등어름캠프 <참 맑은 물살(2004~현재)> 시작
- 2005년: 서울시 청소년 연극축제 10주년. 연극반 살리기를 위한 청소년 기자회견
<청소년 동아리 워크숍> 탄생.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2005~2007) 진행
- 2006년: 네팔 여행 프로젝트 <오~히말라야(2006~현재)> 시작
NGO PUM NEPAL 설립. 네팔 사무실 마련과 상주활동가 파견
도봉 어린이날 행사, 강북 매니페스토 활동 등 지역네트워크 활동 시작
- 2007년: 강북 청소년문화축제 추락 10주년. 일상의 축제에 대한 고민
한국과 네팔의 이음을 위한 문화교류 프로젝트 시작
- 2008년: <강북 청소년 문화놀이터(2008~현재)> 탄생
유쾌한 십대들의 동네 말 걸기 프로젝트 시작. 십대와 동네의 소통 가능성 발견
청소년 동아리 워크숍은 청소년문화기획아카데미로, 축제기획단은 문화기획단으로 전환
추락이 청소년축제에서 동네축제로 변신 시작
- 2009년: 마을 중심의 문화공동체 만들기 운동으로 한국과 네팔의 지역 활동 정체성 정리
인문학에 대한 고민과 시도 <세 개와 심한개의 인문학>
- 2010년: 십대와 동네를 위한 대안문화공간 마련 프로젝트 <모금콘서트 이천(1천만원 모금)>
<청소년 문화, 공간> 탄생과 품 사무실 지상 진출
놀이터 십대들의 도움과 나눔 <동반성장 프로젝트>(어린이 기획단, 밴드 댄스팀)
청소년 기획단의 동네문화프로젝트로 동네극단 우이동, 백세밴드 등 동네문화모임 탄생
네팔 품 사무실 정리와 함께 파견 활동가 마을에서 살기 시작
- 2011년: 삶의 교육을 위한 주말대안학교 <무늬만 학교> 탄생
14회 추락 <탈탈탈 동네난장>, 지역과 세대, 문화를 넘은 난장 가능성 확인
동네문화모임들이 함께하는 <제1회 동네문화콘서트>
- 2012년: 품 20주년, 20년사 집필, 20년 나눔을 위한 영역별 보고서 발간 및 릴레이 워크숍
<십대와 함께 마을만들기>로 지역 활동방향 정리. 마을만들기를 위한 지역연대모임 시작
행정안전부 청소년단체상 국무총리 표창장 수여

청소년문화공동체 품

▶ 주요 활동 내용

- 청소년 연극축제(청소년 문화운동)
 - 청소년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고민하여 처음 시도한 연속사업으로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지속
 - 초기에는 경연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나, 2001년 명칭을 연극제에서 연극축제로 변경, 본격적인 축제로 변신. 우열을 가리는 시상이 완전히 없어졌으며 참가 동아리 모두에게 주는 <우수동아리상>, 참가 지도교사 및 청소년 개인에게 <표창장> 수상
 - 2003년에는 청소년 기획단<나마스테> 탄생. 2004년에는 청소년 연극의 독립을 선언한 <2004 대학로 상륙작전> 개최
 - 청소년 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청소년 전통예술한마당(1999~2002)> <장애 청소년 연극축제(2001~2003)> 등도 진행
- 강북 청소년문화축제 추락(秋樂)
 - 1998년, 문화불모지 강북에 우리나라 최초 청소년문화축제 시작
 - 2000년 청소년 기획단 <노을자> 탄생. 청소년이 직접 축제기획부터 평가까지 진행하며, 우리나라 청소년 기획단 모델이 되었음
 - 청소년들의 문화와 에너지가 분출되는 장으로 성장
- 강북 청소년문화놀이터
 - 청소년문화축제 추락이 10주년이 되면서, 하루의 축제는 너무 짧다는 의견과 함께 일상성에 대한 고민 시작. 이를 바탕으로 강북 청소년문화놀이터(일상의 축제 놀이터)가 2008년 탄생
 - 십대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동네를 다시 바라보고 관계 맺기 <유쾌한 십대들의 동네 말 걸기> 시작
 - 1년 동안 월별 작은 축제, 방학 중 문화캠프와 문화기획아카데미, 동네문화프로젝트, 가을 큰축제와 연말 발표회 등의 활동 진행
- 청소년 문화공간 탄생
 - 십대의 일상적 문화활동 및 동네와의 만남을 진행하면서 십대의 문화적 생산과 상시적 활동, 십대와 지역이 만날 수 있는 거점 공간 필요성 인식
 - 2009년 11월 공간 만들기 프로젝트를 결의하고, 12월에 모금콘서트 이천을 기획, 모금활동 시작2010년1월 모금콘서트 이천을 진행하였으며 10,166,050원을 모금
 - 십대들과 동네 사람들의 힘으로 2010년 5월 십대들의 대안문화공간 탄생
 - 십대들의 상시적 문화활동, <우이동 극단>의 연습실, 무늬만 학교 등의 공간으로 사용
- 무늬만 학교
 - 대안적 교육과 삶을 연결하기 위해 2011년 <무늬만 학교>의 문을 열기 시작
 - 무늬만 학교의 철학은 △교사의 일방적 가르침이 아닌 교사, 학생의 구분 없이 같이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것,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삶의 태도 갖기, △스스로 삶을 기획하고 만들어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자기 기획력> 갖기, △일상과의 연결과 실천 등임
 - 커리큘럼의 특징은 <문화적으로 상상하고, 인문학적으로 사유하고, 지역에서 실천하기>
 - 2011년에는 연간 교육과정으로 십대 문화기획자 과정 <놀면서 공부하는 문화놀이터>, 겨울방학 단기과정으로 십대인문과정 <인간으로서의 삶을 탐구하는 인문놀이터>, 여름방학에는 청년과정인 <스스로 흔들며 세상을 흔드는 청년학교> 진행
 - 2012년에는 두 개의 십대과정인 <인문(人文+文化)놀이터> 과정으로 통합
 - 스스로 기획하고 준비한 마을 축제 및 장터 등의 지역문화프로젝트로 부모님 발표회, 학습 발표회, 졸업식 등 배움과 성장을 스스로 정리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마을에서 함께 나눈 경험은 아이들의 성장에 커다란 역할을 함. 1기 졸업생 아이들이 스스로 말하는 성장 중 가장 큰 공통점은 <생각하는 힘과 표현의 성장>이 있음
 - 무늬만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연령층(중학교 1학년~20살) 및 학교에 다니는 형태(정규과정, 대안학교, 홈스쿨링 등) 등이 모두 다양
 - 2011년 1기에는 16명이 졸업하였으며, 2012년 2기는 14명이 다니고 있음

청소년문화공동체 품

〈표 3-16〉 2012 무늬만 학교 교육과정 및 내용 - 행복한 십대들의 인문(人文+文化)놀이터

기간	주제	내용
4월	문 열기	· 무늬만 입학식_ 무늬만 학생, 교사, 부모가 함께 · 무당과 함께 하는 인문학 여행_ 무늬만 인문학 · 동네 걷기, 동네 장터에서 놀기 · 달 나눔 (한 달 돌아보기와 정리) : 매월 마지막 주 진행
5월	몸 열기, 맘 열기	· 무늬만 비칼로레아_ 몸과 맘과 영혼의 연결은 가능한가? · 마임이스트 이두성과 함께 하는 몸 열기 · 동네 대안문화장터 참가 / 달 나눔
6월	문화와 일상	· 무늬만 비칼로레아_ 문화가 밥 먹여줄 수 있는가? · 무당과 함께 하는 문화여행_ 문화 제대로 알기 · 다르게 보기 그리고 다문화_ 동네 목공소 1일 목수 되기 · 동네 대안문화장터 참가 / 달 나눔
7월	문화와 여행	· 여름 여행 기획과 준비_ 문화를 만나다! · 여름 여행(6박7일)_ 품 초등캠프(3박4일) 보조교사 참가 후 자유여행 · 달 나눔과 부모나눔
8월	문화와 동네 1	· 무당과 함께 하는 축제 이야기 · 문화기획자 안이영노와 함께하는 ‘나는 십대 문화기획자다!’ · 동네 아저씨 산나물과 함께 하는 ‘우리 동네 Z 파일’ · 동네 축제 만들기 위한 기획 실습과 장터 참여
9월	문화와 동네 2	· 무늬만 비칼로레아_ 나는 도대체 동네에서 어떤 존재일까? · 내 생애 최고의 기획서 만들기_ 문화, 동네 그리고 내 삶의 행복...
10월	시도와 실천	· 축제 프로젝트 기획과 준비 · 15회 강북청소년문화축제 추락 참여
11월	지구적 사유와 인식	· 무늬만 비칼로레아_ 나는 지구인인가? · 맹생생과 함께하는 아시아의 가치와 원형 찾기 · 대안적 국제활동 활동가 집중 취재
12월~1월	기록과 나눔	· 1년 공부 정리와 졸업식 준비 · 무늬만 졸업식_ 개인별 My book 발간, 졸업 PPT 제작 및 발표 등
1월~2월	졸업여행	· 히말라야 네팔로 떠나는 ‘희망여행’ (14박15일) · 베시마을 홈스테이 및 현지 친구들과의 공동수업 · 네팔 히말라야 트레킹 및 문화답사 · 네팔 내 청년 예술가, 청년 NGO 활동가와의 교류 등

- NGO PUM NEPAL

- 2006년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 작은 사무공간을 임대하여 시작
- 2006~2009년 네팔 카트만두의 사립학교 연합과 연결하여 매년 교사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워크숍〉 추진
- 2007년에는 작은 도농마을인 베시마을에서 〈Happy School Project〉로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주기 시작했으며, 이후 몇몇 주민들과 관계를 지속함. 마을, 청년에 대한 가능성과 희망을 발견하며, 청년발굴 및 마을축제 진행
- 축제를 통해 청년들의 자발조직인 〈Happy Vibration〉이 만들어졌으며, 마을과 학교를 위한 활동을 시작함. 〈도서관〉의 필요성을 느낀 청년들은 주민들을 설득하고 모금 활동들을 통해 2008년 마을 도서관을 완공함. 이곳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만들어감
- 2009년부터는 베시마을의 활동경험과 성과를 근거로 에베레스트 솔로콧지역 골리마을로 전이함. 마을 주민들과 함께 도서관, 악국 등을 건립하였으며, 마을 도서관을 중심으로 마을청년 조직을 지원
- 품은 네팔에서의 활동을 통해 〈통합적 접근〉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와 과정을 만들어 왔고 활동의 형태가 성장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음

청소년문화공동체 품

실천 철학

01. 십대가 주체적 존재로서 성장하는 마을
02. 문화적 소동과 실천으로 성장하는 마을
03. 십대의 일상과 삶을 돌보며 함께 성장하는 마을
04. 십대와 청년을 품으며, 함께 성장하는 마을

실천 키워드



실천 방법

사람, 문화, 이야기가 있는 강북마을 정터 월1회 5~9월 상시 진행	청소년 장터 워크숍	(사)재미난마을
마을과 함께하는 강북청소년문화축제 추락 연1회 10월 진행	청소년 문화기획아카데미	강북마을모임
	지역 내 학교 교육지원	자치단체&학교네트워크
	무늬만 학교	강북구청, 성북교육지원청 송곡, 북서울중학교

출처 : 품 홈페이지(<http://pumdongi.mynet.co.kr/zbxse/horiter>)

〈그림 3-44〉 청소년문화공동체 품 - 십대와 마을만들기

특히 ‘십대기획단’이 기획해 만든 것이 현재의 주민극단인 ‘동네극단 우이동’이다. 이 주민극단은 아이들이 지역주민과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어른들이 참여하는 마을극단을 생각해 냈고,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다. 이 과정에 극단 <진동>의 대표인 박종우씨와 함께 워낭소리 제작자인 고영재씨 부인인 ‘호랑이’(애칭)가 참여하면서 주민극단은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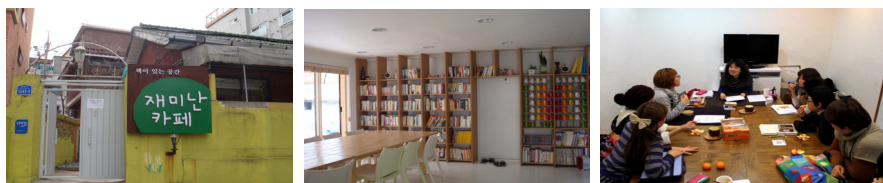
삼각산 마을공동체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활동은 ‘카페’와 ‘동아리’, 그리고 ‘마을축제’ 등이다. <재미난 카페>는 위에서 지적인 바와 같이, 기존에 있던 <재미난밥상>을 리모델링해 만든 것이다. 학부모들의 자발적 출자로 이루어졌던 <재미난 밥상>은 인근에 웰빙식당이 생겨나면서 불가피하게 문을 닫게 되었다. 그러자 2011년 마을법인이 탄생하면서 이를 인수해 <재미난 카페>를 만들게 되었다.

<재미난 카페>를 만들게 된 것은 고영재씨가 영화로 인해 벌어들인 수익금의 일부를 조성비로 출자하면서부터였다. 이로 인해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고 2011년 9월 16일에 <재미난 카페>로 문을 열었다.

현재 <재미난 카페>는 주민들이 갖다 놓은 책으로 운영된다. 이 카페는 이를 위해 ‘책꽂이 한칸 채우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각 주민이 한 칸의 책장(20권 분량)을 채우면 카페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 서는 사진, 와인, 타로 등 주민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화강좌도 열리고, 매월 1회 ‘카페데이’를 열어 영화상영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아빠들의 레시피로 이루어지는 ‘아빠의 부엌’도 진행한다.

〈표 3-17〉 재미난 카페에서 진행되는 강좌

강좌명	시간	수강료/정원	강사	내용
고니아빠와 함께 배우는 사진교실	2012.01.07(토)~14시-16시(8회)	8만원/ 10명 (초등 4학년 이상 청소년)	김성곤 (고니)	사진의 기초 : 정의와 용어 알기 자기 카메라 알기 : 카메라의 구조와 기능, 작동법, 잡는법 알기 기본 작동법 알기 : 셔터와 조리개 렌즈의 종류와 피사계 심도 알기 원근감과 앵글의 변화 알기
와인초급반	2012.03.09(금) 19시~21시(8회)	24만원/8명 내외	신현실 (떼루아)	좋은 와인이란 맛보기-5감으로 마시는 술 포도의 품종-레드와인/화이트와인 국가별 특징-신세계와인 마시기 구대륙 와인-프랑스와인/이태리와인 와인 파티
타로리더 1급과정-타로의 지혜와 내면작업	2012.03.12~2012.07.09(월) 10시~13시(17회) 2012.03.12~2012.07.09(월) 19시~22시(17회)	36만원/8명 내외	김은아 (라다)	한국타로학회 수련시간 및 타로리더 1급 자격요건으로 인정
타로리더 2급 과정-타로의 상징과 지혜를 통한 마음읽기	2012.03.19~07.16. 오후2시~5시(17회) 2012.03.22(목)~07.12(목) 오후7시~10시(17회)	36만원/10명 내외	김은아 (라다)	타로의 기원과 상징, 타로와 심리학 유니버설웨이트 타로 배우기 마더피스 타로 배우기 타로리딩의 실제
집단상담-여성 원형을 활용한 여성의 자기실현 집단상담	2012.04.03(화)~07.10(화) 10시~13시(15회)	36만원/10명 내외	김은아 (라다)	신화여신이야기를 바탕으로 여성 내면에 있는 여성원형을 발견, 여성의 정체성 발달과 자기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여성주의 집단상담 프로그램



〈그림 3-45〉 재미난 카페 풍경

어린이도서관 <함께 놀자>는 아이와 엄마가 이용하는 도서관이다. 2009년 초에 <어지나모⁶⁹⁾>(어린 새싹을 지는 나무들의 모임)>라는 ‘강북구 학부모들의 모임’에서 시작된 이 도서관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도서관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모여져 2010년 초 인수동 주민 10여명이 설립을 준비해 2010년 11월 개관했다. ‘서로 만나서 좋은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모임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지향한다’는 의미로 <함께 놀자>라고 명명했다.⁷⁰⁾

마을동아리인 <요술항아리>는 2011년 6월 결성한 학부모 그림책 모임으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그림책이나 이야기를 더욱 재미있게 들려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가 만들어졌다. 이 동아리는 처음에는 빛그림을 제작하는 모임으로 시작했다가 촬영 및 편집을 전공한 사람, 미술을 전공한 사람, 연기를 했던 사람 등 각 분야의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서 동영상까지 제작하는 모임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2011년에는 기존 그림책 작품을 선정해서 2개의 동영상을 제작하고 공연했으나 올해부터는 색다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새로운 작품을 직접 만들고 있다.

<마을밴드 JB>는 음악과 노래를 좋아하는 마을의 아줌마, 아저씨들로 구성된 밴드로 현재 5명이 활동하고 있다. 2011년 12월에 첫 입방식 공연을 한 이 밴드는 마을 아이들과 주민들을 위한 밴드교실도 운영하고 있다.

백세까지 밴드를 하자는 의미로 이름을 지은 <백세밴드>는 <추락> 10주년 무대에서 데뷔를 한 후 긴 시간 휴식기를 갖다가 2011년부터 다시 활동하기 시

69) 일제고사와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시작된 모임

70) 도서관은 엄마와 아이들의 공동체 공간으로 운영된다. 도서관에는 <책과 수다>, <붓글씨 모임>, 어린이책 시민연대에서 진행하는 <어린이책 읽기 모임> 등과 같은 소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작했다. 10대부터 40대까지 9명의 구성원이 서로 소통하며 활동하고 있다.

<동네극단 우이동>은 1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세대들이 함께 연극을 하는 모임으로 2010년 8월에 품 청소년 문화기획단 친구들의 아이디어로 탄생하였다. 처음에는 <극단 언니들>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마을사람들이 계속 참여하면서 우이동 극단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현재는 독립적인 마을극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극단은 2011년 2월에 성미산 동네연극축제에서 <굿닥터>로 초연을 하였으며, 2012년 7월에는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창작극 <사거리빵집>으로 제3회 성미산동네연극축제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인수동에 위치한 <마을목수공작단>은 목공을 좋아하는 주민들과 함께 운영하는 마을공동작업장이다. 이 작업장은 전문기술보다 생활에 필요한 것을 스스로 만드는 것을 지향하며, 이러한 생활기술(간단한 집수리, 생활가구 주문제작, 자재 공동구매, 주민목공교실 등)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공간이다. 정회원이 되어 가입비 20만원과 월회비 6만원을 내면 언제든지 작업장을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8명의 정회원이 활동 중이다. <마을목수공작단>은 주민들이 기초적인 목공구 사용법과 가구형태를 배우면서 스스로 가구를 만들 수 있도록 주민 목공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8주 교육에 재료비를 포함하여 15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있다. 현재 4기가 교육 중이며, 기수마다 16명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림 3-46〉 삼각산재미난마을 동아리 활동 모습(극단 우이동, 마을밴드JB, 마을목공소)

삼각산 마을공동체가 2012년 의욕적으로 개최한 것은 ‘마을장터’(강북마을장터)였다. 마을사무국과 청소년공동체 품이 결합하여 마을 내 십대 청소년들과 더

붙어 장터를 여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올해 5월 마지막주에 첫 번째 장터를 열었으며, 앞으로 매달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10월에는 마을축제와 연계한다는 것이 마을사무국의 구상이다.



출처 : 품 청소년문화공동체 홈페이지 http://pumdongi.mynet.co.kr/zbxe/noriter_jangter_main

〈그림 3-47〉 2012년 5월 강북마을장터 풍경

(3) 주요특징과 시사점

‘삼각산재미난마을’은 공동육아 목적의 <꿈꾸는 어린이집>과 대안학교인 <재미난학교>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마을이다. 이 마을은 공동육아와 대안교육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성미산마을’과 매우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여러 측면에서 ‘삼각산마을’은 ‘성미산마을’과 그 특성을 달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성미산마을’이 공동육아를 목적으로 한 공동체적 운동에서 출발한 것이라면, ‘삼각산재미난마을’은 공동육아와 대안교육을 매개로 형성된 것으로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전자가 원래 강한 목적의식적 네트워크를 가졌다면, 후자는 공동육아와 대안학교를 매개로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결과로 성장해가고 있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삼각산재미난마을’에서 나타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는 마을 내 여러 기관과 사람들이 네트워킹을 하면서 마을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 공동체 <품>, 극단 <진동> 등과 같은 단체뿐만 아니라, 마을 내에 존재하는 여러 예술가들이 마을활동에 참여하며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마을을 형성해 나간다. 이 과정에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는 주체의 힘이 큰데, 바로 그 주체 중



〈그림 3-48〉 삼각산재미난마을의 네트워크 형성 현황

한 명이 (사)삼각산재미난마을의 사무국장인 이상훈이다.

이상훈 사무국장은 지역 내에서 여러 기관과 단체, 숨겨져 있는 예술가들을 발견하고 이들을 네트워킹하는 사람이다. 그는 지역 내 잠재되어 있던 예술가들을 발굴하여 그들을 중심으로 한 동아리를 구성하고, 마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와 기반을 조성한다. 그는 마을 내 존

재하는 예술가를 발굴하여 ‘요술항아리’라는 동아리를 만들었고, (사)삼각산재

미난마을을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만드는 한편, 생활문화공동체조성사업(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을 따오는 등의 마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공동체인 <품> 또한 매우 중요한 존재다. 위에서 살펴보았듯, <품>은 ‘십대들의 기획’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형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마을을 만들어 가는 중심조직으로서 역할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품>은 ‘무늬만 학교’를 초등학교로만 구성되어 있는 ‘삼각산재미난학교’의 청소년과정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품고 있다.

이처럼 ‘삼각산마을’은 우이동 지역을 매개로 한 여러 활동기관과 지역 내 거주하는 예술인 등 재능인들이 만들어 가고 있다. 마을 형성의 핵심은 네트워킹이며, 이 네트워크의 중심에 사람이 있다.

‘삼각산마을’을 통해 볼 수 있는 건 마을형성에서 이런 사람과 네트워크에 대한 중요성이다. ‘삼각산마을’은 마을사무국의 이상훈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청소년공동체 <품>의 심한기 대표, 그리고 극단<진동>의 박종우 대표 등이 실질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여기에 고영재 PD나 권해효씨 등이 관계하면서 마을은 매우 단단한 네트워크를 구성해가고 있고, 지역 내 거주하는 예술인들을 발굴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관련된 사람을 연결해 줌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마을동아리

를 만들어 가고 있다. 즉, 사람을 통해 사람을 발굴하고 이를 네트워크로 이어나 감으로써 하나의 마을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3) 염리동 창조마을

(1) 개요

‘염리동 창조마을’은 마포구 염리동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단위의 동아리 활동을 말한다. 그 자체로 마을(공동체)이 아닌, 마을을 매개로 한 연극단이 ‘염리동 창조마을’이다.

‘염리동 창조마을’이 탄생하게 된 것은 2008년 마포구의 <Happy-eye> 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였다. 이 사업에 영향을 받아 당시 주민자치센터장이었던 장종환 동장이 지역의 역사를 매개로 한 연극활동을 제안하게 되고, 같은 지역에 위치해 있던 극단 <민들레>가 참여하면서 하나의 연극이 만들어졌다. 그게 바로 <마포 사는 황부자>라는 공연이었고, 이를 매개로 지역에 주민자치센터를 개조한 ‘소금카페’가 생겨나고 같은 공간에 마을문고가 개설되면서 하나의 마을로 탄생하게 되었다. ‘염리동 창조마을’은 구청의 마을사업에 영향을 받아, 동장이 만든 말 그대로 공공주도형의 ‘창조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마포구 Happy-eye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 개요

-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형성 및 진정한 주민가치를 실현하고자 마포구에서 시행하는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 2008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동장과 동 주민센터는 예산, 인력 등 행정지원을 맡음
- Happy-eye는 ‘주민들의 행복한 시선이 함께 한다’는 뜻

▶ 추진절차

- 동 자치회관으로 방침이 내려가면 동별로 제안서 제출
- 조례에 근거하여 심사위원(2년 임기)을 구성하여 제안심사회 개최 : 희망제작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풀뿌리자치연구소 등 외부전문가들이 참여, 주민자치라는 콘셉트에 맞게 컨설팅을 해주며 모든 동 주민센터가 1센터 1특화사업을 진행
- 3월 초에서 중순까지 예산 교부 완료
-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추진 성과보고회를 진행함, 심사위원 앞에서 주민자치위원이 직접 발표하고 평가해서 시상함. 자치위원은 구청장이 표창

장종환 동장이 마을동장으로 임명된 것은 2008년도 1월이었다. 아현동과 잇대 서울의 달동네를 구성하고 있던 염리동은 당시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지역이 한꺼번에 개발될 운명에 처해 있었다.⁷¹⁾ 이에 따라 장동장은 지역의 삶과 역사를 기록하려고 생각했고, 지역에 40~50년씩 거주하고 있는 7명과 인터뷰를 시도하게 되었다.⁷²⁾

그는 지역애기를 모으면서 이 지역에 김구선생님이 거주하였던 ‘마루보시’ 사택이 있었다는 것과 숭문고등학교에 있던 ‘기마부대’와 도화동의 ‘포대’터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의 KT 뒷편에 소금창고와 주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이 마을의 일상을 기록하지는 차원에서 마포구청의 Happy-eye의 사업지원을 받아 ‘마포황부자’를 기획하게 되었다.

그는 공연을 위해 우선, 마을 내 직능단체 대표들을 설득하였고, 이어 <마포아트센터>에 공연장상주단체 지원사업으로 입주해 있던 극단 <민들레>의 대표와 만나 이야기하고, 주민들 대상으로 단원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주민들은 처음에는 매우 소극적이어서 겨우 2명 정도가 참여하였다. 연극에 필요한 의상은 극단 <민들레>가 활동하고 있던 화성에서 제작되었고, 통장 친목회장이었던 정병선씨가 나서 그 일을 거들었다. 그 결과 연극단에 대한 소문이 서서히 나면서 단원은 2명에서 9명으로, 그리고 11명으로 그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2008년 8월부터 연습을 시작한 연극은 2008년 8월23일 동도고등학교 야외무대에서 첫 공연을 하였다. 그런데 그날은 베이징올림픽에서 야구 결승전이 열리는 날이었다. 관객이 거의 없을 줄 알았으나, 무려 1천명이 넘는 주민이 참여해 성황을 이루었다. 그 결과 마을연극은 손쉽게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⁷³⁾

71) 현재도 이 지역은 뉴타운 사업 추진여부를 놓고 심각하게 갈등 중이다.

72) 그 결과는 2009년 발행된 <염리동 마을이야기>에 담겨져 있다. 서울시대안교육센터 염리동 마을이야기 프로젝트팀, <염리동 마을이야기>, 염리동주민자치위원회, 2009

73) 이 공연으로 인해 ‘황부자이야기’는 상주, 공주 등 지역축제에 초청되었고, 2008년 10월 문화관광부 대한민국전통연희극에 선정되었다.

마포사는 황부자

▶ 개요

- 마포토박이들 사이에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황부자 이야기를 각색한 작품
- 몇 년 안에 재개발이 끝나고 아파트가 들어설 텐데 그 전에 우리가 사는 마을의 뿌리를 찾아보자는 뜻에서 공연을 기획
- 극단 민들레와 주민들과 함께 진행하는 공연

▶ 연혁

- 2008년 : 마포 서울디자인고등학교 〈마포 사는 황부자〉 염리동주민 참여공연
전통 연희극 축제 〈마포 사는 황부자〉 우수상 수상
공주 고마나루 〈마포 사는 황부자〉 초청공연
- 2009년 :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 〈마포 사는 황부자〉
- 2010년 : 국악원, 전통연희상설공연 〈마포 사는 황부자〉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 〈마포 사는 황부자〉
- 2011년 :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 〈마포 사는 황부자〉

▶ 연극 내용

- 황부자(황득업)는 과거 마포나루에 장삿배가 드나들던 시절 소금장사로 큰 돈을 벌었다는 전설의 인물
- 소금창고에서 일하던 ‘황득업’이라는 사람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아 갑부가 된 뒤 백성들을 괴롭히다 복면 쓴 의적에게 재산을 털리는데, 훗날 알고 보니 그 의적이 자기 자식이라 잘못을 뉘우치게 된다는 줄거리

▶ 연극을 만드는 사람들

- 지역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연극으로 대본부터 배우, 무대장식까지 손수 작업해서 무대에 올림
- 처음에는 전문배우 위주로 진행되고, 지역주민들은 코러스 정도의 역할을 했지만, 현재는 몇 년간 함께한 주민배우들이 주요 역할을 맡고, 전문배우들이 지원하는 개념으로 변화했음
- 2008년 초연 시 연기 경험이 전혀 없는 주민 20여명이 모여서 공연함. 극단 민들레 송인현 대표가 연출을 맡고 박정용 부대표가 황부자 역할을 하면서 주민들의 연가지도를 맡음
- 매년 30명 내외의 주민배우가 참여

▶ 함께하는 사람들 - 극단 〈민들레〉

- 극단 민들레는 우리의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조화, 우리문화와 다른 문화의 접목 등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는 실험정신이 강한 문화예술단체로 알려져 있음
- 2012년 공연단체로서는 유일하게 노동부 사회직기업으로 선정됨
- 2008~2009년 마포문화재단의 마포아트센터 상주단체로 염리동과 인연을 맺게 됨
- 현재 민들레 대표인 박정용씨가 2012년부터 염리동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



〈그림 3-49〉 마포사는 황부자 연습 및 공연 모습

이어 장동장은 지역 내에서 인형극을 하고 있던 프린세스(엄마가 만드는 인형극단) 윤명선씨를 만나 인형극을 하는 모임을 조직했다. 총 6명이 참여하는 연극이었으나 극단대표인 윤명선씨가 떠나면서 이 모임은 자연스럽게 해체되었다.

2009년 동장이 구본수로 바뀌고, 장동장은 ‘도화동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새롭게 부임한 구본수 동장은 장동장의 의지를 이어받아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속해 나갔다. 우선 ‘염리동 창조마을 조성’이란 사업명으로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시범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09년 10월31일 ‘마포사는 황부자’를 재공연하고, 인형극 ‘방귀쟁이며느리’와 염리동의 작은예술제인 ‘염리창조마켓’을 개최하였다. 또한 ‘내 사랑 염리마을’을 기획해 2009년 7월 22일에 제1호를, 같은 해 11월27일에 제2호를 발간하였다.

〈표 3-18〉 2009 생활문화공동체사업 - 마포구 염리동

프로그램	유형	실행장소	참여대상	실행기간	세부내용
이웃과 만드는 연극 교실	교육형	염리동 주민센터 3층	염리동 주민 30명	2009.07.07 ~12.17 (총 23회)	책읽기와 독후활동 및 장면발표, 토론 연극
염리동 이야기 찾기	교육형	염리동 주민센터 3층	염리동 주민 10명	2009.11.07 ~12.08 (총 8회)	염리동에 관한 이야기(민담, 주민들 사이의 에피소드 등) 찾기 및 염리동 이야기 대회
인형극 교실	제작형	염리동 주민센터 지하1층	염리동 주민 8명	2009.07.07 ~12.1 (총23회)	생활 속 오브제 인형극, 평면 인형극, 기타, 작품 및 인형제작
동네작은 예술제	공연형	마포아트센터	염리동 주민 60명	2009.10.31	마포사는 황부자 재공연, 인형극 공연, 염리동 이야기 대회 등

그리고 2010년엔 국토해양부의 <살기좋은 도시만들기>사업에 선정되어, 주민자치센터 2층을 소금카페와 마을문고로 전환하는 사업을 펼치게 되었다. 2010년에는 문화와 예술로 정감을 나누는 ‘염리창조마을의 꿈 일구기’라는 사업 하에 꿈 이어가기(연극교실, 인형극 교실강좌), 꿈 가꾸기(공공미술프로젝트,

마을동영상 제작교실), 꿈 펼치기(염리창조마을 축제), 꿈 모으기(마을소식지, 생활문화전시관 확대 및 북카페 조성, 염리마을학 강좌 운영), 꿈 나누기(행복·건강·나눔 축제, 통장복지사 운영) 등의 행사를 개최했다. 또한 11월13일 마을 축제인 제3회 염리창조마을축제를 마포아트센터 공연장 및 광장에서 열게 되었다.

2011년에는 ‘똑똑한 소금마을 이야기’라는 주제로 사업을 진행했다. 여기엔 행정안전부의 ‘자원활용형 마을기업’ 사업과 마포구 Happy-eye사업, 농어촌공사의 천일염 사업 등이 활용되었다. 마을에 애기인 소금을 주제로 마을의 애기를 만들어 가는 ‘염리마을학’이 핵심프로그램으로 제안되었고, 물질로서의 천일염을 갖고 마을의 공동체성을 만들어가는 <화이트 러브빌리지>, 정신으로서의 소금이야기를 찾아 마을성을 만드는 <소금마을 세대 공감>, 물질과 정신의 소금을 예술에 담아 역사성을 만들어 가는 <소금마을 예술공감> 등의 사업이 추진되었다.

〈표 3-19〉 2011 똑똑한 소금마을 이야기 사업 내용

구분	내용	주요사업	
화이트 러브빌리지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 소금에 관한 마을사업에 참여함으로써 판매와 나눔을 통해 공동체 마을을 만들어감	똑똑한소금 만나기	동주민센터 내에 소금 상설판매장을 설치·운영
		똑똑한 소금 활용하기	월별로 염장 식품 제조 행사 개최
		똑똑한 소금 배우기	생활 속 소금의 중요성과 올바른 사용법 등 소금과 관련된 테마강좌 운영
		똑똑한 된장 담그기	된장을 만들어 독거 노인 등 어려운 이웃과 나눔
소금마을 세대 공감	청소년과 독거어르신의 1:1 결연사업을 추진하여 세대 간의 공감을 일구고 마을성을 회복	어르신 컴퓨터 독거 어르신과 신선채소 재배와 나눔	강좌 운영 청소년 1:1 결연사업
소금마을 예술공감	물질과 정신의 소금을 예술에 담아 역사성 만들어감	연극교실, 인형극 교실	주민 연회극 및 창작 인형극 공연의 준비과정을 자치회관 내 상설 프로그램으로 운영 이 과정을 통해 주민배우를 발굴, 육성하여 마을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사업으로 지속 추진

(2) 운영현황

‘염리동 창조마을’은 염리동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를 축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 민간활동가인 극단 <민들레>가 참여하며 마을사업은 진행된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처음부터 마을사업에 개입했던 것은 아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가 없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이해를 구하기 어려웠던 장종환 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른 별도의 ‘창조마을사업추진단’을 만들었다. 그 추진위원회의 핵심이 마을 내 있는 <홍성교회>의 홍성택 목사였다. 주민자치위원이었던 홍목사는 이 사업을 적극 지지해 교회 지하에 극단사무실을 열게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내 그 세력을 늘려나가 2011년 마침내 통합하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마을카페(소금카페)를 운영하는 한편, 마을 내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염리동 소금 카페(Salt Cafe)

▶ 소금 직거래 판매

- 목포대 천일염생명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천일염 브랜드 ‘천혜보금’을 직거래로 구매할 수 있음
- 이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협력한 사업으로 솔트카페는 전남 영광군에서 생산된 고급 천일염을 주민에게 직접 공급하고 있음. 0.5~20kg 소금을 2천600원~4만2000원에 살 수 있음
- 천일염 아카데미, 천일염 체험관광 및 홍보 및 마케팅 업무 진행

▶ 북카페

- 하루에 팔리는 음료만 70~100잔이며, 쿠키는 40개 가까이 팔려나감
- 현재 쿠키에 소금을 넣어 단맛을 살리고 있으며, 소금을 넣은 에이드 등 10여종의 음료를 준비 중임
- 가게에 보관해 둔 자신의 컵을 이용하면 500원 할인
- 카페의 수익금으로 매달 둘째 주 작은 음악회 개최
- 카페 한 쪽의 동네 책방 동문고에서는 8,600권에 이르는 책을 읽을 수 있고 빌려주기도 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

▶ 생활문화전시관

- 마을의 역사에 관한 문헌과 옛 생활물품, 기록사진, 마을이야기 등을 전시

▶ 운영

-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2년째 선정되어 올해 3,00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았으며, 마포구로부터는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금 1,300만원을 받음
- 염리동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운영

출처 : 강경석, 2012.06.05, “염리동 짬뽕 좀 보실래요?”, 동아일보



〈그림 3-50〉 염리동 소금카페 풍경

마을 내 또 다른 중요한 것은 마을문고다. 7평 규모의 마을문고 내에는 현재 8,900권의 책이 있다. 웬만한 도서관이 부럽지 않은 규모다.

마을문고가 이처럼 알찬 형태로 구성된 것은 마을문고 회장인 이성재씨 덕분이었다. 책유통분야에 일하고 있던 이성재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쉬게 되고, 그 때 지역을 다시 보게 되면서 자신이 갖고 있던 책을 모두 기증하였다. 그가 기증한 책은 모두 7,000권으로, 현재의 마을문고를 구성하는 데 절대적 기여를 하였다.

(3) 주요특징과 시사점

염리동 창조마을은 앞의 두 마을, 즉 성미산마을이나 삼각산재미난마을과 달리, 공공사업의 형태로 추진된 마을이다. 이 마을은 동장이 주관하여 사업을 기획하였으며, 여기에 주민자치위원회(원래는 추진단)와 극단 <민들레> 등 민간 영역이 개입하여 사업을 진행해 나갔다.

염리동창조마을을 만든 배경은 뉴타운으로 인해 사라져갈지 모르는 지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는 욕구 때문이었다. 특히, 예로부터 이어진 소금이야기를 바탕으로 지역을 새롭게 해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의 스토리를 주민들의 연극으로 만들어 재창조한 점은 눈에 띈다. 더불어 이를 바탕으로 주민자치센터를 개조하여 카페(소금카페)를 만들고, 마을문고를 조성한 점은 염리동 창조마을만이 보여주는 미학이다.

염리동 창조마을이 가능했던 것은 무엇보다 마을을 중시했던 장종환동장의 의지 때문이었다. 그는 염리동에서뿐만 아니라 이어진 도화동 동장을 역임하면서 ‘도화동축제’를 만들었고, 2012년 현재 서교동주민자치센터장으로 있으면서 ‘강·공·장’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서교동주민자치센터 마당에서 강연과 공연, (시)장을 펼치는 그의 꿈이다. 그는 이를 위해 ‘장터화페’, 즉 지역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는 마을화폐를 구상 중이다.

더불어 염리동 창조마을이 가능했던 것은 이전 동장의 사업을 무시하지 않고 이어받았던 그 이후의 동장들의 태도였다. 만약 그 이후의 동장들이 사업을 폐기하거나 무관심하게 받아들였다면 염리동 창조마을은 ‘시간의 때’를 묻히지 못한 채 사라졌을 것이다. 다행히 이후에 온 동장들이 그 의지를 살려 지역의 스토리로 만들었고,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공간을 창출하고 상품(소금 등)을 만듦으로써 염리동 창조마을은 지금과 같은 형태로 발전할 수 있었다.

또한 염리동 창조마을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민관협력의 방식이다. 초창기 염리동 창조마을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획되었다. 그러나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시점에서 지역에 풀어지는 ‘돈’으로 이해되면서 사업은 좌초될 위기를 겪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장종환 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창조마을추진단’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여기에 극단 <민들레>가 결합하면서 사업은 안정단계에 들어섰다. 자칫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는 상황을 기존 조직이 아닌 수용 가능한 주민조직으로 만드는 ‘유연함’을 발휘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지역사회 만들기에 성공한 것이다.

염리동 창조마을은 아직 완성된 형태의 마을이 아니다. 지속적인 사업비를 통해 유지되며 마을극단 이상의 또 다른 발전을 아직은 구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마을극단을 통해 카페를 만들고, 주민들의 네트워크를 마을 중심으로 만들었다는 점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이다. 앞으로 이 카페가 어떠한 자생성을 갖느냐에 따라 마을의 형태는 달라질 것이며, 보다 한 단계 높은 지역을 구상할 수 있는 기획력이 담보될 수 있을 때 마을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염리동 창조마을은 ‘마을로서 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과 ‘공공사업으로서 제한’될 수 있는 현실을 모두 갖고 있는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4) 방아골마을⁷⁴⁾

(1) 개요

방아골은 도봉구 방학2동 일대를 의미한다. 현재 이곳에서는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이하 방아골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마을문화활동이 일어난고 있다. 먼저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골목대장터’, ‘우리동네 골목문화제’ 등과 같은 마을축제들이 예전부터 꾸준히 개최되었다. 작년에는 도깨비 공원에 마을 사랑방인 <도깨비방>과 마을 공작소인 <안방>이 문을 열었다. 더불어 골목이 발달되어 있는 특성을 반영하여 ‘공공가구 만들기’, ‘벽화그리기’ 등 공공예술을 매개로 한 다양한 활동도 펼쳐지고, 주민들 중심의 여러 모임들도 운영되고 있다.

<방아골복지관>이 이처럼 운영된 데는 지역사회의 역할이 크다. 그 어느 지역보다 시민단체의 힘이 큰 도봉구는 <방아골복지관>을 열며, 사람중심, 지역중심, 네트워크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기본목표를 내세웠다. 즉 “지역복지운동으로서의 방아골, 지역주민센터로서의 방아골”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도봉구는 이 목표에 바탕을 두고, 2003년 ‘골목대장터’라는 마을축제를 열었으며, 2009년부터 매월 ‘우리동네 골목문화제’도 열고 있다.

2011년에는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진행하는 테마기획사업의 지원을 받아 ‘문화자람’이란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문화자람이란 주민과 함께 디자인하는 문화마을 조성을 목표로 지역 내 문화를 매개로 한 공동체를 만들어

74) 방아골은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마을문화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아골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2012년 5월 2일에 진행된 김희경 복지사와의 인터뷰 내용,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http://www.bangahgol.or.kr/>) 내용을 중심으로 그 외 기사 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가는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1년 10월 주민소통 공간인 <도깨비방>을 열었고, 2011년부터는 도봉구에서 진행되는 ‘함께 Green 마을’이란 프로젝트에 참여해 방학2동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문화자람

▶ 개요

- 주민이 함께 디자인하는 문화마을을 만들어 가는 것을 목표로 함
- 일상이 문화적으로, 문화가 일상화되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를 위해 공공예술을 매개로 주민을 만나고 주민이 마을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지원하고 역량을 강화함
-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테마기획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함
- 공공예술가 3인과 주민활동가 2인이 함께 사업에 합류

▶ 주요 사업 내용

- 마을문화 읽기
 - 〈어슬렁 어슬렁〉 : 방학동 지역문화를 천천히, 촘촘히 읽어가는 산책정기모임임. 마을의 이야기 발굴, 원주민 인터뷰, 시공간 리서치 활동 등을 진행함. 2011년에 했던 활동들을 정리하여 〈어슬렁 어슬렁 - 방학동의 기억을 걷다〉라는 책을 발간함. 2012년에는 1차년도에 모인 주제들을 바탕으로 더욱 집중된 리서치와 인터뷰 활동 진행
 - 〈어슬렁 어슬렁〉 모임에서 조사한 내용을 편집하여 마을잡지로 제작
- 도깨비방
 - 도깨비공간 내 주차관리실을 주민들의 의견을 관철하여 커뮤니티 공간으로 바꾸었음
 - 대안적 생태복합문화공간이라는 콘셉트로 1층은 〈도깨비방〉으로, 2층은 목공소 〈안방〉으로 조성
 - 도깨비방은 4평 남짓한 공간으로 골목에 버려진 목재를 이용해 지역 주민과 공공예술가가 함께 업사이클 방식으로 내부를 디자인함
 - 도깨비방은 다방, 책방, 공방, 사랑방, 지역자원을 네트워킹해주는 공간으로서의 역할 수행
- 안방(동네공작소)
 - 마을에서 버려지는 목재, 폐가구 등을 활용하여 실용 가능한 물건들로 만들어 내는 ‘업 사이클 목공소’ 작업공간(수집-디자인-제작-동네로 환원)
 - 도깨비방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을공동작업장으로 활용
- 생태텃밭 프로그램 우주농
 - 공동 경작, 농사 프로그램, 워크숍을 통해서 생태 감수성, 지역 생태계 등을 탐구하며 친환경 미래에 대한 진로를 모색
 -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성인,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함
- 생태워크숍
 - 도시에서 생태적으로 사는 방법을 재능 기부를 통해 나누는 워크숍으로 도깨비방에서 격주로 운영
 - 내용 : 텃밭 연계 계절별 음식 만들기, 효소만들기, 장바구니 만들기, 면생리대 만들기 등
- 도깨비장터
 - 동네 벼룩시장으로 매월 4째주 토요일에 도깨비 공영주차장 공원에서 개최
 - 주민참여 벼룩장터, 재활용만들기, 놀이마당, 먹을거리 마당, 책놀이 등 진행
- 도깨비방송
 - 동네의 방송 인재(DJ, 아나운서, 작가, PD 등)를 발굴하여 동네의 사소한 사연을 전하는 도깨비방송을 준비 중
 - 마을읽기 모임에서 발굴된 이야기, 동네 특파원, 이슈토론, 근대음악살롱, 도깨비 토크쇼 등



〈그림 3-51〉 방아골 도깨비방 및 안방 모습

함께 Green 마을 만들기

▶ 개요

- 도봉구에서 진행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2011년부터 시작
- 지역주민들 스스로 마을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

▶ 추진 절차⁷⁵⁾

- 2011년 3월부터 6회에 걸쳐 찾아가는 마을만들기 강좌 운영(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
- 2011년 4월에 마을만들기 추진단을 구성
- 2011년 5월과 6월에는 씨앗뿌리기 강좌를 통해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
- 주민들도 매주 1,2회 회의와 토론회를 가지며 소통을 위한 벼룩장터, 차 없는 거리 축제 등을 개최
- 2012년에는 방학천 수변형 마을만들기사업과의 연계를 시도함. 쌍문2동, 쌍문4동, 방학1동, 방학3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만들기추진단을 구성

▶ 사업 내용(방학2동)

- 위치 : 도봉구 방학2동 396-1번지 일대
- 사업명 : 문화로 어울리는 마을만들기
- 사업 배경 : 방학2동을 중심으로 순환과 나눔, 어울림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이웃관계망을 보다 촘촘히 하고 마을공동체 회복의 좋은 기회로 삼고자 기획
- 사업 내용 : 이야기가 있는 안방학교 예술제, 도깨비방, 방학능선과 함께하는 우리마을 둘레길, 청소년, 마을주민과 함께하는 템플스테이, 골목단위 마을조성사업 진행, 안방학교 소식지 발간 등
- 활동 주체 : 주민, 방아골 종합사회복지관, 도봉구청

(2) 운영 현황

방아골마을을 운영하는 주체는 <방아골복지관>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모임이 운영되고 있다. 그 중 지역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담쟁이’(담벼락 아래

75) 출처 : 김중대, 2012.02.06, “도봉구,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추진성과 발표회 개최”, 『kns 서울뉴스』 ; 박종일, 2012.03.06, “도봉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만들기 착수”, 『아시아 경제』

개구쟁이들)다. 2009년 9월부터 활동한 ‘담쟁이’는 아동벽화동아리로 2009년 11월 복지관 지하주차장에 벽화를 그린 것을 시작으로 복지관 인근 노인정과 방학동 버스 종점 옆 벽면에 벽화를 그리는 등의 활동을 해 왔다. 그러다 2009~2010년 현대자동차의 지원을 받아 방학역에 벽화그리기 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부터는 마을디자인동아리 성격을 부여받아 ‘마을디자인 교육 및 활동’, ‘어린이디자이너 회의’, ‘문화예술마을 탐방’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출처 :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http://www.bangahgol.or.kr/>)

〈그림 3-52〉 담쟁이(아동벽화동아리) 활동

<방아골복지관>이 핵심적으로 추진한 프로젝트는 ‘도깨비공원 재생’이었다. 2011년 ‘문화자람 프로젝트’를 받아 추진한 이 프로젝트를 위해 <방아골복지관>은 <도깨비공간재생위원회>(이하 도깨비위원회)를 조직했다. <도깨비위원회>는 2011년 4월 모임을 시작해 ‘도깨비공원 복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⁷⁶⁾

이 프로젝트의 결과, 2011년 10월 마을사랑방인 ‘도깨비방’이 문을 열었다. ‘도깨비방’은 주민소통을 위한 카페형태의 공간으로 책방과 공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3명의 매니저가 운영한다.

‘도깨비방’ 위층에는 ‘안방’이라는 마을목공소가 있다. 현재 7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대부분 주부들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지역에는 <도깨비장터준비위원회>와 텃밭모임인 <우주농>이 있다. 장터준비위원회에는 10명

76) 현재는 15명 내외의 주민이 참여하고 있고 한 달에 1~2번의 모임을 갖는다.

의 주민이, 텃밭모임에는 45명 정도의 주민이 참여하고 있다.

〈표 3-20〉 도깨비방 개소식 프로그램

구분	일시	내용
아는 만큼 워크숍	2012.10.28(금) 14시~16시 30분	EM으로 <친환경 세제 만들기> 한복 짜투리로 <컵받침 만들기> 소원을 말해봐! 도깨비방망이 <소원상담소> 당신의 신청곡과 사연을 전하는 <근대음악썰롱> 내가 직접 만들어 나눠먹는 <셀프샐러드 부침개> 코너 쌀쌀한 날씨 몸을 보하는 특선메뉴 <도깨비차> 코너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으로 신나게! <생태놀이터> 동네 사람들의 숨겨진 재주를 찾아서 <사군자 전시회>
오픈 축하 공연	2012.10.28(금) 16시 30분~19시	우리동네 사물놀이패의 일쑤~! <길놀이> 한판~! 오이에 대한 고민과 사랑을 담아 <올망졸망 내오이야> 우리동네 하모니카 주자 <이학린 할아버지의 하모니카> “여기가 대체 뭐하는 곳이야” <도깨비방 영상기록> 무대에서 내려 온 <인디밴드들의 삶의 노래>



출처 :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http://www.bangahgol.or.kr/>)

〈그림 3-53〉 도깨비방 개소식 모습

<방아골복지관>이 운영하는 <참새방아간>이라는 어린이도서관도 주목해야 할 공간이다. <참새방아간>은 2011년 7월에 문을 열었다. ‘참 재미난 책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방학동 아이들의 공간’이란 긴 이름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참새방아간>은 한국마사회 창동지점의 후원을 받아 조성했다. 현재 기존 방과후 교실에 있던 책과 함께 주민 후원을 받아 약 2,800여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는 <참새방아간>은 주민들의 무료봉사로 운영되며, 초등학교생들을 대상으로 한 ‘책놀이’, 엄마들을 위한 ‘책모임 그린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출처 : 참새방아간 작은도서관 홈페이지(<http://cafe.naver.com/bangaholib/>)

〈그림 3-54〉 참새방아간 도서관 - 빛그림자 연습 및 공연 모습

(3) 주요 특징

방아골의 특징은 공공기관인 사회복지관이 주도해 마을을 만들어 가는 형태라는 점이다. 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했던 <방아골복지관>은 마을축제를 지속해 왔고, 그 영향으로 문화사람이란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아 지역사회 내 방치되었던 ‘도깨비공원’을 재생하고, 주민공간으로 바꾸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 내 살아가는 주민들을 결합하는 움직임을 가졌고, 그 결과 ‘도깨비방’과 같은 다양한 마을문화공간을 운영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복지관 실무자들이 아니라 모두 주민이 나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점이다. 즉 주민이 중심이 돼 지역을 꾸며나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는 도깨비공원 재생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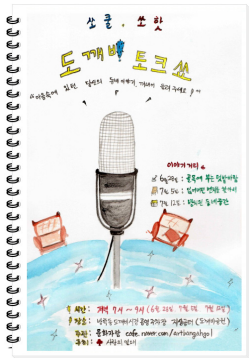
도깨비공원은 2010년 3월 ‘재래시장 이용 촉진 및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도깨비시장 인근에 탄생한 공간이다. 관리소로 만들어진 건물옥상은 안전상의 이유로 폐쇄됨에 따라 오히려 지역의 골칫거리로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관은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복지관과 관계를 맺고 있던 주민들을 시작으로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 등을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였고,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약 6개월의 기간을 거친 후에 <도깨비위원회>를 만들었다. 이 위원회는 곧 공원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활동을 시작했고,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10월말 도봉구청의 허락을 받아 ‘도깨비방’을 개설하게 되었다.

<도깨비위원회> 말고도 주민 모임은 많다. 대부분의 마을행사는 이들 모임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도깨비 장터를 위한 <도깨비장터 준비위원회>, 골목문화제를 운영하고 있는 청년모임인 <문화마을>, 골목대장터를 주관하는 <골목대장터 준비위원회> 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

〈표 3-21〉 〈도깨비공원재생위원회〉의 도깨비공원 재생을 위한 토크쇼 진행

일시	주제	초대
2011.06.28 19시~21시	방학동에 부는 텃밭 바람	텃밭을 운영하는 동네 슈퍼아주머니, 지역살림에 관심이 많은 활동가, 식량위기를 걱정하는 활동가 등
2011.07.05 19시~21시	놀이터 : 사라진 벤치에 대하여	정자의 그늘과 평상을 그리워하는 어르신, 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와 아주머니, 자유롭게 떠들만한 공간을 꿈꾸는 청소년, 상상어린이 공원 디자인에 불만이 있는 예술가 등
2011.07.12 19시~21시	동네 방치된 공간 : 어떻게 요리 할까	동네일에 술선수범하는 아저씨 · 아줌마, 도깨비공원의 전직 관리인, 지역살림에 관심이 많은 구의원 등



〈그림 3-55〉 도깨비 토크쇼 포스터 및 진행 모습

방아골마을에서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점은 마을을 만들어 가는 다양한 축제들이다. 2004년부터 매년 가을 복지관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축제인 ‘골목대장터’는 2011년 현재 7회를 맞았다. ‘자동차에게 빼앗긴 골목을 주민들에게 되찾아주고 이웃과 친근하게 지내는 마을공동체를 형성하자’는 목적하에 주민 중고제품 벼룩시장과 인형극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그 외에도 마을청년모임인 <문화마을>에서 주관하는 ‘우리동네 골목문화제’도 있다. 2009년 <사슴어린이공원>에서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오후 2시~4시 사이에 개최되는 ‘우리동네 골목문화제’는 장기, 고무줄 놀이, 공기놀이, 윷놀이, 줄넘기 등 골목에서 할 수 있는 놀이와 마술, 인형극 등과 같은 문화행사로 꾸며져 있다. 또한 비슷하게 <도깨비공원>에서도 작년부터 매월 넷째주 토요일에 비슷한 장터인 ‘도깨비장터’를 개최하고 있다.



출처 :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http://www.bangahgol.or.kr/>)

〈그림 3-56〉 골목대장터 모습



출처 : 문화마을 홈페이지(<http://cafe.naver.com/golmokct/>)

〈그림 3-57〉 우리동네 골목문화제 모습

도봉구 방아골의 시사점은 공공기관이 중심이 돼 마을을 만들어 가는 데 있다. 그것도 주민이 중심이 돼 마을을 만들어 가며,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주민공간’-골목이나 공원 등에서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마을을 만들어 간다. 그런 점에서 방아골마을은 공공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의 새로운 전형을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 성대골마을⁷⁷⁾

(1) 개요

성대골은 동작구 상도3·4동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마을공동체로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 가고 있다.

성대골마을이 수면 위에 드러난 것은 2010년 10월 어린이도서관이 개관되면서부터였다. <성대골어린이도서관>이라 명명된 이 도서관으로 인해 지역은 급격히 기호화됐다. 최근엔 <마을에너지학교>가 개설되고, 마을카페인 <사이시옷>과 <성대골별난공작소>, <우리동네 마을상담센터> 등이 설립되면서 지역은 빠르게 마을로 묶여가고 있는 양상이다.

성대골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시민단체인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이하 희망동네)>(사무국장 유호근)가 출범하면서부터였다. <희망동네>는 동작구를 기반으로 유호근 사무국장이 만든 단체로, 유국장은 동작구 내 한 동(洞)당 하나의 ‘마을어린이도서관’을 만들어 자치구 자체를 마을중심으로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품고 있었다.

성대골마을이 탄생한 것은 그 운동의 일환이었다. 마을로 진입하는 간선도로의 중간에 빈 건물이 나오자 유국장은 이를 임대해 어린이도서관을 만들었다. 이어 지역 내 마을생태계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2010년 12월 마을카페 <사이시옷>이 문을 열었고, 2011년 3월에는 마을공방인 <성대골별난공작소>, 2012년 4월에는 <성대골마을에너지 학교>가 개교하였다. 2012년 6월에는 <우리동네 마을상담센터>가 문을 열어, 마을 내에는 학교와 도서관, 카페, 공작소, 상담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는 상태다.

(2) 운영현황

성대골마을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역은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와 <성대골어린이도서관>의 김소영 관장이다.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는 <성대골 어린이

77) 2012년 5월 25일에 진행된 성대골어린이도서관 김소영 관장, 희망동네 유호근 사무국장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그 외 기사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이도서관>을 포함한 지역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김소영 관장은 <성대골 어린이도서관>과 <마을에너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성대골 어린이도서관>은 (사)<아름다운 가게>의 ‘우리동네 어린이도서관 만들기 사업’의 지원과 주민들이 십시일반 걷은 2,000여만원으로 건립되었다. ‘아이들을 함께 키우며 부모들이 교류하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것이 목표인 이 도서관에는 현재 2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며, 170여 가구가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회비를 통해 운영된다. 6,000여권 정도의 도서가 있으며, 누구든 책은 볼 수 있지만 대출은 회원만 가능하다. 또한 ‘책읽는 엄마들’, ‘공부하는 엄마들’, ‘민들레 모임’ 등과 같은 소모임이 운영되고 있고, ‘성대골어린이기자단’이 만드는 <성대골 소식 한마당>이라는 도서관 소식지도 발행하고 있다.

2011년 1월부터는 <아름다운 가게>와 <네이버 책읽는 버스>의 후원을 받아 ‘마을장터’가 열리고 있다. 2012년 4월 현재 총 7회가 개최된 마을장터는 다양한 물건과 먹거리 판매,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며, 그 수익금은 도서관에 기부된다.



〈그림 3-58〉 성대골
어린이도서관
김소영 관장 인터뷰



〈그림 3-59〉
성대골 어린이도서관 현황
- 내부 모습, 강연 모습

〈표 3-22〉 성대골 어린이도서관 개요

구분	내용
위치	서울시 동작구 상도4동 263-8 2층
운영시간	월~금 : 10시~18시 토요일 : 10시~17시
자료 현황	도서 약 6,000여권
개관일	2010.10.22



출처 : 동작구 우리동네 작은 어린이도서관 만들기(<http://cafe.daum.net/dongjakkidlibrary/>)

〈그림 3-60〉 제7회 성대골 어린이도서관 마을장터 모습

<성대골 마을에너지학교>는 <성대골 어린이도서관>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한 엄마들이 만든 학교다. 이 학교는 <성대골 어린이도서관>의 김소영 관장을 중심으로 열다섯 가구에서 30만원씩 450만원을 공동출자해서 2012년 4월 18일 상도3동 예담교회 2층에서 문을 열었다. <성대골 어린이도서관>과는 별도의 회원 체계로 운영되며, 방과후 (대안)학교 형태로 열다섯 가구 30여명의 아이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 학교는 오전에는 에너지센터로 운영되고, 오후에는 방과후 학교로 운영되는데, 교육은 15명의 엄마들이 마을교사로 참여해 이루어진다. 또한 5명의 동네주민이 명예교사로 참여해 어린이 뮤지컬교실, 리듬교실, 가야금교실, 숲 체험교실, 실크로드 인문학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출처 : 성대골 사람들 홈페이지(<http://cafe.daum.net/SDGcommunity/>)

〈그림 3-61〉 성대골마을학교 모습

김소영 관장과 <성대골 마을에너지학교> 운영진들은 장기적으로 이 학교를

대안학교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특히 성대골마을 근처에는 초등학교가 없기에 마을학교 운영 경험을 토대로 향후 대안학교를 세워, 부족한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이다.

<희망동네>는 이런 주민들의 활동을 조직하고 이끄는 실질적인 마을형성의 주체이다. <희망동네> 유호근 대표는 지역 내 삶의 가치를 공유하고 그 활동을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생태계를 잇는 ‘협동조합’ 개설을 추진해 왔는데, 그 결과로 1호점인 <마을카페 사이시옷>⁷⁸⁾과 2호점인 <성대골별난공작소>, 3호점인 <우리동네마을상담센터>가 개설했다. 마을카페 ‘사이시옷’과 ‘성대골별난공작소’는 <행정안전부>의 ‘자립형 지역 공동체 사업’의 지원을 받았다.

상도4동 성대시장에 문을 연 마을카페 ‘사이시옷’은 지역주민 10명이 300만 원씩 출자해 문을 열었다. 오전 10시부터 밤12시까지 운영되며 수익금은 운영비를 제외하곤 지역을 위해 사용된다. 이 카페는 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따로 세미나, 모임, 회의 등을 열 수 있도록 공간을 구분하고, 500여권의 책도 구비되어 있다.



출처 : 마을카페 사이시옷 블로그(<http://sysiot.blog.me/>)

〈그림 3-62〉 마을카페 사이시옷 현황

78) 위치 : 서울시 동작구 상도4동 256번지(성대로 51) 2층

[행정안전부]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 사업 개요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2010년 하반기에 총 208억원을 투입
- 주민주도의 〈자립형 지역 공동체사업〉을 집중 육성, 이를 통해 2011년까지 232개의 지역 풀뿌리 형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도록 추진
- 대상사업 예시
 - 지역자원활용형 : 지역 특산품 · 문화 · 자연자원활용사업
 - 친환경 · 녹색에너지 사업 : 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사업
 - 생활지원 · 복지형 :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 지원 내용

- 시도발전연구원, 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및 사회적기업 관련 리더양성 및 교육, 창업컨설팅 등을 지원
 - 지자체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교육프로그램 개설 등을 통해 전문성 강화
 - 기업, 시민단체, 자치단체 등이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금융지원, 경영컨설팅 등 제공
- 출처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0.06.17. “행안부,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집중 · 육성 지원 - 2011년까지 232개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표로 추진”

‘성대골 별난공작소’ 또한 주민출자로 만들어진 목공방으로, 주로 목공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수익금을 저소득층 지원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복지기금으로 사용한다. 이 목공방은 본인이 원하는 가구를 직접 자신의 손으로 제작할 수 있는 목공교실과 창업을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 과정을 개설하고 있고, 주문제작도 한다.



(그림 3-63) 성대골 별난공작소 현황

[아름다운 가게] 뷰티플펠로우

- ▶ 뷰티플펠로우(제2의 아름다운 가게)를 만들 사회혁신기업가 지원 프로젝트)
 -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를 찾아내 그 문제를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해결하고 나아가 지속적으로 사회 전반의 시스템과 문화에까지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사회혁신기업가
- ▶ 지원 대상
 -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가 있고,
 -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사업아이템)가 있고,
 - 그 아이디어를 직접 실행할 사람으로,
 - 조직 경험(영리, 비영리 무관)이 2년 이상인 사람
- ▶ 지원 내용
 - 아름다운 가게 뷰티플펠로우 지위 부여 : 아름다운 가게 브랜드 활용, 아름다운가게의 사업 인프라 지원
 - 생활비 지원 : 뷰티플펠로우 1인당 매월 1,500,000원 지원. 3년 협약
 - 기타 : 교육 지원 - 개별 성장 계획에 따른 사회적기업 관련 교육 기회 제공
 - 멘토링 지원 - 경영, 세무, 법률 분야 멘토 지원
 - 해외 사회적기업 연수기회 제공 - 동료 1인 포함 총 2인 연수비 지원, 사회적기업 네트워킹 및 유관기관 지식 나눔
- ▶ 심사 기준 및 방법
 - 심사기준 : 개인 - 창의성, 혁신성, 기업가적 자질
 - 사업아이템 - 실현 가능성, 지속가능성, 사회적 파급력
 - 심사방법 : 서류 심사 ▶ 사업가 인터뷰 ▶ 사업아이템 심사 ▶ 심층면접(합숙) ▶ 최종 심사

(3) 주요특징과 시사점

성대골마을은 지역의 시민단체와 마을 주민이 함께 만들어 온 마을이라는 특징이 있다. 마을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김소영 관장은 본래 중학교 영어선생님이었으나, 우연한 계기로 신체에 변화가 생겨 학교를 그만두게 된다. 이후 아이를 낳고 지내던 김관장이 2009년 신종플루가 발생하면서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이 문을 닫자 스스로 아이들을 돌보는 모임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한다. 그래서 상도3동 주민을 중심으로 ‘풀씨모임’을 만들고, 여기에 ‘책읽는 모임’, ‘생태모임’, ‘버려진 국화심기’ 등의 모임을 키워나간다.

김관장이 유호근 국장을 만난 건 이 시기다. 2008년 (사)〈아름다운 가게〉로부터 ‘도서관 건립 지원 기금’을 받은 유국장은 도서관 건립 위치를 모색하고 있었고, 때 마침 간선도로 인접에 빈 공간이 나오자 도서관을 열게 된다.

<희망동네>는 과거 사회운동으로부터 벗어나 사람들의 삶과 생활을 바꿔야

겠다는 목적으로 2004년 3월 출범한 시민단체다. 2005년에 철거지역 방과후 공부방인 ‘희망학교’를 열었고, 2006년부터 매년 ‘동작주민페스티벌’을 개최해 오고 있다.

<희망동네>는 2007년에 2005년부터 운영하던 공부방을 정리하면서 ‘취약 계층 지원사업도 필요하지만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도서관을 여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도서관을 중심으로 활동가 중심이 아닌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지역운동이 보다 지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 결과 2008년 (사)<아름다운가게>의 ‘우리동네 어린이도서관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고, 2009년에 대방동, 상도동 지역을 대상으로 도서관 건립을 준비하게 된다. 그리고 2010년 초 관심이 더 많았던 성대골 주민을 대상으로 <성대골 어린이 도서관 만들기 추진위원회>를 만들게 되고, 그 열매로 <성대골어린이도서관>을 개설한 것이다. <희망동네>는 이 사업을 펼쳐나가 동작구 내 모든동에 어린이 도서관을 짓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그 결과 2011년 12월에는 ‘우리동네 어린이도서관’ 2호인 <대방 해맑은 어린이 도서관>을 개관한다.

희망나눔 동작네트워크

▶ 개요

- 2004년 3월 8일에 출범한 풀뿌리 주민단체
- 지역에 뜻있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단체를 결성
- 희망나눔 동작네트워크(희망동네) 이전에는 동작구의 주민운동은 전무했음. 희망동네라는 단체를 만들어 지역의 다른 단체들을 찾아다니면서 지역 네트워크 시작, 이후 주민들과 함께하는 사업 진행

▶ 주요 활동

- 2005년 상도5동 철거지역 방과후 공부방 <희망학교> 개소
- 2006년부터는 매년 동작 주민페스티벌 개최
- 2007년, 동작구 중증-저소득장애인, 저소득 공부방 치과 진료
- 2007년부터 <동작구 의정감시단> 활동
- 2007년 지방자치의원 의정비 과다인상을 규탄하면서 시작
- 주부, 상인, 학생, 지역활동가 등 희망동네 회원 20여명이 돌아가며 구의회를 방청하면서 출석·이석·결석 상황, 회의 참여 적극성, 지역 이해도 및 주민의견 반영도, 질의 건수와 수준, 구정감사 사안에 대한 지식 등 평가 지표가 적힌 평가지에 점수를 매김(희망동네 회원이 아니어도 참여 가능)
- 모니터링 평가서를 작성하여 주민과 공유함. 이를 통해 구청이나 구의원과의 소통의 폭이 넓어지고, 구의 다양한 의제를 접하면서 지역에 대한 이해도 증가

- 2008년, 동작구 장애인지원 네트워크 결성/출범식
- 2008년부터 아름다운 가게 프로젝트로 <마을 어린이 도서관 만들기> 추진
- 2010년 성대골 어린이도서관 개관, 2011년 대방 해맑은 어린이 도서관 개관
- 지속적인 추진으로 향후 동작구 15개 동에 도서관 설립 예정
- 2010년부터는 마을 협동조합을 오픈
- 마을카페 사이사웃을 시작으로 성대골 별난공작소, 우리동네마을상담센터 등이 개소
- 2014년까지 10호점을 내는 것이 목표

▶ 운영 현황

- 희망동네 활동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회원여부에 관계없이 활동 가능
- 회비는 1~2만원 정도 되며, 회원은 약 150명 정도
- 동작구 주민의 1%인 4,000명 이상이 회원이 되어야 지역사회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

대방 해맑은 어린이도서관 추진 과정

- ▶ 2011.03.31. (가칭)대방동 어린이도서관 추진위원회 결성
- 매월 회의를 통해 어떠한 도서관을 만들지에 대한 논의 진행, 9월 이후로는 매주 모임 진행
- 아이들에게 도서관을 알리기 위해 매달 대방동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찾아가 책 읽어주기, 빗그림 공연 진행
- 성대골 어린이도서관의 빗그림팀이 지원
- ▶ 2011.05. 3주에 걸쳐 <스마트한 부모되기> 교육 진행
- 철암도서관 사례로 본 마을도서관, 발달에 따른 양육방법, 자녀와의 대화법 등
- ▶ 2011.06~07. 2번의 캠페인(거리 홍보) 전개
- 지역주민들에게 도서관의 필요성과 함께 도서관을 만들자는 메시지를 전달
- 2011.07.28. <동작구 우리동네 작은어린이도서관 만들기> 고문인 전병헌 의원과의 만남
- ▶ 2011.08. <여름캠프> 진행
- 가족과 함께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 견학(부모는 지역 공동체 강의를 듣고, 농촌 체험 등)
- ▶ 2011.09.01. 공모를 통해 <대방 해맑은 어린이도서관>으로 이름 확정
- ▶ 2011.09.28. 홍보와 기금을 위한 <우리동네 행복 바자회> 개최
- 물건 판매, 체험 프로그램, 무료 옷수선 등 시행
- 180만원의 수익금 얻음
- ▶ 2011.10.14. 도서관 공간 계약
- ▶ 2011.12.01. 도서관 개관

성대골에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은 마을을 만들어 가는 전략에 대한 것이다. 성대골마을은 한편에서 김관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 단위 주민 ‘육구

찾기'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 김관장은 주민들 속에 잠재된 교육의 문제를 끄집어 내 주민들과 연결하고 있으며, 여기에 '생태'와 '생명'이라는 철학을 개입시켜 최근 요구되는 '친환경'에 관한 의제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 그는 반핵을 핵심의제로 내세워 '가구당 20% 전기절약'이라는 "성대골발전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그 성과로 2012년 6월 서울시 환경대상을 수상했다.

<희망동네>가 내세운 것 또한 '생태'다. 그러나 그것은 환경으로서의 생태가 아닌, 말 그대로 주민이 살아가는 생태(ecology)에 대한 것이다. 유국장은 주민이 한 마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의지하고 의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구현하는 구현체로 '마을협동조합'을 구상했다. 마을협동조합이란 주민이 출자해 운영하는 시설과 공간들이다. 이 시설과 공간의 운영을 통해 유국장은 △지역민 간 서로 관계하는 계기를 만들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동시에, △그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지역이 스스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지역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성대골은 '생태'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발전하고 있는 마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대골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의 적절한 지원이다. <성대골어린이도서관>도, 마을협동조합 설립도 모두 외부의 지원으로 가능했다. 만약 (사)〈아름다운 재단〉의 도서관 사업이나 'Beautiful Fellow' 사업이 없었다면 성대골마을은 좀 더 어렵게 추진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모두가 공공이 아닌 민간의 지원사업이라는 점이다. 민간이 하고 있는 적절한 사업을 활용함으로써 성대골마을은 보다 마을조성자들의 의지에 맞춰, 시간과 구조를 설계하며 발전할 수 있었다.

더불어 성대골마을에 필요한 것 또한 외부의 지원이다. <마을에너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김관장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은 마을과 에너지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문제다. 해당 기관에서 활동한 경험이 없는 김관장은 이 문제에 대해 늘 아쉬워하고 있고, 그 스스로 공부하고 여기저기 방문하여 경험을 쌓아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당장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관장의 말이다. 이런 맥락에서 주민의 활동을 돕는 전문가 시스템의 구축이야

말로, 마을공동체 회복 및 형성 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의제라 하겠다. 마을이란 단지 아무런 매개 없는 주민들의 관계가 아닌, 특정한 의제를 중심으로 결합된 주민들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6) 즐거운가(家)⁷⁹⁾

(1) 개요

<즐거운가>는 송파구 문정1동 35-9번지 건물 지하에 있는 하나의 작은 공간이므로 엄밀히 따져 마을은 아니다. 다만, 공간 자체가 마을을 지향하고 있고, 현재 최소 16개 이상의 공동체가 지역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기에⁸⁰⁾ 마을공동체 유형으로 분류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즐거운가>는 하나의 작은 공간이지만, 지역에 마을을 만들어 가는 새로운 흐름 중 하나다.

<즐거운가>가 문을 연 것은 2010년 10월이다. 그러나 그 역사는 그렇게 짧지 않다. <즐거운가>의 역사는 1999년 송파구에 문을 연 <송파꿈나무학교> 시절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바쁜 부모들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지역과 교회는 힘을 합쳐 <송파꿈나무학교>의 문을 연다. 이 학교는 2000년 초 개미마을로 이전하게 된다. 지역공부방에서 자라던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자 공부방은 자연스럽게 청소년부를 만들고, 2004년 3월에 청소년 전담교사를 두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기타, 키보드, 드럼’ 등과 같은 악기를 중심으로 한 문화동아리를 조직하기에 이른다.⁸¹⁾

79) 2012년 5월 23일, 2012년 6월 5일에 진행된 즐거운가의 이윤복(터전지기), 엄미경(꿈지기)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그 외 기사 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80) 운영자인 이윤복과 엄미경도 잘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즐거운가>를 매개로 한 공동체는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현재 파악되고 있는 동아리는 요리, 연극, 영화, 만화, 밴드, 춤, 노래, 기타, 제과제빵, 천연비누, 발도로프인형, 미디어, 청소년 인문강좌 등이다.

81) <송파꿈나무 학교>는 지역아동센터로 초등부를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중등부의 운영비는 순수 후원비로 연간 약 50만원이 되지 않아 실제 운영되기 힘든 상황이었다. 때문에 당시 엄미경의 남편이었던 이윤복씨가 중등부 전담교사로 투입되었다. 이윤복과 엄미경은 부부사이다.

그러다 2005년 개미마을 철거소식이 들린다. 이에 따라 2006년 <SK그룹>과 <부스럭기사랑나눔회>가 주관해 지원하는 <1318해피존> 사업의 지원을 받아 청소년부를 별도로 분리하여 다른 공간으로 이전하게 된다.⁸²⁾ 이때부터 청소년부는 <무지개빛청개구리>란 이름을 사용하게 된다.

무지개빛 청개구리 밴드

- ▶ 2004년 청소년부 전담교사로 이윤복씨가 오면서부터 밴드 활동이 시작
 -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밴드 활동을 추진
 - 악기가 없어 고장난 기타 7개와 패타이어로 연습을 시작
 - 이후 신디사이저, 드럼 등의 악기를 장만하여 지속적으로 연습
- ▶ 지역에서 공연 활동 시작
 - 연습 시작 후 두 달 만에 송파꿈나무 후원인의 밤에서 첫 공연을 함. 공연을 본 관객들을 큰 감동을 받았으며, 연주한 아이들도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에 성취감을 느낌
 - 이후 교회, 시민단체를 비롯하여 비닐하우스 음원 공연, 어려운 이웃을 위한 모금 공연 등을 진행
 - 문정2동 로데오거리에서 매달 공연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 마을의 행사가 있으면 가서 공연을 함
- ▶ 무지개빛 청개구리밴드를 통해 성장한 아이들
 - 밴드를 통해 호흡을 맞추면서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되고 이를 통해 아이들 간의 끈끈한 정이 만들어지게 됨
 - 무지개빛 청개구리밴드에 오면 악기 하나는 다룰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음
 - 이곳에서 활동했던 졸업생들은 현재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아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쳐주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 즉, 이 곳에서 꿈을 키우던 아이들이 자란 후 다시 돌아와서 후배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밴드활동으로 인한 소음문제로 지역에서 쫓겨나 다시 비닐하우스에 들어가게 되고, 철거가 임박해 오면서 새로운 공간을 모색하게 된다. 2010년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 준 동네주민들과 (주)유코카캐리어스의 도움을 받아 현재의 공간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때부터 <즐거운가>는 청소년을 뛰어넘어 지역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본격적으로 벌려 나간다. 현재도 <즐거운가> 입구에는 ‘함께 웃는 마을공동체 즐거운가’라고 쓰여 있다.

82) 선정 당시 <무지개빛 청개구리>사업은 1차 통과한 20개 사업 중 꼴찌였다고 한다. 1차는 2~3배수로 뽑혔는데, 현장실사를 나온 심사위원들 앞에 그간 연습한 연주를 들려주었고, 그 결과 <무지개빛 청개구리>사업은 무리없이 선정되었다고 한다.



〈그림 3-65〉
즐거운가 운영자 인터뷰 모습



〈그림 3-66〉
즐거운가 내·외부모습



〈그림 3-67〉 즐거운가 내부 모습

(2) 운영현황

<즐거운가>는 현재 운영위원회와 실무간사, 자원봉사자, 등록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지개빛창개구리> 운영위원회가 <즐거운가>의 운영위원회를 겸하고 있고 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질적 운영은 3명의 실무간사와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진다. 등록회원은 100여명 정도이며, 후원회원은 50여명, 정기적으로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은 300명 정도라 한다.

<즐거운가>에 걸린 구호 중 하나는 ‘당사자의 자족성, 지역사회와共生성’이다. 그 어떤 공간보다 자주적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즐거운가>의 운영비는 거의 대부분 후원과 공모사업 지원 등을 통해 조달되고 있다. 후원은 CMS를 통해 매월 받고 있으며, <국수나눔 잔치>⁸³⁾ 등과 같은 행사를 통해 후

83) <국수나눔잔치>는 특별한 목적 없이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국수를 나눠먹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즐거운가>의 비정기적인 행사이다. 이때, 주민들이 자유롭게 <즐거운가>에 후원금을 낸다. 올해는 이 행사를 통해 <국수나눔잔치> 1년 사업비를 모았다.

원금을 모으기도 한다. 또한 <일촌공동체> 지원금과 <아름다운가게> 지원금을 받아 공간을 운영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 주요특징과 시사점

<즐거운가>의 가장 큰 특징은 청소년 공동체에서 시작하여 마을 공동체로 확장해 나갔다는 데 있다. <송파꿈나무학교>라는 공부방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동아리를 거느린 마을공동체가 되었다.

이와 같은 마을공동체로 성장한 데는 부부인 ‘복실이’ 이운복과 ‘방실이’ 엄미경의 노력이 크다. 복실이 이운복과 방실이 엄미경은 부부다. 이들 부부가 마을사업에 뛰어든 것은 아이들이 크면서부터이다.

원래 공동육아어린이집 교사였던 엄미경씨는 2000년에 갑자기 부모가 모두 돌아가시면서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고, 2001년부터 ‘송파꿈나무’ 자원교사로 활동한다. 2000년 초반 당시 ‘신의 손’이라고 불릴 만큼 뛰어난 증권맨이었던 이운복씨는 옵션시장에 잘못 뛰어들어 큰 손해를 보고, 이후 삶을 바꾸면서 엄미경씨 일을 도와 지역사회에 파고든다. 성격이 좋고 공부방 아이들과 노는 것을 즐거워했던 이운복씨는 ‘무지개빛청개구리’를 맡아 본격적으로 교육공동체사업에 뛰어들고, 부부는 하나가 된다.

‘부모가 되면서 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을 꿈꾸게 되었다’는 그들은 ‘내 아이가 어려움을 겪지 말라는 법 없다. 내 아이가 어려울 때 함께 나눌 수 있을 이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 그들은 섬처럼 갇혀 있던 지역아동센터가 싫어 주민들과 소통하였고, 그럼으로써 현재와 같은 마을공동체 <즐거운가>를 이룰 수 있었다.

<즐거운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했던 또 하나의 요소는 이른바 기부에 대한 관리다. <즐거운가>에는 현재 입구 정면에 <즐거운가> 설립에 도움을 주었던 기부자 명단이 적혀 있다. 또한 각 물품에는 해당 물품을 누가 기부했는지가 모두 적혀 있다. <즐거운가>가 있기까지 기부가 중요했던 만큼, 이들을 가장 존중하고 있는 것이 <즐거운가>다.

<즐거운가>는 현재의 공간을 여는 과정에서도 많은 지역사회 단체 및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 공간조성과 관련된 비용은 (주)유코카케어리스가 후원했다. 공간조성 2년 전인 2009년 1,500만원을 후원해 주었고, 공간이 확보되고 조성작업에 들어가자 1,5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었다.

공간조성은 인테리어 전문가인 임근정씨의 도움을 받았다. 임근정씨는 <아름중합인테리어>대표이자 사회적기업 <달팽이 건설>의 대표이다. 그는 비닐하우스부터 현재까지 <즐거운가>를 도와주고 있다.

공간을 설계한 사람은 <AtoDto> 정미숙 대표였다. 정대표는 아이들끼리 조를 짜서 필요한 공간을 직접 구상하도록 했고, 그 공통사항을 담아 현재의 공간을 설계했다. 아이들이 제시한 필요한 공간요소는 ‘수면실, 밴드 및 댄스연습실, 식당, 샤워장, 암벽등반장’ 등 놀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 결과 현재도 <즐거운가>에는 이와 같은 공간들이 공존하고 있다.

공간으로서 <즐거운가>의 특징은 하나의 공간이나 시설물이 하나 이상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공간 내에는 작은 무대와 이동식 객석이 있고, 그 객석 뒤로는 강의실 칠판과 부엌이, 무대벽면에는 농구대와 암벽등반벽이 설치되어 있다. 객석은 계단형으로 구성되어 책을 읽기 편하며, 가장 윗부분은 천장과 가까워 침실로 이용된다. 밴드연습실은 밀폐된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고 사무실은 그 앞에 자그맣게 자리잡고 있다. <즐거운가>의 공간은 한마디로 공간에 대한 가능한 상상을 자극한다.

<즐거운가>의 또 다른 특징은 밴드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과의 결합이다. 밴드는 현재 7개의 동아리로 운영되고 있다. ‘문현중밴드’, ‘직장인밴드’, ‘쭈마밴드’, ‘졸업생밴드’, ‘마을청년밴드’ 등 그 형태도 다양하다. 이 밴드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연결하여 청소년을 위한 16개의 동아리와 외부와 연결된 ‘바리스타 동아리’, ‘목공동아리’, ‘도예동아리’ 등이 있으며, 주민모임인 ‘철학모임’과 ‘퀵트’ 모임 등이 있다. <즐거운가>는 그 자체로 하나의 공동체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윤복씨는 마을활동을 단계로 나뉘 △활동가 운동 차원에서 마을을 기획하

고 사업을 하는 1단계와 △마을주민 다수가 참여하여 동아리를 만들어 가며 스스로 돌아가는 2단계, △이 공간뿐만 아니라 다른 공간과 소통되어 지역사회가 하나의 마을화되는 3단계로 제시한다. 그 단계에 비추다면 현재 <즐거운가>는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1.5단계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마을주민의 욕구를 담은 네트워크 설계와 그것을 바탕으로 한 지역공간의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지역에서 만들어질 <동네예술창작소>와 같은 마을문화공간은 바로 이런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윤복씨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이 주민지향형의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제4장 마을문화활동 실태분석 및 설문조사

제1절 마을문화활동 실태 분석

제2절 설문조사 결과 분석

제 4 장

마을문화활동 실태 분석 및 설문조사

제1절 마을문화활동 실태 분석

1. 마을문화활동 특성 분석

앞의 제3장을 통해 우리 서울에 존재하는 여러 유형의 마을문화활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어쩌면 조사대상이라 하더라도 몇몇 관계자들을 인터뷰한 것이라 사실(fact)이 정확히 파악되었다고 보긴 어렵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현재의 서울시 마을문화활동 수준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현재 서울에 나타나고 있는 마을문화활동의 여러 실태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지역적 분포

마을문화활동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주로 서북권과 동북권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 마을문화활동은 서북권 중에서는 특히 마포구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동북권에서는 성북구, 도봉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나 사실 이런 현상은 해당 지역에 마을형 공동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서북권인 마포구에는 ‘성미산마을’이 있고, 동북권인 강북구에는 ‘삼각산재미

난마을’이, 도봉구에는 ‘방아골마을’이 있다.

장르별로 살펴보면, 잡지는 종로구인 서촌과 강남구인 신사동 가로수길, 용산구인 이태원, 서대문구 충현동 등에 존재한다. 이들은 모두 문화적 경관이 형성된 지역이거나 지자체의 필요 등에 의해 공공사업을 추진했던 지역이다.

서점과 도서관은 강서구의 <길꽃어린이도서관>과 성동구의 <책읽는아이 책 읽는엄마>, 종로구 서촌의 <길담서원>, 은평구의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 마포구의 <더북소사이어티> 등으로 구성된다. 이상으로 보면, 마을문화활동은 다 음과 같은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마을문화활동은 마을공동체가 형성된 곳에서 대부분 존재한다. 특히 마포구 성미산마을과 강북구 삼각산재미난마을은 서울시 공동체 활동의 핵심 지역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동작구의 ‘성대골’과 송파구의 ‘즐거운가’ 등이 급 성장하고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

둘째, 공동체가 형성하고 활동하는 지역들은 시민운동단체나 공공적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희망동작네트워크>가 활동하고 있는 동작구, ‘도봉시민사회’ 및 ‘도봉사람들’ 등 시민단체가 발달해 있는 도봉구, 다양한 지역기반 사회시설을 갖추고 있는 ‘관악구’, 진보당을 비롯하여 사회단체가 매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은평구 등이 대표적 사례다.

셋째,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는 지역의 특성은 일정한 형태로 지역화가 이루어졌거나 지역과 단절된 형태의 지형조건을 가졌다는 점이다. 예컨대 삼각산재미난마을은 북한산 초입에 형성된 마을이고, 성대골마을은 성대시장 뒤편의 고립된 지역에 형성된 마을이다. 서촌도 인왕산을 배경으로 고립된 마을이고, 방아골도 주변지역과 단절된 도깨비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이다.

다만, 이와 같은 지역적 단절성이 없는 곳에 마을문화활동이 나타나는 것은 강한 운동성에 기초한 것인데, 마포구의 ‘성미산마을’이나 송파구의 ‘즐거운가’ 등은 이러한 운동적 특성을 보유한다.

넷째,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잡지 등과 같은 형태다. 이처럼 특정

주민이나 예술가 혹은 전문가가 주도하는 경우 대부분 지역의 경관성이나 문화성을 배경으로 한다. 경복궁과 인왕산을 배경으로 자연경관과 역사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서촌이나 예술가와 디자이너가 밀집해 문화경관을 유지하고 있는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그리고 이태원 등이 이를 대표한다. 이처럼 자연경관성과 문화경관성을 배경으로 성장하는 것이 마을문화라 할 수 있다.

〈표 4-1〉 마을문화활동 자치구별 분포 현황

자치구	현황	자치구	현황
종로구	길담서원, 시웃	송파구	즐거운가
용산구	이태원 주민일기	마포구	염리동 청조마을, 성미산마을 마포FM, 스트리트 H 더북소사이어티
성동구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	은평구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
동작구	성대골	서대문구	도란도란 충현동
강북구	삼각산재미난마을	강서구	길꽃어린이도서관
도봉구	방아골, 초록나라도서관	관악구	관악FM
강남구	헬로 가로수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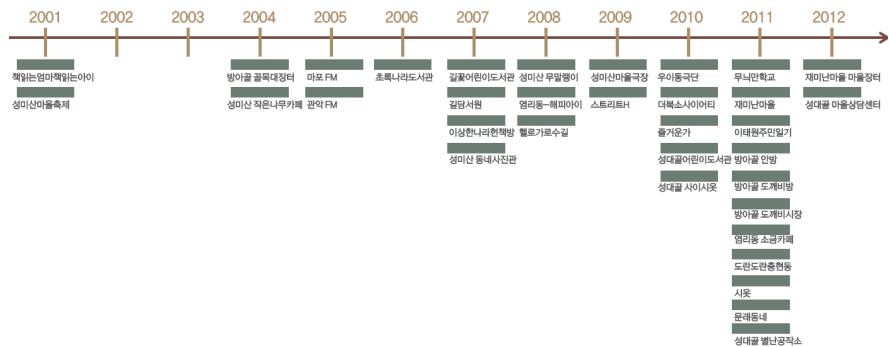
〈그림 4-1〉 마을문화활동 지역별 현황

2) 형성연도

마을문화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마을별로 살펴보면, 1994년 공동육아로 출발한 성미산마을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미산마을 또한 문화공동체로 발돋움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성미산 지키기 모임’ 과정에서 시작되었고, 2007년에 들어 본격화되면서 2008년에야 그 모습을 드러냈다.

삼각산마을도 마찬가지다. ‘꿈꾸는 어린이집’에서 시작하여 대안학교인 ‘삼각산재미난학교’로 이어진 마을은 2010년이 되어서야 문화활동을 현실화시킨다.

잡지 또한 마찬가지다. 가장 오래된 잡지는 2008년부터 발간된 <헬로 가로수길>이다. 이어 2009년도에 <스트리트 H>가 생겼고, 2011년에 서촌의 <시웃>과 <도란도란 충현동>이 발간됐다. 도서관과 서점은 그보다 다소 오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최초의 커뮤니티형 도서관은 2001년 성동구에서 문을 연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였고, 2006년에 <초록나라도서관>이, 2007년엔 <길꽃어린이도서관>이 각각 문을 열었다. 서점의 등장 또한 2007년도 이후의 일로, 2007년엔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이, 2008년엔 <길담서원>이, 2010년에 <더북소사이어티>가 탄생하였다.



〈그림 4-2〉 마을문화활동 형성연도별 현황

그러나 ‘언제 탄생했나보다 중요한 것이 과연 얼마나 오래 숙성되었느냐’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마을문화활동이란 어느 날 ‘이것을 시작하자’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주민 간의 오래된 관계와 신념이 결합된 역사적 과정의 표출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과정은 매우 깊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다.

우선, 각 마을 사업을 보면 최소 10년 이상의 숙성기간이 필요했다. 성미산마을은 공동육아활동이 마을문화활동으로 나타나기까지 무려 14년(1994~2008)이 걸렸다. 삼각산재미난마을도 공동육아에서부터 마을문화활동으로 이어지기까지 10년 이상(1998~2010)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즐거운가> 또한 지역아동센터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으로 발전하기까지 10년 이상(1999~2010)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아직 그와 같은 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성대골마을(2004~2010)은 이제 확산 중이다.

잡지나 방송 또한 마찬가지다. 물론, 전문가들의 ‘개인적인’ 영역이라는 특성상 오랜 준비기간이 필요하지 않으나 그래도 최소한 2~3년 정도의 준비기간과 안정화 기간을 요구한다. <헬로 가로수길>과 <스트리트 H>를 제외한 나머지 잡지는 아직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며, 정기성을 발휘하고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선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성미산마을에는 ‘5년을 참고, 3년을 묵혀두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마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5년간 지역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며, ‘3년을 묵혀두라’라는 얘기는 어떤 의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지역 내 의제를 제공하여 그 동의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마을문화활동은 ‘시간과의 인내’를 건 싸움이라 할 수 있다. 시간 속에 지치지 않고 자기의 원칙을 지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마을문화를 넘어 마을공동체 회복에서 꼭 고려해야 할 요소다.

3) 장르

마을활동의 장르는 매우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제3장에서 정리한

순서와 같이 마을잡지, 공동체라디오, 도서관과 서점, 동아리 활동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와 관련된 활동으로 마을카페, 극장, 목공소, 축제 및 행사 등을 추가하여 분류할 수 있다.

〈표 4-2〉 마을문화활동 장르별 현황

장르	현황
마을잡지	시웃, 헬로 가로수길, 스트리트 H, 도란도란 충현동 ⁸⁴⁾
공동체라디오	마포FM, 관악FM
도서관	길꽃어린이도서관,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 초록나라도서관 ⁸⁵⁾ , 성대골어린이도서관
서점	길담서원,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 더북소사이어티
동아리 활동	우이동극단, 진동, 마을밴드 JnB, 요술항아리 등(이상 삼각산재미난마을) 무말랭이, 아마밴드, 동네사진관 등(이상 성미산마을 ⁸⁶⁾) 염리동 황부자극단단(염리동 창조마을) 무지개빛청구개구밴드 등 16개 동아리(즐거운가) 성대골국악예술단, 착한아버지합창단, 어린이뮤지컬교실(이상 성대골마을)
마을카페	재미난 카페(삼각산재미난마을), 도깨비방(방아골), 소금카페(염리동 창조마을), 작은나무 카페(성미산마을), 사이시웃(성대골마을), 국수집 ‘동화마을잔치날’(길꽃어린이도서관)
마을극장	성미산마을극장(성미산마을)
목공소	마을목수공작단(삼각산재미난마을), 안방(방아골), 별난공작소(성대골마을), 나무심는 목수들(성미산마을), 목공동아리(즐거운가) ⁸⁷⁾
학교	무늬만 학교(삼각산재미난마을), 즐거운가, 마을에너지학교(성대골마을)
축제/행사	도깨비장터, 골목대장터 등(방아골), 성미산마을축제(성미산마을) 마을장터, 청소년문화제 추락 등(삼각산재미난마을), 국수나눔 잔치(즐거운가)

마을잡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떤 문화적 경관성이나 미학적 특성을 가진 지역에서 탄생한다. 공동체라디오는 정부의 허가형태로 지역단체의 역량

84) 유사한 형태의 지역잡지로 문래동에 있는 <문래동네>도 있다. <문래동네>는 사회적기업인 <안테나>(대표 나태흠)가 제작한다.

85) 도봉구에는 <초록나라도서관> 외 마을형 도서관의 ‘작은도서관협회’가 있다. 이 협회에 속한 도서관으로 <생글도서관>, <책읽는 아이>, <반딧불이도서관> 등이 있으며, <초록나라도서관>의 관장이었던 이순임 관장이 운영하는 구립어린이 도서관인 <아이나라도서관>에서 관장한다.

86) 이 외에도 성미산마을엔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이 있다. 현실적으로 그 수를 셀하기가 불가능해, 여기엔 대표적인 것들만 제시하였다.

87) 이 외에도 성북구의 <마을목수>, 문래동의 <나무수레> 등이 있다.

이 강한 곳에서 생기며, 도서관 및 서점은 운영자의 의지와 지역사회의 필요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등장한다.

동아리 활동은 마을공동체형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활동이다. 사실 동아리 활동은 주민들 간의 친밀한 관계를 전제하므로, 마을공동체와 같은 지역 공동체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는 한 마을동아리 활동은 나타나기 힘든 것 중 하나다.⁸⁸⁾

마을문화활동에서 주목해야 할 공간은 목공소다. 여느 것보다 마을목공소가 많다는 것인데, 목공소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제작한다는 것과 그 참여주민이 다른 여느 활동과 달리 남성 중심이라는 점이다. 남성은 마을생활에서 가장 참여하기 어려운 주체 중 하나다. 대부분의 마을생활은 교육이나 보육을 매개로 한 여성과 문화활동에 관심이 있는 일부 남성이 참여한다. 이에 반해 목공은 남성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주로 집에 가 쓸 자기의 물건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서로 지역에 대한 얘기, 살아가는 얘기를 포함하게 된다. 그 결과 마을은 여성을 뛰어넘어 남성까지 포괄하는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카페 또한 마을문화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공간 중 하나다. 지역주민끼리의 만남을 창출하는 공간으로, 그간의 활동 결과로 서로 만나는 공간이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거점이기도 하다. 또한 각 카페는 대부분 북카페나 작은 공연이나 전시를 겸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때문에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공간이자 문화활동 장소가 된다.

이상에서 보듯, 마을문화활동은 전통적인 문화예술영역과 달리 매우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그 형태 또한 매우 다양하다. 이런 맥락에서 마을의 특성을 반영한 형태의 새로운 문화예술전략과 정책이 필요하다. 즉, 공방의 영역이나 카페영역 등 마을(활동)의 다양성을 포괄한 형태의 문화정책과 전략이 마련되어야만, 위(정책)로부터의 시각이 아닌 마을로부터 시각에 기반을 둔 현실감 있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88) 물론, 각 지역 내에는 <문화예술회관>이나 <사회복지관>, <여성회관> 등 공공문화·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문화동아리들이 있다. 여기서는 그와 같은 공공시설 외에 주민들끼리 자발적으로 참여해 만든 동아리를 언급한다.

4) 주체

마을문화활동의 추진주체는 크게 개인적 욕망으로 하는 경우와 공공기관 및 단체 등이 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마을문화활동의 중요한 주체인 개인은 본인의 욕구나 욕망으로 출발하는 사례가 마을잡지나 서점, 일부 도서관 등에서 발견된다. <헬로 가로수길>이나 <스트리트 H>, <시옷> 등과 같은 마을잡지와 <길담서원>,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 <더북소사이어트> 같은 서점, <초록나라도서관>,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 등과 같은 도서관 등이 대표적 사례다.

공공기관도 마을문화활동의 중요한 주체다. 강서구의 <길꽃어린이도서관>, 도봉구의 <방아골사회복지관>, 염리동 <창조마을> 등이 대표적 사례다.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한 사례도 있다. 마포구의 마을사업인 ‘마포아이’, 도봉구의 ‘함께 Green 마을’, 서대문구의 ‘마을만들기’ 사업 등이 대표적 예이다.

사회단체 또한 마을문화활동의 중요한 주체다. 지역아동센터를 발전시킨 형태의 <즐거운가>, 성대골마을을 만들어 가는 <희망동작네트워크> 등이 대표적 사례로, 이들 사례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은 외부 지원기관의 사업을 지원받아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즐거운가>는 ‘일촌공동체’ 사업의 지원을, <희망동작네트워크>는 ‘아름다운 재단’의 지원을 받았다.

마을단위 단체를 구성하여 마을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사례는 ‘성미산마을’과 ‘삼각산재미난마을’이다. 두 지역 모두 사단법인 형태의 마을기관을 만들어 지역의 문화활동을 조직·후원하고 있다.

지역의 문화단체 또한 마을문화활동의 한 축을 구성한다. 청소년문화공동체 <품>과 극단 <진동> 등은 삼각산마을에 관여하고 있고, <극단 민들레>는 염리동 창조마을에 관여한다. <이태원 주민일가>는 이태원에 거주하는 작가들의 활동결과이고, <헬로 가로수길> 또한 전문디자이너들이 기획한 작품이다.

〈표 4-3〉 마을활동의 주체

개인	시웃, 헬로 가로수길, 스트리트 H, 이태원 주민일기,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 길담서원, 더북소사이어티
공공기관	길꽃어린이도서관, 방아골사회복지관, 염리동주민자치센터, 충현동주민자치위원회
사회단체	희망동작네트워크(성대골), 즐거운가
마을기관	(사)사람과 마을(성미산마을), (사)삼각산재미난마을(삼각산마을)
문화단체	청소년 공동체 품, 극단 진동, 극단 민들레, 〈헬로 가로수길〉, 〈이태원 주민일기〉 등

5) 추진동기

마을문화활동의 추진 동기를 살펴보면 크게 지역에 대한 애착, 보육이나 교육 등 개인적 욕구, 지역운동 등의 차원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지역에 대한 애착은 마을문화활동에서 매우 핵심적인 요소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지역에 대한 애착은 지역의 경관성이 좋아서 하는 경우와 지역의 개발 및 사라짐에 대한 우려로 인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전자는 <헬로 가로수길>, <시웃>, <스트리트 H> 등이 대표적 사례며, 후자는 <염리동 창조마을>과 <도란도란 충현동> 등이 대표적 사례다.

보육이나 교육은 마을문화활동에서 중요한 계기다. 보육이나 교육을 매개로 한 마을문화활동으로는 <삼각산재미난마을>, <성대골어린이도서관>, <성미산마을>, <초록나라도서관>, <즐거운가> 등이 있다.

개인적 소신이나 신념을 갖고 하는 경우도 있다. <길담서원>이나 <더북소사이어티>,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 <이태원주민일기>, 성대골마을의 <희망동작네트워크>, <삼각산마을> 청소년문화공동체 <품>의 활동 등은 모두 개인적 신념에 기초한다.

정부(자치구 포함) 사업 또한 마을문화활동을 출현시키는 계기를 제공한다. 마포아이 사업이었던 <염리동 창조마을>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이었던 <도란도란 충현동> 등이 대표적 사례다. 그 외에 이 연구에서는 조사되지 않았지만,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도 강북 수유시장, 금천 남문시장, 중랑구 우림시장 등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공동체 활동을 낳았다.

〈표 4-4〉 마을문화활동 추진동기별 현황

추진동기	현황
지역애착	시웃, 헬로 가로수길, 스트리트 H, 이태원 주민일기
개인적 신념	이태원 주민일기, 더북소사이어티,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 길담서원, 희망동작네트워크
사업모델 차원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 길담서원
정부사업	염리동 창조마을, 도란도란 충현동,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지역 운동	마포FM, 관악FM
보육과 교육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 초록나라도서관, 삼각산재미난마을, 성미산마을 성대골어린이도서관, 즐거운가
주민복지	방아골사회복지관 ‘문화자람’ 프로젝트

2. 결과종합 : 마을문화활동 성공요인

위의 결과를 종합하여 성공적인 마을문화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한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기’이다. 마을문화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계기가 필요하다. 그것은 특정한 지역의 변화이거나(<헬로 가로수길>, <시웃>, <염리동 창조마을>, <도란도란 충현동>) 지역의 새로운 이슈 등장(<성미산마을>), 정부사업의 추진(<염리동 창조마을>, <도란도란 충현동>,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이다. 앞서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을(문화활동 및 공동체 회복)을 형성하는 데 있어 특정한 사건이나 계기, 사업 등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마을문화활동에서 필요한 것은 ‘개인의 의지’다. 보육이든 교육이든(<삼각산마을>, <성미산마을>, <초록나라도서관>, <성대골어린이도서관>,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 <즐거운가> 등), 개인적 신념이나 활동이든(<이태원주민일기>, <희망동작네트워크>, <헬로 가로수길>, <스트리트 H>, <시웃>, <길꽃어린이도서관> 등), 사업모델이든(<이상한 나라의 헌책방>, <길담서원>, <더북소사이어티>) 간에 개인의 의지는 지역 내 마을문화활동을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성공요인 중 하나다.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그 스스로 마을문화 주체로 활동하도록 만들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셋째, 마을문화활동의 또 하나의 조건은 적절한 지원에 관한 것이다. 성공한 마을문화활동을 보면, 적절한 지원이 전제되어 있다. <염리동 창조마을>이나 <도란도란 충현동>처럼 정부 사업으로 추진한 곳도 있고, <즐거운가>나 <희망동작네트워크>처럼 사회활동기관의 지원을 받은 지역도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지원은 매우 적절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앞의 문화 활동 사례에서 보듯, 각 사례는 모두 어떤 한계적 상황에 빠져 있다. 잡지는 인쇄비 등 제작비의 충당에, 도서관은 책의 확보에, 공동체들은 활동비 조달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때문에 이를 어떻게 지원하고 활동을 안정화시켜 줄 것인가 하는 과제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 마을문화활동의 성공요인 중 하나는 마을 혹은 지역 내 거주하는 예술가 등 전문가의 발굴이다. <삼각산재미난마을>은 지역 내 거주하는 예술가들을 이끌어내 마을동아리 형성 및 활동의 중요한 자원으로 쓰고 있다. <즐거운가>는 지역 내 거주하는 전문가들과 더불어 공간을 설계해 매우 다양한 장르의 활동이 함께 할 수 있는 매력적인 문화활동 공간을 창출했다. <성대골어린이도서관> 또한 지역 내 거주하는 국악인을 발굴하여 국악동아리를 만드는 등의 활동을 했다. 이처럼 지역 내 거주하는 예술가(전문가)를 어떻게 발굴하고 활용할 것인가는 마을(문화)활동 활성화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 시정 또한 이들의 발굴과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마을문화활동의 중요한 성공전략 중 하나는 주민 간 관계의 ‘재형성’이다. 많은 마을의 사례를 살펴보면, 마을문화활동을 하는 지역 내에는 새로운 주민의 관계성이 형성된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관계의 ‘민주성’에 대한 것이다.

관계의 민주성이란 상호 대등성을 전제한다. 인구학적 요인이나 정치적 질서 등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욕망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마을(문

화)활동의 특성이다.

이를 위해 각 마을은 주민 간 애칭(nick name)을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 실명이 아닌 애칭으로 부르며 그 애칭을 통해 자신을 새롭게 정체화한다. 즉, 자신이 지니고 있는 욕망-프로이드식으로 얘기하자면 superego가 아닌 id에 기반을 두고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⁸⁹⁾

이런 맥락에서 주민 간 관계의 ‘재형성’이야말로 마을공동체 회복 및 마을문화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마을공동체 형성에서는 △(특정한) 계기, △발굴된 욕망(개인), △적절한 지원, △지역 내 거주하는 자원(예술가 또는 전문가)의 발굴, △주민 간의 관계 재형성 등 5가지의 요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인을 잘 통제할 경우, 마을공동체 형성은 보다 더 적절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그로 인해 지역사회는 새롭게 ‘마을’이라는 형태로 재편될 것이다.

제2절 설문조사 결과분석

1. 마을문화활동을 하는 활동가 대상 설문

1) 설문 개요

(1) 설문 목적

이 설문조사는 현장에서 마을문화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활동 현황 파악과 함께 마을공동체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데

89) 각 대상의 이름(기호)에는 그 대상에게 주어진 ‘기의성’이 전제되어 있다. 즉, 거기에는 그의 탄생과 역할, 해야 할 일 등에 대한 코드들이 입력되어 있는 것이다. 누군가를 무엇으로 부른다는 것은 그의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 된다. 라캉은 이를 ‘기호화된 타자’로 말했고, 알튀세르는 이를 ‘호명기계’라고 언급했다.

에 목적이 있다. 더불어 서울시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복원사업에 대한 평가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고려할 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2) 설문 대상 및 방법

서울에서 마을문화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의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직접 활동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서 일대일 면접설문조사를 통해 진행하였다. 설문은 2012년 3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약 2개월여의 시간동안 진행되었으며, 총 38부의 유효 설문을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3) 설문 구성

설문은 크게 3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 통계학적 특성, 마을공동체 활동의 현황 및 전망,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 4-5>와 같다.

<표 4-5> 설문 구성

구분	내용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령, 일한 기간, 마을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마을공동체 활동의 현황 및 전망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만족도 -마을공동체 형성의 필요성 -향후 마을공동체 활동의 증가 예측, 정부 지원의 필요성
서울시 마을공동체 복원사업	-서울시 마을공동체 복원사업 인지도, 적절성, -서울시 마을공동체 복원사업 중 마을문화활동 관련 사업 적절성 -서울시 마을운동 성공여부 예측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문화의 중요성 -서울시에서 마을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사항 -서울시에서 마을문화활동 활성화 사업 진행시 목표로 설정해야 할 사항

2) 설문 결과

(1) 인구 통계학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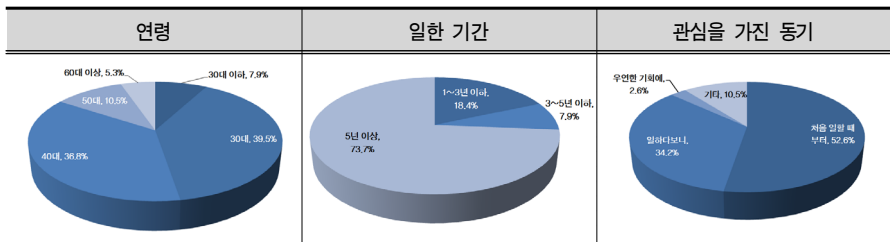
설문에 응답한 38명 중 연령층을 살펴보면, 30대가 39.5%(15명)로 가장 많았

으며, 이어 40대가 36.8%(14명), 50대가 10.5%(4명), 30대 이하가 7.9%(3명), 60대 이상이 5.3%(2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주로 앞에 나셔서 마을문화활동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연령층은 30~4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이 마을문화활동을 해 온 기간을 살펴보면 5년 이상 활동한 사람들이 73.7%(28명)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1~3년 동안 활동한 사람이 18.4%(7명), 3~5년 동안 활동한 사람이 7.9%(3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5년 이상 장기간 활동한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마을문화활동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 처음 일을 시작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경우가 52.6% (20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을 하다가 보니 관심을 갖게 된 경우가 34.2%(13명), 우연한 기회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경우가 2.6%(1명)로 나타나고 있다. 즉, 처음 일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시작한 경우이거나 일을 하면서 관심이 생긴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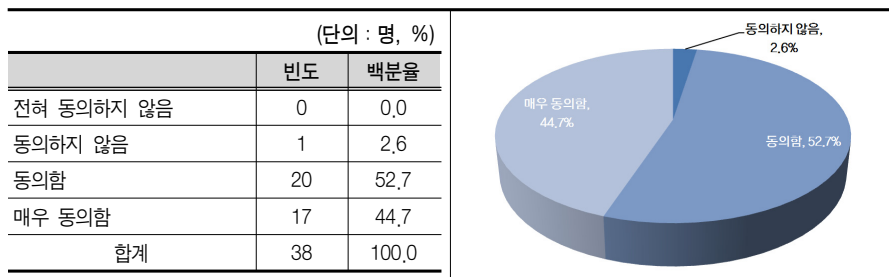
〈표 4-6〉 인구통계학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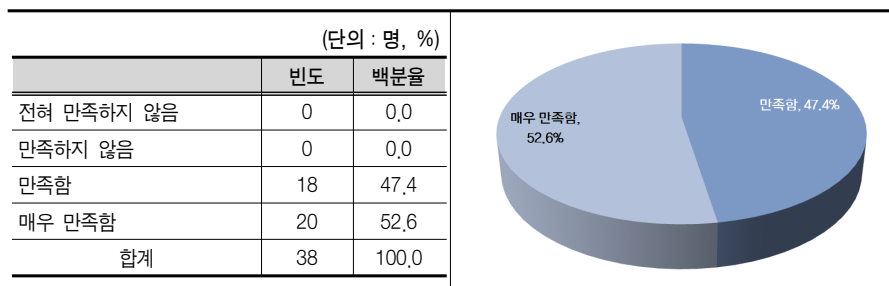
(2) 마을공동체 활동의 현황 및 전망

활동가들이 하고 있는 활동들이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38명 중 37명(97.4%)이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이라는 것에 동의했다. 이들의 활동들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38명 모두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52.6%가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자신이 하는 일이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이라는 것에 대한 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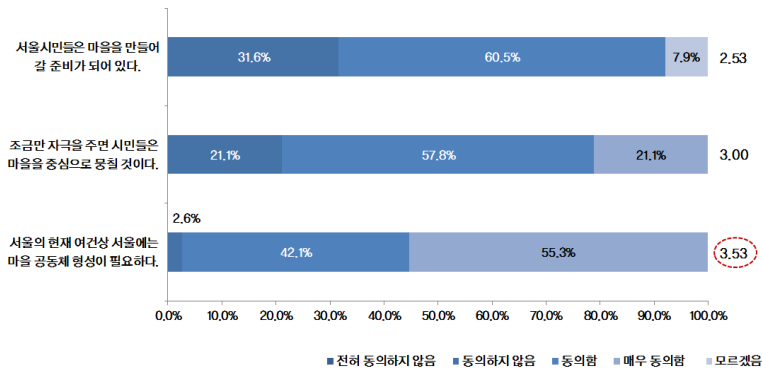


〈표 4-8〉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



서울의 마을공동체 형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해 3가지 형태로 질문을 했다. 현재 서울시민들이 마을을 만들어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한 활동가가 60.5%였으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활동가도 31.6%나 되었다. 평균은 4점 척도에서 2.53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만약 준비가 안 되어 있더라도 약간의 자극을 준다면 시민들은 마을을 중심으로 뭉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78.9%가 이에 대해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1.1%는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평균은 3.00점으로 시민들이 마을을 만들어 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항목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시의 현재 여건(도시구조, 인구구조, 사회문제 등)상 마을공동체 형성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97.4%가 동의했다. 평균은 3.53점으로 3가지 항목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아직 서울 시민들이 마을을 만들어 갈 준비가 덜 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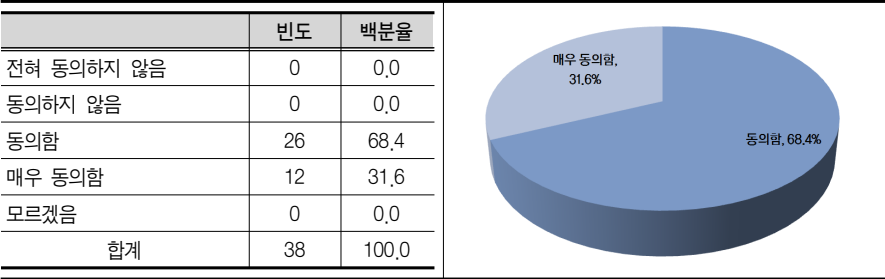
있더라도 조금의 자극을 준다면 마을을 중심으로 뭉칠 것이고, 서울의 여건상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그림 4-3〉 서울의 마을공동체 형성에 관한 의견

향후 마을문화활동이 더욱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100% 모두 마을문화활동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이 중 31.6%가 매우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에 동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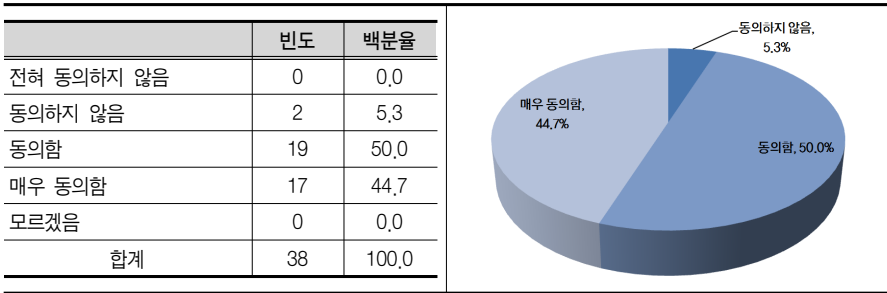
〈표 4-9〉 앞으로 마을문화활동은 더욱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동의



향후 마을문화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마을문화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94.7%가 동의하였으며, 이 중 44.7%는 정부가

마을문화활동을 매우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4-10〉 마을문화 육성·발전을 위해서는 마을문화활동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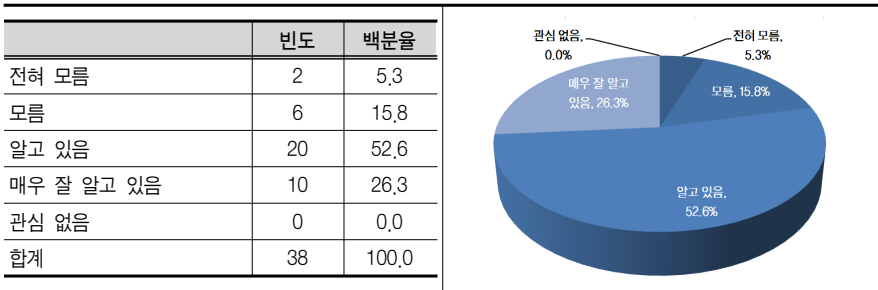


(3) 서울시 마을공동체 복원사업

① 서울시 마을공동체 복원사업에 대한 평가

서울시 마을공동체 복원사업에 대해 알고 있는 활동가는 전체 38명 중 78.9%로 대부분이 사업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거꾸로 생각해보면 약 21%의 활동가들이 마을문화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마을공동체 복원사업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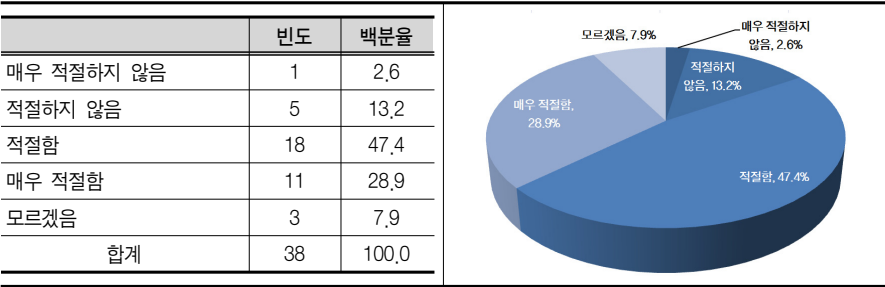
〈표 4-11〉 서울시 마을공동체 복원사업 인지도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을공동체 복원사업의 적절성에 대해 응답한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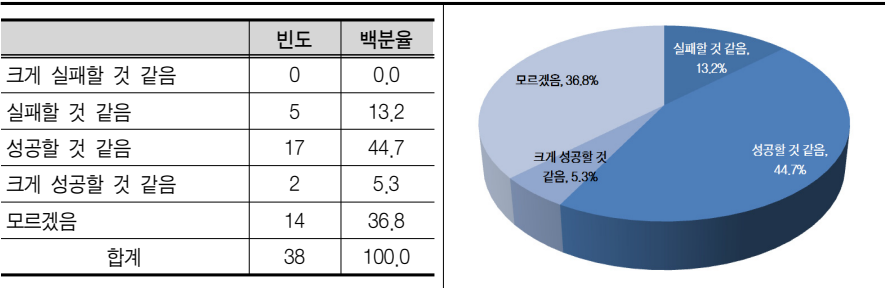
용을 살펴보면 전체의 76.3%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5.8%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사업을 추진하는 점과 마을문화활동의 가장 중요한 동인인 자발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등을 들고 있다.

〈표 4-12〉 서울시 마을공동체 복원사업 적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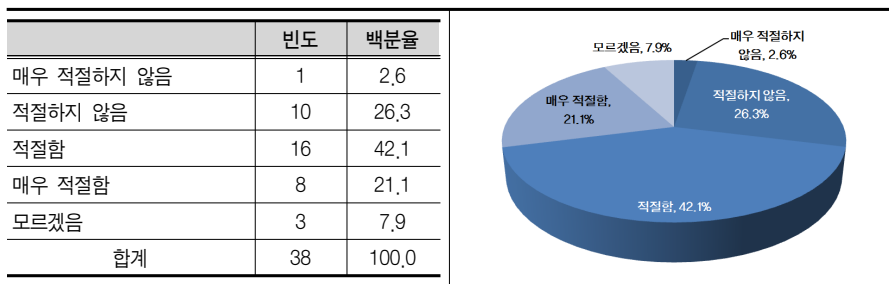
서울시 마을운동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성공할 것 같다는 의견이 약 50.0%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도 36.8%로 꽤 높게 나타났다. 즉, 아직까지는 마을운동에 대한 성공 여부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활동가들도 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패할 것 같다는 의견도 13.2% 정도를 차지했는데 그 이유로는 관 주도의 공동체 만들기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과 함께 진정성 결여, 소프트웨어의 부족 등을 들고 있다.

〈표 4-13〉 서울시 마을운동 성공여부



서울시 마을공동체 복원사업 중 마을문화활동과 관련된 사업을 살펴보면 동네예술창작소, 북카페, 동네박물관, 작은미디어센터, 청소년·마을 주민을 위한 대안문화공간 등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실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질문에는 전체의 63.2%가 적절한 계획이라고 응답했으며,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도 28.9%를 차지하고 있다.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계획이라는 의견과 함께 이러한 획일적인 계획보다는 각 지역에서 요구하고 필요한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지원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있었다.

〈표 4-14〉 서울시 마을문화활동 관련 사업(동네예술창작소, 북카페, 동네박물관, 작은미디어센터, 대안문화공간 등)에 대한 적절성



[참고] 서울시 마을문화활동 관련 주요 사업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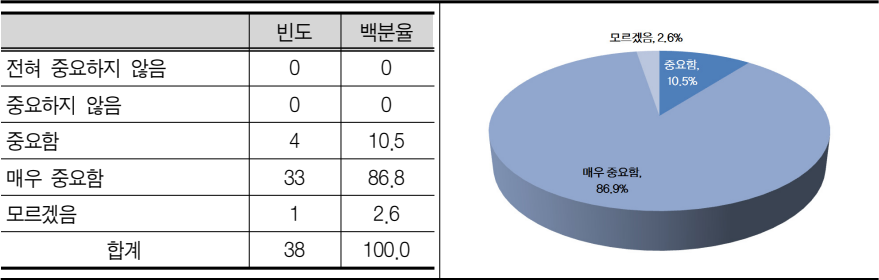
- ▶ 동네 예술 창작소 건립 : 2012년 17개 건립
- ▶ 북카페 조성 : 300개소
- ▶ 동네박물관 건립 : 명사들 자료 보관소
- ▶ 작은미디어센터 구축 : 2014년 50개소
- ▶ 청소년·마을 주민을 위한 대안문화공간 조성 : 2014년 75개소 등

② 서울시 마을공동체 복원사업 진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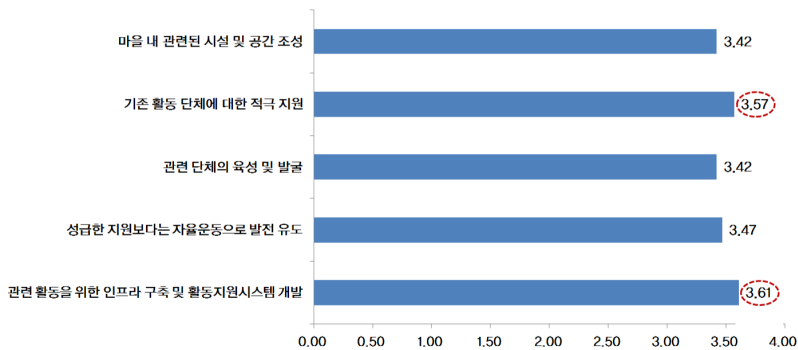
마을공동체를 복원하는 데에 있어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38명 중 37명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중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활동가가 33명으로 86.8%를 차지하고 있다. 즉, 마을공동체를 복원하는 데에 있어 문

화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것에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5〉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데에 있어 문화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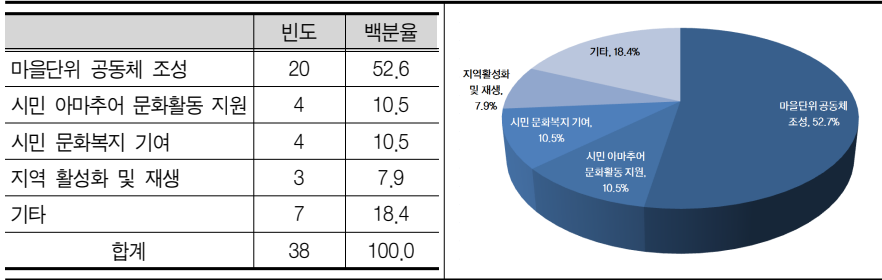
마을문화 조성을 위해 서울시가 해야 할 일들을 5가지 항목(마을 내 관련된 시설 및 공간 조성, 기존 활동 단체에 대한 적극 지원, 관련 단체의 육성 및 발굴, 성급한 지원보다는 자율운동으로 발전 유도, 관련 활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활동지원시스템 개발)으로 정리하여 4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5가지 항목 모두 3.4~3.6점 정도의 높은 동의를 이끌어 냈다. 이 중 관련 활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활동지원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3.6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3.57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4-4〉 마을문화 조성을 위해 서울시가 해야 할 일

서울시에서 마을문화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을 진행할 때 설정할 목표에 대해서는 마을단위 공동체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52.6%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시민 아마추어 문화활동 지원과 시민 문화복지 기여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각각 10.5%를 차지하고 있다.

〈표 4-16〉 서울시에서 마을문화활성화 사업 추진 시 목표로 해야 할 것



2. 일반시민 대상 설문

1) 설문 개요

(1) 설문 목적

이 설문조사는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마을문화활동의 현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마을문화활동이 시민들의 삶과 거주지역에 대한 태도, 문화활동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복원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에 관한 의견도 수렴한다.

2) 설문 대상 및 방법

설문조사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마을문화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시민

과 참여한 경험이 없는 시민으로 집단을 나누어서 시행하였다. 2012년 5월 22일부터 6월 4일까지 2주에 걸쳐 설문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일대일 면접 설문조사를 통해 총 283부의 유효 설문을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마을문화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앞장에서 분석한 마을문화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사례 지역을 중심으로 마을문화활동을 하고 있는 시간에 찾아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16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총 139부의 유효 설문을 회수하였다. 마을문화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서울을 5대 권역(도심권, 동북권, 동남권, 서북권, 서남권)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이나 공원 및 광장 등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전체 16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총 144부의 유효 설문을 회수하였다.

(3) 설문문항 구성

설문문항은 인구 통계학적 특성, 마을문화활동 현황, 문화에 대한 태도, 지역 및 삶에 대한 태도/만족도,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태도 등 5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 <4-17>과 같다.

〈표 4-17〉 설문 구성

구분	대상	설문 내용
인구 통계학적 특성	공통	-성별, 연령, 결혼 유무, 자녀 유무, 거주지역, 거주기간, 거주 형태
마을문화활동 현황	마을문화활동 참여집단	-참여기간, 참여한 활동, 참여하는 단체, 참여 정도, 만족도
	마을문화활동 비참여집단	-참여하지 않는 이유, 참여 의향
문화에 대한 태도	공통	-문화예술의 중요성, 여가의 중요성, 영화·전시 등의 관람 빈도, 동호회 활동 관심도, 악기·연극 등을 배우는 것에 대한 관심도
지역에 대한 태도 및 만족도	공통	-거주지에 대한 태도, 삶의 만족도, 거주지 만족도, 서울시 만족도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태도	공통	-인지도, 성공예측, 적절성, 마을단위 공동체 증가 예측

(4) 설문문항 신뢰도 분석

설문문항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문화에 대한 태도, 지역에 대한 태도 및 만족도,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태도 문항에 대해 크론바흐 알파계수(Cronbach's Alpha)를 측정하였다. 이 계수는 일반적인 연구나 탐색적 연구에서는 0.6 이상을, 더 정밀한 연구에서는 0.7 이상을 적절한 수준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설문문항을 측정해 본 결과 0.799~0.889로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4-18〉 신뢰도 검정

		Cronbach's Alpha
문화에 대한 태도		0.799
지역에 대한 태도 및 만족도	지역에 대한 태도	0.832
	삶에 대한 태도	0.837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0.889
	서울시에 대한 태도	0.880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태도		0.8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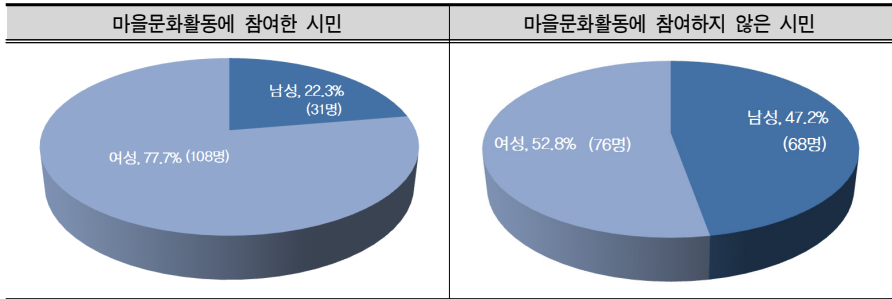
2) 설문 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전체 설문에 응답한 283명 중 마을문화활동에 참여한 시민은 139명, 마을문화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은 144명이었다.

우선 성별을 살펴보면, 마을문화활동에 참여한 시민들의 경우 남성은 31명(22.3%), 여성은 108명(77.7%)으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즉, 마을문화활동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을문화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의 경우 여성은 76명(52.8%), 남성은 68명(47.2%)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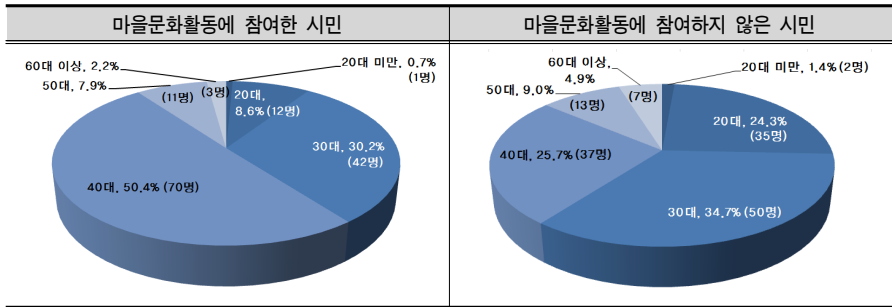
〈표 4-19〉 인구통계학적 특성 - 성별



연령을 살펴보면, 마을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은 40대가 70명으로 전체의 50% 정도를 차지하며, 그다음으로는 30대가 42명으로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즉 30~40대의 연령층이 마을문화활동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을문화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은 30대가 34.7%(50명)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40대가 25.7%(37명), 20대가 24.3%(35명)의 분포를 보였다.

〈표 4-20〉 인구통계학적 특성 -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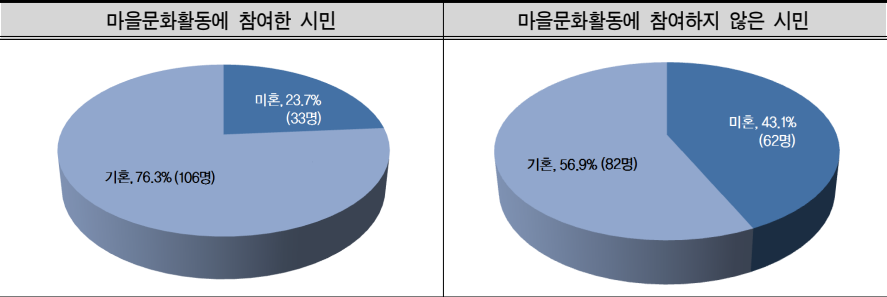


결혼 및 자녀 유무를 살펴보면, 마을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은 전체 139명 중 기혼자가 106명으로 76.3%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육아가 마을문화활동에서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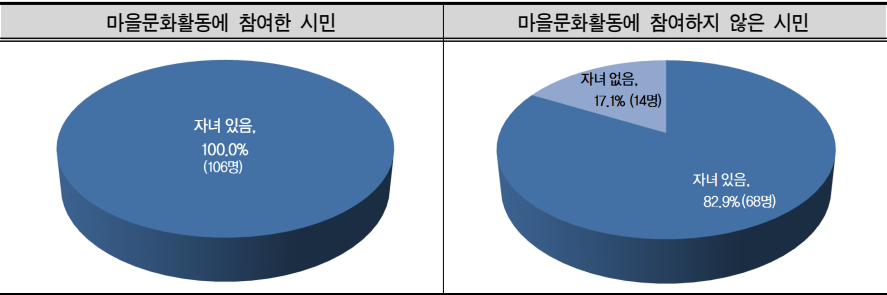
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을문화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은 기혼가가 82명으로 5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약 82.9%가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1〉 인구통계학적 특성 - 결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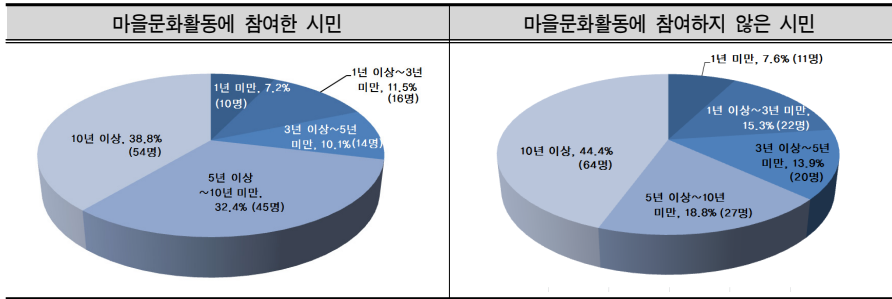
〈표 4-22〉 인구통계학적 특성 - 자녀 유무



거주기간을 살펴보면, 마을문화활동에 참여한 시민들은 10년 이상 거주한 응답자가 38.8%(54명), 5년 이상~10년 미만 거주한 응답자가 37.4%(45명)로 대부분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문화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은 10년 이상 거주가 44.4%(64명), 5년 이상~10년 미만이 18.8%(27명), 3년 이상~5년 미만이 13.9%(20명)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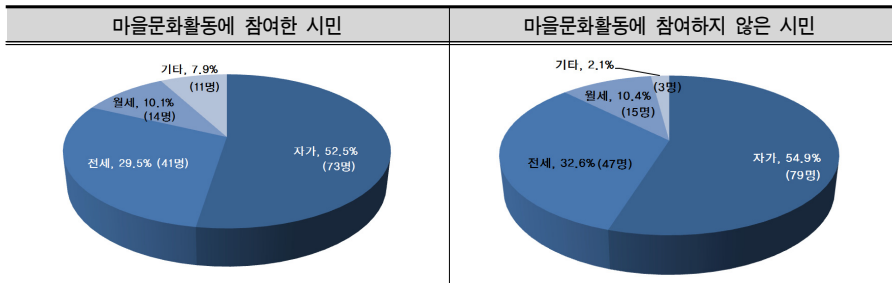
〈표 4-23〉 인구통계학적 특성 - 거주기간



거주형태를 살펴보면 마을문화활동에 참여한 시민들은 자가 52.5%(7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세도 29.5%(41명)로 많았다. 즉, 마을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은 대부분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전세의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문화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은 자가 54.9%(79명), 전세 32.6%(47명), 월세 10.4%(15명)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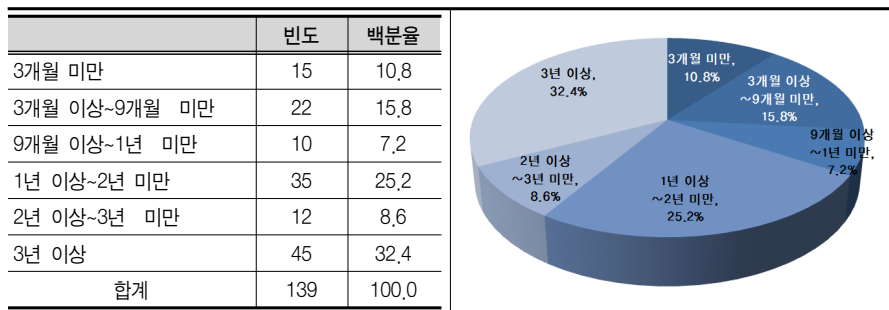
〈표 4-24〉 인구통계학적 특성 - 거주형태



(2) 마을문화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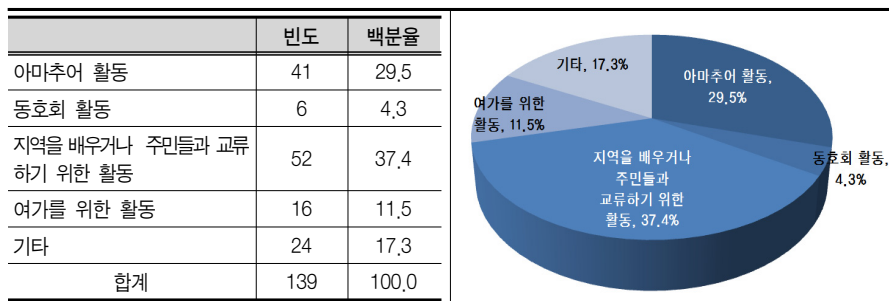
마을문화활동을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의 참여 기간을 살펴보면 1년 이상 참여가 전체의 66.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3년 이상 참여가 32.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4-25〉 마을문화활동 참여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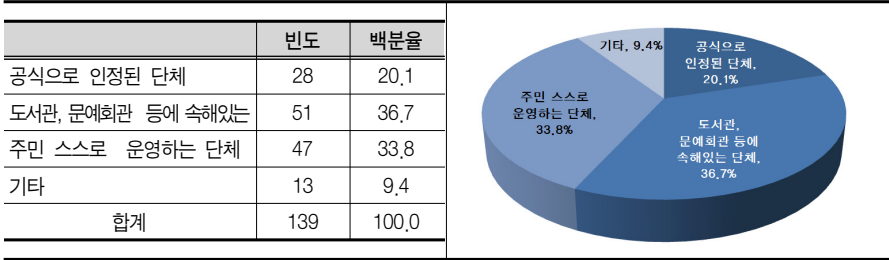
마을문화활동의 참여 형태를 살펴보면 지역을 배우거나 주민들과 교류하기 위한 활동이 37.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아마추어 활동(29.5%), 여가를 위한 활동(11.5%)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26〉 마을문화활동 참여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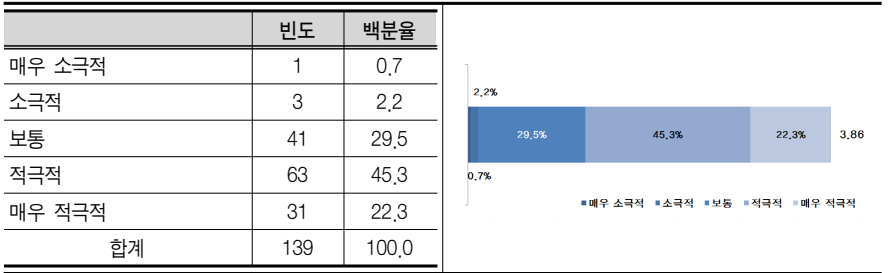
마을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의 현황을 살펴보면 도서관 또는 문예회관 등에서 활동하는 단체가 3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단체도 33.8%로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4-27〉 마을문화활동 참여단체



마을문화활동의 참여 정도를 보면 참여도는 5점 척도에서 3.86점으로 높은 편이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응답한 시민들도 67.6%로 나타나고 있다. 즉, 마을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은 대부분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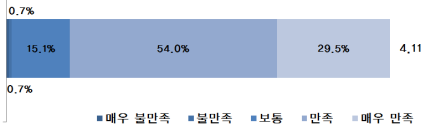
〈표 4-28〉 마을문화활동 참여정도



마을문화활동의 참여 만족도는 5점 척도에서 4.11점으로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의 80% 이상이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4-29〉 마을문화활동 참여만족도

	빈도	백분율
매우 불만족	1	0.7
불만족	1	0.7
보통	21	15.1
만족	75	54.0
매우 만족	41	29.5
합계	13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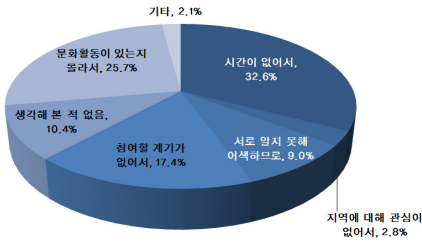


만족도	백분율
매우 불만족	0.7%
불만족	0.7%
보통	15.1%
만족	54.0%
매우 만족	29.5%

다음은 마을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내용이다. 마을문화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이유로는 시간이 없다는 응답(32.6%)과 문화활동이 있는지 몰랐다는 정보부족에 해당하는 응답(25.7%)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참여할 계기가 없었다는 의견(17.4%)과 마을문화활동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의견(10.4%), 서로 알지 못해 어색하기 때문이라는 의견(9.0%)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표 4-30〉 마을문화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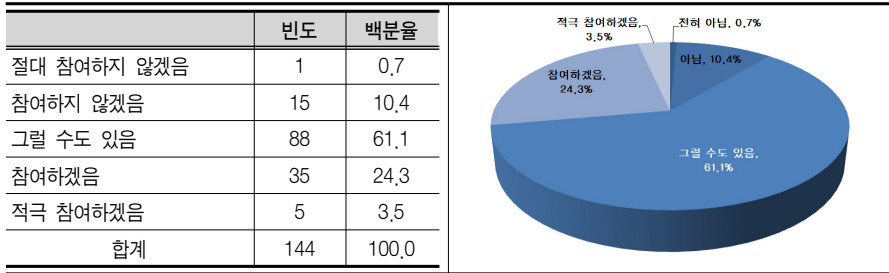
	빈도	백분율
시간이 없어서	47	32.6
지역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4	2.8
서로 알지 못해 어색하므로	13	9.0
참여할 계기가 없어서	25	17.4
생각해 본 적 없음	15	10.4
문화활동이 있는지 몰라서	37	25.7
기타	3	2.1
합계	144	100.0



이유	백분율
시간이 없어서	32.6%
문화활동이 있는지 몰라서	25.7%
참여할 계기가 없어서	17.4%
생각해 본 적 없음	10.4%
서로 알지 못해 어색하므로	9.0%
지역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2.8%
기타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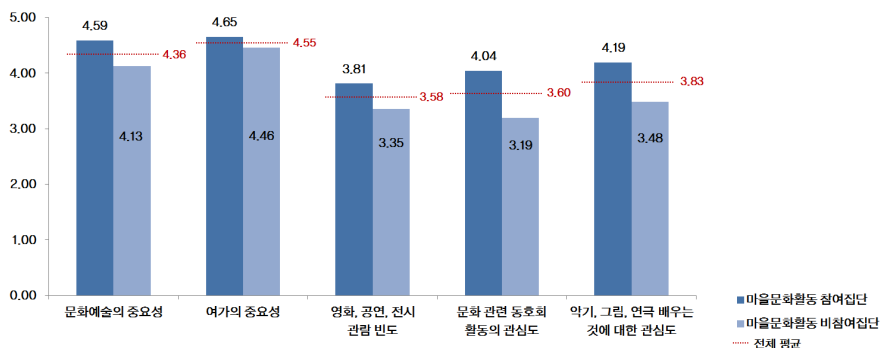
향후 마을문화활동의 참여 의향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88.9%로 대부분이었으며, 참여하겠다는 확신을 보인 응답은 전체의 27.8%를 차지하고 있다.

〈표 4-31〉 마을문화활동 참여의향



(3) 문화에 대한 태도

마을문화활동에 참여하는 시민과 그렇지 않은 시민의 문화에 대한 태도를 비교해 보기 위해 5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로 문화와 예술의 중요도에 대한 문항은 5점 척도에서 평균 4.36점으로 이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을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은 평균 4.59점으로 마을문화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시민(4.13점)보다 문화와 예술을 약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로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문항은 평균 4.55점으로 마을문화활동에 참여하는 시민(4.65점)과 참여하지 않는 시민(4.46점) 모두 여가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화나 공연, 전시를 관람하는 빈도에 대한 문항은 평균 3.58점으로 마을문화활동에 참여하는 시민(3.81점)이 참여하지 않는 시민(3.35점)보다 관람의 빈도수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문화 관련 동호회 활동의 관심 정도에 대한 문항은 평균 3.60점으로 마을문화활동에 참여하는 시민(4.04점)이 참여하지 않는 시민(3.19)보다 훨씬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악기나 그림, 연극 등을 배우는 것에 대한 문항 역시 마을문화활동에 참여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평균이 꽤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평균은 3.83점으로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이 4.19점으로 꽤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에 비해 마을문화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시민들은 3.48점으로 조금 낮은 수준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림 4-5〉 문화에 대한 태도

종합해 보면 시민들은 살아가는 데에 있어 문화와 예술, 여가가 중요한 요소라고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화나 공연, 전시 관람과 같이 문화생활을 향유하고 있는 정도는 보통 이상이며, 문화 관련 동호회 활동이나 그림, 연극 등을 배우는 것에 대한 관심 역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5개의 영역에서 모두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이 참여하지 않은 시민에 비해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집단별로 문화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t-test)을 해 본 결과 아래 <표 4-32>와 같이 5개의 항목에서 모두 유의미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마을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시민들에 비해 문화 및 예술, 여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문화 관련 활동에 더욱 관심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32〉 집단별 문화에 대한 태도에 관한 T-검정 결과

		N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문화예술의 중요성	마을문화활동 참여집단	139	4.59	0.56	5.58***	0.000
	마을문화활동 비참여집단	144	4.13	0.80		
여가의 중요성	마을문화활동 참여집단	139	4.65	0.49	3.01***	0.003
	마을문화활동 비참여집단	144	4.46	0.60		
영화, 공연, 전시 관람 빈도	마을문화활동 참여집단	139	3.81	1.08	3.31***	0.001
	마을문화활동 비참여집단	144	3.35	1.21		

〈표 계속〉 집단별 문화에 대한 태도에 관한 T-검정 결과

		N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문화 관련 동호회 활동 관심 정도	마을문화활동 참여집단	139	4.04	0.83	7.33***	0.000
	마을문화활동 비참여집단	144	3.19	1.10		
악기, 그림, 연극 배우는 것에 대한 관심도	마을문화활동 참여집단	139	4.19	0.84	5.82***	0.000
	마을문화활동 비참여집단	144	3.48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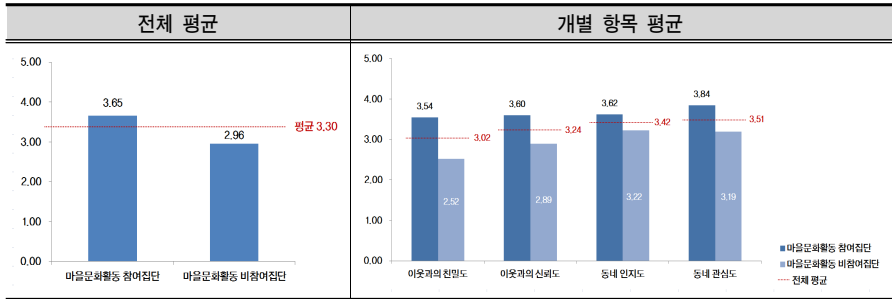
주 : *** p<0.01, ** p<0.05, * p<0.1

(4) 지역에 대한 태도 및 만족도

마을문화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들과 참여하지 않는 시민들의 거주 지역에 대한 태도와 만족도, 삶에 대한 태도, 서울시에 대한 태도 등을 비교해 보기 위해 크게 4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로 거주 지역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이웃과의 친밀도, 이웃과의 신뢰도, 동네 인지도, 동네 관심도 등 4가지 항목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점수는 5점 척도에서 평균 3.30점을 보이고 있다. 마을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은 평균 3.65점으로 이웃과의 관계, 지역에 대한 관심 등이 보통 이상을 보였으나 마을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시민들은 평균 2.96점으로 보통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별 항목을 살펴보면 마을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집단은 동네에 대한 관심도(3.84)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 동네 인지도(3.62점), 이웃과의 신뢰도(3.60점), 이웃과의 친밀도(3.54점)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마을문화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동네를 인지하고 있는 정도(3.22점)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 동네 관심도(3.19점), 이웃과의 신뢰도(2.89점), 이웃과의 친밀도(2.52점) 순으로 조사되고 있다. 동네에 대한 인지와 관심은 보통 이상이나, 이웃과의 신뢰와 이웃과의 친밀함 정도는 보통 이하로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4-33〉 지역에 대한 태도



서울시민들의 지역에 대한 태도를 종합해 보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인지와 관심의 정도는 보통 이상으로 3.5점 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이웃과의 친밀함과 신뢰 정도는 이보다 낮은 3.1점 정도를 보이고 있다. 집단별로 지역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t-test)을 실시하였는데 이웃과의 친밀도, 이웃과의 신뢰도, 동네 인지도, 동네 관심도 등 4가지 항목 모두 유의미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즉,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에 비해 동네의 이웃과 좀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웃에 대한 신뢰도도 높고, 동네를 더 잘 알고 있고 관심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34〉 지역에 대한 태도에 관한 T-검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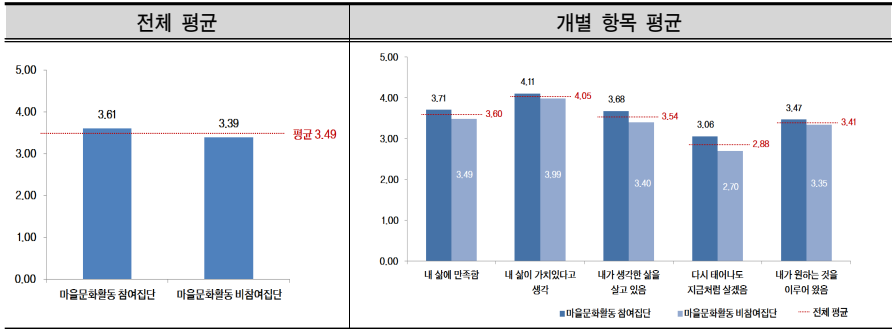
		N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이웃과의 친밀도	마을문화활동 참여집단	139	3.54	0.85	9.44***	0.000
	마을문화활동 비참여집단	144	2.52	0.96		
이웃과의 신뢰도	마을문화활동 참여집단	139	3.60	0.76	7.53***	0.000
	마을문화활동 비참여집단	144	2.89	0.84		
동네에 대한 인지도	마을문화활동 참여집단	139	3.62	0.80	3.80***	0.000
	마을문화활동 비참여집단	144	3.22	0.95		
동네에 대한 관심도	마을문화활동 참여집단	139	3.84	0.77	6.36***	0.000
	마을문화활동 비참여집단	144	3.19	0.93		

주 : *** p<0.01, ** p<0.05, * p<0.1

삶에 대한 태도에서는 삶에 대한 만족도, 삶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지, 내가 생각해 온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태어나도 현재와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인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왔는지 등 5가지 항목으로 질문하였다. 서울시민 전체 평균은 3.49점으로 보통 이상이며, 마을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3.61점)이 참여하지 않은 시민(3.39점)에 비해 약간 높았다. 개별 항목을 살펴보면 마을문화활동에 참여하는 시민과 참여하지 않은 시민 모두 내 삶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4.11/3.99점)가 4.0점에 근접해 가장 높았으며, 이어 삶의 만족도(3.71/3.60점), 내가 생각해 온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정도(3.68/3.40점), 원하는 것을 이루어온 정도(3.47/3.35점), 다시 태어나도 현재와 같은 삶을 살 것인지의 정도(3.06/2.70점)의 순서로 나타났다. 즉, 삶에 대한 가치와 만족도 항목이 높은 점수인 반면, 다시 태어나도 현재와 같은 삶을 살겠다는 항목은 상대적으로 보통보다 낮은 점수를 차지했다.

서울시민들의 삶에 대한 태도를 집단별로 살펴보면 5가지 항목에서 모두 마을문화활동에 참여하는 시민이 참여하지 않는 시민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이 5가지 항목의 집단별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t-test)을 실시한 결과 삶의 만족도, 내가 생각해 온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정도, 다시 태어나도 현재와 같은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항목은 유의미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삶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원하는 것을 이루어온 정도에 대한 항목은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아마도 유의미하지 않다고 나온 2개의 항목은 마을문화활동이라는 변수 외에도 다양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삶에 대한 태도에서 마을문화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시민들에 비해 자신이 생각했었던 삶을 살고 있으며,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35〉 삶에 대한 태도



〈표 4-36〉 삶에 대한 태도에 관한 T-검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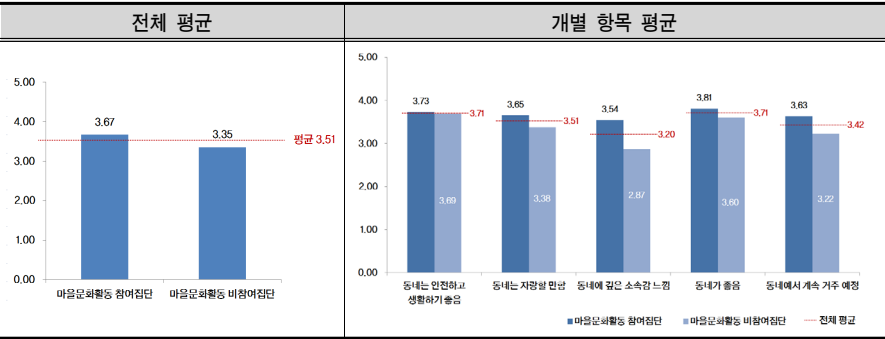
		N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내 삶에 만족함	마을문화활동 참여집단	139	3,71	0,68	2,56**	0,011
	마을문화활동 비참여집단	144	3,49	0,80		
내 삶이 가치 있다고 생각	마을문화활동 참여집단	139	4,11	0,66	1,38	0,170
	마을문화활동 비참여집단	144	3,99	0,74		
내가 생각한 삶을 살고 있음	마을문화활동 참여집단	139	3,68	0,75	2,98***	0,003
	마을문화활동 비참여집단	144	3,40	0,79		
다시 태어나도 지금처럼 살것음	마을문화활동 참여집단	139	3,06	1,00	3,07***	0,002
	마을문화활동 비참여집단	144	2,70	0,95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을 이루어 왔음	마을문화활동 참여집단	139	3,47	0,77	1,28	0,203
	마을문화활동 비참여집단	144	3,35	0,82		

주 : *** p<0,01, ** p<0,05, * p<0,1

세 번째로 거주 지역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 거주지가 안전한지, 사랑할 만한 곳인지, 소속감을 느끼고 있는지, 거주지역이 좋은지, 향후 계속 거주할 예정인지 등 5가지 항목에 관해 질문하였다. 서울시민 전체 평균은 3.51점으로 거주지역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만족하고 있으며, 마을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집단(3.67점)이 참여하지 않는 집단(3.35점)에 비해 만족도가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개별 항목을 살펴보면 두 집단 모두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좋다는 항목(3.81/3.60점)과 안전하고 생활하기 좋다(3.73/3.69점)는 항목이 평균 3.71점

으로 높았으며, 다음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자랑할 만한지(3.65/3.38점), 향후 계속 거주할 예정인지(3.63/3.22점), 깊은 소속감을 느끼고 있는지(3.54/2.87 점)에 대한 항목 순으로 조사되고 있다. 즉, 거주 지역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높은 데 비해 지역에 대한 소속감은 상대적으로 약간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마을문화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시민들은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보통 이하로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4-37〉 거주 지역에 대한 만족도



서울시민들의 거주 지역의 만족도를 집단별로 살펴보면 5가지 항목에서 모두 마을문화활동에 참여한 시민이 참여하지 않은 시민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임을 알 수 있으며, 특히 거주 지역의 소속감 항목은 0.7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5가지 항목의 집단별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T-검정(t-test)을 실시한 결과 지역이 안전하고 생활하기 좋다는 항목을 제외한 4가지 항목은 유의미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즉, 마을문화활동에 참여하는 시민이 참여하지 않는 시민에 비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더 좋아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깊은 소속감을 느끼는 동시에 지역에서 더 오랫동안 거주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38〉 거주 지역 만족도에 관한 T-검정 결과

		N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동네는 안전하고 생활하기 좋음	마을문화활동 참여집단	139	3,73	0,79	0,41	0,682
	마을문화활동 비참여집단	144	3,69	0,82		
동네는 자랑할 만함	마을문화활동 참여집단	139	3,65	0,76	2,73***	0,007
	마을문화활동 비참여집단	144	3,38	0,87		
동네에 깊은 소속감 느낌	마을문화활동 참여집단	139	3,54	0,88	6,34	0,000
	마을문화활동 비참여집단	144	2,87	0,90		
동네가 좋음	마을문화활동 참여집단	139	3,81	0,78	2,16**	0,032
	마을문화활동 비참여집단	144	3,60	0,85		
동네에서 계속 거주 예정	마을문화활동 참여집단	139	3,63	0,97	3,33***	0,001
	마을문화활동 비참여집단	144	3,22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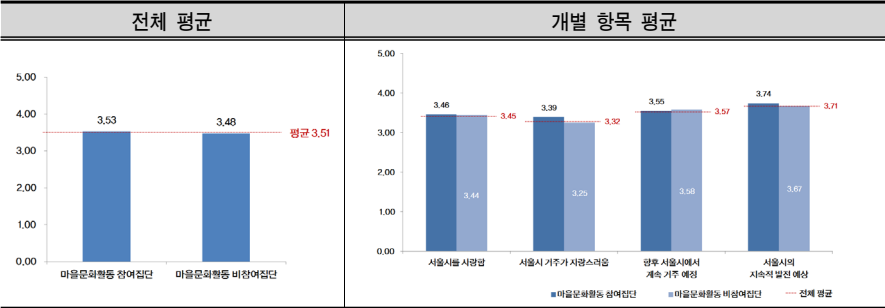
주 : *** p<0,01, ** p<0,05, * p<0,1

마지막으로 서울시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서울시를 사랑하는지, 서울시 거주가 자랑스러운지, 향후 서울시에서 계속 거주할 것인지, 서울시의 지속적인 발전이 예상되는지 등 4가지 항목으로 질문하였다. 조사 결과 서울시민들은 서울에 대해 평균 3.51점으로 보통 이상의 긍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었으며, 마을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과 참여하지 않는 시민의 차이는 0.05점으로 매우 미미했다. 개별 항목을 살펴보면, 마을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과 참여하지 않는 시민 모두 서울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예상하는 항목(3.74/3.67점)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향후 서울시에서 계속 거주할 예정인지(3.55/3.58점), 서울시를 사랑하는지(3.46/3.44점), 서울시 거주가 자랑스러운지(3.39/3.25점)에 대한 항목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대한 태도를 집단별로 살펴보면 향후 서울시에서 계속 거주할 예정이라는 항목만 마을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보다 마을문화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시민들의 점수가 더 높았으며, 나머지 3개 항목은 마을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의 점수가 더 높았다. 집단별로 4가지 항목에 대한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t-test)을 실시한 결과 4가지 항목 모두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서울시의 태도에 대해서는 마을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들과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 사이에서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4-39〉 서울시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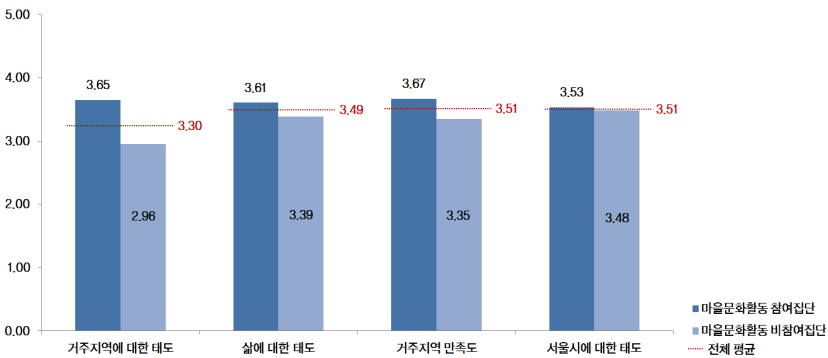
〈표 4-40〉 서울시에 대한 태도에 관한 T-검정 결과

		N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서울시를 사랑함	마을문화활동 참여집단	139	3.46	0.86	0.22	0.824
	마을문화활동 비참여집단	144	3.44	0.88		
서울시 거주가 자랑스러움	마을문화활동 참여집단	139	3.39	0.91	1.27	0.207
	마을문화활동 비참여집단	144	3.25	0.93		
향후 서울시에서 계속 거주 예정	마을문화활동 참여집단	139	3.55	0.96	-0.32	0.751
	마을문화활동 비참여집단	144	3.58	0.98		
서울시의 지속적 발전 예상	마을문화활동 참여집단	139	3.74	0.86	0.68	0.496
	마을문화활동 비참여집단	144	3.67	0.80		

주 : *** p<0.01, ** p<0.05, * p<0.1

종합적으로 서울시민의 거주 지역에 대한 태도, 삶에 대한 태도, 거주 지역의 만족도, 서울시에 대한 태도를 정리해 보면 4가지 항목 모두 3.3점 이상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마을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시민들에 비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을 알 수 있다. 마을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과 참여하지 않는 시민들 사이에 4가지 항목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T-검정(t-test)을 실시한 결과 서울시에 대한 태도 항목을 제외한

3가지 항목에서는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마을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시민들에 비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거주 지역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거주 지역의 태도(이웃과의 친밀도, 이웃과의 신뢰도, 동네 인지도, 동네 관심도)에 대해서는 마을문화활동에 참여하는 시민과 참여하지 않는 시민들 사이의 차이가 0.7점 정도로 다른 항목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마을문화활동이 이웃과 관계를 맺고, 동네에 대해 관심을 높이는 데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4-6〉 지역에 대한 태도 및 만족도, 삶에 대한 태도, 서울시에 대한 태도

〈표 4-41〉 지역에 대한 태도 및 만족도, 삶에 대한 태도, 서울시에 대한 태도에 관한 T-검정 결과

		N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거주 지역에 대한 태도	마을문화활동 참여집단	139	3,65	0,67	8,59***	0,000
	마을문화활동 비참여집단	144	2,96	0,69		
삶에 대한 태도	마을문화활동 참여집단	139	3,61	0,62	2,95***	0,003
	마을문화활동 비참여집단	144	3,39	0,63		
거주 지역에 대한 만족도	마을문화활동 참여집단	139	3,67	0,71	3,68***	0,000
	마을문화활동 비참여집단	144	3,35	0,75		
서울시에 대한 태도	마을문화활동 참여집단	139	3,53	0,77	0,53	0,600
	마을문화활동 비참여집단	144	3,49	0,77		

주 : *** p<0,01, ** p<0,05, * p<0,1

제5장 서울시 마을문화 육성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서울시 정책과 전략의 현실

제2절 사업시행과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제 5 장

서울시 마을문화 육성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마을문화 육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사업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마을문화 사업은 모든 마을사업이 그런 것처럼 시민영역에 속하는 사업이고, 그것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매우 일시적이고, 유목적인 활동이며, 정책 내 체계와 일정 정도 떨어진 형태의 대안적인 형태의 운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로 인해 행정에선 낯설 수밖에 없으며, 지금까지와 다른 전략과 사업을 요구한다.

제1절 서울시 정책과 전략의 현실

1. 마을공동체 회복사업

박원순 시장의 시정운영목표는 △당당하게 누리는 복지, △함께 잘사는 경제, △더불어 창조하는 문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 등 5가지다. 각 목표에서 보듯, 그 어느 때보다 시민 간 동등한 참여와 대등한 권리부여가 눈에 띈다. 것처럼 시정운영의 비전은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이고, 이 시정을 이끌어 가는 기조는 ‘시민중심의 소통과 신뢰’다.

서울의 비전	
15대 중점 과제	01. 시민복지기준선 마련으로 시민 누구나 복지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02.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확충으로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03.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여성희망도시를 만들겠습니다. 04. 교육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05. 공공의료 강화로 누구나 건강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06. 청년의 자기실현이 보장되는 희망경제를 만들겠습니다. 07. 나눔과 연대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08. 시민의 생활권 내 문화창조활동을 확대하겠습니다. 09.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체계를 확립하여 사람중심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10.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11. 사람이 우선하는 편리한 서울교통을 만들겠습니다. 12.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도시에서 생산하는 도시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13. 시민과 함께 건전재정을 꾸리겠습니다. 14. 함께하는 열린시정으로 시민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15. 마을공동체를 육성하여 함께 사는 따뜻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시민중심의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시정중심에서 마을은 핵심이다. 박원순 시장은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을 정착시키고자 ‘열린 시정’하에 마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동체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취임 초기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하에 마을공동체 육성을 주요사업 분야로 제출하였다. 그리고 시정운영의 15대 과제 중 하나로 ‘마을공동체 육성’을 제시하였다.⁹⁰⁾ 제시된 과제명은 “마을공동체를 육성하여 함께 사

90) 서울시, 2012, 희망서울시정운영기본계획, p. 36. ‘마을공동체 분야’는 5대 사업분야 중 5번째

는 따뜻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이다. 제시된 바와 같이, 마을공동체 육성의 목표는 ‘함께 사는 따뜻한 서울’을 만드는 전략이다. 마을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 형성을 통해 시민들이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서울시는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로 사람가치를 회복한다’는 목표하에 마을공동체 회복사업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가 회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래 주민 간 공동체 관계로 살아가던 서울시민의 삶을 그대로 되돌려보겠다는 의미다.

이 목표하에 서울시는 우선,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마을공동체란 ‘주민자치의 공동체’를 말하며, 공동체 만들기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⁹¹⁾

이에 따라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공동체 회복,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주민주도, △마을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 존중,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 등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토록 되어 있다.⁹²⁾ 이어 이 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기본계획을 수립(제6조)해 연차별 시행계획(제7조)하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업에는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마을기업 육성, △환경·경관의 보전 및 개선,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설립,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마을학교 운영,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연구·조사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어 있다(제9조). 이를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제10조) 및 평가·포상(제11조)을 하도록 되어 있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15대 중점과제 중 15번째 과제로 제시되었다.
91)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92) 위 조례 제3조(기본계획)

으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마을공동체위원회>를 두는 한편,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마을공동체위원회>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심의하는 한편, 발전방향 등을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는 실질적인 마을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 센터의 주요한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사업분석·평가·연구, 3. 마을공동체의 사업계획 수립·실행지원, 4.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 6.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교육·홍보·전파, 7. 마을공동체 만들기 자원관리, 8. 마을공동체 만들기 자원관리, 9. 그 밖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행이 그것이다.

이로써 서울시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를 축으로, <마을공동체위원회>가 전체적인 방향과 사업을 총괄하며, <서울시>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민간과 전문집단이 사업을 총괄하며, 공공이 이를 뒤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각 사업은 이미 각 실·국 및 산하기관에 배치되어 있다.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아닌, 2011년 선거를 통해 새로운 시장이 취임되고 사업이 추진된 결과, 통합적 계획하에 수립되기보다는 각각의 실·국 입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이전 사업을 변경·설계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 서울시는 이중화된 구조를 갖게 된다. 즉, 각 실·국(산하기관)의 사업과 전반적으로 마을사업을 총괄하고 추진하는 <사회혁신기획관>의 관리사업으로 분리된 것이다.

각 실·국의 사업은 초기 130여개가 넘는 형태에서 2012년 2월 68개 사업으로 줄어든다. 68개 사업은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한 토대만들기 사업과 △주거, 복지, 문화, 경제공동체 등 4가지 유형의 사업으로 구성된다. 그러다 여러 추진여건을 감안하여 다시 4개 시책 35개 사업으로 축소된다. 4개 시책은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한 토대만들기 사업과 △복지, 경제, 문화공동체와 관련된 사업 등이다. 주거공동체가 삭제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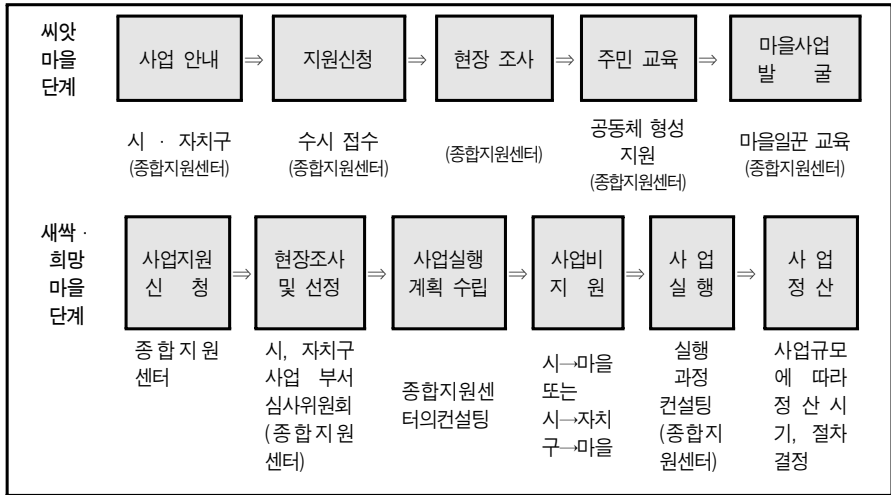
〈표 5-1〉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내용

2012. 02. 계획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서」, 2012.2)		2012. 05. 마을공동체 사업확정안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 추진계획 보도자료」, 2012. 5.3)	
분야	사업(예산)	분야	사업(예산)
토대만들기	14개 사업 (1,159백만원)	토대만들기	5개 사업 (3,000백만원)
주거공동체	11개 사업 (75,526백만원)	복지공동체	11개 사업 (7,400백만원)
경제공동체	3개 사업 (9,516백만원)	경제공동체	5개 사업 (12,000백만원)
문화공동체	29개 사업 (46,221백만원)	문화공동체	14개 사업 (49,000백만원)
복지공동체	11개 사업 (9,502백만원)		

각 분야의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서울시는 <표준행정절차>를 수립한다. 이 계획에 의해 서울시 사업은 ‘희망’과 ‘새싹’, ‘씨앗마을’로 분류되는 마을공동체의 발전단계에 따라 각각 차등화된 지원을 받게 된다. ‘씨앗마을’은 커뮤니티가 미약한 단계로, 주로 주민모임 활성화 등의 지원을 받게 되며, 커뮤니티 기반이 형성된 ‘새싹마을’은 1~2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그리고 ‘희망마을’은 복지, 문화, 경제 등 해당 실·국 사업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게 된다.

〈표 5-2〉 서울시 사업추진을 위한 대상마을 분류

	씨앗 마을	새싹 마을	희망 마을
구 분	커뮤니티 기반이 미약한 경우	커뮤니티 기반이 형성된 경우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한 경우
주 요 지원내용	· 주민모임 활성화 · 마을사업 발굴 · 마을일꾼 양성교육	· 발굴 사업 구체화 · 1~2개 사업 추진	· 복지,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마을사업 실현



이상으로 서울시 사업이 갖고 있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인상적인 것은 ‘주민자치, 자발’에 기초한다는 점이다. 대개의 중앙정부 사업은 ‘전문 기획자 모델’(Project Manager Model)에 의존한다. 즉 전문가가 사업을 기획하고, 여기에 예술가 등이 참여하여 프로그램 콘텐츠를 제공하며, 마을(주민)은 프로젝트의 대상 또는 공동 협력자로 위치하게 된다. 그만큼, 전문기획자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고, 중앙정부는 이를 제어하고자 <사업단> 아래 ‘추진자문단’(consulting group)을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 중앙정부의 의도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기획자들 통제하는 사업구조를 택하게 되는 것이다.⁹³⁾

그런데 서울시 사업은 이와 같은 전문가 그룹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 사업 발의 및 추진은 마을주민 스스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그들을 도와주고자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다.⁹⁴⁾ <마을공동체종합

93) 이런 방식은 <문전성시>사업을 통해 보편화되었다. 이후 중기청의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등 대부분 사업에서 이 방식이 채용되면서 <국토해양부> 및 <지식경제부>의 사업 등에 도입된 상태다.

94)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운영목적은 전체적인 서울시 사업기획 및 마을사업 컨설팅, 마을일꾼 발굴을 위한 교육 및 육성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3조).

지원센터> 또한 ‘컨설팅조직’이지만, 그 대상이 기획자가 아닌 마을 주민들의 직접적 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중앙정부의 사업체제와 완전히 다른 사업구조를 갖게 된다.

〈표 5-3〉 기존 마을문화사업의 특징과 서울시 사업

구분	기존 마을사업의 특징	서울시 사업의 특징
사업주체	기획자(또는 예술가)	마을주민
사업동기	기획자 중심 계획	마을주민의 발의
컨설팅역할	기획자 기획 및 활동모니터링	마을주민의 계획도움
장점	계획의 우수성/관리의 수월성 사업수행의 책임성	주민의 자발성 사업의 지속성
단점	사업종료와 더불어 해체 지속성에 대한 우려	사업수행의 책임성 결여 사업추진의 비효율성
발전과제	지속성에 대한 대책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책임성

둘째, 서울시 사업은 단위사업이 아닌, 여러 실·국의 사업이 융합된 ‘분야별 사업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중앙정부 사업은 예컨대, 단일 사업구조 하에 목적과 사업체제를 갖고 있다. 각 사업지만 다를 뿐이다. 예컨대 <문전성시> 사업은 시장활성화를 목표로 전국 일부 시장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그런데 서울시 사업은 복지, 경제, 문화 등 3개 분야 사업과 마을만들기의 토대를 형성하는 공동사업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복지, 경제, 문화 등 각 사업은 실·국에서 추진하고, 마을만들기의 토대를 형성하는 사업은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이로써 사업은 마을공동체 형성이라는 목표 체계하에 여러 각도에서 진입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그런데 이 경우 각 사업은 유기적 연계관계를 가지면 매우 효율적으로 시행된다. 즉 한 마을에 복지, 경제, 문화 등과 관련된 사업이 집중되고, 그 결과 마을 자체가 여러 가지 사업이 융합된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 각 사업은 한 마을에서가 아닌, 각 실·국의 입장에 따른 여러 마을로 분산되어 버린다. 즉, 단일한 영역과 목표, 비전과 관점 내에서 통제

되지 못해, 사업 자체가 분산되어 그 에너지를 상실하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이다.

셋째, 서울시 사업은 각 마을의 여건에 따라 차등을 두어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마을의 여건에 대한 판단이 작위적이고, 그 추진 내용 또한 일방적이다. 예컨대, ‘커뮤니티’의 형성 정도라고 했는데 과연 그 커뮤니티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없다. 주민 간 네트워크를 말한다면, 공조직과 사조직이 통틀어 이런 네트워크가 없는 마을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문제는 그 조직 자체가 ‘마을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 마을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매우 작위적일 수밖에 없다.⁹⁵⁾ 더불어 ‘씨앗마을’은 활동지원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그것으로 가능한가 하는 문제도 제기된다. ‘씨앗’이 ‘새싹’이 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물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 시기야말로 말 그대로 ‘마중물’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공동체의 유형과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 지원의 내용은 다를 수 있다. 서울시는 이를 <표준행정체계> 내로 편입시켰는데, 그로 인해 각 실·국의 사업은 자기의 전문성과 역량을 펼치지 못한 채, 표준화된 틀로 빠져든다. 각 사업이 실·국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통제하는 데 주력할 뿐, 각 실·국으로 분산되어 있는 특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복지·경제·문화공동체 등으로 특화한 형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장점의 요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소 고려하지 못한 상태다. 그런 점에서 향후 사업추진 시 나타나는 문제점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95) 마을성이란 대체로 3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첫째는 지역적 단위의 공동체성이다. 어쨌거나 마을인 이상 그것은 지역적 단위의 공동성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는, 공공성이다. 마을을 단위로 한 네트워크라 할지라도 사적인 혹은 단체 중심의 이해관계가 아닌, 지역 단위의 공공적 네트워크 형태를 띠어야 한다. 셋째는 진정성이다. 그 네트워크가 얼마나 건실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가? 마을에 대한 순수성과 열정 등이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셋 중 첫째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개는 판단기준 자체가 모호하거나 기준자체를 설정할 수가 없어 작위적인 수준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공동체 사업은 진정성 측면과 마을의 공공성 측면에서 그 정책목표 달성에 물음표를 칠 수밖에 없다.

2. 문화부문 사업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동체에서 ‘문화부문’사업은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문화부문 사업은 총 14개로, 499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 관련 사업에는 ‘전통적인’ 문화부문 사업과 더불어 마을공원 등 공동된 의제를 만드는 ‘환경관련’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환경관련 사업을 제외하고, 말 그대로 문화관련 사업만 포함하게 되면, 문화부문 사업은 △마을예술창작소 조성, △마을작은도서관 지원, △마을 북카페 조성 및 운영, △마을미디어 문화교실 운영, △마을미디어육성 등 총 5개이고 80억 8천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

이 중 가장 많은 사업비를 차지하는 사업이 마을예술창작소 조성사업이다. 그리고 마을 북카페 조성 및 운영사업이 20억원, 마을도서관 지원사업이 6억원, 마을미디어문화교실 운영사업이 5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을미디어육성 사업은 올해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그 외 많은 사업들이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사업에 편제되어 있다. 2012년 들어 <문화관광디자인본부>는 ‘문화로 행복하고 풍요로운 마을살이 지원’이란 정책적 목표를 내세우고, 마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많은 사업은 앞서 살펴본,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에 포함되어 있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다.

‘마을살이 지원’을 위해 <문화관광디자인본부>가 설계한 사업은 △동네예술창작소 설치·지원, △대안문화공간, 우리 동네 북카페 조성 및 운영지원, △우리동네 미디어 문화교실 운영, △마을단위 작은 미디어센터 구축 지원, △자치구 문예회관 등 유희시설의 주민문화공간화, △도서관 확충, △명사의 작은도서관·여행하는 도서관 등 작은 도서관 조성·운영 지원, △동네박물관 조성 등의 사업이다. 여기에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이나 ‘하이서울 페스티벌을 시민축제로 전환하는 사업’ 등을 합치게 되면, 서울시의 대부분 사업은 마을이나 동아리(아마추어 활동),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⁹⁶⁾

각 사업 중 마을공동체 회복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⁹⁷⁾

1) 동네예술창작소 설치·지원

‘주민 누구나 문화예술 체험 및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는 목표하에 “유희공간 및 시설을 활용, 최소비용으로 설치·운영한다”는 것이 이 사업의 기본목표다. 사업목표는 2020년까지 75개소를 조성·운영하는 것이며, 2012년에는 17개소, 2013년에는 21개소, 2014년에는 25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동네예술창작소는 ‘주민 스스로 가꾸가는 마을공동체 공간으로 운영한다’는 원칙하에 ‘지역주민, 지역활동가 등이 중심이 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방식을 결정하는 한편, 프로그램을 기획·개발하도록 되어 있다. 즉, 주민중심의 운영이 핵심요체인 것이다.

2) 우리 동네 북카페 조성 및 운영지원⁹⁸⁾

‘주민 사랑방 형태의 공간을 조성한다는 목표하에 ‘북카페 형태로 조성, 주민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데 이 사업의 목적이 있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는 기존 작은도서관을 리모델링하거나 유희공간을 발굴하는 방식 등으로 2012년까지 총 25개를 조성하고, 매년 25개씩 확대해 2014년 총 75개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96) 이 밖에도 △내 집앞 5분 거리 내 생활체육시설 확충, △다양한 스포츠동아리 육성, △마을골목길 환경개선 등이 마을 혹은 공동체와 관련된 사업이라 할 수 있다(문화관광디자인본부, 2012. 1. <주요업무보고>, 서울시).

97) 이 내용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발행한 2012년 주요업무보고에 따른 것임을 밝힌다.

98)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업무보고(2012.1)에는 ‘운영 지원’으로, <마을공동체지원사업 보도자료>(2012.5)에는 ‘운영’으로 표기되어 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보면 기존 시설을 활용한 북카페 리모델링 시 개소당 5천만원을 지원하며, 운영비도 개소당 5천만원을 지원한다.

3) 우리 동네 미디어문화교실 운영

‘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도구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으로서 ‘지역활동가 양성’이 이 사업의 목표다. 2012년 마을방송에 활동의사가 있는 시민 600명을 모아 ‘우리마을 미디어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700명 이상의 주민을 교육해 마을미디어 활동을 위한 지역활동가로 양성할 계획이다.

4) 마을단위 작은 미디어센터 구축

‘우리 동네 미디어문화교실’을 통해 육성된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주민자치센터, 동네예술창작소, 작은도서관, 마을학교 등 생활밀착공간 내에 ‘작은미디어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3년에 25개소, 2014년에 25개소를 확보하고 장기(2020년)적으로는 100개 소 이상의 마을미디어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다.

〈표 5-4〉 마을공동체 미디어 네트워크 추진계획

사업	2012	2013	2014	장기(2020)
우리마을 미디어문화교실	600명	700명	700명	1,000명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	25개소	25개소	100개소 이상

5) 지역 기반 동네박물관 조성

명사들의 자료나 지역문화재, 특화상품 등을 기증받아 주민 또는 기증자가 관리·운영하는 박물관으로, 서울시는 주민들의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2012년에는 사업예산이 없으므로, 2013년 이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세종문화회관은 성인동아리와 연계된 청소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서울동네문화클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⁹⁹⁾ 이 사업은 ‘역량있는 성인문화예술동호회 발굴 및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시행으로 시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문화공동체의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청소년동아리가 성인동아리와 결합하여 공동활동 사업을 신청해 오면, 이에 대해 지원하고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한 뒤 그 활동을 발표하는 최종발표회장을 가짐으로써 청소년을 매개로 한 지역 단위 문화공동체 활동을 촉발하겠다는 것이 사업의 목표다. <삼각산재미나마을>의 운영주체인 청소년문화공동체 <품>이 ‘무늬만 학교’를 개설하여 만든 주민극단인 ‘우이동 극단’이 대표적 모델이다. 다만, ‘우이동 극단’이 신설된 극단이라면, 세종문화회관의 ‘서울동네문화클럽’은 기존 공동체를 연결하는 형태이다.

제2절 사업시행과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1. 주요 사업의 시행

현재 문화부문의 각 사업은 각 주무부서를 중심으로 추진 중이다. 연구진은 이 중 <동네예술창작소 조성사업> 및 <마을미디어센터조성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다. <동네예술창작소 조성사업>에는 ‘실무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마을미디어센터조성사업>에는 ‘민관협력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서울시의 사업추진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⁰⁰⁾

99) (재)세종문화회관, ‘서울동네문화클럽’ 추진계획(안), 2012. 5.

100) 이 사업의 시행과정 및 체계를 살펴보는 것은 그것이 오래된 사업으로 어떤 체질을 갖고 있는 사업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법이나 제도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 정해진 틀이 설정된 사업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특성과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마을문화 사업과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동네예술창작소> 조성사업

<동네예술창작소> 조성사업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동네별로 예술창작소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2년에 17개소 조성하고 2020년까지 75개소로 늘린다는 목표로 추진되었다.

사업의 목표는 초기에는 정해진 17개소의 <동네예술창작소>를 조성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각 자치구를 대상으로 ‘유휴시설이나 공간을 활용, 동네예술창작소를 건립할 자치구’를 모집하게 된다. 이에 따라 총 6개의 시설이 동네예술창작소 조성 시범사업 대상 시설로 떠오르게 된다.

〈표 5-5〉 동네예술창작소 조성 시범사업 예상후보지

시설명	시범지역 추천순위	주민 접근성	공간 활용성	민원 가능성	타사업과의 연계성	시설비용 예상
창5동 구청사 (도봉구)	1	매우 좋음	매우 좋음 (단독시설)	있음	있음 (문예회관)	중
가산 빗물펌프장 (금천구)	자치구별 1개소 추진	보통	매우 좋음 (복합시설)	없음	없음	하
구 시흥가압장 (금천구)	3	매우 좋음	좋음 (단독시설)	보통	있음 (주민센터)	상
민속의 집 (강동구)	2	좋음	매우 좋음 (단독시설)	보통	없음	하
도곡2문화센터 (강남구)	외부기관 위탁 중	매우 좋음	보통 (복합시설)	없음	있음 (문화교육 진행 중)	하
청소년수련관 (노원구)	외부기관 위탁 중	보통	보통 (복합시설)	없음	있음 (문화교육 진행 중)	하

그러나 이와 같은 사업방식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된다. 특히 강력하게 제기되었던 문제는 이 사업이 기존의 <문화예술회관>이나 <창작공간 조성사업>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점이었다. 즉, 기존의 <문화예술회관>과 같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조성하고 자치구가 운영하는 사업이며, 자칫 기존의 창작공간 조성사업처럼 예술가들의 레지던시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더불어 <동네예술창작소> 조성사업은 공간조성보다 그 지역의 문화적 생태계

와 주민 욕구를 먼저 살펴야 하며, 그러한 욕구와 생태계의 분석 속에서 주민이 활용할 만한 시설, 지역 내 문화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을 건립해야 한다는 것이 비판의 요체였다.

그 결과, 이 사업은 기존 공간조성 사업과 달리, 자치구를 중심으로 문화생태계 조성 및 마을단위 자치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새롭게 5개 구를 시범자치구로 선정하게 되고, 자치구별로 지역문화네트워크에 기초한 TFT를 구성토록 하는 한편, TFT 결과를 바탕으로 <동네예술창작소>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한다. 즉, 자치구의 여건과 주민의 욕구에 맞는 <동네예술창작소> 건립 및 운영모델을 자치구와 자치구 내 문화관련 인사들이 스스로 구하도록 한 것이다.

시범자치구로 선정된 자치구는 ‘강북구’, ‘금천구’, ‘도봉구’, ‘마포구’, ‘송파구’ 등 5개 구다.

각 자치구를 대상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계획은 두 가지다. 그 첫째는 자치구별로 해당 자치구에 필요한 <동네예술창작소> 모델을 구하는 것이다. 그로부터 서울시는 <동네예술창작소>의 여러 모델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동네예술창작소 조성 및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즉 시범자치구를 통해 조성 및 운영모델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전역에 확산한 모델을 구하고자 한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의도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서울시 내에 <동네예술창작소 추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실무위원회는 각 자치구의 TFT 회의에 참석해 자치구의 <동네예술창작소> 건립모델이 어떻게 추진되는지를 살펴보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한 ‘서울시 동네예술창작소 조성 및 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자치구별 TFT 운영결과, <동네예술창작소> 운영모델은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¹⁰¹⁾ 강북구는 기존 예술가의 아틀리에를 활용한 박물관형 창작공간모델로,

101) 자치구별 TFT는 7월까지 <동네예술창작소 조성 및 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아직 완성된 계획이 아님을 밝힌다. 다만, 그 운영경향 속에 현재 나타난 결과이다.

금천구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기획공간모델로, 도봉구는 창5동 주민자치센터를 리모델링하는 ‘시민네트워크’ 모델로, 마포구는 성미산마을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활동 지원모델로, 송파구는 지역 내 아마추어 동아리의 활동을 지원하고 네트워킹하는 허브 사이트 모델로 각각 구상된다.

〈표 5-6〉 시범자치구별 동네예술창작소 추진모델(진행 중인 안)

자치구	조성공간	TFT 구성	조성모델
강북구	지역 내 예술가 아틀리에 활용·조성	아틀리에에 인접한 진달래마을 운영위원	박물관형 창작공간 모델 (주민학습과 연습공간)
금천구	구 내 유휴공간 활용·조성	지역 내 문화기획자 및 예술가	지역기획자 모델 (세부안 구상 중)
도봉구	창5동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지역 내 관련 시민단체 활동가	시민네트워크 모델 (시민동아리 및 활동가공간)
마포구	구 내 유휴공간 활용 (주민자치센터 등)	성미산마을공동체 구성원	성미산 동아리 활동 공간 (동아리센터 및 연습공간)
송파구	구 내 유휴공간 활용 (지하차도 등)	구내 자원봉사단체인 문화서포터즈 단원	아마추어 네트워크 허브 (동아리센터 및 연습공간)

그런데 사업중간에 명칭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다. 처음에는 ‘동네’라는 명칭에 대한 문제가, 그다음에는 ‘예술창작소’라는 기능과 형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동네’라는 명칭에 대한 문제는 <마을공동체담당관>에서 제기한 문제로, 동네보다는 서울시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마을’로 사용할 것을 권유하였고, 그 결과 사업명은 <마을예술창작소> 조성사업으로 바뀌었다.

‘예술창작소’에 대한 문제는 각 구의 TFT 회의를 통해 지적되었다. 마을문화의 활동은 예술이라는 장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화라는 폭넓은 영역에 걸쳐 이루어진다는 점, ‘창작’ 중심의 활동이 아니라 ‘다양한 연습과 자기개발, 또는 마을에서 살아가는 활동’이라는 점 등에서 제기된 문제였다. 그 결과 <마을예술창작소>는 <마을문화방> 또는 <마을문화사랑방> 등과 같은 형태로 그 명칭 변경을 검토하게 되나, 장르의 경계가 지나치게 무너짐으로 인해 나타나는 모호성에 대한 문제도 동시에 제기되어 우선은 <마을예술창작소>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2) 마을미디어센터 조성사업

<마을미디어센터> 조성사업은 마을공동체 미디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획으로, 마을 내 주민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꾀하는 한편, 미디어에 대한 주민들의 문화권 신장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콘텐츠를 제작·유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디어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과 미디어센터를 직접 조성하는 사업으로 나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마을미디어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이하 민관협력위)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민관협력위>는 미디어정책 전문가와 실제 지역에서 미디어를 운영하고 있는 미디어 운영주체로 구성되어 있다. <민관협력위>는 미디어센터 조성 및 운영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6월 12일 구성된 <민관협력위>는 온라인 토론회를 거쳐 6월 27일 현재 2회 개최되었다. 운영결과 핵심 논점은 ‘마을미디어센터’의 성격과 그 방향에 대한 것이었다.

기존 미디어센터 운영자, 즉 미디어 정책과 관련된 전문가들은 <마을미디어센터>를 문화권 관점에서 시민들이 미디어를 학습하고 활용하는 공간으로 모델링하였다. 반면, 미디어 운영자들은 마을 주민의 네트워크, 즉 소통의 채널로 모델링하였다. 쉽게 말해 ‘미디어센터가 마을에 있는 것이다’는 개념과 ‘마을미디어센터는 마을을 위한 것이다’는 개념이 상충된 것이다.

〈표 5-7〉 입장에 따른 〈마을미디어센터〉 추진방향 차이

	마을 내 미디어센터	마을을 위한 미디어센터
개념	주민 생활권 내 인접한 미디어센터	마을(문화) 활동을 위한 플랫폼
역할	미디어 교육 및 학습 주민 미디어활동 지원	주민 연결 및 네트워킹 지역 및 마을소식 전달 및 의제발굴
설치	모든 마을(균등성)	마을활동 지역(활동성)
방법	주민자치센터 등 여러 시설 활용, 지역 내 설치	기존 미디어 활동(가) 및 마을미디어 활동가 지원 중심

2차에 걸쳐 진행된 회의 속에서 전반적인 방향은 하나의 사업 내에서 ‘마을 내 미디어센터라는 개념’과 ‘마을을 위한 미디어센터’라는 개념을 분리하여 추진하지는 관점으로 정리되었다. 즉, 한편에선 마을 내 미디어센터를 구축하고, 다른 한편에선 기존 마을미디어 활동 및 미디어 활동을 하고자 하는 활동가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들의 측면에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별 미디어센터(지역미디어센터)를 확충하고 보완한다¹⁰²⁾는 것이 현재까지 도출된 주요한 사업방향이다.

3) 기타의 사업추진

그 외 사업으로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북카페> 조성사업이다. 본래 <북카페> 조성사업은 ‘마을권 문화공간 조성’ 사업이다.¹⁰³⁾ 지역별로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자연스런 만남의 공간을 조성하자는 것이 ‘북카페 조성사업의 취지다.

현재 이 사업은 기존의 작은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도서관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주민들의 문화공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위치상 도보로 1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어야 하고, 5,000권 내외의 장서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최소 40평 이상의 면적을 갖고, 1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한다.

102) 서울시에는 현재 총 7개소의 지역미디어센터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지역별로 설치된 것이 아닌, 지역미디어센터로서의 기능상 역할을 하는 단위일 뿐이다. 따라서 엄밀히 말해 지역미디어센터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03) 서울시청, 2012,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에서 북카페는 시책 1 생활권 내 시민문화활동 강화 내 ‘1-1. 마을권 문화공간 조성’으로 분류되어 있다.

2. 사업시행의 문제점

살펴본 바와 같이,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문화사업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된 상태다. 그러나 아직 본격적인 사업은 시작하지 않은 상태며, 추진을 위한 제반의 준비만 마친 상태다. 다만, 도서관 리모델링을 핵심으로 하는 ‘북카페 조성사업’과 미디어센터 활동가를 육성하기 위한 ‘우리 동네 미디어문화교실’ 등의 사업은 현재 시행되고 있다.

사업 자체가 충분한 준비과정과 학습을 통해 개발된 것이 아닌, 시정방향의 전환 속에서 주어지다 보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늦어지고 있다. 때문에 아직은 그 결과가 예측되지 않지만, 전반적인 사업의 구조와 그 추진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1) 비체계성의 문제

어떤 사업이든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계획과 시스템화된 추진체계가 있어야 한다. 즉, 도달해야 할 비전과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계획을 세운 다음, 주체별로 자기 역할을 수행해야만 사업목표는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마을사업은 더욱 그렇다. 한 번도 추진해 보지 않은 사업이고, 경험해 보지 않은 영역이다. 더구나 시민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판단보다는 정책적인 필요성, 트렌드 등에 의존하는 사업이다. 때문에 현장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고, 이 조사에 기초하여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한 협력화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마을과 관련된 문화사업은 통합적 목표체계가 아닌, 별도의 사업체계로 추진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네예술창작소>, <북카페>, <미디어센터> 관련 사업 등이 있는 한편, 세종문화회관에서 추진하는 ‘서울동네문화클럽지원사업’ 등도 있다. 전반적으로 사업이 조정되거나 통합되지 못한

채, 각 부서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양상이다.

그런데 문화부문 사업의 특징은 각 사업이 별도의 정책체계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즉, <동네예술창작소>는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예술서비스 전달시스템’과 관련되어 있으며, <북카페>는 도서관 사업과 연관되어 있고, <미디어센터>는 지역미디어 시스템과 관련되어 있다. 그 결과, 마을을 매개로 한 목표가 설정됨과 더불어 각 사업에서 추구하는 정책목표와 충돌되는 양상을 가진다. 예컨대 <북카페>는 주민문화활동 공간 조성이라는 본래적 사업개념보다 ‘도서관을 혁신하는 사업’으로, 마을미디어센터는 지역별 미디어센터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¹⁰⁴⁾

이에 따라 사업의 목표체계조차 조정되지 않는 상태다. 분명 마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각 정책 시스템 내에서 자기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확충, 보완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각 사업이 별도로 추진됨으로써 기능이 중복되는 현상도 우려된다. 예컨대 같은 마을에 <동네예술창작소>가 설치되고, <북카페>가 조성되며, <마을미디어센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각 시설이 별도로 설치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해당 기능이 중복될 경우 별도의 설치의 지역에서는 혼란을, 행정에게는 재원의 낭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예컨대 <동네예술창작소>와 <북카페>, <마을미디어센터> 모두 유사한 형태의 마을주민 모임과 활동공간으로 조성된다면¹⁰⁵⁾, 이 또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호 사업 간 연계와 유대, 협력적 추진을 통해 마을공동체 회복이란 목표를 가지고, 보다 효율적으로 서울 지역 내에 마을공동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 체계 변경 및 협력적 시스템으로 전환이 요구된다.

104) 이 점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105) 사실 위 시설 설치사업은 모두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간조성 사업이다. 각 사업이 지니고 있는 정책의 체계 내에서는 별도의 설치가 유의미할지 모르지만, 마을이라는 여건 속에서 본다면 오히려 통합적이고 계획적인 시설건립과 운영이 필요하다.

2) 이른바 표준행정절차와 사업구조의 문제

서울시의 마을관련 사업은 마을공동체를 주관하는 부서가 총괄하는 것이 아닌, 각 실·국에 배치되어 있는 ‘특이한’ 양태를 띠고 있다. 그 이유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체계적인 준비와 정책체계 개발 속에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박원순 시장 취임과 더불어 공동체 회복사업이 추진되었고, 특히 기존 예산 구조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 결과, 각 실·국에 사업이 편재된 양태로 진행된 것이다.

때문에 사업은 제 각각이다. 이 각각의 사업을 통제하기 위해 서울시는 ‘표준행정절차’라는 새로운 행정체계 모델을 내놓게 된다. 즉, 각 마을을 ‘희망’과 ‘새싹’, ‘씨앗’ 등으로 나누고, 각 마을이 필요한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이의 절차에 따라 각 실·국의 사업이 대응하는 구조다. 예컨대, 어떤 마을이 마을공동체 회복사업으로 ‘동네예술창작소’ 건립을 통해 마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문화관광디자인본부>는 그에 해당하는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다. 표준행정절차는 각 실·국으로 분산배치된 서울시 마을관련 사업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하나의 ‘깔대기’같은 것이라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표준행정절차는 주민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후원한다는 데는 매우 효율적인 구조를 갖는다. 즉 마을주민이 시 산하 실·국의 사업을 보고, 자기마을에 혹은 자신이 관심가는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¹⁰⁶⁾ 심사를 통해 해당 실·국이 지원하게 된다. 이 과정을 거쳐 특정한 마을에 여러 가지 사업이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추진될 수 있는 시스템이 완성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구조가 역편향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 구조는 마을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한다는 데는 매우 효율적이거나,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해 서울시가 시스템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 예컨대 공동체 회복을 위해 그들이 필요한 공간을 조성한다든지, 필요한 인프라

106) 이 과정은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도와주게 된다.

를 확충하여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낸다든지 하는 등은 추진하기 어렵다. 바로 이러한 부분이 표준행정절차가 발생시키는 문제이다.

반대로 얘기한다면, 그런 문제는 실·국의 사업으로 추진하면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란 비판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문화부문에 포함된 대부분 사업이 마을주민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마을주민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과 시스템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오히려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고, 그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인 ‘서울동네문화클럽 지원사업’은 표준행정절차 밖인 세종문화회관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설 및 인프라 조성사업밖에 남지 않는다.

서울시는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치구와 협력하여 지역의 문화생태계를 조사하고, 그에 적합한 시설로 조성하려고 노력(<동네예술창작소 조성사업>)하는 한편, 민관협력위원회를 두고 사업을 진행(<마을미디어센터 조성사업>)하고 있고, 도서관을 바꾸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때문에 이는 활동지원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 점에서 <표준행정절차>에 의한 사업과 각 실·국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 실·국의 사업이 마을공동체 회복이라는 전체 시정목표의 관점에서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사업 자체를 하나의 ‘깎대기’를 통해 통합하도록 하는 표준화의 방식보다 각 사업이 마을공동체 회복이라는 목표체계를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는 협력과 통합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서울시의 사업체계는 조정될 필요가 있다.

3) 현실과의 불일치하는 사업

서울시 사업이 갖는 세 번째 문제점은 현실과의 불일치이다. 즉 서울시 사업은 현재 마을문화활동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와 불일치하거나 그와 관계 없이 추진되고 있다.

우선, 사업구조 측면에서 그렇다. 서울시 사업을 보면, 대부분 조성 또는 설

치된 시설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때문에 실질적인 마을문화활동에 대한 지원은 없다. 물론 설치된 시설을 제공하거나, 시설의 설치자체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현 정책체계 내에서 마을문화활동을 지원한다는 것은 항목자체가 없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각각 추진되는 사업을 보아도 마을문화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sites)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없다. 물론 강북구, 도봉구, 마포구 등이 <동네에 술창작소> 조성사업 시범자치구 등으로 선정되어 있지만, 그 나머지 활동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 도서관, 서점, (대안)학교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마을문화운동에 대한 대응 속도 또한 느리다.

앞의 제3장에서 보듯, 마을문화활동은 특징인이나 기관의 노력 산물이거나 마을동아리들의 활동 결과이다.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마을공동체 회복과 매우 관련 깊은 문제다. 특히 마을문화활동은 그 자체로 유목적이거나 일시적이고, 우발적이며, 우연적이다. 어떤 목적을 지향하고, 지속적으로 활동하기보다 주민 간 관계를 맺고 형성하는 작업의 일환이자 개인적 욕망과 욕구를 표출하는 것으로, 그 순간 일시적인 것이거나 관계 및 형태, 사업의 내용이 늘 달라지는 것이다. 때문에 지원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더구나 지원한다고 해도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원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사례 또한 너무도 많다.¹⁰⁷⁾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문화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우선, 현장에 나타난 흐름과 실태, 그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 속에서 지원의 항목(items)을 정하고, 각각의 활동에 적합한 항목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정책이

107) 이 점은 아마추어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순수한 단체성원의 열정에 기초한 아마추어단체에 지원금이 들어오면 회비를 대체하게 되고, 그 결과 단체성원의 열정은 지원금으로 대체된다. 문제는 지원금이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고 일시적이라는 점이다. 그에 따라 지원금이 사라지면, 열정도 사라져 단체 자체가 사라지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해당사례에 대해서는 윤소영, 2010, 『동호회 활동실태와 활성화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많은 정책이 아니라 마을의 실태와 현안, 그리고 문제점
으로부터 마을의 문화성과 문화활동을 회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
인가 하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현실에 대한 고찰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 6 장 마을문화 육성을 위한 전략

제1절 사업 추진의 기본 방향

제2절 사업추진전략과 추진구상

제 6 장

마을문화 육성을 위한 전략

제1절 사업추진의 기본방향

1. 마을문화활동의 현실진단

종합해 보면, 서울 내 마을단위 문화활동의 수준은 아직은 매우 낮은 단계다. 전반적으로 마을을 매개로 한 활동자체, 즉 ‘마을 내 활동’ 자체가 많지 않을뿐더러 ‘마을을 목적으로 한 활동’도 그다지 많지 않다.

우선, 첫째, 마을문화활동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활동이 광역적으로 퍼져 있는 상태가 아니다. 각 마을단위로 한정되어 있고, 매우 분산되어 있는 상태다. 마을이라는 공동체적 체계성을 갖고 등장한 곳은 <성미산마을>과 <삼각산재미난마을> 정도이며, <도봉구>는 시민단체의 활동을 주축으로 하고, 나머지는 마을 내에 있는 공동체적 활동이거나 개인적(개별적 단위)으로 조직한 활동의 형태일 뿐이다. 때문에 체계성도, 네트워크도 없다.

둘째, <성미산마을>과 <삼각산재미난마을>을 제외하고는 그 활동도 많지 않다. 잡지를 만드는 ‘개인적 활동’ 외 마을 공동체를 배경으로 한 활동은 거의 없으며, 있다고 해도 공공기관이나 도서관을 매개로 한 공동체 활동, 엄밀히 말해 마을문화활동이 아닌, 기관 내 공동체 활동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서울지역

내 마을문화활동은 이제 기관이나 공동체를 매개로 형성된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셋째, 마을을 매개로 활동해 온 기간이 길지 않다. 그 대부분의 활동은 2008년 이후의 일이다. 2008년 이전에는 <성미산마을>을 중심으로 한 활동이 있었으며, 간간히 도서관을 매개로 한 운동(<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 2004년, <초록나라도서관> 2006년,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 2007년) 등이 있었을 뿐이다. 나머지는 2008년 이후에 생겼고, 그 대부분이 2011년에 생겨났다. 때문에 그 연원도 매우 짧다고 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넷째, 서울 내 마을문화활동은 주민 간 활동 혹은 커뮤니케이션 차원이라기보다 마을에 대한 개인적 관심이거나 애정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즉, 마을공동체 회복이 아니라 마을에 대한 애정 혹은 기록하고자 하는 개인적 관심에서 비롯된 결과물로, 마을성을 매개로 한 활동으로 추동하고자 할 경우, 동력 자체가 달라 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마을문화활동의 경향과 특성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필요하다.

종합하면, 서울 내 마을문화활동은 맹아적 단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그 자체를 정책적 대상으로 하기에 힘든 실정이다. 그러나 맹아적 단계이기에 오히려 정책이 필요할지 모른다. ‘씨앗’이 ‘새싹’으로 자라도록 하고, 보다 바른 방향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반을 제대로 형성해주지 못한다면, 마을문화활동은 그대로 사라지거나 비대하게 웃자랄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마을문화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서울시 문화정책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2. 기본방향 제안

맹아적 단계에 놓여 있는 서울지역 내 마을문화활동을 위해서는 우선 기존활동을 매개로 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즉, 기존에 나타나고 있는 활동을 바탕으

로, 이들 활동이 잘 육성되게 함으로써 서울의 마을단위 문화활동의 상(像, identity)을 정확히 보여주고 예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의 사업추진을 제안한다.

첫째, 기존 문화활동에 대한 관심과 기호화가 필요하다. 쉽게 말해, 현재 각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마을문화활동에 대해 즉각적인 지원보다 각 활동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것을 의미화하는 한편, 이를 통해 개별 시민 및 다른 지역의 시민들이 해당 마을문화활동을 알 수 있도록 그 가치를 의미화할 필요가 있다. 즉, 마을문화활동에 대한 즉각적 지원보다 현재의 활동에 대한 의미화·기호화를 통해 ‘현재 마을문화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긍심’을, ‘마을문화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마을문화활동을 준비하고 서울시 사업 등에 참여할 사람들에게는 방법과 희망, 모델’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즉각적 지원이 갖고 있는 위험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그 마을의 활동을 의미화·기호화하려는 노력이 우선 필요하다.

둘째, 각 마을단위 문화활동을 연결하는 네트워킹이 필요하다. 아직은 성장의 밑단계에 있는 만큼, 각 마을단위의 문화활동은 서로가 서로를 배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의 마을문화활동이 종합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각 마을에서 비대칭적인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때문에 마을별로 문화활동의 역사와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 배움을 주고, 서로에게 모델이 되어주며, 서로의 발전을 이끌어 주는 ‘집단화된 경험과 지식의 공유체계’가 필요하다. 현재 단위 네트워킹은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한 단위가 아니라 단지 경험을 나눠갖는 ‘집단지성과 배움의 나눔터’로 조성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들을 엮는 마을문화축제 등과 같은 사업도 필요하다. 아직은 구체적인 사업으로 나아가긴 힘들지만, <성미산마을>이나 <삼각산재미난마을> 등과 같은 좀 더 안정적 기반 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연차별로 마을축제를 기획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점차 확장해 나가면서 거점별 발전을 꾀하는 사업을 펼쳐 나갈 필요가 있다. 즉, 각각의 마을에서 서울지역 마을문화를 엮

는 마을축제를 개최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마을문화활동의 발전을 꾀하는 한편, 각 마을이 축제의 장소이자 대상이 됨으로써 결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일정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마을문화활동의 동기성을 부여하는 매우 적절한 방식이 될 것이다.

넷째, 중요한 것은 직접적인 지원보다 마을단위의 문화활동 주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 여건을 제공해주는 일이다. 여기에는 공간을 조성하는 일, 마을문화활동에 필요한 체계와 프로그램, 사업비, (전문)인력 등을 제공하는 일이 포함될 수 있다. 각 마을단위에서 나타난 우수한 문화활동은 △마을의 기반조성(주민 간 네트워크), △개인의 욕망과 욕구의 만남, △이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전문예술가의 활동(재능기부 포함) 등이 전제되어 있을 때 가능하다. 즉, 모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중 하나가 전제되어야만, 마을문화활동은 그 실체를 드러내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마을 주민 간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공간, 이들이 욕망과 욕구를 느꼈을 때 이의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 이의 욕망을 자극하고 지원해 줄 전문예술가의 참여 등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를 어떻게 연결하고 엮어낼 것인가 하는 것은 마을문화활동 활성화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다섯째, 마을문화활동의 형성 및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 중 하나는 기존에 유지·운영되고 있는 ‘공공시설’의 역할이다. <길꽃어린이도서관>, <초록나라도서관>,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 <염리동 창조마을> 사례에서 보듯, 공공기관 운영자의 자세 및 역할은 공동체 형성 및 운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 그런 만큼, 지역 내 있는 공공시설을 혁신하여 마을거점 공동체센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시설은 어떤 것이든 관계없다. 문화활동 유형의 ‘(대안)학교형’에서부터 ‘복지관형’, ‘주민자치센터형’, ‘도서관형’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각 시설이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를 조성하고, 마을문화활동을 수용·지원할 경우, 보다 더 다양한 마을문화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지역을 매개로 한 예술가 또는 문화기획자의 양성이 필요하다. 마을문화활동의 사례를 살펴보면, 각 사례는 활동을 주도한 개인의 기획력과 리더십, 전문능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¹⁰⁸⁾ 따라서 각 예술가 및 문화기획자를 중심으로 관심있는 예술가 및 문화기획자가 지역에 들어가고, 지역 내 거주하는 예술가 및 문화기획자가 지역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기반과 여건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이들에 대한 지원은 앞서 문화활동 자체에 대한 지원과 달리, 그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즉 그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한편, 동기나 목적을 가지고 사업하도록 하고, 그 사업을 모니터링함으로써 마을문화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요는 마을문화육성을 위한 분위기와 환경, 여건 등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할 뿐, 마을문화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개입하는 등의 정책은 현 단계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다. 현 단계에서 중요한 일은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을문화활동을 의미화하고 기호화해주는 일, 마을문화활동(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여건, 인프라를 제공해주는 일, 마을문화활동에 관심이 있는 활동가 및 예술가들을 키우고 육성하는 일 등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사업구조는 다분히 조정될 필요가 있다.

마을문화의 활동공간을 조성하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 현재의 사업구조는 분명 우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의 제5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것은 현실의 활동과 많이 비껴서 있다. 때문에 현실의 활동이 의미화·기호화되기보다는 다른 지역 혹은 다른 주체를 대상으로 한 사

108) 예컨대 <삼각산재미난마을>은 지역 내 거주하는 예술가들과 사단법인 <삼각산재미난마을>의 사무국장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마을문화활동을 이끌고 있다. 특히 여기에 청소년 공동체 <품>, 극단 <진동> 등이 결합하여 마을문화활동을 이끌어 간다. 공동체 성숙단계가 어느 정도 이르러 이미 기호화된 <성미산마을>은 대안운동에 참여하고 싶은 예술가들이 입주하며, 스스로 활동단체를 이끌고 있다. 더불어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 <길담서원>, <헬로 가로수길>, <시웃>, <이태원 주민일가>, <문래동네> 등은 모두 마을 내에 입주한 활동가 또는 개인들이 스스로의 욕구에 의해 설계한 모델들이다.

업구조로 인해 오히려 그 의미를 잃고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사업은 현재의 실태를 철저히 중시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

제2절 사업추진전략과 추진구상

1. 추진전략

추진전략에 있어 핵심문제는 <표준행정절차>에 대한 것이다. 현재의 사업구조상 서울시 사업은 <표준행정절차>로 통합되도록 설계되어 있고, 그 절차에 따르면 마을사업은 ‘희망마을’과 ‘새싹마을’, ‘씨앗마을’ 등을 대상으로 추진되도록 되어 있다. 즉, 마을공동체 회복이라는 구체적 목표를 배경으로 활동하는 ‘마을’이 되지 않는 한, 지원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을활동은 매우 다양하다. 그것은 ‘마을 내 문화활동’일 수도 있고, ‘마을을 목적으로 한 활동’일 수도 있다. 엄밀히 따지면, 전자를 제거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 없다. 또한 ‘마을 내 문화활동’이 전제되어야 후자인 ‘마을을 목적으로 한 활동’ 또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¹⁰⁹⁾ 그 형태도 개인적 형태에서부터 단체 및 기관의 활동, 마을단위의 공동체 활동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그런 만큼 <표준행정절차>로 묶어두기보다는 문화부문의 현실에 맞게, 주민의 요구를 지원하는 시스템(<표준행정절차>) 구축과 정책적으로 마을 문화활동을 촉진·유발해가는 사업(자체사업) 등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여기서는 문화부문 활동 촉진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109) 물론 ‘마을을 목적으로 한 활동’은 그 자체로도 생겨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통해 ‘마을 내 다양한 문화활동’을 창출하기도 한다. <성미산마을>이 그 대표적 사례다. 다만, 여기서는 ‘마을 내 문화활동’을 마을성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그냥 삭제하기에는 현실적 구조, 발전단계상 어렵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2. 주요추진 사업

1) 지원사업의 방향과 방식

민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 중 하나는 사업비 등 해당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책임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후 정산과 관련하여 매우 민감한 문제를 일으키고, 수혜받는 단체의 책임성과 활동성, 지속성 등이 전제되지 않으면 오히려 단체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어설픈 지원은 단체의 자생적 의지와 활동의 열정을 훼손함으로써 단체 자체를 파괴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비용, 즉 경제적 지원을 수행하는 데 있어 매우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마을문화활동처럼 아마추어성과 마을주민 간 관계라는 정치성이 내재되어 있을 경우, 선부른 지원은 마을주민 간 관계를 더욱 더 복잡하고 정치적으로 만들 뿐이다.

기본방향을 먼저 말한다면, 우선 주민을 대상으로 한 활동에 대해서는 경제적 지원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활동에 필요한 공간과 계기다. 예컨대 마을의 활동을 홍보해준다거나 마을문화축제 등을 개최하여, 그들의 활동을 전시·발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방식 중 하나다. 더불어 주민들이 문화활동을 하는 데 있어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즉 필요한 강사를 제공한다거나, 장비,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일 등이 중요한 일이다. 이에 따라 마을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혁신 및 이들을 중심으로 한 마을활동 육성, <동네예술창작소>, <북카페>, <미디어센터> 조성 등이 매우 중요한 일일 수 있다.

한편 마을을 매개로 한 활동가나 기획자, 예술가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그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보다 수월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더불어 마을에 거주하는 예술가나 기획자, 전문가 등이 마을공동체 회복 및 마을문화 조성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재능을 이끌어 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들의 활동을 통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기획력과 활동능력 등을 배양시켜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따라 관련된 사업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자와 관련하여 ‘마을문화활동 지원사업’ 등과 같은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경제적 비용지원을 최소화하되, 그들의 활동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보다 풍부하게 시도할 필요가 있다. 지적인 바와 같이 ‘마을문화활동 마케팅’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즉 별도의 소식지를 발간하거나 ‘사례지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온-오프라인상에 각 마을을 소개하는 활동을 펼치게 되면, 주민 내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한편, 활동주민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길러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마을문화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마을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여기에는 인력 및 프로그램, 장비 및 시설 등 각 마을에서 요구하는 자원을 공유하고, 서로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인프라, 시스템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사업은 일정부분, <마을문화활동지원센터> 건립 등과 같은 형태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미 <동네예술창작소>, <마을미디어센터> 등의 건립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복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그리 합리적이지 않다. 오히려 기존 시설을 활용하거나, 각 시설 중 활용 가능한 시설을 확보하여 ‘거점별’ 시설을 지정해 해당 시설이 지역 내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일 것이다. 이에 따라서 <거점별 마을문화활동지원센터> 건립은 일정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방식은 신축이나 신설보다는 기존 기관이 역할을 대행하거나 새롭게 확충하는 시설이 그 임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마을문화축제’ 또는 ‘마을문화박람회’ 등을 개최하여 각 활동(가) 및 사례를 모으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마을문화활동’을 이슈화하는 한편, 각

활동을 모집하는 ‘아카이빙’을 통해 현재의 마을문화활동을 기록하는 효과도 낳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역할을 종합하면 ‘마을문화은행’을 개설하여 운영해 보는 것도 타당한 방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즉, 온-오프라인상에 각 마을의 활동 및 사례 등을 제시하고, 각 기관에서 행하는 지원사업 및 지원 가능한 품목을 제시하는 한편, 각 마을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재능과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일종의 ‘마을문화은행’을 개설하는 것이다. 물론 이 방법이 모든 사업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되지만, 각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운영의 지원방식 내에서 운영해보는 것도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또한 ‘마을문화강사’ 제도를 시행하거나, ‘마을문화학교’를 운영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이미 각 문화예술회관 등에서 실시하고 있고, 민간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다.¹¹⁰⁾ 더불어 이미 마을공동체 회복 사업 중 ‘토대 만들기 사업’ 내에 포함된 사업으로 기존 사업과 협력하며 이용할 필요가 있다.

추진사업 1 : 마을문화활동 지원사업		
추진 목적	마을 내 주민문화활동 지원	
추진 방향	경제적 지원이 아닌, 문화활동 촉진을 위한 분위기 형성 및 활동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발에 주력	
추진 사업	마을문화활동 마케팅	소식지 발간, 온-오프라인 홍보, 사례지 탐방프로그램 운영
	마을문화활동 지원인프라 구축	마을문화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 및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유하도록 하는 사업 - 거점별 활동지원센터 마련(기존 기관 활용) - 상호연계시스템 구축·운영
	마을문화축제 또는 박람회 개최	마을문화활동을 결산하고 네트워킹하며, 아카이빙하는 사업
비고	마을문화은행 운영	위 사업을 지원하는 형태의 마을문화은행 설치·운영 - 마을문화활동을 적립하고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은행 - 이후 가상화폐로까지 확대 가능 ¹¹¹⁾

110) 서울 내에도 ‘산아래 문화학교’(금천구), ‘신나는 문화학교 자빠르페’(금천구), ‘한겨레문화학교’ 등 다양한 문화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111) 성남시 사랑방문화클럽은 ‘넘살’이라는 가상화폐로 도시단위 문화클럽을 양성한 바 있다.

한편 마을에서 문화활동을 기획하거나 수행할 예술가나 기획자, 전문가 등을 양성하는 사업 또한 필요하다. 이러한 사업은 그들의 활동을 직접 지원할 사업과 간접적으로 후원하는 사업, 또는 마을활동가를 지원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의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사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사업의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마을문화활동가를 대상으로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마을문화활동(예술)가 육성사업’ 등의 명칭으로 추진할 수 있다. 또한 ‘마을문화활동을 목적으로 할 예술가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 이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 경우 지원은 사업비 지원방식이 될 수 있다.

또한 각 마을 내 잠재된 전문가 및 예술가 등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을문화예술가 조합’ 등을 설치·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조합을 통해 각 마을의 활동과 유기적으로 결합할 경우, 자신이 지닌 전문능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¹¹²⁾

더불어 마을문화활동가를 육성하고, 이들의 사업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사업과 활동을 촉진하는 이른바 ‘메타지원’ 사업 또한 필요하다. 민간단체 활동을 잘 활성화할 경우 공공이 직접 하는 데서 오는 위험성과 비전문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컨대 <성대골 어린이도서관>은 재단법인 <아름다운 가게> ‘뷰티플레이로우’ 사업¹¹³⁾으로 추진된 사업이고, <즐거운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주)<나우콤> 등에서 주관하는 ‘아름다운 사랑, 일촌공동체’ 사업¹¹⁴⁾을

112) 2012년 1월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형태”의 협동조합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다(제2조의 3).

113) (재)<아름다운가게>는 사회혁신기업가 지원 프로젝트로 ‘뷰티플레이로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혁신적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조직경험 2년 이상, 실행준비기간 1년 이상 된 사람이다. 사회혁신기업가로 선정되면, 매월 150만원을 지원받는다.

114) 일촌공동체 사업은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일촌을 맺어 이웃과 함께 지역공동체를 이루고, 어려운 이웃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운동’이다. ‘사회적 가족운동’의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을 추진하는 주민, 활동가, 풀뿌리 시민단체, 기관 등이 모두 신청 가능하며, 선정되면 월 50만원

지원받아 추진된 사례다. 이처럼 민간활동을 지원하고 후원함으로써 공공지원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민간의 후원협찬을 받아 지원의 크기를 키우는 형태의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추진사업 2 : 마을문화활동가 지원사업		
추진 목적	마을 내 활동할 수 있는 예술가 및 기획자, 전문가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추진 방향	활동촉진을 목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활동을 후원하는 사업 추진	
추진 사업	마을문화활동가 지정 및 육성	각 마을 내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를 인증하는 프로그램 - 각 마을 내 활동하는 활동가를 인증하여, 마을학교 등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유도함
	마을문화활동가 협동조합 구성	마을에서 활동하는 문화활동가를 위한 협동조합 구성·운영 - 조합을 통해 보다 안정적·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함 - 체계적인 지원체계 내로 포섭함
	마을문화지원 기업 및 단체(기관) 후원사업	마을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집단들을 후원함으로써 지원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민간협찬을 통한 지원의 크기를 키우는 사업 추진

(연 6백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2011 일촌 공동체와 나누는 아름다운 사랑(사회적가족운동 프로그램 지원사업)

▶ 개요

(사)일촌공동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사회 실천 프로그램
- (주)나우콤, (주)한영회계법인, (주)포도재무설계 후원으로 진행

▶ 공모 내용

- 사업 내용 : 〈사회적 가족운동〉의 취지에 부합
신청 주체 : 주민, 활동가, 풀뿌리 시민사회단체, 기관 등
사업 기간 : 우선 1년,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사업 유형 : 지역사회에서의 실천프로그램 또는 교육·실천 연계 프로그램
지원 금액 : 선정 팀별 월 기준 50만원(12개월 600만원)

▶ 선정 기준

- 자기결정권 : 참여자의 주도적 역할 중요, 시혜성사업 제외
- 민주성 : 사업 기획 및 진행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참여 및 권한위임을 통해 지속성 부여, 역할 부여
- 지역사회 기여도 : 사업 진행 시 지역 내 주변 단체와 개인들과의 연대
- 사회 통합성 : 세대와 계층, 빈부와 장애/비장애를 아우르는 상호 통합
- 지원의 효용성, 지속가능성, 실현가능성 등

▶ 선정 이후 지원 사업

- 1차년도 지원기간은 2011.03~2012.02
- 사업 진행 동안 컨설팅 실시 : 연 4회(분기별 1회) 컨설팅 및 기술 지원 형식의 콘퍼런스 실시

2) 마을문화활동의 인프라 조성

지적인 바와 같이, 마을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을문화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지원시스템은 각 마을단위 활동을 뒤에서 후원하는 한편, 각 마을단위의 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동네예술창작소>나 <북카페>, <마을미디어센터> 등이 주민들이 직접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지원센터는 이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현재 사업구조는 마을문화활동을 중심으로 할 뿐, 각 마을활동을 뒤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 사업구조대로 하면, <동네예술창작소>나 <북카페>, <마을미디어센터> 등은 고립된 존재일 뿐, 연결고리를 갖고 있지 못하다. 더불어 마을활동 또한 별다른 지원체계 없이 고립될 수밖에 없다.

둘째,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지원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각 마을에 분산되어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마을문화활동을 관리하기란 불가능하다. 더구나 서울시 사업모델은 기존의 문화기획자형 사업이 아닌, 마을 주민형 사업으로 추진된다. 그만큼 관리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거점별 센터나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지원센터의 건립이 필요하다. 물론 지원센터의 건립은 새로운 시설의 건립이나 기존 시설의 활용, 새롭게 조성하는 마을시설 중 일부의 지정·운영 등의 방식으로 가능하다.

기존 공공시설의 혁신 또한 매우 중요하다. 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현재적 여건상 마을단위에서 문화활동을 촉진하고, 마을단위 문화활동의 네트워크를 조직할 수 있는 주체는 공공시설이다. 그런 만큼 공공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마을성 및 마을활동의 창구로서 공공시설이 운영되도록 하고, 그와 같은 공공시설 혁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립해 현재 분포되어 있는 지역단위 시설을 혁신할 경우, 마을조성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사업 3 : 마을문화활동 지원시스템 및 인프라 조성 사업		
추진 목적	마을 내 문화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프라를 조성	
추진 방향	기존 공공시설 및 신규설치 시설 등을 혁신하여 마을문화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및 기반으로 활용	
추진 사업	마을문화지원센터 설치·운영	각 마을 내 활동 및 각 시설과 공간, 단체 등의 운영과 활동을 지원할 지원기구 구성 - 별도의 설치보다는 기존 공공시설을 혁신하여 구성 - 거점별 구성을 원칙으로 하되, 현실성을 판단하여 서울지역 내 종합지원센터 우선 설치
	마을문화공간으로 공공시설 혁신사업	각 지역 내 분포되어 있는 공공시설을 마을문화활동 시설로 혁신 -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자율적 혁신 유도 - 자율형 마을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그 외에도 여러 지원사업이 있을 수 있다. 요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첫째, 직접적인 재정지원보다는 환경과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마을문화활동을 촉진하고 유발할 수 있는 시스템과 그런 유전자의 개발 및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공공시설을 혁신하고, 마을문화활동가를 육성하는 사업이 중요하며, 직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 외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나 기업 등을 후원·협찬하여 보다 민간적인 차원에서 자발적인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다 거시적으로는 셋째, 마을문화활동을 총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에는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될 예정이지만, 당해 센터는 주로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토대 만들기 사업 및 마을별 사업을 컨설팅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이미 각 마을을 단위로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기로 한 만큼,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 및 마을문화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주체가 요구되며, 이들을 통해 마을문화활동을 조직하고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마을문화은행 설립·운영’ 및 ‘마을문화축제’ 등을 기획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의 종합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하에 사업을 추진할 <종합추진계획>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는 마을문화활동과 관련된 종합추진계획 또는 육성계획 등이 없는 상태다.

제7장 결론 : 서울시 마을문화실태 및 사업전략



제 7 장

결론 : 서울시 마을문화실태 및 사업 전략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서울의 마을문화실태는 매우 취약하다. 독특한 문화유형을 갖는 마을문화 자체가 약할 뿐 아니라, 그런 마을문화를 만들어 가는 활동 또한 매우 취약하다. 더불어 지역단위 마을의 정체성-문화성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과 마을문화활동이 이루어지는 마을이 다르다. 전자가 북촌 등과 같이 역사성과 경관성을 배경으로 움직이는 지역들이라면 후자는 공동체적 삶을 설계하는 마을이거나 그런 마을활동을 통해(서라도) 욕구를 충족할 수밖에 없는 도시환경을 갖고 있는 지역들이다. 예컨대, 대안운동이 번성한 곳이거나 사회적-상업적 인프라가 취약한 곳에 형성되는 형태라는 것이다. 그 결과 마을문화와 마을문화활동은 아직은 일치된 형태가 아닌, 서로 상이한 형태와 모습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많은 마을문화활동이 여전히 마을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서울의 종로구 서촌과 마포구 홍대, 강남구 신사동의 가로수길, 영등포구 문래동 등은 고유한 문화성, 다시 말해 마을문화를 가진 곳으로서 마을활동이 중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형태 또한 지역의 역사나 경관성을 기록하고 마을 내 활동을 소개하는 잡지 등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극히 개인적인 활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마을공동체성 회복을 목적으로 한 서울시 공동체 사업과 궤를 같이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이 마을문화로 인한 주민의 행복성은 매우 높은 편이다. 마을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와 ‘지역에 대한 만족도’는 일반시민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 서울시 마을공동체 회복 사업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성공가능성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여주었다. 마을단위의 문화활동이 공동체 회복이라는 서울시 정책과 ‘삶의 질’, ‘지역에 대한 만족도’ 등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마을문화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활동가 그룹 또한 정책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그들은 현재의 마을활동이 아직은 미약하지만, 서울의 여건상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크게 확산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또한 서울의 마을문화활동 지원사업이 문화복지 등과 같은 사업보다는 마을공동체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보다 현실적인 마을문화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서울시의 마을문화활동 지원 및 육성사업은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본래 문화정책 내 주요사업으로 설정되었으나, 서울시는 이를 통합하여 마을공동체 회복사업으로 정리했고, 그 추진을 위해 ‘표준행정 절차’를 만들었다.

서울시 사업의 기본방향은 기본적으로 주민자치를 바탕으로 한다. 주민이 스스로 요청하고 요구하는 사업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때문에 기존의 (문화)기획자 중심의 사업방식과 큰 차이가 있다. 기존의 기획자 중심 사업은 각 마을(지역)이 프로젝트를 추진할 기획자와 더불어 지역사업을 기획하여 공모한 결과 선정되면 추진되는 방식이었다. 사업 내용 또한 대부분은 지역활성화 또는 재생 등과 관련된 사업이었다. 지역을 장식하는 사업(공공예술), 지역마케팅의 전략으로 예술을 활용하는 사업(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생활권 단위의 공동체를 만드는 사업(생활문화공동체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반해 서울시 사업은 주민발의형 주민자치 사업이며, 주민의 요구에 바

탕을 둔 사업이다. 그 목표 또한 지역활성화나 재생이 아닌, 공동체의 회복에 있다. 때문에 주민들의 관계형성을 위한 공동사업의 형태를 띠며, 서울시는 여기에 도움을 주는 형태로 추진된다.

사업방법은 앞서 지정한 바와 같이 ‘표준행정절차’를 통한 방식이다. 즉 각 마을이 요구하면, 시는 ‘표준행정절차’에 따라 사업을 접수하고 관련된 사업의 예산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 결과 주민들의 욕구는 잘 반영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적인 측면에서 마을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은 고려되지 않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즉 주민의 욕구가 아닌, 행정적 차원에서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해 추진해야 할 인프라의 조성 및 시스템의 정비에 관련된 일은 추진할 수 없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다른 부분 사업과 달리, 문화부문은 시설의 설치 및 공간의 조성 등과 관련된 사업이 많다. <동네예술창작소>, <북카페>, <미디어센터>의 조성 등은 모두 시설설치와 관련된 문제다. 오히려 마을단위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은 현재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주어진 마을공동체 회복사업과 ‘표준행정절차’로는 지원할 수 없는 한계를 노출한다.

더구나 각 사업은 이미 ‘표준행정절차’가 아니라 각 사업의 정책체계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동네예술창작소>는 자치구와 협력하는 사업모델로 현재 조성 및 운영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북카페>는 기존 작은 도서관을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마을미디어센터>는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해 지역별로 마을미디어센터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 중이다. 그 결과 주민이 참여하기란 매우 어렵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 그래도 최소한의 비용이 들어가는 공간조성 및 운영사업을 주민이 직접 하기엔 아직 현실적인 역량이 부족하고, 서로 신뢰하기엔 시스템 자체가 취약하다.

때문에 ‘표준행정절차’ 체계가 아니라 각 사업별 정책체계 내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특히 주민들의 요구가 아닌, 지역 단위의 문화생태계에 필요한 시설 등이 설치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 단위 마을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시

시스템을 완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더불어 마을문화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개발·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프로그램이야말로 ‘표준행정절차’에 따르거나 의존해도 된다. 이 프로그램은 주민의 자발적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과 마을 내 거주하거나 지역의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 기획자, 예술가 등을 지원하고 발굴·육성하는 사업을 개발·추진할 수 있다. 전자의 사업은 비용보다 마을단위 문화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 여건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후자의 사업은 각 전문가(기획자, 예술가 등)가 자발적으로 마을(문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소요되는 비용과 전문성에 대한 지식 등을 도와줄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한편에서는 마을단위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을 인정하고 도와주는 프로그램(조합 등과 같은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다양한 민간영역(기업, 기관, 단체 등)에서 이들을 후원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민간의 지원활동을 촉발하는 방식의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추진해야 할 사업은 ‘공공기관 혁신’ 및 ‘마을문화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혁신’은 각 지역 내 위치한 여러 유형의 공공기관들이 해당 지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을 매개로 한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서울지역 내 많은 문화활동, 예컨대 강서구 마을축제인 ‘강서어린이동화축제’ (길꽃도서관)나 염리동 마을극단인 ‘황부자극단’(염리동 주민자치센터), ‘방아골 도깨비방과 마을축제’(방아골 사회복지관) 등은 모두 공공기관에서 추진한 마을문화사업의 결과이다.

그런 점에서 ‘공공기관의 혁신’은 절대적이다. 지역별로 산재된 공공기관만 혁신해도, 마을문화활성화 및 마을공동체 회복은 보다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한다.

‘마을문화활동 지원 시스템’은 각 마을단위 문화활동 및 각종 시설과 기관들의 활동을 총체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거

점별 지원센터'나 서울지역 내 마을활동을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마을공동체 회복사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는 현재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가 있다. 그러나 이 지원센터는 주로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토대만들기 사업 및 각 실·국의 사업을 컨설팅하고, 마을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한다. 때문에 문화부문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업을 통제하고 조정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거점별 지원센터 혹은 종합지원센터의 건립이 요구된다. 이들 지원센터의 건립은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단체에 위탁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 시설 및 기관을 활용한 방식이 타당하다. 즉 각 시설이나 기관 중 해당 활동에 관심있는 시설 및 기관을 선정해 거점 혹은 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부여하고 이들을 통해 각 문화활동이 관리·육성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마을문화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적인 바와 같이 마을문화활동은 아직 미약하지만, 마을공동체 회복에 필요한 핵심사업이다. 특별한 마을단위 대안운동이 아니면, 정치적인 의제나 지역단위 민원이 아니면, 주민 간에 관계를 형성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의제를 창출할 수 있는 건 '문화활동'이 그나마 핵심이다. 그런 점에서 마을문화활동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회복사업 중에서 가장 전방에 위치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의 사업구조는 '시설 및 공간의 확보 중심'의 행정주도 방식이고, 기존 정책영역을 보완하고 확충하는 방식이다. 겉으로는 '표준행정절차'를 통해 주민의 욕구를 수용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주민의 욕구를 수용하는 '직접적인 마을문화활동 지원방식'으로 가든, 아니면 주민욕구를 자극하고 촉진하는 '마을문화활동 자극 및 촉진방식'으로 가든, 마을의 형편과 실태를 고려하여 어느 쪽이 효율적인 것인가를 판단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서울시 사업은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현실적인 마을문화활동 실태를 감안하여, 각 활동을 어떻게 강화시키고 발전시켜

야 할지를 고민해야 하며, 그로부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종합적인 차원에서 마을문화활동의 촉진과 육성방법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지원을 행할 것인가를 고민한 형태의 전략적인 종합계획 마련이 시급하다. 다시 말해 종합적인 계획하에 좀 더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마을문화활동을 촉진하고,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라 판단한다.

참 고 문 헌



참고문헌

- 구자인 외, 2010, 『마을이 살아야 농촌이 산다』, 소박한 풍경
- 구정연, 2010, “스스로의 좌표를 확인하기 위해 던지는 질문 - 다들 잘 살고 계십니까”, 『예술경영』No.82
- 김은희 외, 2010, 『대구삼덕동 마을만들기 : 그들이 허문 것이 담장 뿐이었을까』, 한울
- 박삼철, 2006, 『왜 공공미술인가』, 학교재
- 박소현, 2008, “마을 만들기 사업 구성요소로서의 새로운 예술 공동체 모델 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소현, 2011, 『2012 문화예술의 새로운 흐름 분석 및 전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박원순, 2009, 『마을에서 희망을 만나다』, 검등소
- 백선희 · 라도삼, 2008, 『예술을 통한 지역만들기 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변민재, 2008, “소외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미술 사업현황 분석”,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사이이다 외, 2011, 『이태원 주민일기』, 북노마드
- 서규환 역, 1992, 『정보화 사회와 문화의 미래』, 디자인하우스
- 송영호, 2006, ‘마을만들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추계예술대학교 예술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창복, 2009, “도시 속 마을공동체운동의 형성과 전개에 대한 사례연구-성미산 사람들의 마을하기”,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창복, 2010, 『우린 마을에서 논다』, 또하나의문화
- 윤성근, 2009,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 이매진
- 윤소영, 2009, 『공동체 활동관련 사례 분석 및 지원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윤재호, 2010, 『도서관이 만드는 행복한 세상』, 나루코

- 윤태근, 2011, 『성미산마을 사람들』, 북노마드
- 이철희, 2010, “문화예술공동체 형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행정학 박사학위논문
- 전병태, 2007, 『커뮤니티 아트 진흥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정보연 외, 2007, 『치유와 키움, 기적의 풀뿌리 주민운동 체험기』, 이매진
- 정빛나, 2011, “소출력 공동체라디오의 지역성 구현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희영, 2011, “‘살기 위한 마을’ 보다 ‘살고 싶은 마을’을 꿈꾸며”, 『건고싶은 도시』 3·4월호
- 커뮤니티 디자인 센터, 2009, 『커뮤니티 디자인을 하다 : 주민참여로 바뀌어나가는 삶의 공간』, 나무도시
- 다무라 아키라, 2005, 『마을만들기의 발상』, 소화

- Adams D & A. Goldbard, 2001, *Creative Community ; the Art of Cultural Development*, Rockfeller Foundation
- D. Bell, 1980, *The Winding Passage ; Essays and Sociological Journeys*, massachusetts
- DCMS, 2008, *Our Crative Talent ; the Voluntary and Amateur Arts in England*
- Wali A., Rebecca Severson & Mario Longon, 2002, *The Informal Arts ; Finding Cohesion, Capacity and Other Cultural Benefits in Unexpected Place*, Chicago Center for the Arts

<http://www.radiogfm.net/>(관악FM)

<http://www.min365.com/>(극단 민들레)
<http://cafe.daum.net/jeendong/>(극단 진동)
<http://cafe.naver.com/gildam/>(길담서원)
<http://www.thebooksociety.org/>(더북소사이어티)
<http://www.mapofm.net/>(마포FM)
<http://pumdongi.mynet.co.kr/zbx/munimanschool/>(무늬만 학교)
<http://cafe.naver.com/golmokct/>(문화마을)
<http://www.bangahgol.or.kr/>(방아골 종합사회복지관)
<http://cafe.daum.net/sungmisanpeople/>(사람과 마을)
<http://cafe.naver.com/maeulro5/>(삼각산재미난마을)
<http://www.sjaeminan.org/>(삼각산재미난학교)
<http://cafe.daum.net/SDGcommunity/>(성대골 사람들)
<http://cafe.naver.com/sungmisantheater>(성미산마을극장)
<http://cafe.naver.com/smsfest/>(성미산마을축제)
<http://ubin.krihs.re.kr/>(세계도시정보)
<http://www.street-h.com/>(스트리트 H)
<http://siot.or.kr/>(시옷)
<http://cafe.daum.net/yeomni-village/>(염리동 창조마을)
<http://www.2sangbook.com/>(이상한 나라의 헌책방)
<http://2tw.1px.kr/>(이태원주민일기)
<http://cafe.naver.com/bangahgolib/>(참새방아간 작은도서관)
<http://www.littlelibro.org/>(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
<http://www.pumdongi.net/>(청소년문화공동체 품)

<http://cafe.naver.com/lovedobong/>(초록나라도서관)

<http://blog.naver.com/hellostreet/>(헬로 가로수길)

부 록



설문지

1. 활동가 대상 설문지

서울시는 현재 마을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진은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내 마을문화 운동의 실태와 여건을 살펴보고자 '마을문화만들기 사례와 전략연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아래 질문을 보시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은 통계 목적 외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서울시정의 발전을 위해 질문에 응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미래사회연구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391번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진 : 라도삼, 이정현 문의처 : 2149-1364//e-mail : amethyst@sdi.re.kr

1.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② 알고 있다 ③ 모른다 ④ 전혀 모른다 ⑤ 관심없다

2.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적절하다 ② 적절하다 ③ 적절치 않다 ④ 매우 적절치 않다 ⑤ 모르겠다

2-1. 부적절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서울시의 마을운동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크게 성공할 것 같다 ② 성공할 것 같다 ③ 실패할 것 같다
④ 크게 낭패볼 것 같다 ⑤ 모르겠다

3-1. 실패할 것 같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1. 내가 하는 일은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일이다.

- ① 매우 동의 ② 동의 ③ 동의하지 않음 ④ 전혀 동의하지 않음

4-2. 서울시민들은 마을을 만들어 갈 준비가 되어 있다.

- ① 매우 동의 ② 동의 ③ 동의하지 않음 ④ 전혀 동의하지 않음

4-3.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조금만 자극을 주면, 시민들은 마을을 중심으로
뭉칠 것이다.

① 매우 동의 ② 동의 ③ 동의하지 않음 ④ 전혀 동의하지 않음

4-4. 서울시의 현재적 여건 -도시구조, 인구구조, 사회문제 등- 상 서울에는 마을공
동체 형성이 필요하다.

① 매우 동의 ② 동의 ③ 동의하지 않음 ④ 전혀 동의하지 않음

4-5.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매우 만족한다.

① 매우 동의 ② 동의 ③ 동의하지 않음 ④ 전혀 동의하지 않음

4-6. 앞으로 이와 같은 일(귀하가 하시는 것과 동일한 일)은 많이 생길 것이다.

① 매우 동의 ② 동의 ③ 동의하지 않음 ④ 전혀 동의하지 않음

4-7. 마을문화를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일(귀하가 하시는 것과 동
일한 일)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① 매우 동의 ② 동의 ③ 동의하지 않음 ④ 전혀 동의하지 않음

5. 서울시는 현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보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주요 사업계획

- 〉 동네예술창작소 건립 - 2012년 17개 건립
- 〉 북카페 조성 - 300개소
- 〉 동네박물관 건립 - 명사들 자료보관소
- 〉 작은미디어센터 구축 - 2014년 50개소
- 〉 청소년·마을 주민을 위한 대안문화공간 조성 - 2014년 75개소 등

5-1. 마을공동체 형성 차원에서 위의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적절하다 ② 적절하다 ③ 적절치 않다 ④ 매우 적절치 않다 ⑤ 모르겠다

5-2. 적절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5-3. 서울시에서 마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다음과 같은 일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① 마을 내 관련된 시설 및 공간 조성	①적극 동의 ②동의 ③반대 ④매우 반대
② 기존 활동 단체에 대한 적극 지원	①적극 동의 ②동의 ③반대 ④매우 반대
③ 관련 단체의 육성 및 발굴	①적극 동의 ②동의 ③반대 ④매우 반대
④ 성급한 자원보다는 자율운동으로 발전 유도	①적극 동의 ②동의 ③반대 ④매우 반대
⑤ 관련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및 활동지원시스템 개발	①적극 동의 ②동의 ③반대 ④매우 반대

5-4.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 문화는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중요 ② 중요 ③ 중요하지 않음 ④ 전혀 중요하지 않음

5-5. 서울시에서 마을문화활동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할 때, 목표로 설정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마을단위 공동체 조성 ② 시민 아마추어 문화활동 지원
 ③ 시민 문화복지에 기여 ④ 지역활성화 및 재생(지역상권 활성화)
 ⑤ 기타

6. 통계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6-1. 귀하의 나이는?

- ① 30대 이하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6-2. 현재 하시고 계신 일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 ① 1년 이하 ② 1~3년 이하 ③ 3~5년 이하 ④ 5년 이상

6-3. 마을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면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 ① 처음 일할 때부터 ② 일하다 보니 ③ 우연한 기회에 ④ 기타

수고하셨습니다.

Part 2. 인구통계적 사항

7. 다음은 귀하의 문화활동 현황 및 태도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의 동의정도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살아가는 데 있어 문화와 예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내 삶에 있어 여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영화나 공연, 전시 등을 자주(월 1회 이상) 관람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문화 관련 동호회 활동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악기나 그림, 연극 등을 배우는 것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Part 3. 마을문화활동

※ 마을문화활동이라 함은 지역을 단위로 주민들끼리 자체적으로 행하는 문화활동을 말합니다. 주민밴드나 주민극단, 주민 동아리 활동, 마을신문 발간, 공동체라디오 활동 등을 말합니다. 이를 참고하여 다음의 질문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귀하는 마을문화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9번으로 이동)

② 없다(☞ 14번으로 이동)

(8번에서 '①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

9. 귀하는 마을문화활동에 얼마 동안 참여하셨습니다?

- ① 3개월 미만 ② 3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③ 9개월 이상 ~ 1년 미만
 ④ 1년 이상 ~ 2년 미만 ⑤ 2년 이상 ~ 3년 미만 ⑥ 3년 이상

10. 귀하가 참여한 마을문화활동은 무엇입니까?

- ① 밴드나 극단, 미술, 서예 등 실제 공연이나 전시 등을 목적으로 한 아마추어 활동
- ② 공연이나 전시 등을 관람하기 위한 동호회 활동
- ③ 지역을 배우거나 주민들과 교류하기 위한 활동
- ④ 생활공예 등 취미나 스포츠 등 여가를 위한 활동
- ⑤ 기타 ()

11. 귀하가 참여하고 있는 활동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 ① 구립단체 등 공식으로 인정된 단체
- ② 도서관이나 문화회관, 교회 등에 속해 있는 단체
- ③ 말 그대로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단체
- ④ 기타 ()

12. 귀하의 마을문화활동 참여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였습니까?)

- ① 매우 소극적 ② 소극적 ③ 보통 ④ 적극적 ⑤ 매우 적극적

13. 현재 참여하고 있는 마을문화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응답 후 16번으로 이동)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8번에서 '② 없다'고 응답한 경우)

14. 귀하나 시민들이 마을문화활동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이유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시간이 없어서(바빠서) ② 지역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 ③ 서로 알지 못해 어색하므로 ④ 누군가 나서서 사람이 없어서
- ⑤ 참여할 계기가 없어서 ⑥ 생각해 본 적 없음
- ⑦ 지역에 문화활동이 없어서 ⑧ 지역에 문화활동이 있는지 몰라서(정보 부족)
- ⑨ 기타

15. 귀하는 만약 누군가 마을문화활동을 하자고 제안한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그럴 수도 있다 ④ 참여하겠다 ⑤ 적극 참여하겠다

Part 4. 지역에 대한 태도 및 만족도

16. 다음은 귀하의 지역에 대한 태도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의 동의정도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동네 사람들과 친하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나의 이웃을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해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17. 다음은 귀하의 삶의 만족도와 거주지 만족도에 관한 만족도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의 동의정도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현재의 나의 삶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내 삶이 매우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대체로 내가 생각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다시 태어난다 해도 지금처럼 살겠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내가 내 삶에서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 왔다.	①	②	③	④	⑤
내가 현재 살고 있는 동네는 거주지로 안전하고 생활하기 좋다.	①	②	③	④	⑤
내가 사는 동네는 자랑할 만하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 깊은 소속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현재 살고 있는 동네가 좋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서 계속 살아갈 예정이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서울시를 사랑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서울에 거주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앞으로도 서울에서 계속 거주할 예정이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서울시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Part 5. 지역에 대한 태도 및 만족도

18. 다음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아래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공동체 복원사업은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의미합니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복원사업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복원사업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복원사업이 현재의 서울시 여건을 고려하면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서울에는 앞으로 많은 마을단위 공동체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영문 요약 (Abstract)



A Study on the Cases and Strategies of Forming Community Culture in Seoul

Dosam La · Jung-Hyun Lee

This study is aimed at searching for a variety of community cultural activities occurring in Seoul and seeking policy measures to foster and stimulate these kinds of activities. The Seoul government has been implementing the projects to restore communities in the city.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tries to map out the policies that can help restore communities through cultural means. In addition, by analyzing each cultural activity's history and current conditions, the study aims to draw the characteristics community cultural activities exhibit.

According to the analysis conducted, the community cultural activities in Seoul are not highly frequent. In other words, they can be said to be still in the early stage. The community cultural activities in Seoul are either the natural phenomena that emerge after the restoration of village community or the voluntary activities driven by personal interest and affection for the local community designed to capture and record local characteristics. Besides these, there also exist the cultural activities which are carried out to satisfy commercial purposes or personal desire. In some cases, the governmental projects facilitate community cultural activities. In this context, we can say that the community cultural activities spotted in Seoul are still primitive.

However, this primitiveness does not mean that the effects that these activities have are insignificant. According to one of the surveys done as a part of this study, the citizens enjoying community cultural activities are found to be more satisfied with their own lives and the region they are living in. It

shows that the community cultural activities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the regional community and thereby lead to higher satisfaction with lives and the region. This is why more frequent community cultural activities are desirable.

There can be diverse approaches to the community cultural activities. Whatever approach one may take, it should be noted that ‘to restore community making use of culture’ is not an easy task to accomplish. In most cases, community cultural activities which are done by a variety of clubs come after the restoration of the regional community. In other cases, the community culture activities are personal activities which are carried out by each individual member of the regional community, for example through issuing magazines or doing broadcast.

In order to facilitate cultural activities that can encompass a whole community,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munity members is required. For this purpose, the projects promoting intimacy between the people should be encouraged and the people who personally have a lot of interest in the local community should be provided with support as well. Seoul has been trying to establish “community art studios,” “book cafes,” “local media centers,” and “community museums” but these kinds of its efforts can be described as focusing more on providing space and other material factors rather than concentrating on contents. In addition, the way the projects are run is not desirable in that the construction of those kinds of facilities have been pursued by the municipal authorities. The effort to support local community member’s more practical cultural activities is required.

Supporting local community member’s cultural activities had better not take the form of direct aid by the public sector such as financial subsidy. Rather, it is important to create the environment in which resident’s cultural activities are recognized and through the network formed by those activities an individual can find his or her own self. Additionally, the Seoul government should endeavor to find new and creative artists and support their professional careers. The policy to innovate public institutions and transform them into the open space that can hold various cultural activities should be implemented. In

short, the effort to create appropriate environment is of greater importance than the effort to provide direct aids, and the most urgent task is to establish the foundations to support a variety of cultural activities.

Concerning successful community cultural activities, resident's voluntary participation is a core factor. The policy should aim to encourage people's active participation and thereby create a dynamic local community where each member shares the responsibility to form and develop the community's own culture.

Table of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1. Theoretical Background and Purpose
2. Contents and Methodology

Chapter 2 The Concept of Community Culture

1. The Concept and the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Culture
2. The Meaning and the Significance of Community Culture
3. The Strategy and the Effort to Build Community Culture

Chapter 3 Community Cultural Activities in Place

1. Methods for Research
2. Findings : The Scenes of Community Culture and Trends

Chapter 4 Analysis on the Community Cultural Activities in Place and Survey

1. Analysis on the Community Cultural Activities in Place
2. Analysis of the Survey Results

Chapter 5 The Seoul Government's Policy Measures to Promote Community Culture and Its Drawbacks

1. The Seoul Government's Policy Measures in Place
2. The Drawbacks Found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ommunity Culture Projects

Chapter 6 Strategies to Promote Community Culture

1. Basic Direc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s
2. Strategies to Implement Community Culture Projects and Vision

Chapter 7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ces

시정연 2012-PR-17

마을문화만들기 사례와 전략 연구

발 행 인 이 창 현

발 행 일 2012년 7월 15일

발 행 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37-071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전화 (02)2149-1234 팩스 (02)2149-1025

값 8,000원 ISBN 978-89-8052-892-9 9333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속합니다.